

1. 프롤로그 - 왜 ‘프로토클록’인가

전시 도록은 언제나 가장 매끄러운 거짓말을 합니다. 화이트 큐브가 작품을 영원한 현재 속에 고립시키듯, 통상적인 아카이브는 완결된 결과물만을 남기고 그 이면에 존재했던 갈등과 오류,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소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퍼포먼스 이론가 페기 펠런(Peggy Phelan)이 지적했듯 행위는 기록되지 않는 순간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사라지며, 특히 결과물이 남지 않는 ‘비전시적 실천’-공간과의 마찰, 작가와의 논쟁, 해결되지 않은 기술적 오류-은 효율성의 이름으로 은폐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매끈한 작품집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대신 우리는 전시장 밖의 어둠 속에서, 혹은 전시가 되기 이전의 유예된 시간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증언하기 위한 기록물이 되고자 합니다. 완결된 ‘형태(Form)’가 아닌, 여전히 형성 중인 ‘상태(State)’를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매끄럽게 연결되기를 강요받는 디지털의 시대, 우리는 기꺼이 ‘마찰’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전시된 오브제의 미학적 가치가 아니라, 그 오브제가 존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조건(Condition)’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큐레이터의 작업실 ‘Unoccupied Gaps’에서 수행된 시간은 성공한 결과가 아닌 기획의 리얼리티를 증명하는 ‘증상(Symptom)’들의 기록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작동이나 물리적 제약이라는 변수는 수정해야 할 실패가 아니라, 가상성이 대체할 수 없는 물리적 실재와의 ‘생산적 마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또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견디는 동료들을 위한 ‘전술적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큐레이터는 작품을 심판하는 판사가 아니라, 상처 입기 쉬운 창작 주체들이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조건 설계자(Condition Designer)’여야 합니다. 이 책은 3차원의 물리적 공간을 2차원의 지면으로 옮겨온 ‘공간적 번역(Spatial Translation)’의

결과물이자, 서로의 생존을 위해 결핍을 공유했던 치열한 돌봄의 현장입니다. 공간을 지탱하던 거친 기둥과 좁은 틈새는 이제 책의 판형과 제본선으로 치환되었습니다. 독자가 책장을 넘기는 행위는 관객이 전시장 내부를 이동하며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던 그 순간의 현상학적 경험과 동기화됩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미시적인 시도이며,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빈틈이 많은 기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제목이 ‘아카이브’가 아닌 ‘프로토클록 북’인 이유는, 우리가 거쳐온 이 작은 틈새들이 또 다른 가능성을 위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을 거쳐 간 큐레이터와 작가들이 결핍 속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던 것처럼, 이 책을 펼치는 누군가 또한 행간의 틈새에서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발견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은 닫힌 결말이 아닌, 당신을 위해 열려 있는 소스 코드(Open Source Code)입니다.

2. 조건 설정 프로토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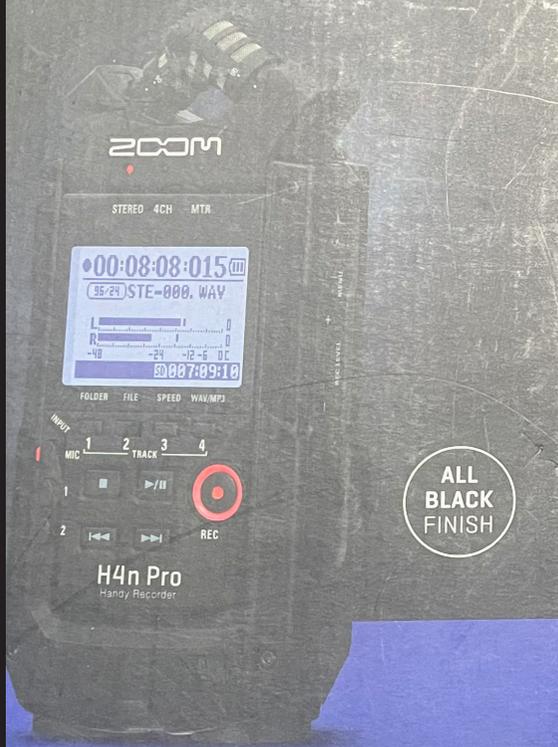
이곳 ‘Unoccupied Gaps’는 완결된 작품을 진열하는 쇼룸(Showroom)이 아닙니다. 이곳은 오히려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며, 때로는 그 가설을 폐기할 수도 있는 실험실(Laboratory)에 가깝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로의 지하 1층, 불규칙한 천장과와 높은 습도, 그리고 외부와 단절된 통신 환경은 전시에 최적화된 조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물리적 결합을 굳이 감추거나 보수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불완전함이야말로 매끄러운 화이트 큐브에서는 결코 발생할 수 없는 ‘생산적 마찰’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거친 환경을 기획을 작동시키는 ‘기본값(Default Value)’으로 설정합니다. 우리는 이 공간을 영유하지 않습니다. 큐레이터와 작가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만 이곳에 잠시 ‘기생(Parasitism)’할 뿐입니다. 이 일시적인 점유는 공간을 신성시하는 미술관의 권위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이곳을 언제든 쓰고 지울 수 있는 칠판처럼, 혹은 무언가가 되다 만 상태로 멈춰 있을 수 있는 연습장처럼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의 설치는 언제나 ‘가역적(Reversible)’이어야 합니다. 머물렀던 자들이 떠나고 나면 공간은 다시 비워지겠지만(Unoccupied), 그 벽과 바닥에 새겨진 치열했던 실험의 흔적들은 비가시적인 데이터로 남아 다음 점유자를 위한 토양이 됩니다. 우리는 포트폴리오의 매끈한 완성도만을 기준으로 작가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실험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는 ‘제약을 수용할 용기’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큐레이터의 기획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을 함께 짊어질 ‘공동 연구자’를 찾습니다. 이 과정은 언제나 조화롭지만은 않습니다. 큐레이터는 작가의 해석에 반기를 들고, 작가는 공간의 제약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적당히 융합하기보다 그 갈등을 드러내기를 택합니다. 클레어 비숍(Claire Bishop)이 말한 ‘적대적 협업(Antagonistic

Collaboration)’처럼, 우리는 서로를 향한 비평적 긴장이 기획의 밀도를 높이는 동력이 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내·외부 벽면 및 구조체에 대하여 못 박기, 타공(打孔) 등 일체의 훼손 행위를 금지한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된 이 건조하고 단호한 문장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창작의 문법을 요구합니다. 작가들은 벽을 뚫고 들어가는 대신 벽에 위태롭게 기대거나, 천장의 틈새에 매달리거나, 혹은 스스로 균형을 잡고 서 있는(Self-standing) 방식을 고안해내야 했습니다. 이 물리적 저항값은 작품이 공간에 수동적으로 걸리는 ‘대상’이 아니라, 중력과 장력을 이용하여 공간을 능동적으로 점유하는 ‘구조’로 진화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시간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는 데드라인에 맞춰 완벽한 결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립니다. 대신 오프닝이라는 시점을 완료가 아닌 과정의 일부로 설정함으로써, 작가들에게 ‘유예된 시간(Suspended Time)’을 선물합니다. 결국 이 모든 프로토콜은 큐레이터의 역할을 다시 묻는 과정으로 귀결됩니다. 큐레이터는 작품을 선별하고 평가하는 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작이 발화할 수 있는 물리적·정서적 조건을 설계하는 ‘조건 설계자(Condition Designer)’입니다. 우리는 선불리 결과를 예측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계가 오작동하도록 내버려 두고, 때로는 작가의 방향을 지켜보며 판단을 유보합니다. 우리는 통제하는 자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서로 반응하여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까지 기다리고(Wait), 돌보는(Care) 관찰자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것은 바로 그 기다림과 마찰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내린, 혹은 유예한 결정들의 목록입니다.

ZOOM | H4n Pro Handy Recorder



FOUR-TRACK AUDIO RECORDING
Music, Film, Podcasting, and Beyond

3.0 Project 00

전시를 완성된 ‘결과물’로만 소비하던 관성에서 벗어나 보고자 했습니다. 큐레이터와 작가가 치열하게 부딪히고 합의하는 그 역동적인 ‘과정’은 왜 항상 휘발되는 것일까요. ‘큐레이터의 오피스(Curator’s Office)’는 이 물음표를 실재하는 공간으로 치환해 보려는 시도였습니다. UNOCCUPIED GAPS는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굳게 닫혀 있던 기획자의 작업실을 활짝 열어젖힌 채, 작가와 함께 끊임없이 맥락을 고쳐 쓰는 ‘편집실’로서 기능했습니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효율성 대신 ‘선택과 결합’이라는 실험을 택했고, 공간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났습니다. 관객 또한 수동적인 감상자가 아닌, 공간을 점유하고 즐기는 ‘놀이하는 인간(Homo Ludens)’으로 초대를 받았습니 다. 의도적인 오독과 우연한 발견, 그리고 창작의 마찰음. 우리가 기록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날것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프로젝트 ‘ABOUT’은 정형화된 공간의 틈새(GAPS)를 파고들어, 비어있는(Unoccupied) 그곳을 창조적 점유로 채워나가는 긴 여정의 서곡이라 할 수 있습니다.





IMG_6815.jpeg



42AAE431-5DE0-4726-B8B7-E122C973AA24.jpeg



0CEA1994-43FA-4ECE-A608-FD2C3D80C6ED.jpeg



E5051439-1672-48D2-9753-25FD01B7B51C.JPEG



IMG_6773.JPG



IMG_6765.JPG

IMG_6818.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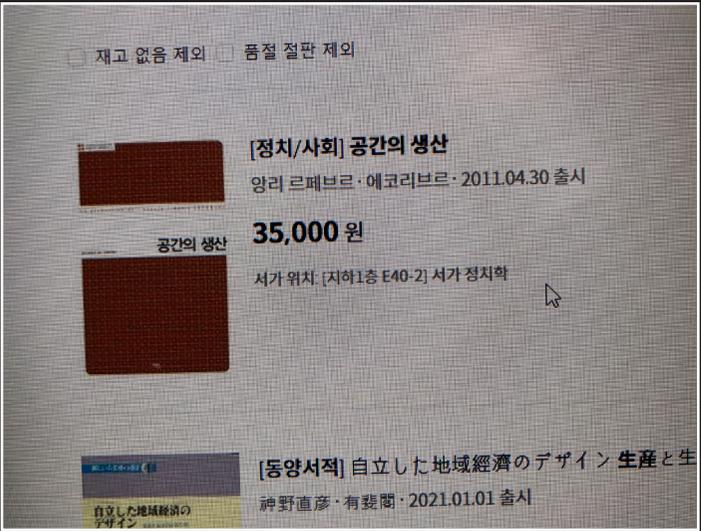


IMG_676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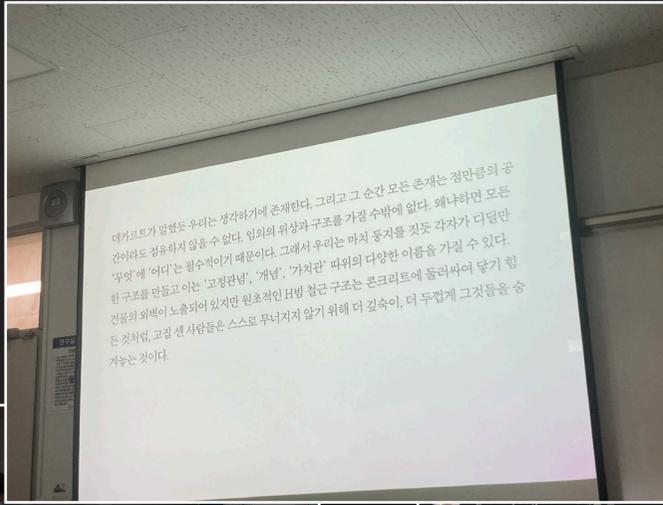
하이공인중개사사무소

하이공인중개사사무소

하이공인중개사사무소



IMG_6945.jpeg



월요일
단함

화요일
단함

수요일
단함

목요일
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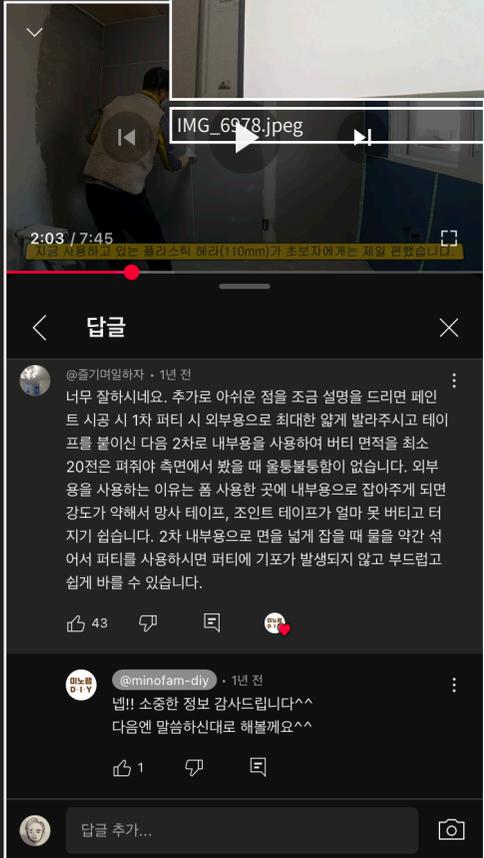
금요일
단함

토요일
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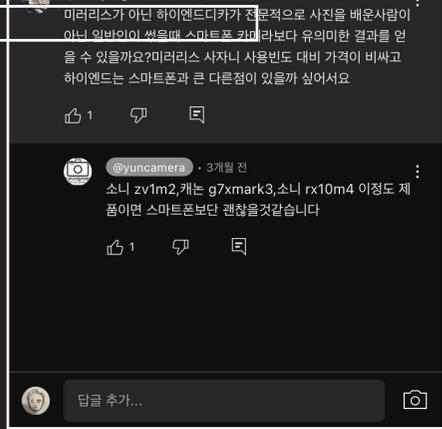
일요일
단함

*공휴일 휴무, 운영시간은 매 프로젝트마다 유동적입니다.
*Closed on holidays, hours of operation are flexible for each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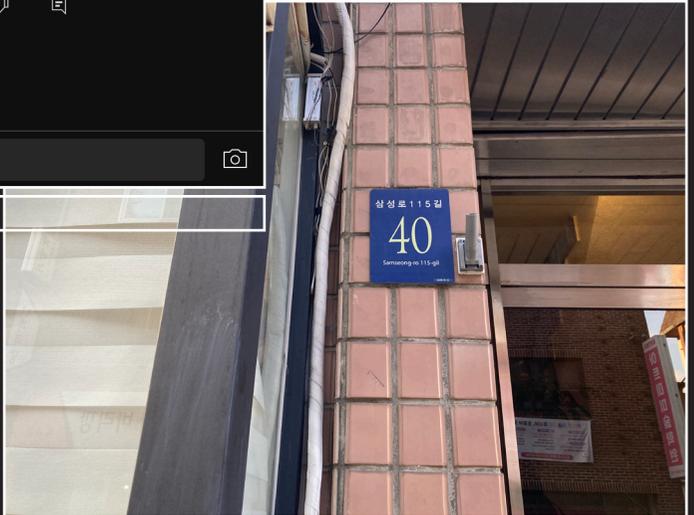
IMG_7095.jpeg



IMG_6987.PNG



IMG_7044.PNG



IMG_7345.jpeg



IMG_7045.PNG



IMG_6816.jpeg

앱 열기

Ep.1 - 큐레이터의 작업실 첫 기

Filling Gaps

오늘 · 3분

👤 📄 ⋮

"전시는 늘 결과물로만 소비되어야 할까? 큐레이터도 작 할까? 왜 큐레이터의 작업은 창작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드에서는 큐레이터 오피스라는 개념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공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시의 형태와, 실제 기획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얼마나 그리고 이런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은 어떻게 남아야 할 금 바로 들어보세요! 🗣️ 팟캐스트에 대한 의견은 인스타그램 보내주세요!

에피소드 모두 보기 >



IMG_7119.jpeg



IMG_6817.jpeg



IMG_7449.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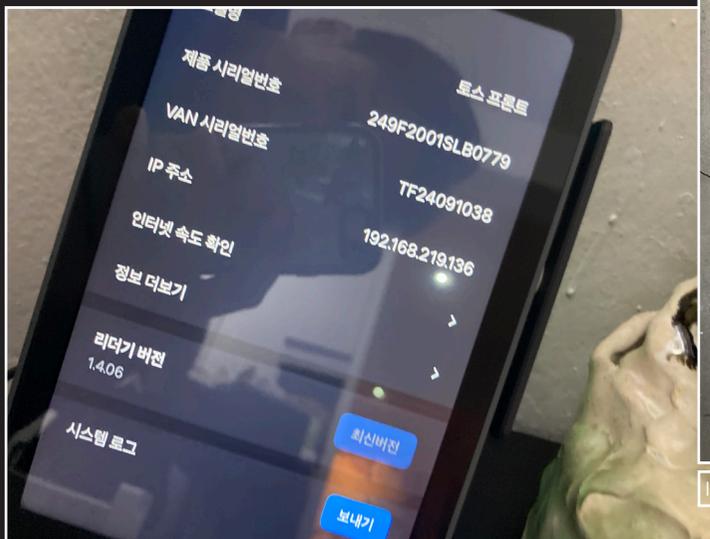
IMG_6771.JPG



IMG_6818.jpeg



IMG_6772.JPG



IMG_7412.jpeg

49%

ChatGPT 4o >

메모리 가득 참

Zoom H4n Pro는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도 충분히 추천할 만한 레코더야. 다만, 몇 가지 장단점과 팁을 고려하면 더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장점

1. 간단한 설정
 - 기기 상단에 내장된 XY 스테레오 마이크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어, 바로 녹음할 수 있어.
 - 초보자도 메뉴만 익히면 쉽게 사용할 수 있어.
2. 다양한 녹음 옵션
 - 내장 마이크와 **외부 마이크 입력(XLR/TRS 지원)**이 가능해서 초보자가 기본 설정으로 시작해, 나중에 장비를 업그레이드해도 유용해.
 - 팟캐스트, 인터뷰, 현장 녹음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
3. 휴대성
 - 크기가 작고 가벼워서 작업실, 전시장 등 어디든 들고 다니며 📍하기 좋아.

+ 메시지

IMG_7174.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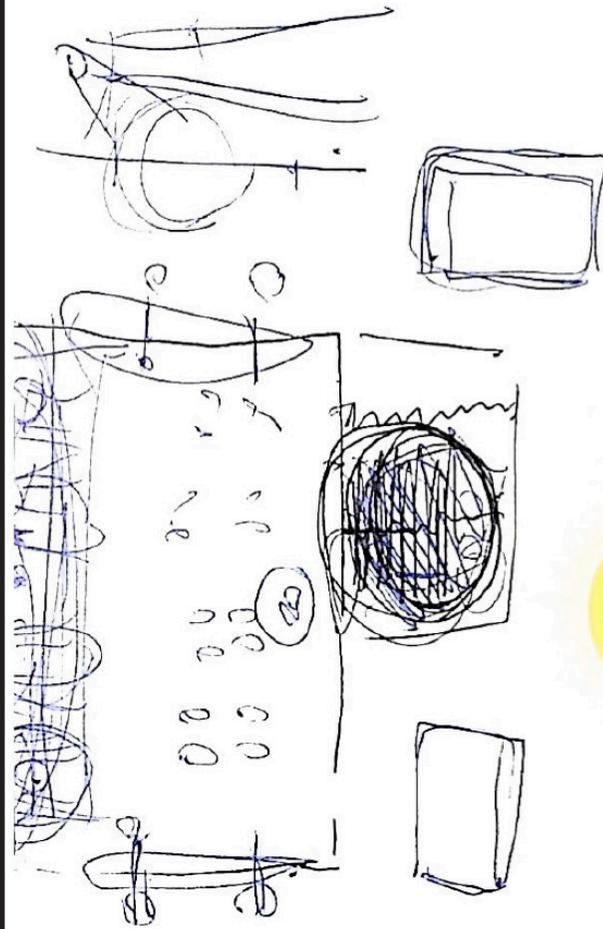
ATURDAY

bruary

중간에 내가 내린 가장 큰 단서가 있다. 아마도 여영환
 계원이었다. 그리고 그 계원에게 관련된 내리 작업
 2. 계. 즉. 작업/공간임이다. 이 점을 통해 기대하는 것보다
 3. 는 타변히 정정할 수 있는 결과물이 예상되었다. 약 10년
 4. 전 모습에 새로운 작업이 상공/상대를 귀찮게 하는 내세어
 5. 내세어 많, 정정할 통한 재시점이 있었기에 지금 이 시기에
 6. 황의 내를 위한 많은 양의 작업과 함께 고도의 내리 상황과
 7. 방안에 대해 방화해볼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 그래서,
 8. 한 때는, 현재까지, 10대 역시 나는 내리라고 판단되면 바꿀 것
 9. 이다. 원하는 것들 중 일부는 가능하지만 나는 스스로 내리까지 포기
 10. 위한 절한 요소가. 그것을 통해 되었고 냉각한다. 지금
 11. 은 그것을 실패하거나 해명할 수 있는 한나 밖에. 내리
 12. 까지 못했으면 좋을 때부터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날부터
 13. 나는 들과 들은 많은 어떤 도형이 할 것이라 예상한다.) 이
 14. 재면 원리에 응을 통해 운영하는 이 세로. 전세라는 형태로
 15. 그 과정의 정정할 행을 통해 그것을 변경하고. 현재 상황에
 16. 위한 양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또는 저수성의 프로젝트라
 17. 8. 불어되고, 개. 내지 않았다. 들을지 많. 그냥 하더라도
 18. 9. 했다. 노란 등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6년만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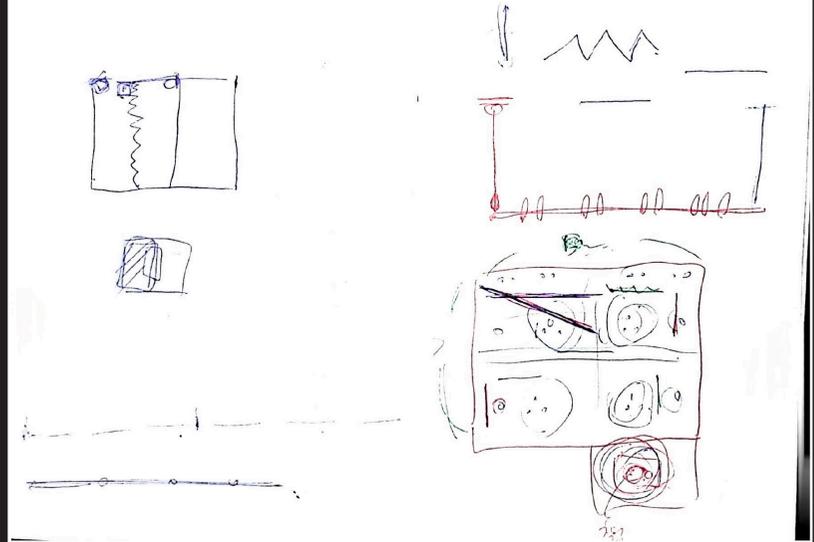
노트1.png

NOTE



노트2.png

NOTES



노트3.png



IMG_6815.jpeg

3.1 Project 01

거창한 예술 담론이 아닌, 반려견 '만두'의 굿즈를 만들고 싶다는 작가의 사적인 욕망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지극히 개인적인 출발점을 '큐레이터의 작업실'이라는 실험대 위에 올리자, 단순한 팝업 스토어를 넘어 데이터와 기술, 정서가 뒤엉킨 기묘한 장이 펼쳐졌습니다. 시츄(Shih Tzu)와 상황(Situation)을 합친 'Shihtzuation'이라는 이름은 가벼운 말장난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주한 통제 불능의 현장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실측 오류로 벽지가 울고, AI가 설계한 조각이 물리적 한계로 무너지는 등 변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오류를 수정하기보다 필연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AI에게 주도권을 넘기기도 하고, 가장 아날로그적인 손길로 '만너스'를 빚어내며 기술과 인간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조율된 전시가 아닌, 기획자와 작가, AI가 좁은 오피스에서 부대끼며 만들어낸 왁자지껄한 '점유의 기록'. 'Shihtzuation'은 결과물이 아닌, 우리가 겪어낸 즐거운 소란 그 자체였습니다.





IMG_7186.jpeg

카카오톡 채수정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문전 필독!!!

문의게시판에는 제품문의 또는 배송문의 등만 질문 부탁드립니다

1:1 전화문의 / 010-7651-9941
카카오톡 문의 / @스타그린

색감차이
생산공정 특성상 동일 모델이라도 생산 따라 색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색상다름의 이유로 반품 불가합니다.

문양배송
엘리베이터 없는 다세대 주택 또는 계단 배송해야 되는 곳일 경우 기사님 혼자서 어려울때는 같이해주세요.
(경우에 따라 사다리차 준비)

접수-포장-발송-송장업
이 단계까지 완벽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구매 시 14,700원 할인 적용!
전화문의로

장바구니 담기 바로구매

IMG_7155.PNG

오전 12:06 91%

TOFALMAT
TOFALMAT
감동인 문양의 비석재 천장 기법

직접제작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97 서울동양빌딩 124호
월: 월 7:00 ~ 19:00
토요일: 7:00 ~ 16:00

카탈매트 임조진디 푸산 방 방
직접제작 디자인 직조 직조

Tel: 091-1321
H: 010-7664-1875

0 0

IMG_7156.PNG

설명

Credits | 크레딧

- Title | 제목: The Flow of Data | 데이터의 흐름
- Composer | 작곡: Suno (AI-based platform) | Suno (AI 기반 플랫폼)
- Concept and Source Materials | 개념 및 소스 자료 (Chae Soojung)
- Original 3D data and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the artist's work | 작가의 작업에 기반한 원본 3D 데이터 작품
- Production and Direction | 제작 및 연출: 정찬용 (Changyong, Curator)
- Overall project management and music video production/editing | 프로젝트 총괄 및 뮤직비디오 제작
- Music Video Source Materials | 뮤직비디오 소스 자료
- Derived from original 3D data created by 채수정 (Soojung) | 채수정 작가의 원본 3D 데이터를 활용

Optional Note | 추가 설명

This project explores the collaborative potential between AI-generated compositions and human creativity, building on Chae Soojung's artistic framework.

본 프로젝트는 채수정 작가의 예술적 틀을 바탕으로, AI 기반 인간 창의력 간 협력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0 0

IMG_7170.PNG



IMG_7173.PNG



eg

오전 12:07 91%

m.blog.naver.com

blog 인조진디야자매트 파... Q ≡

물 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13 1

26

IMG_7157.PNG

오전 12:07 92%

파이텍스, 파일론크스

조회수 903회 2년 전 더보기

아자매트직방 133 구독

6 공유 다운로드 오픈링크 알림

댓글 1

댓글 추가...

기기 연결

이 기기로 댓글 확인, 동영상 공유 등을 하면서 TV로 계속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

IMG_7158.PNG



MG_7183.jpeg

오전 12:14 92%

m.badakjae.com

맨위로 ↑

badakjae.com 비석재기법

806 적색

badakjae.com 비석재기법

807 적흑색

장바구니 관심상품 구매하기

← → + 28 ...

IMG_7161.PNG



IMG_7181.jpeg

오후 11:46 85%

순적 적흑 회색

나 시 너 시 기 시

지금 구매 시 14,700원 할인 적용!

장바구니 담기 바로구매

IMG_7154.PNG

IMG_7184.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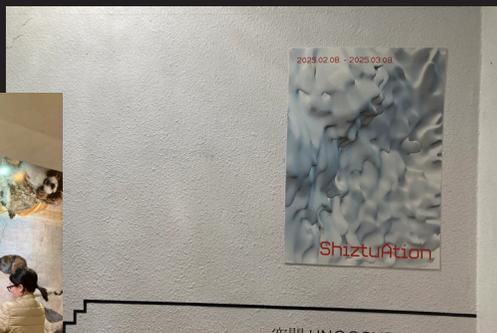
IMG_7185.jpeg



IMG_719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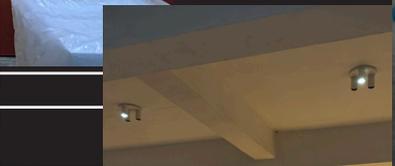
IMG_7187.jpeg



7341.jpeg



IMG_7342.jpeg



G_7188.jpeg



IMG_7343.jpeg



IMG_7191.JPG



IMG_7363.jpeg



IMG_7362.jpeg



IMG_7186.jpeg



IMG_7344.jpeg



IMG_7189.JPG



IMG_7364.jpeg

IMG_7361.jpeg



IMG_7377.jpeg



IMG_7369.jpeg



IMG_7375.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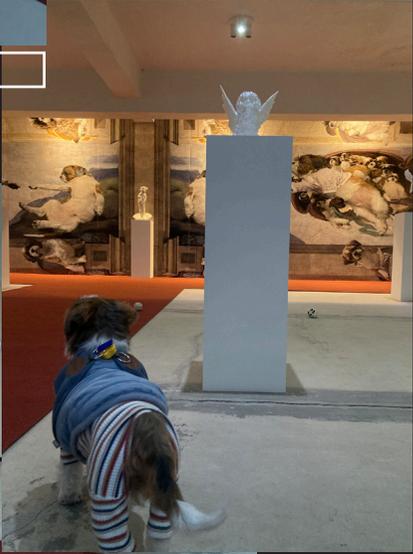
IMG_7365.jpeg



IMG_7380.JPG



IMG_7371.jpeg



IMG_7370.jpeg



IMG_7368.jpeg



IMG_7367.jpeg



IMG_7372.jpeg



6.jpeg



IMG_7374.jpeg



IMG_7378.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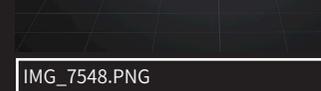
IMG_7376.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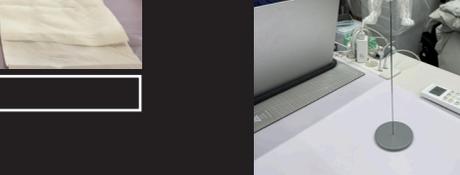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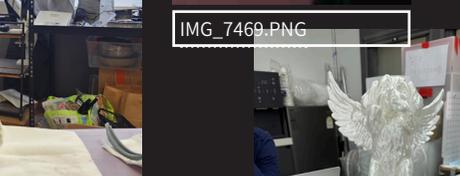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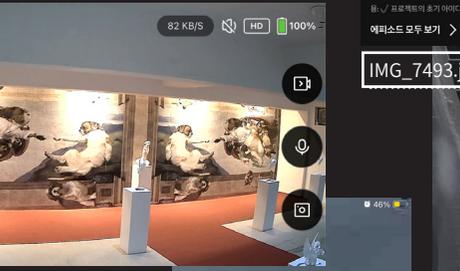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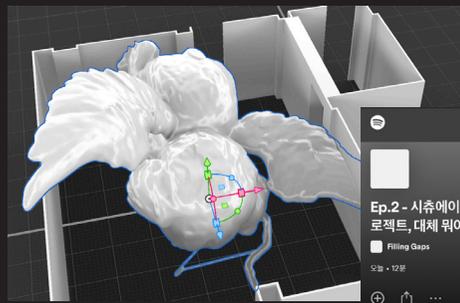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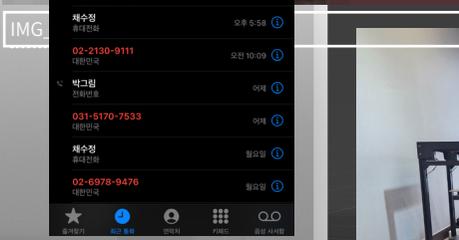
IMG_7373.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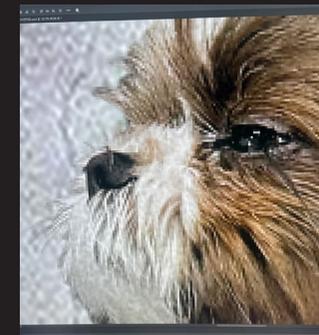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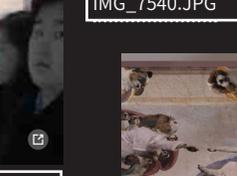
IMG_7379.JPG



KT 오후 3:36 39%



Ep.2 -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대체 뭐야? Filling Gaps 오늘 · 12분



IMG_7547.JPG



IMG_7540.JPG



IMG_7541.PNG



제목 '이지컴이지고(Easy come Easy go)'는 역설적이게도 전혀 '이지(Easy)'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5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지친 큐레이터가 던진, 사정(cum)의 중의적 의미와 조급함이 뒤섞인 농담을 작가가 쿨하게 받아치며 정해진 타이틀이었습니다. 가벼움을 표방하며 출발했지만, 준비 과정은 묵직한 충돌의 연속이었습니다. 영상 속 제의적 행위에서 페미니즘과 젠더 이슈를 읽어내려는 큐레이터와, 목격한 것을 기록했을 뿐이라며 해석을 유보하는 작가. 우리는 이 간극을 억지로 봉합하는 대신 그 팽팽한 긴장을 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10m 벽면을 채운 영상과 바닥에 툭 던져진 모니터는 미학적 연출이라기보다, 무거운 장비와 씨름하며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던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심지어 회화 작품들은 CCTV 위나 구석진 곳에 숨겨져, 관객들은 보물찾기를 하듯 시선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성의 욕망'을 다루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시선이 어떻게 충돌하고 합의해 나가는지를 가감 없이 드러낸 실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왔다가, 결코 쉽게 가지 못했습니다.

도구 표 창 도움말

자동 저장 ● 편집

그리기 디자인 레이아웃 참조 편지 검토 보

SUIT 9 가 가 Aa

가 가 간 커 x₂ x² 가 가 가

2 1 X 1 2 3 4

EasycomeEasy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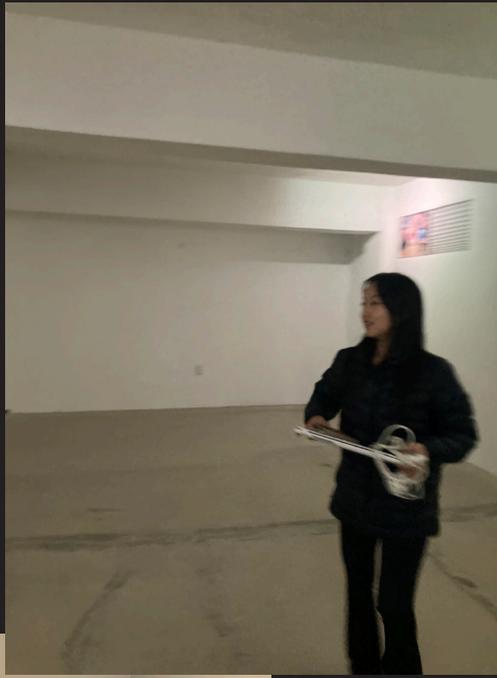
Kim Yiji

2025. 3. 15. - 4. 12.

작가
amongst the winners



IMG_6973.PNG



IMG_7555.jpeg



IMG_7551.jpeg



552.jpeg



IMG_7516.jpeg



IMG_7331.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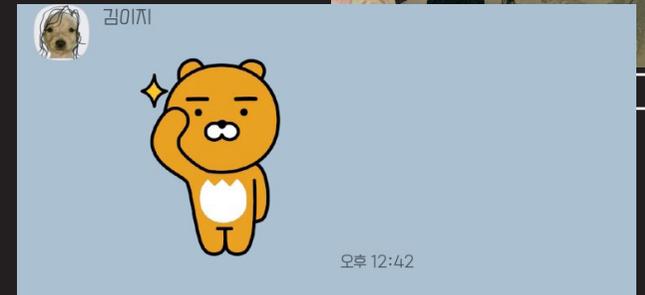
IMG_7550.jpeg



IMG_7330.jpeg



IMG_7554.jpeg



IMG_7471.JPG



IMG_7562.jpeg



IMG_7556.jpeg



MG_7569.jpeg



IMG_7561.jpeg



IMG_7557.jpeg



7568.JPG



IMG_764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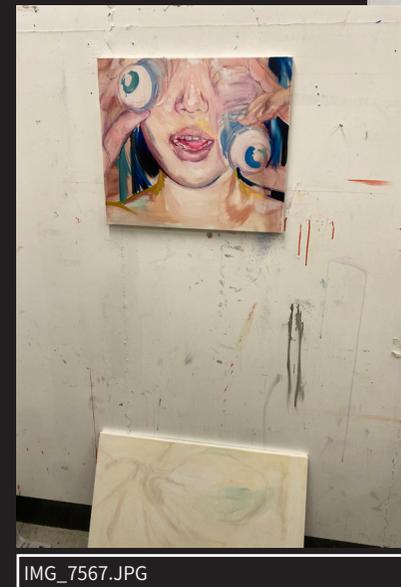
IMG_7563.jpeg



IMG_7560.jpeg



IMG_7558.jpeg



IMG_7567.JPG



IMG_7643.JPG



IMG_7559.jpeg



IMG_7852.JPG



IMG_7691.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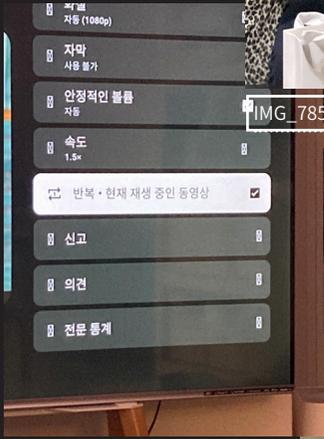
KakaoTalk Photo_2025-03-15-13-04-37-2.jpeg



IMG_7775.PNG



KakaoTalk Photo_2025-03-15-13-04-53-1.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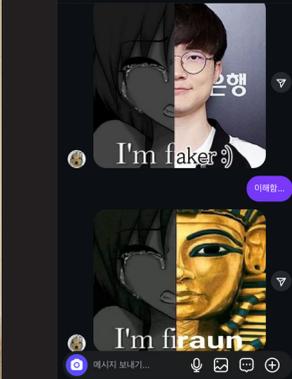
KakaoTalk Photo_2025-03-15-13-04-37-3.jpeg



KakaoTalk Photo_2025-03-15-13-04-37-4.jpeg



IMG_7854.JPG



IMG_7777.PNG



IMG_7776.PNG



KakaoTalk Photo_2025-03-15-13-04-52.png



IMG_7645.JPG

KakaoTalk Photo_2025-03-15-13-04-37-6.jpeg



홍승표 교수님

전시 축하합니다. 꼭 보러갈게요. 근데 전시 제목이 ㅎㅎ

오후 2:0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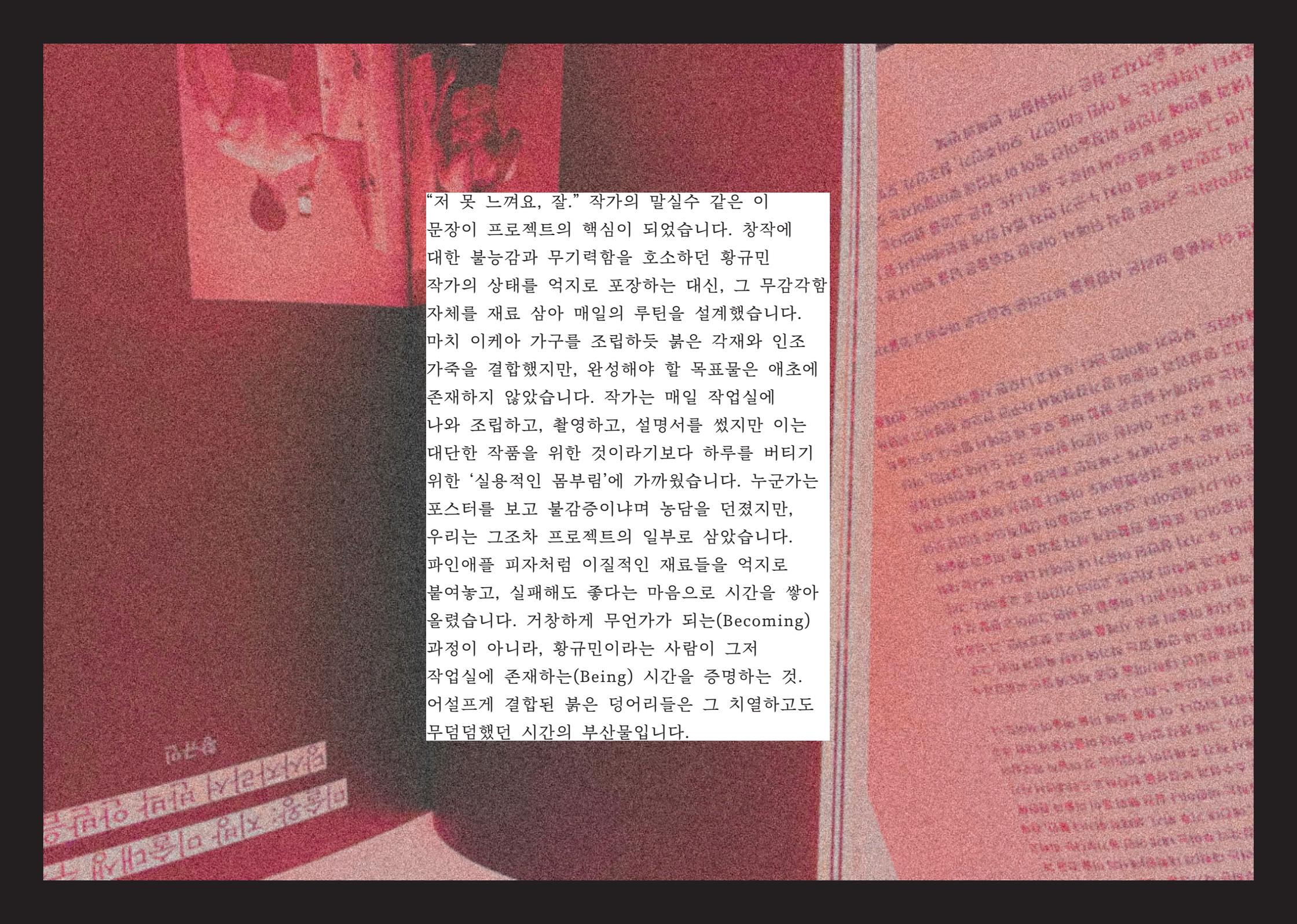
한경우 교수님

축하한다 제목 좋은데 ㅎㅎ

오후 2:0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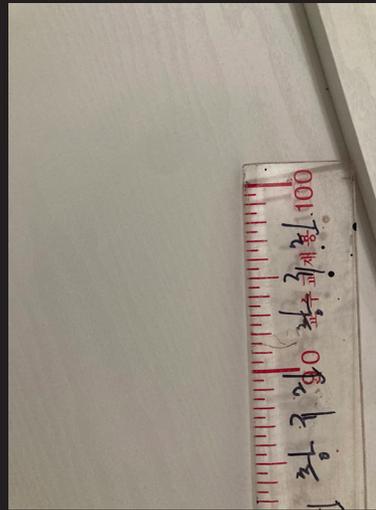
KakaoTalk Photo_2025-03-15-13-04-03.jpeg



“저 못 느껴요, 잘.” 작가의 말실수 같은 이 문장이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창작에 대한 불능감과 무기력함을 호소하던 황규민 작가의 상태를 억지로 포장하는 대신, 그 무감각함 자체를 재료 삼아 매일의 루틴을 설계했습니다. 마치 이케아 가구를 조립하듯 붉은 각재와 인조 가죽을 결합했지만, 완성해야 할 목표물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작가는 매일 작업실에 나와 조립하고, 촬영하고, 설명서를 썼지만 이는 대단한 작품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하루를 버티기 위한 ‘실용적인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는 포스터를 보고 불감증이냐며 농담을 던졌지만, 우리는 그조차 프로젝트의 일부로 삼았습니다. 파인애플 피자처럼 이질적인 재료들을 억지로 붙여놓고, 실패해도 좋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쌓아 올렸습니다. 거창하게 무언가가 되는(Becoming) 과정이 아니라, 황규민이라는 사람이 그저 작업실에 존재하는(Being) 시간을 증명하는 것. 어설프게 결합된 붉은 덩어리들은 그 치열하고도 무덤덤했던 시간의 부산물입니다.



IMG_0042.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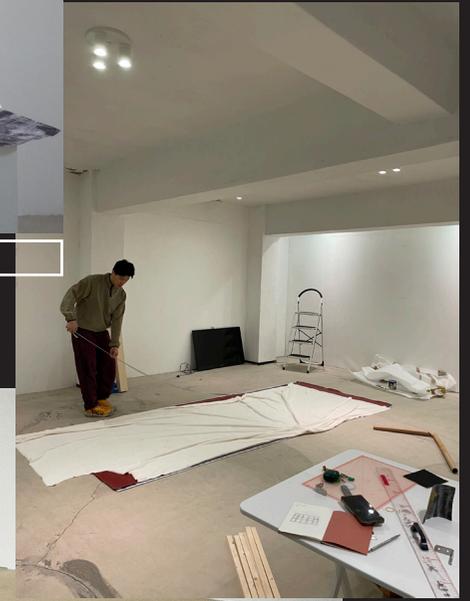
IMG_7861.jpeg



DSC0265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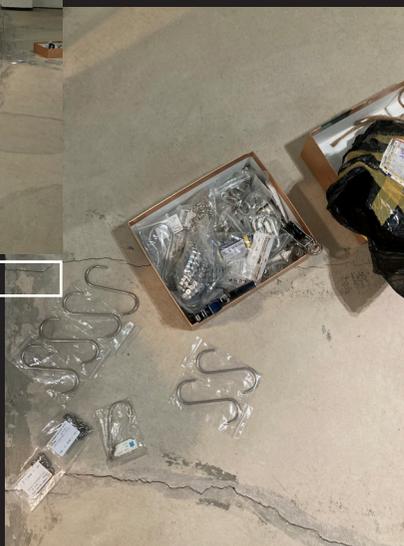
IMG_0017.jpeg



IMG_0016.jpeg



IMG_7859.jpeg



IMG_7860.jpeg



930.JPG

KT 7:11 23%

오류 7:11 23%

← + @ ...

건축작품 명: **화양만 되기**
 (Becoming the Hwawang
 [Gyumannim])

목표: 최대한의 정량적/객관적 작업 프로세스 형성을 통해 작가 개인과 작업에 대한 인식을 재고.

25/02/11
 -정량적 구체화
 1) 재물 파악하기 (작업실 기준)
 2) 작업실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재료(도구 제외)를 파악해본다.
 3) 옷 파악하기 (자취방 기준)
 4) 신발 파악하기 (자취방 기준)
 5) 레시미 정확하게 파악하기 (작업실 기준)
 6) 현재까지의 모든 '작품' 리스트 정리하기

정찬웅
 nyongcha@gmail.com

IMG_7359.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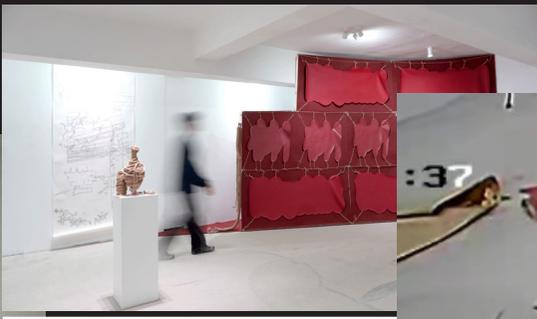
IMG_7965.PNG



IMG_7931.JPG



IMG_7975.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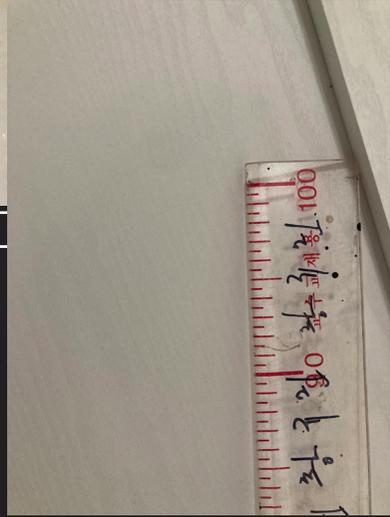
IMG_7972.PNG



IMG_7942.jpeg



IMG_7930.JPG



IMG_7861.jpeg



IMG_7932.JPG



IMG_7973.jpeg



IMG_7974.jpeg



IMG_7941.jpeg

* 틈 ⊕ 판잡이 ⊕ 문
↳ key concept

* 틈

- + 문 틈 사이로 들어가는 / 나가는 빛
- + 문 틈 사이로 볼 수 있는 반대편 틈
- + 문 틈, 문 사이 → 편 틈으로 보는 바

↳ 넓은 곳에서 편 틈은 보

+ 틈이 생길 때

- 판잡이를 잡고 문을 열자마자 / 닫기 끼어버린 해프닝은 "틈을 만들려다 틈에
- 덜 닫혀있을 때 = 조금 열려있을 때 끼어버렸다"는 작가의 농담처럼 이번 전시가

+ 문 틈 사이에 긴 모래막 → 어렸을

* 판잡이 (grab)

- + 다양한 질감의 (형태의) 판잡이
- + 문 제외 다른 공간에도 배치

시멘트 sculpture 사이의 틈.

* 의서형

- + 앞에서 밖을 볼 수 있는 레노
- + 문 틈 사이로 바깥 ~~밖~~ 햇빛과 비
- + 문을 열지 않고 바깥 탐색
- 보양, 안경, 신발 노들 원하지 X

* 문

+ 일종의 개별성

관람하면서 두 개의 공간이 나타나 된다.

틈을 때 각도는 보인이 정함

도퍼를 활용하는 경우 포함?

틈

도퍼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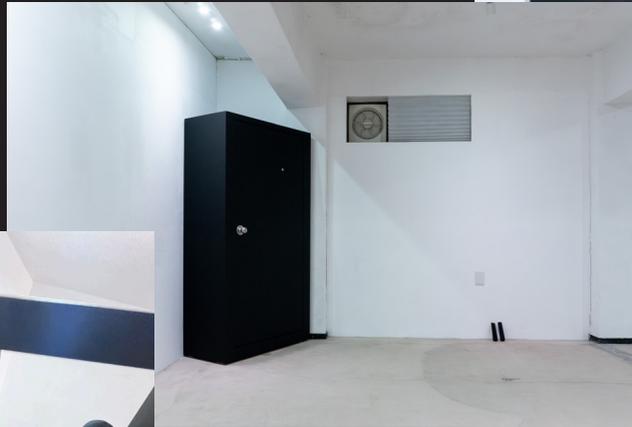
공간을 들이세기 전 문과의, 공간과의 약속.

더러 벽/바닥/천장에 붙어있다면?

영국 유학을 마치고 갓 귀국한 송민서 작가를 초대한 건, 그의 작업이 주는 '어색한 악수' 같은 긴장감이 이 공간과 묘하게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악을 상상해서인지 생각보다 깔끔하다"는 작가의 솔직한 첫인상처럼, 못 하나 박기 힘든 척박한 환경은 오히려 작가에게 문과 벽 사이의 '틈'을 공략하는 영감이 되었습니다. 설치 당일, 대형 오브제가 계단 코너에 딱 맞추어 버린 해프닝은 "틈을 만들려다 틈에 마주한 아이러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시멘트처럼 무거워 보이지만 허무할 정도로 가벼운 <Care>, 무언가를 쥐기 위해서가 아니라 닿기 직전의 머뭇거림을 형상화한 'Grab' 시리즈. 우리는 관객들에게 "더 가지고 놀아달라"고 주문했지만, 사실 그들이 만지기를 주저하며 서성이는 그 순간마저도 전시의 일부였습니다. 무언가를 확실히 붙잡는(Grip) 결말보다, 그 직전의 망설임과 어긋남이 반복되는 과정 자체가 이번 프로젝트의 본질이었습니다.



E3468AF7-730D-477C-8692-1C37DE7FD67D.jpeg



IMG_8144.JPG



IMG_8146.JPG



IMG_8106.jpeg



IMG_0205.JPG



10:59

upiedgaps

z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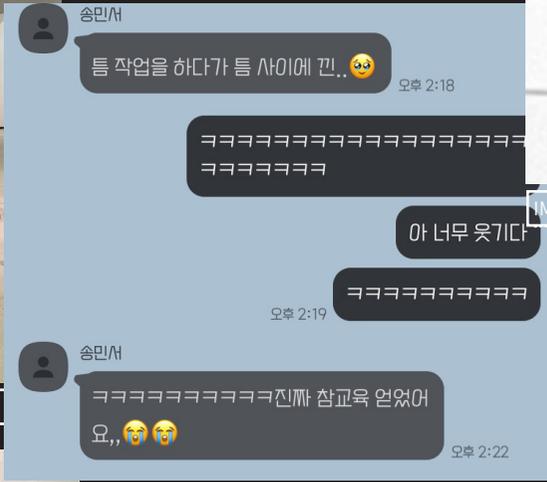
G



IMG_814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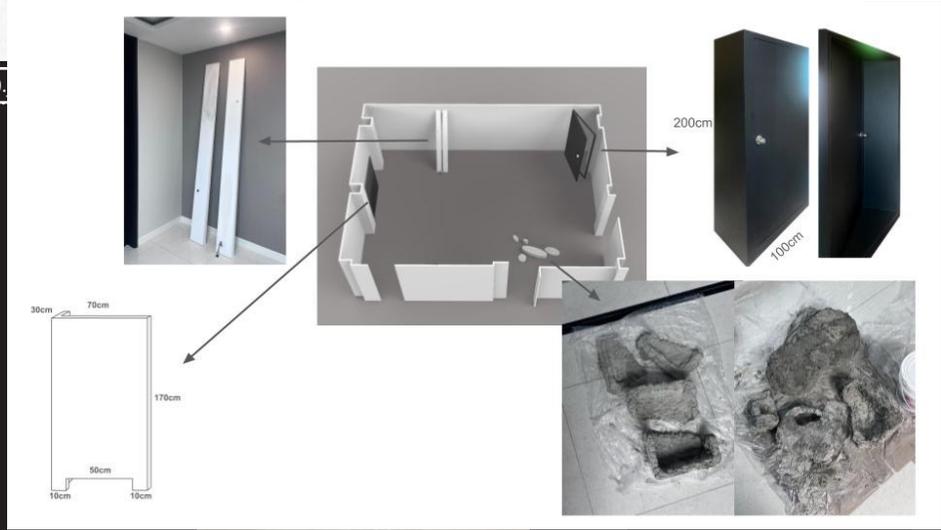


IMG_8155.jpeg



IMG_8152.JPG

* 틈 ⊕ 판공이 ⊕ 문
↳ key concept



IMG_8149.JPG



IMG_8156.jpeg



IMG_8158.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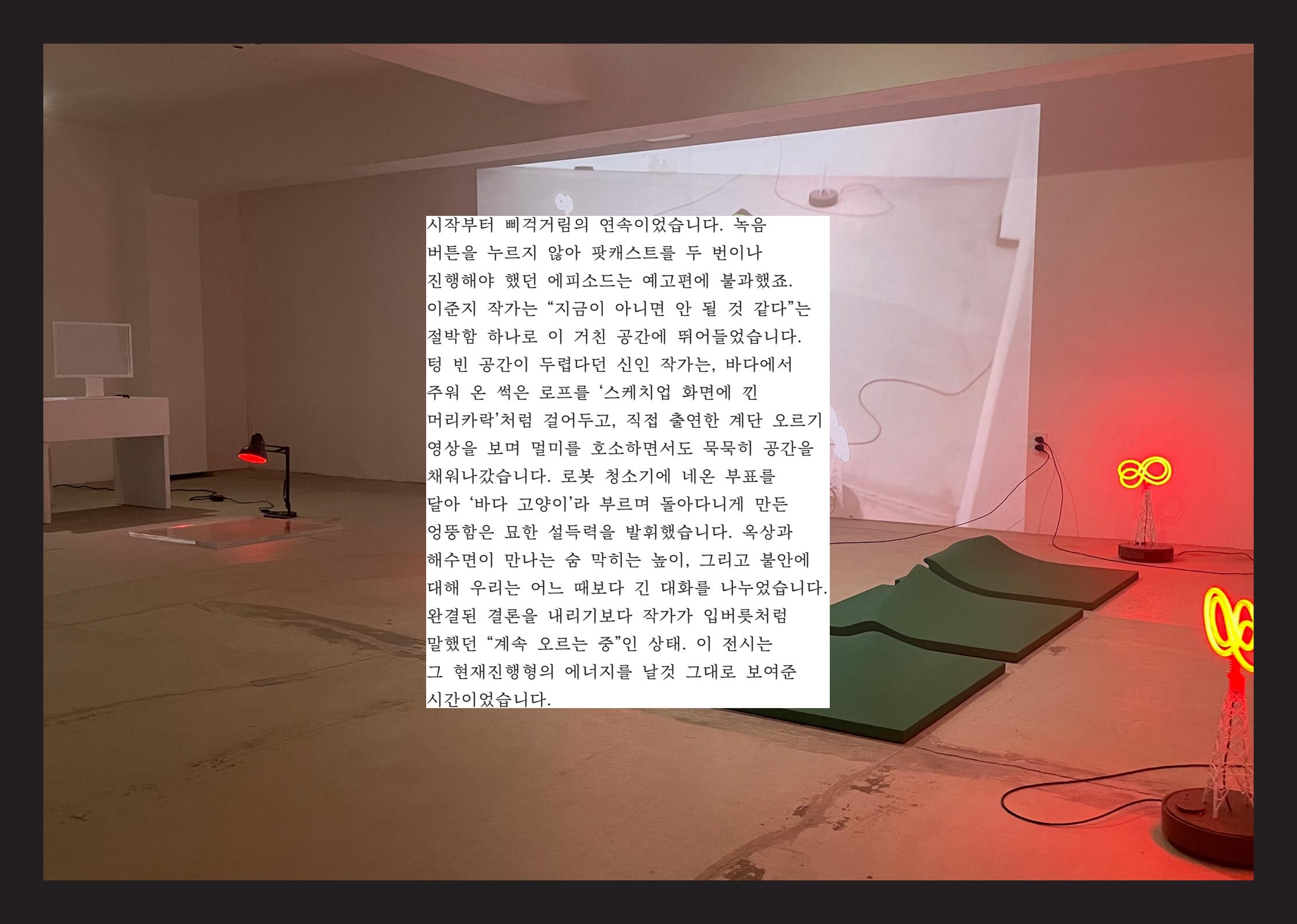


IMG_8157.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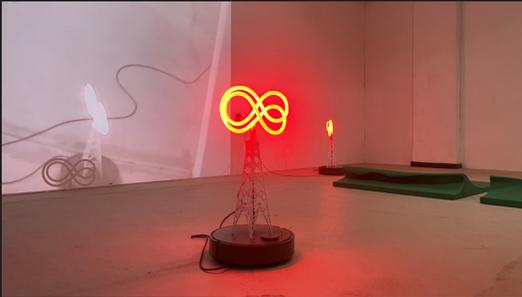


IMG_8214.PNG

IMG_8215.jpeg



시작부터 삐걱거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아 팟캐스트를 두 번이나 진행해야 했던 에피소드는 예고편에 불과했죠. 이준지 작가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절박함 하나로 이 거친 공간에 뛰어들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 두렵다던 신인 작가는, 바다에서 주워 온 썩은 로프를 ‘스케치업 화면에 낀 머리카락’처럼 걸어두고, 직접 출연한 계단 오르기 영상을 보며 떨미를 호소하면서도 묵묵히 공간을 채워나갔습니다. 로봇 청소기에 네온 부표를 달아 ‘바다 고양이’라 부르며 돌아다니게 만든 엉뚱함은 묘한 설득력을 발휘했습니다. 옥상과 해수면이 만나는 숨 막히는 높이, 그리고 불안에 대해 우리는 어느 때보다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완결된 결론을 내리기보다 작가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계속 오르는 중”인 상태. 이 전시는 그 현재진행형의 에너지를 날것 그대로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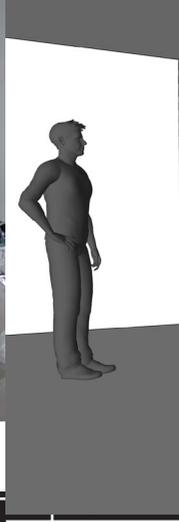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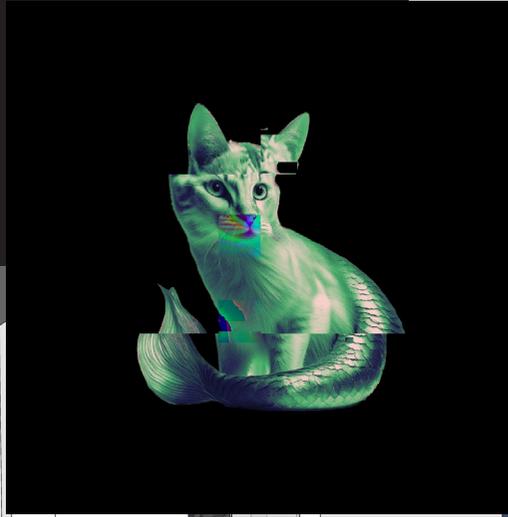


FB5642BD-0939-4795-BCD5-3A7E6746837A.JPEG

87%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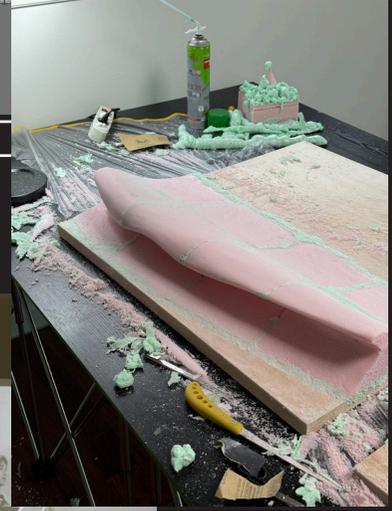
KB/S



IMG_7941.JPG



PG



KakaoTalk_Photo_2025-05-12-16-50-19 003.jpeg

KT 오후 11:05 12%

2025년 장마철기간 예측

2025년의 장마철은 작년과 유사하게 한 달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장마란 일본, 한국,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에서 여름 동안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장마 기간 예측 기간

시작일 2025년 6월 20일

종료일 2025년 7월 20일

장마철에 내리는 비는 전체 연 강수량의 약 3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시기입니다.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기 때문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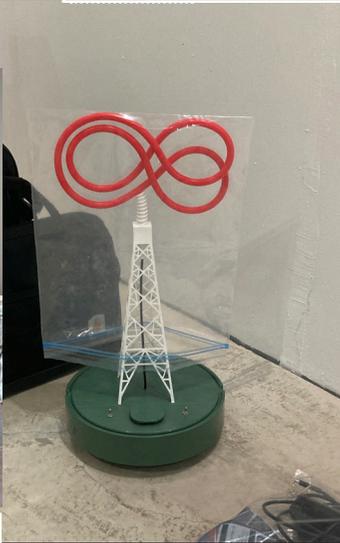
한국 장마와 강수

← →

IMG_6868.PNG



KakaoTalk_Photo_2025-05-12-16-50-20 004.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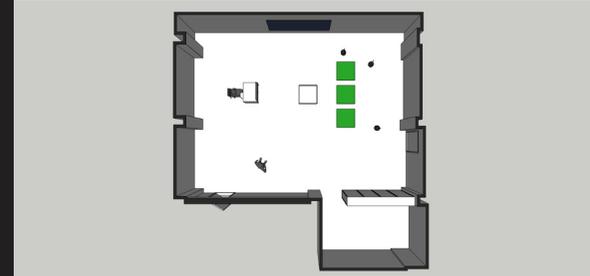


IMG_8228.jpeg



IMG_8226.JPG

IMG_8227.JPG



IMG_7938.JPG



IMG_8237.jpeg



IMG_82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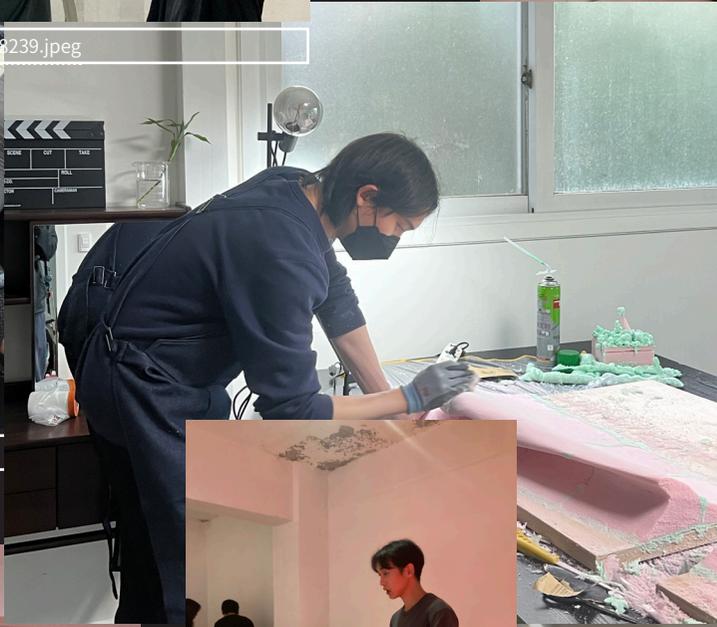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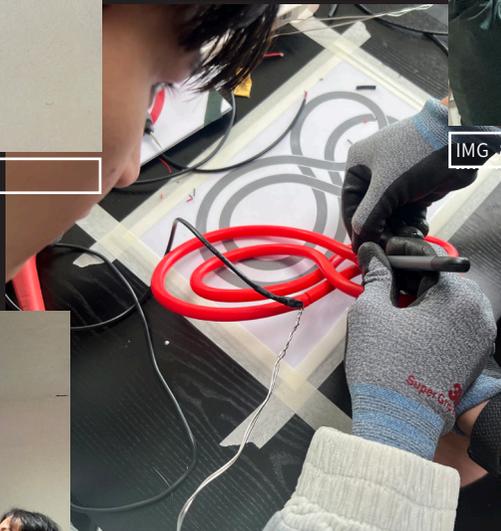
IMG_8239.jpeg



IMG_8246.jpeg



IMG_8247.jpeg



242.JPG



IMG_8243.jpeg



IMG_8238.jpeg



IMG_8249.jpeg



IMG_8244.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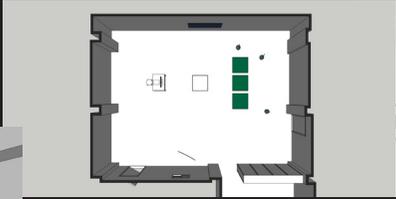
IMG_8248.jpeg



IMG_8345.JPG



KakaoTalk_Photo_2025-05-12-16-49-42 007.jpeg



KakaoTalk_Photo_2025-05-12-16-49-42 004.jpeg



KakaoTalk_Photo_2025-05-12-16-50-00 005.jpeg



KakaoTalk_Photo_2025-05-12-16-50-20 006.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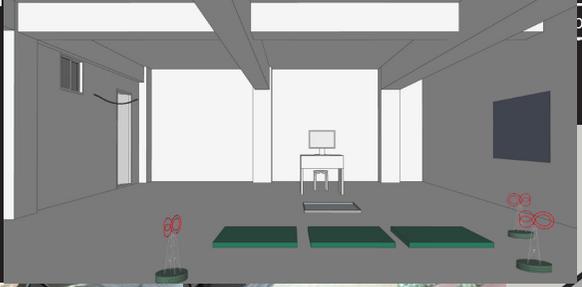
KakaoTalk_Photo_2025-05-12-16-50-21 009.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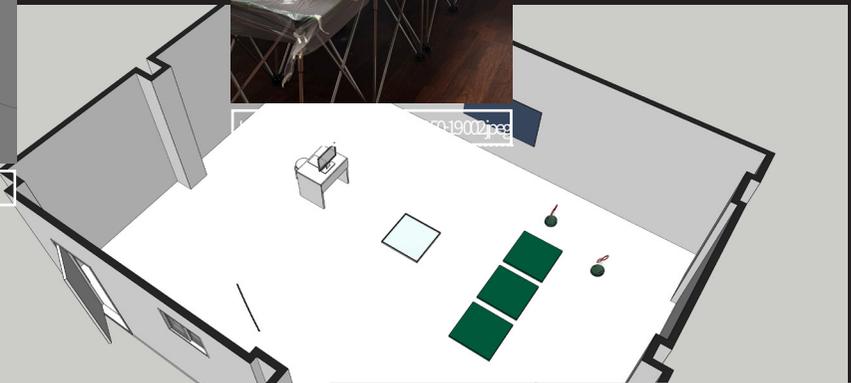
KakaoTalk_Photo_2025-05-12-16-49-42 008.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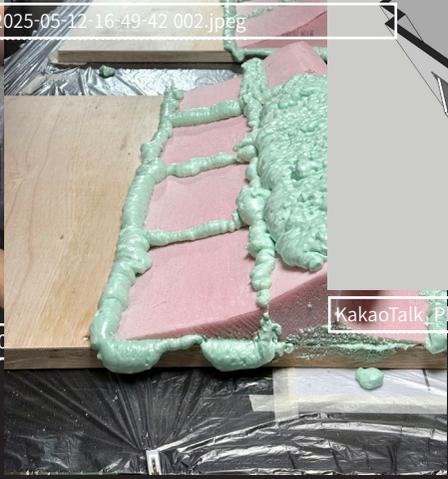
KakaoTalk_Photo_2025-05-12-16-49-42 002.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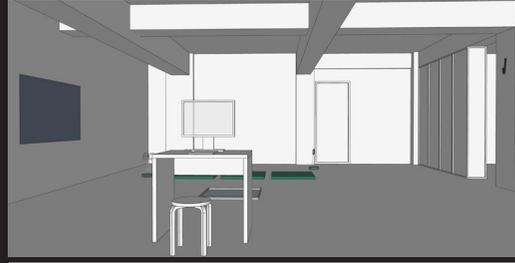
KakaoTalk_Photo_2025-05-12-16-49-42 002.jpeg



KakaoTalk_Photo_2025-05-12-16-49-42 006.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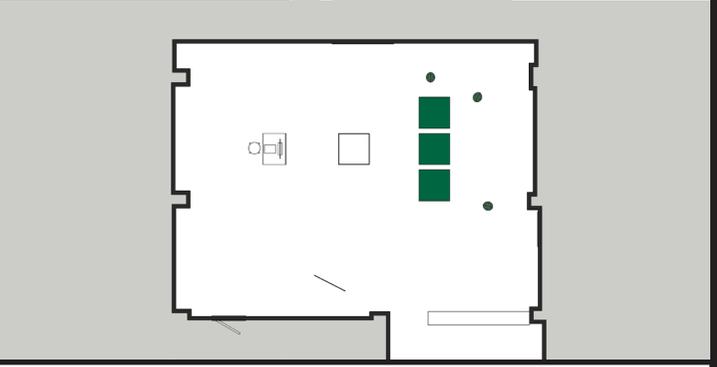
KakaoTalk_Photo_2025-05-12-16-50-21 007.jpeg



KakaoTalk_Photo_2025-05-12-16-49-41 001.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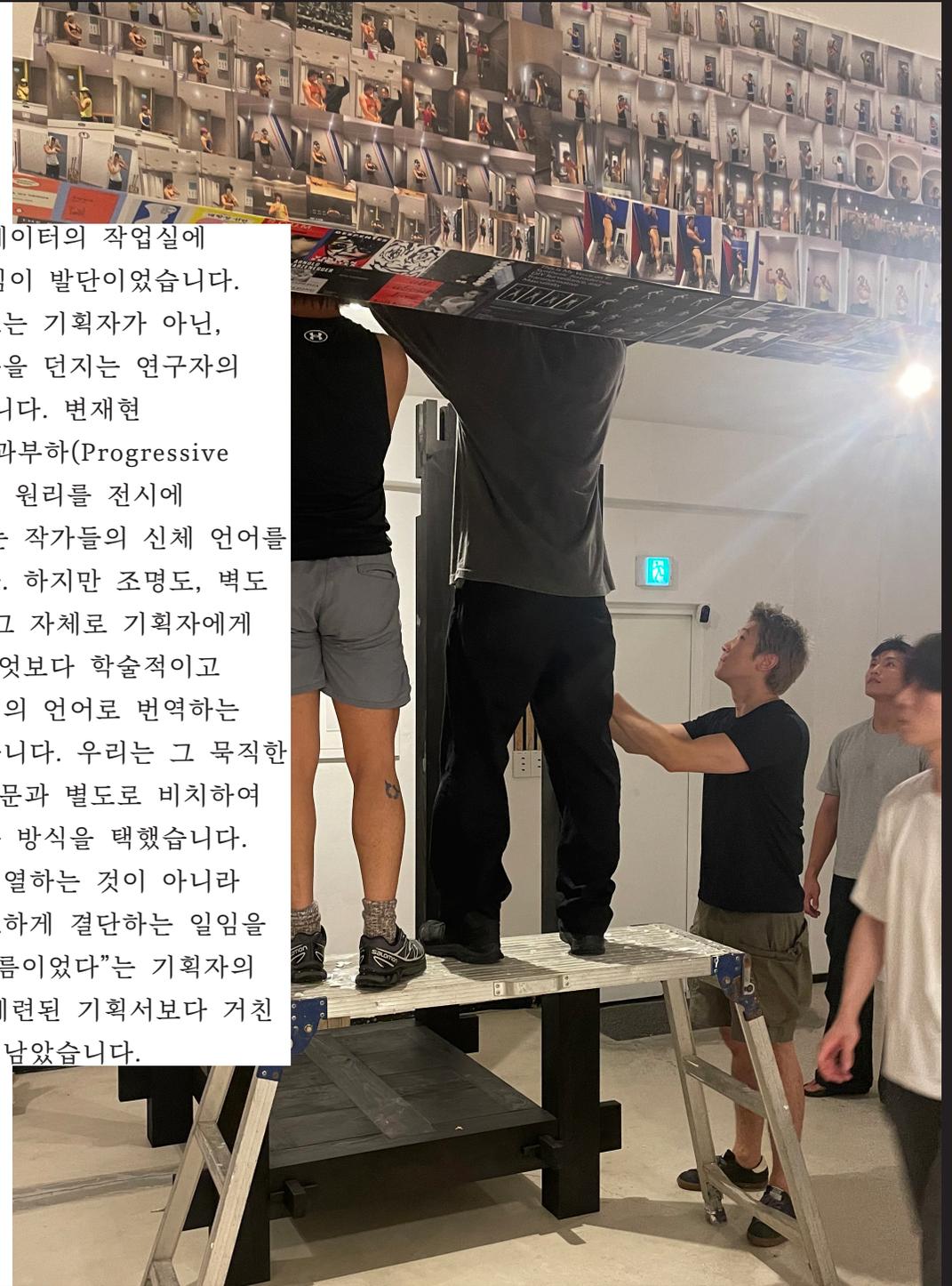
KakaoTalk_Photo_2025-05-12-16-50-22 003.jpeg



KakaoTalk_Photo_2025-05-12-16-49-42 005.jpeg



‘작가가 아닌 이론가가 큐레이터의 작업실에 들어온다면?’ 단순한 호기심이 발단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끈한 전시를 만드는 기획자가 아닌, 그 앞단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연구자의 태도에 집중해보고자 했습니다. 변재현 기획자와 함께한 《점진적 과부하(Progressive Overload)》는 근육 성장의 원리를 전시에 대입하여, 실제로 ‘운동’하는 작가들의 신체 언어를 전시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조명도, 벽도 열악한 ‘작업실(GAPS)’은 그 자체로 기획자에게 엄청난 과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학술적이고 치밀한 기획자의 글을 전시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인 글을 쳐내는 대신, 전시 서문과 별도로 비치하여 서로의 다름을 나란히 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기획이란 단순히 작품을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단호하게 결단하는 일임을 깨달았던 시간. “뜨거운 여름이었다”는 기획자의 회고처럼, 이 프로젝트는 세련된 기획서보다 거친 숨소리에 가까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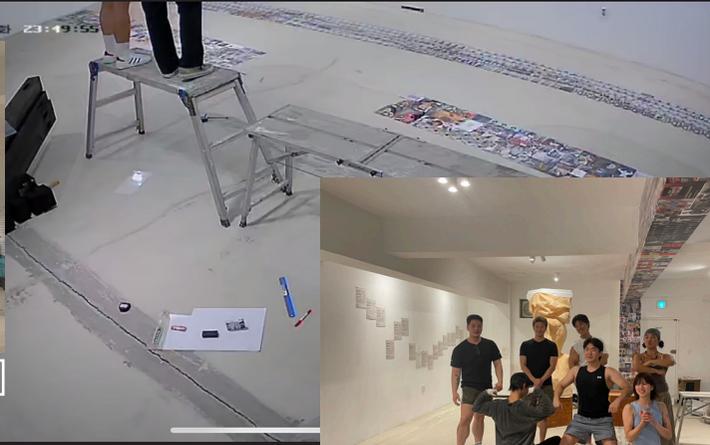




IMG_0637.jpeg



IMG_0647.jpeg



IMG_0628.PNG



IMG_0720.PNG



IMG_0648.j



IMG_0636.jpeg



IMG_0649.jpeg



IMG_0639.jpeg



IMG_0635.jpeg



IMG_0642.jpeg



IMG_0641.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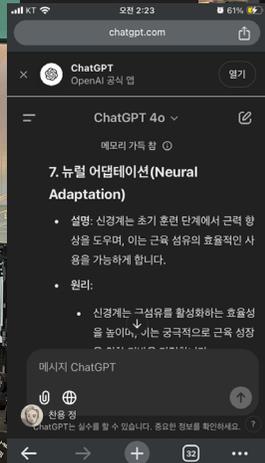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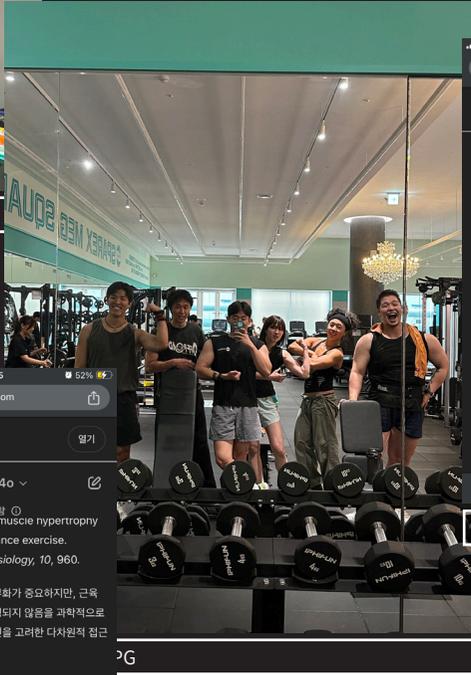
IMG_0640.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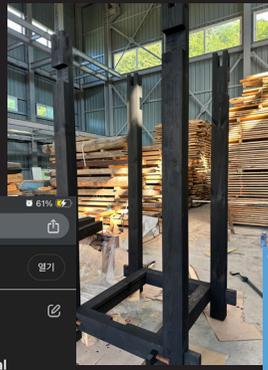
IMG_0646.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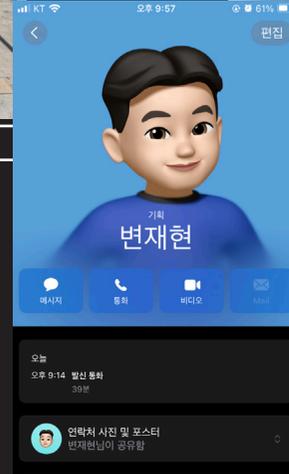
IMG_8296.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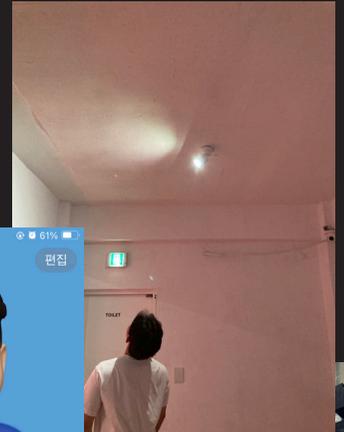
IMG_6866.PNG



4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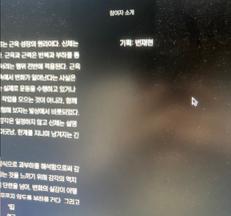


95.jpeg



IMG_8342.JPG

IMG_0720.PNG



IMG_8292.jpeg



IMG_6865.PNG



IMG_8298.jpeg



IMG_8299.jpeg

IMG_8297.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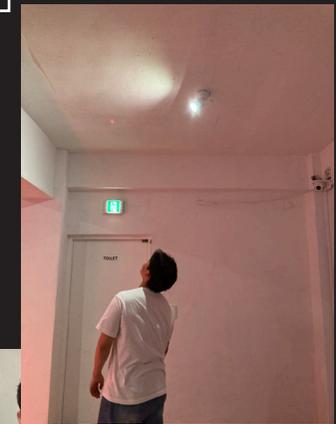


IMG_8293.jpeg



IMG_7328.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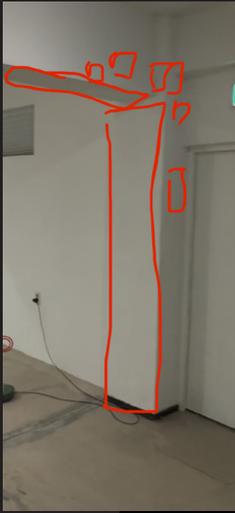
IMG_8283.PNG



IMG_8294.jpeg



IMG_8300.jpeg



IMG_8351.JPG

4:48

Seoul - Samseong2-
Sunday 3:29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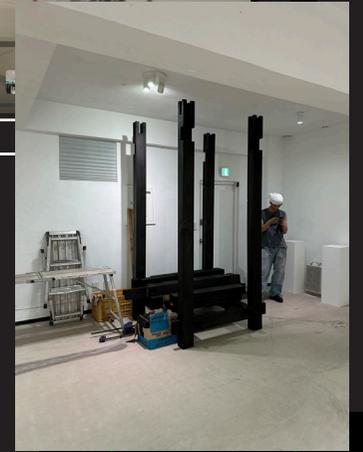
IMG_8343.JPG

| 28 | 29 | 30 | 31 | 1 |
|----|----|----------|--------|-------|
| | | 작업 일자 | | 안당 촬영 |
| | 서준 | 10:00 구민 | 공저(확인) | |
| | 타 | 10:00 티 | | |
| | | 14:00 서준 | | |
| | | 14:00 공제 | | |
| | | 15:00 허은 | | |
| | | 16:30 성국 | | |

IMG_8344.JPG



IMG_835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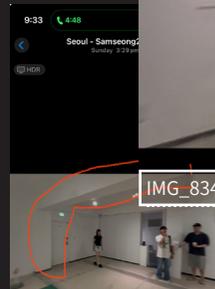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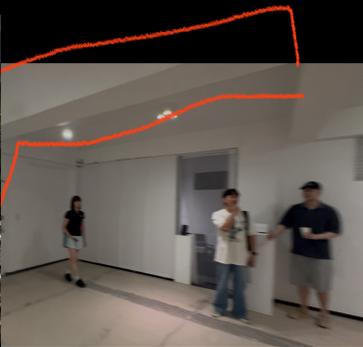


IMG_835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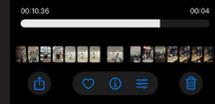
Seoul - Samseong2-dong
Sunday 3:29 pm



IMG_8358.JPG



IMG_8346.JPG



IMG_8348.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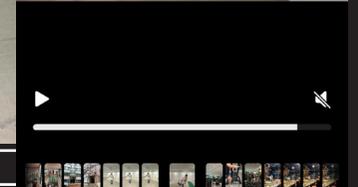
IMG_8356.JPG



IMG_8357.JPG



IMG_8355.JPG



IMG_8349.JPG

00:10:36

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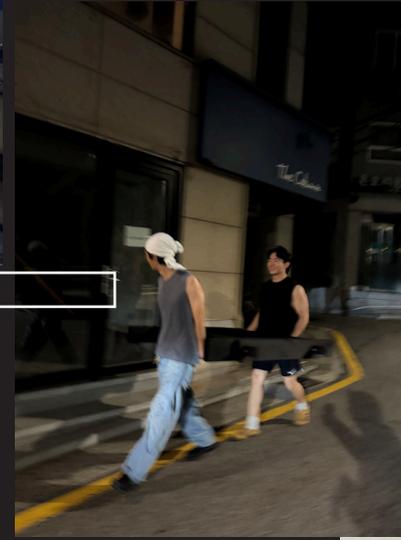
IMG_8348 2.JPG



IMG_8359.JPG



IMG_8360.JPG



IMG_8362.JPG



IMG_8364.jpeg



IMG_8365.jpeg



IMG_8366.jpeg



IMG_8367.jpeg



IMG_8361.JPG



IMG_8363.JPG



IMG_8368.jpeg



IMG_8370.jpeg



IMG_8369.jpeg



IMG_8378.jpeg



IMG_8373.jpeg



IMG_8379.jpeg



IMG_8372.jpeg



IMG_8380.jpeg



IMG_8371.jpeg



IMG_8374.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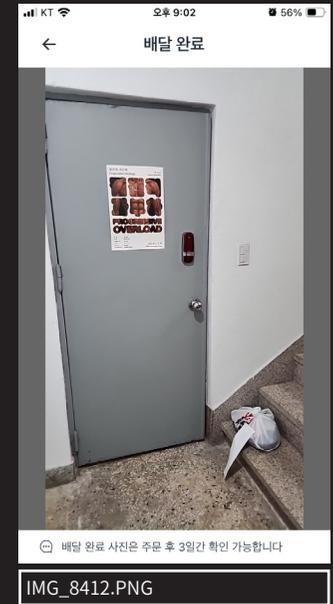
IMG_8376.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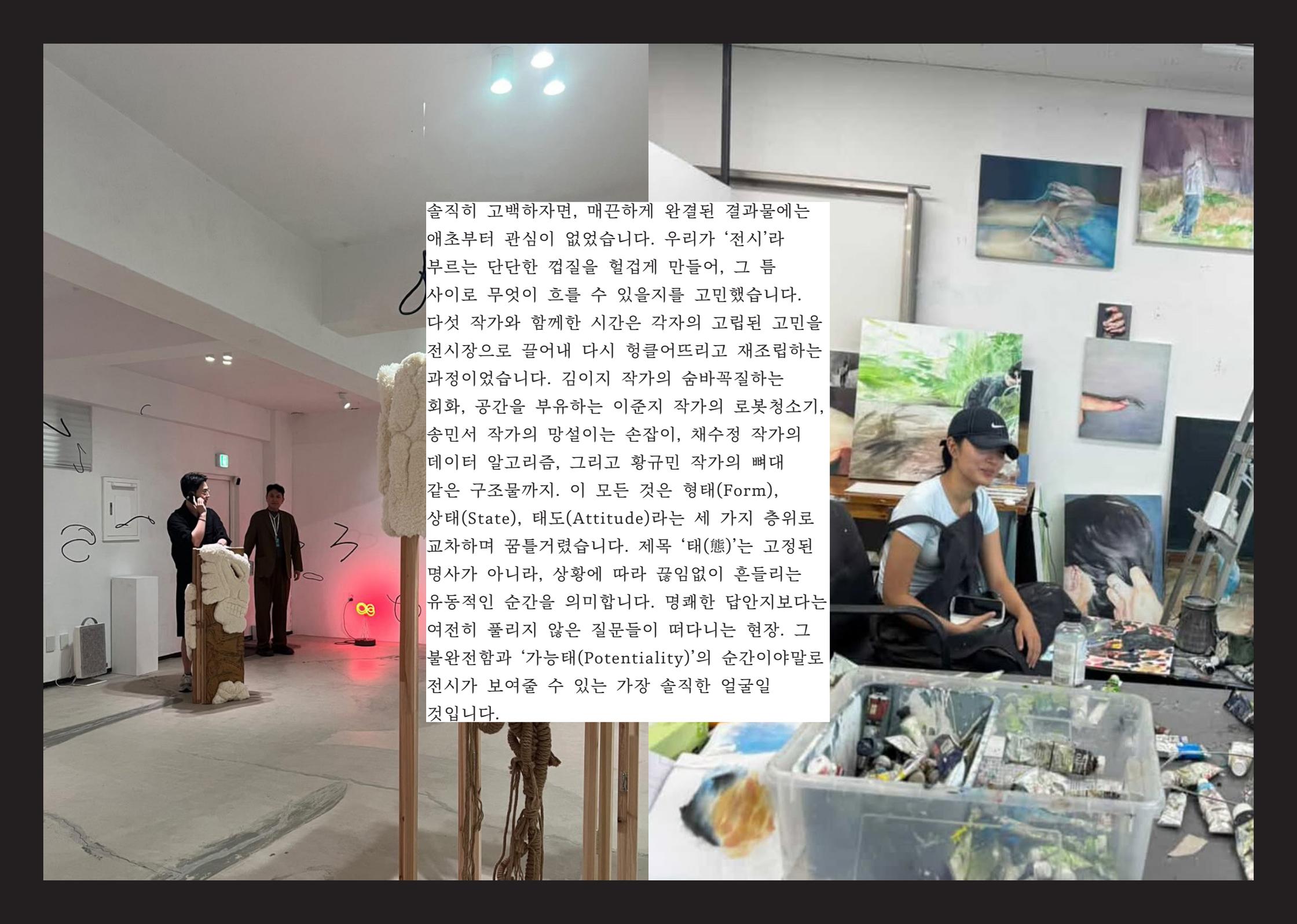
TalkMedia_i_08f4eec6ad41.jpeg.JPG



IMG_8375.jpeg



IMG_8412.PNG



솔직히 고백하자면, 매끈하게 완결된 결과물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시'라 부르는 단단한 껍질을 헐겁게 만들어, 그 틈 사이로 무엇이 흐를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다섯 작가와 함께한 시간은 각자의 고립된 고민을 전시장으로 끌어내 다시 헐켜어뜨리고 재조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김이지 작가의 솜바꼭질하는 회화, 공간을 부유하는 이준지 작가의 로봇청소기, 송민서 작가의 망설이는 손잡이, 채수정 작가의 데이터 알고리즘, 그리고 황규민 작가의 뼈대 같은 구조물까지. 이 모든 것은 형태(Form), 상태(State), 태도(Attitude)라는 세 가지 층위로 교차하며 꿈틀거렸습니다. 제목 '태(態)'는 고정된 명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흔들리는 유동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명쾌한 답안지보다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떠다니는 현장. 그 불완전함과 '가능태(Potentiality)'의 순간이야말로 전시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얼굴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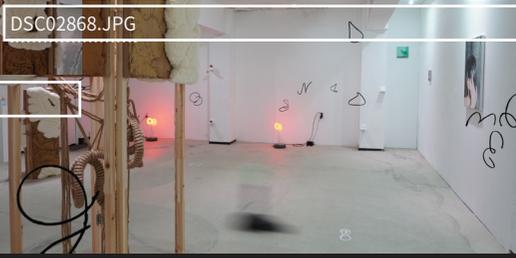
DSC02877.JPG



DSC02869.JPG



DSC02868.JPG



DSC02878.JPG



DSC02864.JPG



DSC02865.JPG



DSC0287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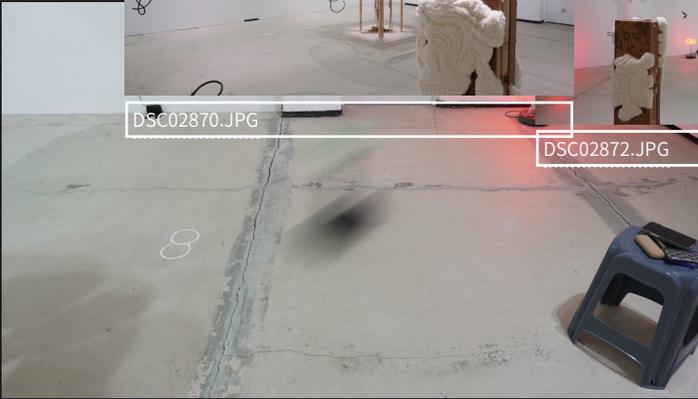
DSC0287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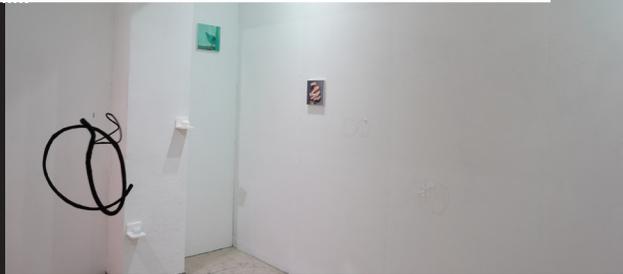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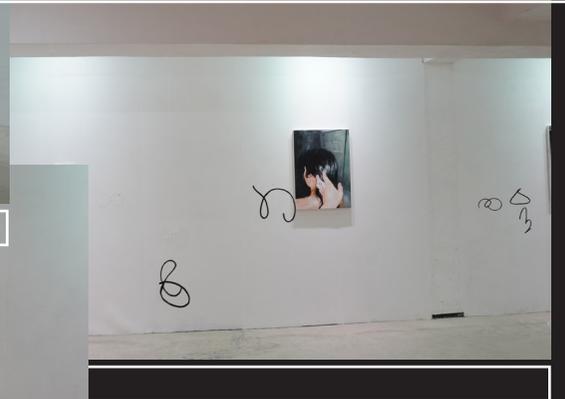
DSC02872.JPG



DSC0287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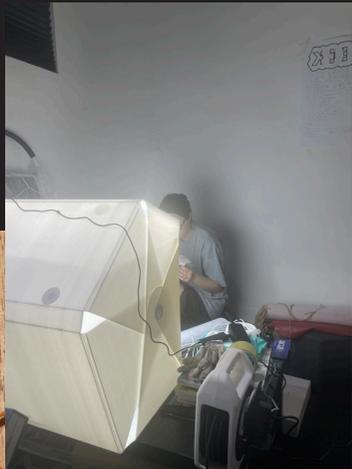
DSC02875.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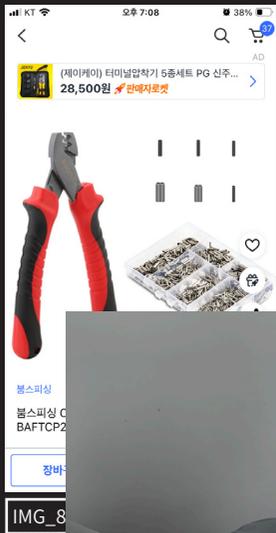
DSC02873.JPG



IM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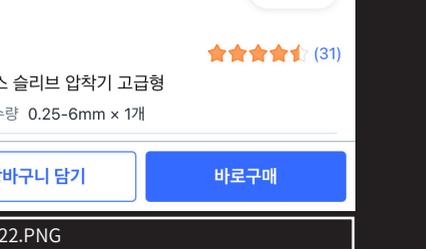
IMG_0900.jpeg



IMG_8



IMG_0901.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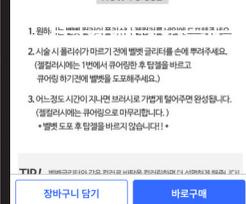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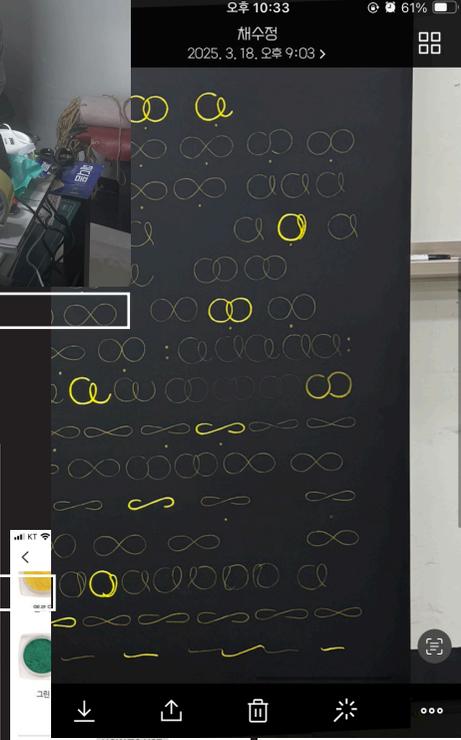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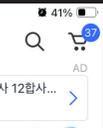
IMG_8339.jpeg



IMG_0903.jpeg



IMG_0902.jpeg



IMG_8386.PNG

IMG_8422.PNG



IMG_8419.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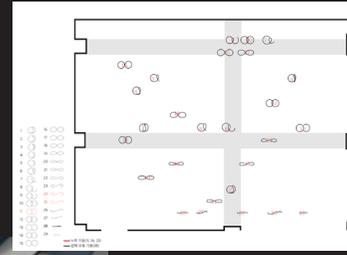
IMG_8420.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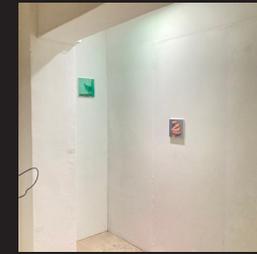
IMG_8483.jpeg



IMG_8476.jp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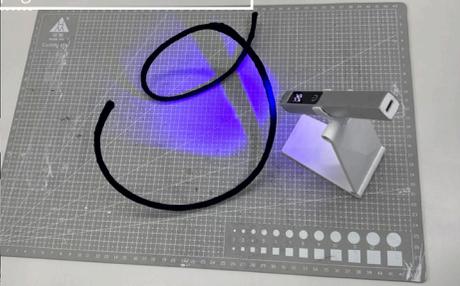
IMG_8431.PNG



IMG_8488.jpeg



IMG_8478.jpeg



IMG_8434.JPG



IMG_8432.JPG



2.jpeg



IMG_8496.jpeg



IMG_8477.jpeg



IMG_8435.JPG



IMG_8433.JPG



IMG_8474.jpeg



peg



IMG_8436.JPG



IMG_8437.JPG



IMG_8484.jpeg



IMG_8485.jpeg

IMG_8473.jpeg



이 전시는 'Unoccupied GAPS'가 가진 장소의 특수성, 즉 저의 사무실이자 전시 공간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함께한 장승근, 박그림 작가 모두 '생활'과 '작업'의 경계가 모호한 환경 속에서 치열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승근 작가는 서울 생활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파일철에 보관하기 쉬운 A4 용지에 매일의 단상을 기록했고, 박그림 작가는 집과 작업실이 혼재된 '미도원'에서 파티션으로 공간을 나누며 경계 위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삶을 쪼개고 나누던 파편들이 이 공간에서 비로소 하나의 장면으로 포개졌습니다. '나뉘지고 펼쳐진'이라는 제목은 예술적 선언이라기보다, 고립 속에서도 작업을 놓지 않으려 했던 우리들의 생존 방식이자 태도였습니다. 매끈한 결과물보다는 생활과 예술이 엉키고 부딪히며 만들어낸 거친 마찰음,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승근입니다.

이전까지는 생활 속에 있는 사물들을 정물화의 형식으로 그린 그림들을 꼭 발표해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공상적 상상이 가미된 우화 같은 풍경화를 드로잉으로 풀어보면서, 작업의 확장을 모색해보고자 해요. 파일철에 꽤나 그럴싸하게 보관하기에 용이한 A4 용지 크기로 유화지를 잘라서 그려보고 있어요.

전시의 주제는 거주 공간과 작업 공간을 합치게 된 생활 속에서 경험 중인 물리적/정서적 정이예요.

1, 유동하는 상태를 예찬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왔는데, 서울로 주변 상황 때문인지, 그냥 내가 지친건지, 뭐가 문제인지는

1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나)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튼 사람도 싫어지고, 칩거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가 부정의 상황에

11든 바꿔보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걸 계속 혼란스럽고 스스로에게 더 실망하겠구나, 이런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꼭꼭 씹어서, 어떻게 건강하게 재맥락화해서 소화 해낼 수 있는 현재 인것같아요.

1을 택하고 있는 경험 속에서 느낀 권태, 자가 당착, 혼란을 "더 할 상황"으로 보지 않고 문에 내가 놓여진 상황일 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이 현실을 1고민하고 있는거죠.

공상적인 형상을 그려넣거나 추상성을 더욱 가미한 그리기 서 환기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맥락화 하고 극복하기 위한 하기 위한 시도들이 될 것 같아요. 과 작업실의 풍경들, 이 주된 소재가 될 예정이구요, 거나, 송덩, 자르듯 해체한 단면들을 나열하기도 하고요, 떠오르는 1해서 낙서하듯 겹쳐보기도 하면서

1형상의 공상적인 이미지들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요즘에는 점차 1형성이나 균형감을 찾아가는게 조금 더 재밌어서 1쯤의 화면을 상상하면서 드로잉하는 걸 좀 더 즐기는 편이예요.

11일 큰 <안경을 쓴 자화상> 드로잉이 있는데요(80호-100호 사이즈로 재단한 것으로 기억),

운동성을 머금은 획들로 간결하게 자화상을 그린거예요. 안경을 끼고 정면을 보지만 관객을 쳐다보는 것 처럼 결눈질 하는 제 얼굴을 그린건데요, 앞을 보기 위해 특정한 프레임을 쓰고 앞을 보는 척 하면서도, 결눈질 하면서 화면 밖을 쳐다보는 화면을 그렸어요. 이 그림은 그리기 태도를 은유하고 싶어서 그렸습니다.

총현쌤 수업 때 같이 술을 먹던 드로잉은 사이즈가 유일하게 상이하지만, 이번 전시 때 보여주고 싶어서 예외로 넣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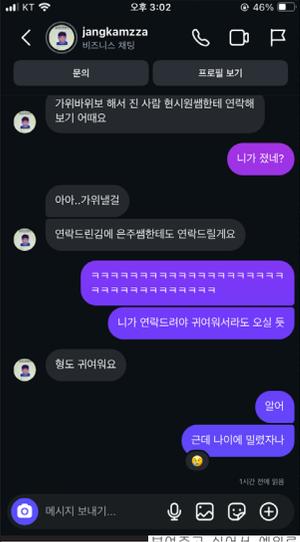
안녕하세요. 장승근입니다.

이전까지는 생활 속에 있는 사물들을 정물화의 형식으로 그린 그림들을 쭉 발표해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공상적 상상이 가미된 우화 같은 풍경화를 드로잉으로 풀어보면서, 작업의 확장을 모색해보고자 해요.

파일철에 꽤나 그럴싸하게 보관하기에 용이한 A4 용지 크기로 유휴지를 잘라서 그려보고 있어요.

전시의 주제는 거주 공간과 작업 공간을 합치게 된 생활 속에서 경험 중인 물리적/정서적 고통에 대한 일기가 될 예정이에요.

이전부터 쭉 고통되지 않고, 유희하는 상태를 예전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왔는데, 서울로 이사는 뒤에는 뭔가.. 여러 주변 상황 때문인지, 그냥 내가 지진건지,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되었든 결국 일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나)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점점 우울해지고, 사랑도 싫어지고, 짐거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가 부정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거예요.



게트 바꿔보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런데..
 혼란스럽고 스스로에게 더 실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떻게 꼭꼭 씹어서, 어떻게 건강하게 재맥락화해
 고 있는 현재 인것같아요.
 경험을 먹고 있는 경험 속에서 느낀 권태, 자가 당착
 아할 상황*으로 보지 않고
 때문에 내가 놓여진 상황일 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
 지 고민하고 있는거죠.

공상적인 형상을 그려볼거나 추상성을 더욱 가미하
 면서 환기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재맥락화 하고 극복하기 위한 하기 위한 시도들이 들
 들과 작업실의 풍경들, 이 주변 소재가 될 예정이구
 하거나, 송당, 자르듯 해체한 단면들을 나열하기도 하
 화해서 낙서하듯 검쳐보기도 하면서

형상의 공상적인 이미지들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동성이나 균형감을 찾아가는게 조금 더 재밌어서
 그림의 화면을 상상하면서 드로잉하는 걸 좀 더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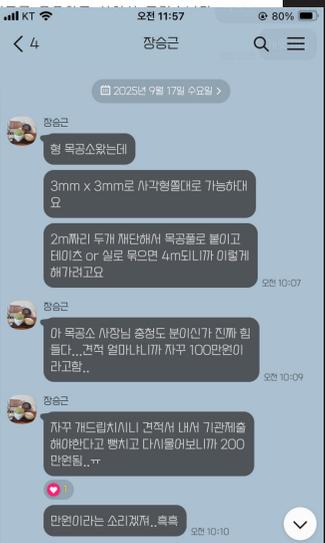
제일 큰 <안경을 쓴 자화상> 드로잉이 있는데요(80
 기역),
 간결하게 자화상을 그린거예요. 안경을 끼고 정면을 보지만 권좌를
 하는 제 얼굴을 그린건데요,
 프레임에 쓰고 앞을 보는 척 하면서도, 결눈질 하면서 외면 부를
 요. 이 그림은 그리기 때

를 먹던 드로잉은 사이즈
 되어주긴 싶어서 애용
 불었어요.



IMG_8812.PNG

작가노트.pdf



IMG_8589.PNG



IMG_8825.jpeg

IMG_1356.PNG

IMG_1256.PNG

2_094204723_03.jpg



KakaoTalk_20250822_094204723



k_20250822_0942



alk_20250822_094204723_05.jpg



KakaoTalk_20250822_094204723_03.jpg



KakaoTalk_20250822_094204723_01.jpg



250822_094204723_10.jpg



KakaoTalk_20250822_094204723_06.jpg



KakaoTalk_20250822_094204723_02.jpg



KakaoTalk_20250822_094204723_04.jpg



KakaoTalk_20250822_094204723_07.jpg



KakaoTalk_20250822_094204723_08.jpg



KakaoTalk_20250822_094204723.jpg



oTalk



KakaoTalk_20250822_094204723_15.jpg



KakaoTalk_20250825_165206023.jpg



KakaoTalk_20250822_094204723_13.jpg



k_20250825_154142620_08.jpg



KakaoTalk_20250825

KakaoTalk_20250825_154142620_02(1).jpg



KakaoTalk_20250822_094204723_1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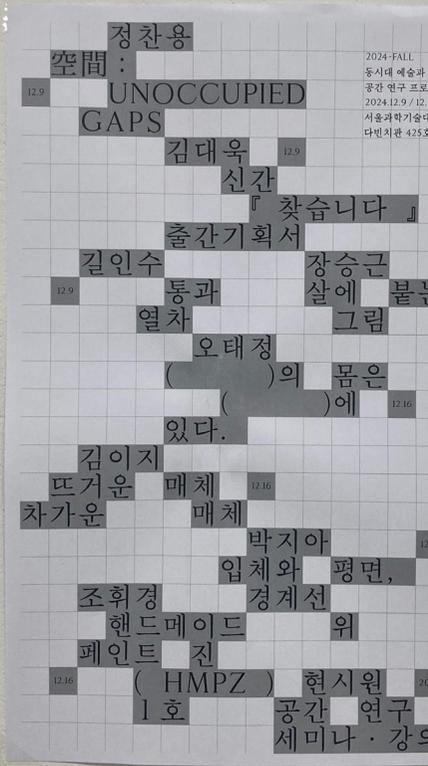
kakaoTalk_20250825_154142620(1).jpg



KakaoTalk_20250825_165224172.jpg



KakaoTalk_20250825_154142620_03(1).jpg



‘하나의 공간이 한 권의 책이 된다면 어떨까?’ 삼성동 지하의 거친 공간을 마주한 디자이너의 눈에는 균열 간 바닥과 튀어나온 보가 책의 물성으로 읽혔습니다. 공간 분할은 챕터(Chapter)가 되고, 벽면은 레이아웃의 판형이, 기둥은 책등이 되는 상상. 심지어 주소는 ISBN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역설은 ‘그 어떤 책도 전시하지 않는다’는 규칙이었습니다. 우리는 책이라는 사물 대신, 책이 될 수 있는 가능태를 공간으로 번역했습니다. 종지와 제본 없이 벽과 바닥만으로 책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일종의 역함수를 푸는 것과 같았습니다. 보통 전시를 책(도록)으로 남기지만, 우리는 지면의 구조를 공간으로 펼쳐냈으니까요. 관람객이 책장을 넘기듯 걸음을 옮기며, 아직 쓰이지 않은 문장을 온몸으로 읽어내려가기를 바랐습니다. 읽는 행위가 시각을 넘어 신체의 사건이 되었던 이 프로젝트는, 책으로부터 피어올라 공간을 거쳐 다시 책으로 회귀하는 순환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공간’ 전시 기획

250829_dw



IMG_1428.jpeg



IMG_1429.jpeg



0.jpeg

#28
이 책을 읽고 나면 무엇이 변해 있길
바라나요? 그러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나

#29
이 책이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읽고
우리가 있고 있던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게 된다면 참 좋겠다. 하지만
그것은 책이 아닌 다른 직접적인 행동이나
홍보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화가는 그림으로, 수학자는
수열의 아름다움으로, 음악가는 선율로
이야기하는 속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결과 책이어야 한다. 둘 하나를 손에 꼭
쥐어 보았던 촉감을 기억하며.

#30
많은 것이 달라졌고 그레아만 했지만
그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믿어 본다.

IMG_6906.jpeg

빈 공간unoccupied space을 바라본다. 지금 이곳은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다. 작품도 텍스트도 그려져도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미 바닥과 벽, 벽과 천장이 맞물려 있다. 그것은 책이었던 하나의 도형이 포개어 있는 자세이자 스스로의 바깥으로부터 새로운 몸을 발견해나가는 순간이기도 하다. 녹슨 난간과 깨진 타일, 농도가 다른 흰 벽, 뜯긴 도장, 손잡이로 열고 닫을 수 있는 표지, 나사와 경첩으로 제본된 출입문과 그 안쪽... 이것은 '책'에 의해 채워진 공간이다. 그러나 이 공간은 '책'이 아니라 '사람'이 채워진 공간이다. 무엇이 먼져이고 뒤따르는 관: [책사하기](#) [전체 선택](#) [찾아보기](#) [번역](#) [웹 검색](#) [공유...](#)

로서의 질서에 대한 의문이다. **책이라는 믿음은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그러나 또 얼마나 희박한 것인지** 이 물음은 책으로부터 피어올라 공간을 거쳐 결국 책으로 되돌아온다. 책을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저마다의 마음 속에 담긴 이야기가 서서히 피어오른다. 그것은 잠시 머무른 표현, 단 하나의 몸을 갖는 무수한 꿈. 아직 곁에 도달하지 못한 상상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잠시 맞닿아 있는 순간.

IMG_1437.PNG



IMG_1615.jpeg



IMG_7121.jpeg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된 정찬용입니다. 사실 이 팟캐스트는 전시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생기는 여러 고민들, 그리고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빠져나가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어요. 보통 전시를 보면 우리가 접하는 건 보통 최종 결과물이잖아요. 하지만 어떤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탐구 중인 **‘큐레이터의 작업실(Curator’s Studio)’**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된다면 풀어보기로 하고. 대학원에 다니면서 이제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은 등록금을 내는데 실기 전공 학생들만 작업실을 배정받냐? 이론 전공도 작업실 달라고 해라.”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뭔가, 어 그렇네? 생각해 보니까 불편하거나 뭔가 부당하게 이제 다가온 것보다는 그냥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 큐레이터나 이론 전공자들한테 작가들이 사용하는 형태의 어떤 작업실이 생긴다면,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작업실은 창작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전시를 만드는 과정도 창작 행위라고 보는 관점이라면, 큐레이터의 스튜디오도 충분히 존재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전시 기획은 그냥 작품을 배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작업을 어떻게 맥락화할지 고민하고, 또 큐레이터가 작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이제 “큐레이터 작업실이 기존의 전시장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사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포착해내려고 하는 중이고. 기본적으로 전시장은 결과를 보여주는 공간이고, 작가의 서사에는 이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의 과정이겠지만 관객이 방문하는 순간에는 이미 완성된 형태로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큐레이터 작업실에서는 과정 자체가 일단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는 **‘전시’라는 표현 대신 ‘프로젝트’라는 말을 쓰기로** 합의를 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어떤 선언이 아니라, 전시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실험하고 드러낸다, 약간 이 정도? 제가 갤러리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이 얘기도 되게 웃긴데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풀어보기로 하고. 아무튼 갤러리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건 **사실 작가와 큐레이터가 면밀하게 붙어서 토론하거나 뭔가 프로듀싱을 같이 하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얘기지만 갤러리 안에서의 큐레이터의 역할, 큐레이터의 존재 여부 같은 문제도 있을 것이고. 보통 전시는 작가가 작업을 하고 큐레이터는 기획자로서 배치와 맥락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큐레이터 작업실에서는 **그 경계를 좀 허물고 기획 과정에서부터 작가와 함께 작업을 하는 실험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Unoccupied GAPS(언어큐파이드 갭스)’라는 오프라인 플랫폼이자 제 작업실을 이제 열었는데, 그 Unoccupied GAPS 프로젝트에서 시도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전시를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구조로 바꿔보고. 예를 들면 뭐 보통 전시 기획은 ‘선택과 집중’의 방식이라면, 작품을 선별하고 하나의 큰 개념을 중심으로 배열하는...

[팟캐스트 녹취록]

프롤로그: 왜 큐레이터에게는 작업실이 없을까?

일시: 2025. 2. 18. (화)

진행: 정찬용 (기획자)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약간 편집에서 쓰이는 ‘선택과 결합’의 방식을 적용해 보자. 작품들이 기존의 서사 안에서 고정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맥락이 변할 수 있는 구조를 좀 실험해 보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큐레이터는 단순히 이제 기획자가 아니라 공간을 매체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 수 있는,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작가와 큐레이터가 굉장히 이제 많이 부딪히게 되는데, 조금 유치한 표현으로 **‘창작적 폭발’**이 일어난다? 그런 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이제 어떤 의견 차이에서 오는 언쟁일 수도 있고, 혹은 예상치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유레카스러운 어떤 과정일 수도 있고. 이게 사실 작가들이 처음에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큐레이터가(혹은 기획자가) 뭐 이렇게까지 간섭해? 개입해?’ 하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역으로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 작가들은 기획을 하잖아요, 전시 기획을. 근데 **‘큐레이터는 그러면 어떤 창작 행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궁금증과 고민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관점이 있었는데, 이런 프로젝트의 방식이, 그러니까 되게 면밀하게 소통이 가능해진 작가들끼리 협업하는 어떤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분명히. 예를 들면 뭐 어떤 작가의 작업이 전시 초반하고 후반에 맥락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된다거나, 다른 작가의 작품과 연결되면서 예상치 못한 어떤 시너지가 나기도 하고. 전시가 하나의 정리된 결과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미가 변주하는 이제 플랫폼... 전시가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공간에서의 전시 형태가 결과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미가 변주할 수 있는,

변주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팟캐스트도 그런 여러 가지 실험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Unoccupied GAPS’는 직역하면 ‘비어 있는 틈새’라는 의미고 한자어로 바꾸면 ‘공간(空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기획 중심에 비어있는 틈새에서 가능성을 찾자는 의미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팟캐스트 제목인 ‘Filling GAPS(필링 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틈새를 메워보자라는 의미인데. 보통 아카이브라고 하면 이미지, 텍스트, 영상 이런 보편적인 것들을 떠올리고... 근데 ‘전시의 기록이 꼭 그런 형태로만 남아야 할까?’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공식적인 아카이브에서 빠져나간 이야기들, 우리가 전시장에서 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여기에 팟캐스트 형태로 담긴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유의미한 아카이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가 그런 이야기들을 모으는 또 다른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음 회차에서는 실제로 Unoccupied GAPS라는 플랫폼, 큐레이터의 스튜디오, 즉 제 작업실에서 실제로 벌어진, 벌어지고 있는, 벌어질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Filling Gaps'¹ 인터뷰 발췌록]

본 프로젝트에서 수행된 팟캐스트 녹음과 라운드 테이블은 단순한 부대 행사가 아니라, 폴 오닐과 Mick Wilson(Paul O'Neill & Mick Wilson)이 논한 '교육적 턴(Educational Turn)'의 실천적 적용이다². 큐레이터의 작업실은 전시장이자 동시에 배움과 대화가 발생하는 '파라-에듀케이션(Para-education)'³의 장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완성된 결과물보다 지식이 생산되고 교환되는 과정 자체에 우위를 둔다.

에피소드 #1. 시추에이션 프로젝트: 전시장과 작업실 사이에서

일시: 2025년 2월 18일

참여: 정찬용(진행/큐레이터), 채수정(참여 작가)

채수정: 나 말 못 하겠어.

정찬용: 근데 벌써 시작했어. 잠깐만, 대본 좀 찾고.

채수정: 뭐야? 오빠는 질문 대본 읽는 거야?

정찬용: 너한테도 보내줬잖아, 카톡으로.

채수정: 나 아무 생각도 안 했어. 그냥 읽어만 봤어.

정찬용: 너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아, 여기 있다.

채수정: 가까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찬용: GPT가 써준 대본대로 일단 시작을 해볼게.

1회차 제목, <시추에이션 프로젝트>. 대체 뭐야?

채수정: 아, 잠깐만. 나 대본 찾고 있어. 에피소드 1인 거지?

정찬용: 1회차. 읽어볼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채수정 작가와 함께

'시추에이션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보통 전시라고 하면 깔끔하게 정리된 결과물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 프로젝트는 좀

다르거든요. 전시가 아니라 상황을 만든다는 점에서 기존 방식과

차별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잘못된 게, 틀린 말은

아닌데... '시추에이션'이 '시추(강아지) 플러스 시추에이션(상황)'인데,

그치?

채수정: 근데 여기서(GPT는) 그냥 'Situation'이라 아는데고서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한 거지.

정찬용: 그 영어 제목을 바로 내가 넣어버리니까. 우리가 '개관전(開館展)'이

1 "FillingGaps는 큐레이터와 작가가 작업실에서 나누는 솔직한 이야기와 예술적 실험의 뒷얘기를 엿보는 팟캐스트입니다. 큐레이터와 작가가 기획하고, 시도하고, 때론 망가지는(?) 과정 속에서 탄생하는 작은 이야기들이 담깁니다. 마치 남의 일기장을 훑어보는 듯한 가벼운 수다와 함께, 예술의 빈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해보세요." (팟캐스트 공식 소개글 중)

2 폴 오닐, Mick Wilson 엮음, 『큐레이팅의 교육적 전환』, 김아람 옮김 (서울: 더플로어플랜, 2021), 13-22쪽. 본 연구는 전시 공간을 지식 생산의 장으로 재정의하는 이들의 논의를 따라, 큐레이터의 작업실을 교육과 큐레이팅이 교차하는 '파라-에듀케이션'의 현장으로 해석한다.

3 애니 플레처, 세라 피어스, 『파라교육 부서』, 위의 책, 191-195쪽.

'개 관전(觀戰)'의 의미인데 사람들이 '개관전'으로 이해를

했잖아. 그것처럼 아예 '개 관전'에 애는 빼버리고

'시추에이션'은 오타라고 인식을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래서 그랬고...

"오늘은 채수정 작가를 모시고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지 들어볼게요."

여기에서는... 아니, 너 질문 받자마자 "이 프로젝트? 나?

왜?" 이러면 어떡해? 모르겠어?

채수정: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찬용: 일단 자기 간단하게 인사부터 해 주세요.

채수정: 안녕하세요, 채수정입니다.

정찬용: 왜 시작하게 됐는지 지금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있었어. "안녕하세요, 사운드 하는 채수정입니다." 그게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변천사가... "안녕하세요, 데이터로 현상을 뭐 어찌고저찌고 하는

채수정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와서는...

채수정: 그리고 이제 바뀌었잖아.

정찬용: "나 이제 조각할 거야. 나 조각 진짜 잘해." 막 그러다가.

채수정: 지금은 있지. "데이터, 기술, 그리고 현상이 교차하는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채수정입니다."

정찬용: 좀 자연스럽게 해봐. 편집해 줄게. 그냥 읽는 것처럼 하지 말고.

채수정: 이거를 자연스럽게? 씨... 나 이거 해야 돼? 나 팟캐스트 안 할래. (웃음) “저는 데이터와 기술, 그리고 현상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초점을 맞추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채수정입니다.”

정찬용: 왜, 왜 이렇게 천박하게 웃어?

채수정: 오빠가 이렇게 웃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찬용: 아무튼 첫 질문이 그거야. “채수정 작가님, 먼저 시츄에이션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GPT가 하는 말이...

채수정: 근데 얘는 왜 질문만 써주고 대답은 안 써줬어?

정찬용: 대답은 모르지. 네 생각을 들으려고 팟캐스트 인터뷰를 하는데.

채수정: 왜 시작을 했냐...

정찬용: 네가 생각했을 때 어떤 계기로 이거를 시작하게 됐는지.

채수정: 일단 만두(반려견)가 작년에 갑자기 좀 아프기 시작하면서, 만두가 나이가 많으니까 만두와의 추억을 조금 더 만들어 보고자 해서... 그동안 모아왔던 만두 사진으로 굿즈 같은 거를 만들기 시작했지.

정찬용: (물소리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

채수정: 굿즈 같은 걸 만들기 시작하다가, 이걸 좀 나만 보기 아까워서 인스타 스토리에 계속 올렸었어. 그러면서 이제 오빠가 그걸 보고서는, 우리 쿨타임 지나고 연락이 와가지고... 오빠가 이런 공간을 해보고 싶은데 이런 굿즈들을 어떻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겠냐라는 의견을 줘서. 처음에는 티팔이를 하려고 했었지.

정찬용: 아니, ‘팝업 스토어’라는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작가님 이미지가 있는데.

채수정: 팝업 스토어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그때 또 내가 AI를 배우면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리고 오빠가 처음에 구하려던 공간이 되게 작은 공간이었어서 그런 식으로 팝업 스토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오빠가 구한 공간을 보니까 너무 크고... 여기 안을 내가 팝업 스토어로 어떻게 다 채울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좀 더 인공지능, 그러니까 단순히 굿즈를 파는 게 아니라 어떤 인공지능과의 협업도 넣으면서 확장을 하게 됐지.

정찬용: 재미로 시작했다가 좀 진지해지게 된 케이스고. 이거를 그 전후 얘기를 조금 하자면... 채수정 작가를 어쨌든 대학원에서 만나게 됐는데, 우리가 작업 얘기를 좀 제대로 시작한 거는 사실 그 면담 끝나고였지.

채수정: 면담 끝나고. 첫 번째 면담 끝나고.

정찬용: 나는 어쨌든 미대에 진학해서 그런 면담이라는 게 처음이라서 엄청 긴장한 상태였고, 너는 이제 어쨌든 위치가 있는 교수한테 작업에 대한 크리틱(Critic)인가? 그게?

채수정: 크리틱이었고, 그 당시에 교내 전시를 하면서 교수님이 “한번 그럼 네 거 보고 오자.” 하면서 이제 그 작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정찬용: 그것도 보셨어?

채수정: 그때 바로 교수님이 가서 “그럼 지금 당장 가서 보자.”

해가지고 직접 보시고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거였어.

정찬용: 그때부터 이제 뭔가 작업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눴던 것 같고. 그때 막 이게 작가와 큐레이터 사이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학생으로서 고충을 서로 하소연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간에 나는 뭔가 뉴미디어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갤러리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쉽사리 다룰 환경이 되지 못했고. 학교에서 이제 뭘 할 기회가 생기면 이 친구랑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이제 되게 아이러니한 건 학교에서조차, 사실은 뭔가 어떤 수업에서 보통 이론 전공이 기획을 맡게 됐을 때... 어쨌든 우리 학교가 어딘지 대부분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페인팅, 우리가 좀 익숙한 매체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주류에 편승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뭔가 뉴미디어적인 접근이고 그런 거를 분석하고 좀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작가랑 같이 학교에서조차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어떤 환경.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 중간에 AI 교육을 받게 된 과정도, 이 친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만을 갖고 있었고 들을 수업이 별로 없다...

채수정: 맞아. 미디어에 대한 그런 게 많지 않았었으니까.
정찬용: 사실 그것도 그때 나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네가 가서 너만의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냐.” 약간 나는 이런 얘기 계속 했었고.

대화가 항상 이런 식이었어. “오빠 막 어찌고저찌고...” 막 그러면은 “왜? 그냥 하면 되잖아.” 약간 이런 식이었고. 근데 이거 시츄에이션에 계기가 됐던 거는, 이제 내가 먼저 “이런 거 해보면 어때?” 했을 때 또 “아 이거 그냥 어찌고저찌고...” 이런 거를 예상했는데, 진짜 그러면서 뭔가 그전의 너의 반응과는 다르게 “어 재밌겠다”라는 게 시작이었어.

채수정: 응, 맞아 맞아. 머뭇거리진 않았지. 왜냐하면 나는 만두, 내 반려견으로 하는 거니까는 거기서 이미 재미가 있었고. 이거는 사람들이 안 보려 와도 나만 만족하면서, 약간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내 욕구 채우기? 약간 그런 거였었으니까.

정찬용: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면서, 그래 우리끼리라도 재밌는 거 하자.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여러 분야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포장을 하면은 창작 행위라는 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벗어나서 그냥 재밌는 거 뭘 해보자. 쉽게는 추억 쌓기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그때까지도 내가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완전히 구체화가 됐고. 근데 기획이 뭐가 구체화되고서 “이걸 하자”가 아니라, 해놓고 기획을 뭔가 만들어 가게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이나 어떤 계획도 사실 어떤 수업 중에 나온 거였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뭐가 구체화되면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다가 사실은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좁은 데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너한테 그런 제안을 했던 건데... 오히려 너무 넓어져서 당황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 느꼈던 뭔가 미디어를 주로 다루는 그런 상황에서 학교의 환경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거에 갈증을 느끼는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아코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또 돼가지고 사실 그거를 되게 열심히 했고. 그때 이제 우리가 각자의 어떤 사정으로 쿨타임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마무리될 때쯤에 이제 네가 거기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만두 그런 것들을 막 올렸다고 했었어.

정찬용: 그래서 그게 맞아떨어졌고. 사실은 이거는 초반에는 ‘만두 티팔이 팝업 전시’가 콘셉트였고. 그 아이디어가 어쨌든 팝업이나 전시나 일시적이고 휘발적인 성격은 똑같고, 이게 상업적이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 아니냐. 이걸 좀 동시대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겠으나 대중이 공감할 만한 동시대를 다뤄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동시대는 트렌디함이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코랩에서 애가 뭘 했다, 어떤 게 또 불만이였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의 대화는 항상 불만이 배우는 거 하나도 없고... 근데 배운 게 사실상 되게 많았어.

채수정: 그렇지. 초반에 불만을 가졌던 그거였지. 나는 그런 거를 배우려고 들어간 게 아니었는데 뭔가 이미지 범람을 겪으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약간 이 생각이 들었고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생각을 했어. 인공지능이...

정찬용: 그러니까 너는 어떤...

채수정: 그러니까 원리. 인공지능이 작동되는 원리를 좀 알아보고자 신청을 하고 들었던 건데, 원리를 안다기보다는 약간 예술 기술인데... 그런 내가 생각했던 예술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이미지를 더 잘 만들 수 있을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할지. 약간 이런 것들만 되게 짧게 짧게 배우는 시간이었어가지고 딱히 나한테 막 이게 엄청...

정찬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거에 회의감을 느끼고, 거기서도 이제 발표전을 해야 됐으니까 나온 게 이제 그 회의감의 집결체라고 해야 되나.

채수정: 약간 반항? 예술 기술이라고 했지만 기술은 없는, 약간 반항.

정찬용: 근데 또 기술이 적용되긴 했잖아.

채수정: GPT와 그런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찍긴 했으니까.

정찬용: 그리고 아니, 그 작품을 구현하거나 이제 시각화하는 데 있어서도 테크적인 기술이 들어가긴 했으니까.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조명 라인을 판다든지, 좌대를 디자인한다든지.

채수정: 좌대도 처음으로 3D로 만들어 보고.

정찬용: 그런 게 다 기술이니까 생각보다 그 과정에서 배우는 거는 많았다.

채수정: 큰 도움이 됐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정찬용: 그리고 어쨌든 그게 시발점이 돼서 이제 이번 전시가... 이거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도 프로젝트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형태는 결국 전시이고, 사람들은 다 전시라고 생각하고. 근데 전시라고 생각하면 이거 진짜 개망한 전시고. 왜냐면은 이게 어느 하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어.

채수정: 어떤 포인트?

정찬용: 그러니까 이거는 강아지, 그러니까 만두라는 너의 반려견을 키워드로 잡지 않는 이상... '만두 기념전'?

채수정: 그래서 이거 약간 처음에는 신격화?

정찬용: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 만약에 진짜 신격화하고 뭔가 만두를 기념한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 방식이 아니라 더 그거에 초점이 맞춰진 만두 장난감도 갖다 놓고 더 만두에 뭔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상 또 그렇지 않는고.

채수정: 지금 만두는 만두가 주제라기보다는 매개체라고 해야 하나?

정찬용: 그러니까 그 소스인 거지. 데이터 소스가 이제 만두일 뿐. 근데 그 만두가 됐던 이유는 어쨌든 그 팝업 스토어 아이디어에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를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1년 넘는 시간 동안 되게 막 전시든 작업이든 뭐 이 바닥에서 성공하는 법이든 살아남는 법이든, 수많은 망상에 가까운

얘기들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항상 뭔가 자신감 없고 자존감이 떨어져 보이는 어떤 태도였다면... 어쨌든 만두는 너의 반려견이고 네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어떤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네 관심사가 뭐야?”, “너 뭐 좋아해?”, “너 취향은 뭔데?” 근데 대답을 하나도 못 했었잖아. 네가 맞아. 그래서 너는 네 데이터부터 그럼 연구를 해야지, 왜 남이 모아놓은 그 데이터를 갖다가 쓰냐. 약간... 약간 쿨타임의 시작이었지. 사실 그렇지, 나는 진짜 질문이었는데 이제 뭐 작가랑 사고 체계가 다르니까.

채수정: 약간 **뭘 좋아하냐에서, 그 질문에서 약간 멘붕이 왔다.** 근데 어쨌든 좋아하는 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좋아하는 게 그렇게 있지도 않고.

정찬용: 명확하지 않은 거지.

채수정: 난 집에만 있는 거 좋아하고 막 나가는 거 안 좋아하니까 취미도 딱히 없었고. 관심사는 있지만 또 관심이라고 하기에 내가 그리 깊게 공부하고 막 그런 건 아니니까.

정찬용: 근데 아무튼 만두는 중심에 있었다. 근데 그것도 약간 뭐 만두가 아팠고 수술을 했고 어떤 큰 사건이자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제 자각을 하고 인식을 한 거지. 그러면서 이 과정 중에서도 그게 다 이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 이거를 하면서 이제 했던 재미있었던 모먼트들. 미감이 적용되는 부분에서 네가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네가 스스로 “**오빠 나 뭐 내 취향 이렇가 봐**” 이렇게 얘기했던 순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았고. 그래서 제목도 사실은 내가 너무 어이가 없긴 하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작품명을 되게 멋들어지게 의미를 담아서 짓긴 했지만 사실 몰라. ‘만두 천사’, ‘만너스’, ‘만두 창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목도 사실은 시츄에이션. ‘시츄 + 시츄에이션 = 시츄 상황’. 근데 틀린 얘기는 또 아니니까. 그게 이제 첫 질문이었다. 어떻게 이제 초기 아이디어가 뭐였는지, 왜 시츄에이션이라는 개념을 선택했는지 설명 다 끝났죠.

채수정: 네, 그렇죠.

정찬용: 그리고 이제 그 과정까지 설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또 질문이 나옵니다.

“보통 전시는 작품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시뮬레이션 프로젝트는 그보다는 상황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경험하는 방식 같아요.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작가님이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부분인가요?”

채수정: 저는 상황을 딱히 만들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정찬용: 자연스럽게 상황이 발생한 거지.

채수정: 제가 막 의도해서 ‘막 이런 상황을 연출해야지’ 했던 건 아니었어 가지고. 근데 막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다면은... 사실 제 작업들을 보면은(갑자기 존댓말 해도 돼?), 응, 보면은 되게 시각적인 것들이 없었어. 다 청각적인 것들이었지.

정찬용: 아니, 나 그렇게 생각 안 해.

채수정: 그래?

정찬용: 이게 이제 그 포인트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인식을 못 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을 뿐. 예를 들면은 뭐 사운드 전시를 한다고 그랬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화이트 큐브에서 네가 소리를 전시한 적은 없잖아. 스피커가 일단 등장하잖아. 헤드폰이 등장을 하잖아. 근데 너 스피커나 헤드폰 디자인 자체도 일단 고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설치하는지도 네가 고민을 하잖아. 그게 다 시각적으로 드러나잖아.

채수정: 그럼 나는 벗어나고 싶었던 부분이 뭐였을까? 벗어나고 싶었던 건 많았던 것 같은데.

정찬용: 그러니까 조금 질문을 정리를 하자면, 그간에 이제 네가 전시를 그래도 내 생각에는 꽤 많이 해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느꼈던 보완점이라든지, 네가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채수정: 그지. 일단 보완점이라고 하면은 공표된 데이터를 쓰면서 내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내 좀 개인의 데이터를 쓰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약간 개입을 하면서 작업을 시도해 봤던 거.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정찬용: 나는 그게 있었어. 어쨌든 이게 전시가 아니라 프로젝트니까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시랑 차별되는 프로젝트라고, 프로젝트 발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시라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게, **전시는 작가의 의도가 댔든 큐레이터가 어떤 의도와 주제 의식, 문제 의식을 갖고서 큐레이션을 거쳐서 이제 하나의 어떤 메시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거** **중점적으로 다루는 ‘썸띵’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게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맥락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 사항들이 있었잖아. AI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AI 관점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간에 네가 뭐 다뤘던 매체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다 때려박아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대신에 만두가 좀 예뻐지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3D 프린팅을 함에 있어서도 그 재료가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3D 프린트나 뭐 그 이미지를 프린트하는 방식도, 혹은 설치 방식도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일까 고민한 거들이 하나로 귀결되지 않는단 말이야.

정찬용: 억지로 귀결하려고 그러면 그건 만두로밖에 안 돼. 그래서 이게 전시로는 망한 전시고 전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책을 읽다가 생각한 게... 보통 우리가 디자인 편집 툴 같은 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걸 보면 하나의 화면에 여러 가지 레이어를 갖고서 이렇게 병렬적으로... 그러니까 이미지 정렬은 수직으로 나열되지만 사실은 화면에는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 거기서 이제 수직이라고 하면 그냥 앞과 뒤가 존재할 뿐 한 화면에 그냥 이유 없이 담기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디자인이라는 목적을 갖게 되면 어떤 의도에 따라서 편집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선택과 결합’.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했던 거를 일단 나열해서 “합쳐보자고.” 나열의 과정이 이제 뭐 AI가 수단이 아니라 협력자인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애가 우리가 뭔가 원하는 거를 꼬집어내려고 애를 계속 프롬프트 주면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네 의견은 이거구나.” 약간 이런 식이었잖아.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사실은 전시 디자인이라는 거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었던 게... 일단 조명 위치가 여기가 말이 안 되고 모든 게 비정형적이잖아. 바닥, 벽, 기둥, 보의 형태, 수직 수평이 맞는 곳이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좌우 대칭도 아니잖아.

채수정: 맞아. 다 휘어져 있고 틀어져 있지.

정찬용: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나온 결과물을 어쨌든 예쁘게 보였으면 좋겠으니까 잘 어우러졌으면 좋겠으니까 그 나름대로 이렇게 해갖고... 하나도 뭐가 연결되는 지점이 하나도 없어.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뭐가 아까 얘기했듯이 신격화하듯이 뭐가 제단처럼 꾸미자. 그래서 우리 갑자기 레드카펫 필 받아갖고 깔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답답해 보여서 이거를 좀 드러내고. 근데 그 드러낸 어떤 위치가 조명의 위치랑 전시 좌대의 위치랑 뭐가 또 맞아떨어지면서 공간이 구획이 나뉘지고, 작품의 이제 시리즈가 구분이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내가 제기했던 거, 천지창조를 패러디한 저 '만두 창조'가 천장화인데 원래는... 그게 왜 벽에 걸려 있냐? 이거는 맥락적으로도 맞지 않고 저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또 그거를 수용해서 편집을 하려고 해서 대봤는데 안 예뻐. "그냥 하자. 맥락이 뭐가 중요해? 예뻐야 돼 일단." 그리고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아.

채수정: 너무 익숙한 이미지라 그런가.

정찬용: **그 누구도 의문을 갖지 않고**... 근데 사실 저런 식으로 저거 천장에 있어야지 응당. 왜냐하면 저 기둥이 연장되는 모습이나 어떤 그 당시에 착시를 활용해 갖고 굉장히 연결돼 있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저렇게 머리를 싸매서 만들어낸 구도일 텐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억지로...

채수정: 끼워 맞췄지.

정찬용: 근데 저런 식으로 그냥 천지창조가 아니라, 저거는 <아담의

탄생>인가? 천지창조 중에서 더 명확한 이름이 있는데, 저 자체를 천지창조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저 부분만 편집해서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프로젝트 발표 자체가 그렇게 막 학술적으로... 채수정: 뭔가를 연구하고 발표하고.

정찬용: 아니, 연구를 연구를 한 건 맞지. 근데 이제 저 그림의 어떤 미술사적 의의와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접근한 것 자체가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냥 정말 결합. 아이디어가 또 결합되고 결합되고 이 과정이었으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진행 과정의 포인트는 내 입장에서는 그거였어. 채수정 작가가 그간의 수다에서 나한테 이제 내비쳤던 모든 칭칭거림을 일단 해결해 보려는 시도라도 하자. 그래서 거기에는 내 기억에 의존을 하면 의도치 않았던 전시장의 분위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고. 그리고 중점이 되는 매체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데이터는 재료지 데이터가 어떤 시각적인 장르는 아니니까 그것을 가시화하려면 어떤 것을 필터링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거를 데이터 가공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공의 방식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변환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그래서 3D 프린팅과 어쨌든 생성형 AI가 주 매체였던 것 같아.

채수정: 거의 다 AI를 안 쓴 게 없어.

정찬용: 진짜 단 하나도.

채수정: 저거 뭐냐, '만너스' 저거 하나 빼고는 AI가 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

정찬용: 근데 사실 저거 '만너스'도 웃긴 게, AI가 안 들어갔지만 사실 명확한 구분을 짓기가 애매하지. 그러니까 결과만 봤을 때 약간 그런 지점들 시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일종의 실험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실험을 해보니까 정답은 아니지만 어떤 결과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그거가 어떻게 이 파생될지는 나랑도 상관없고 이 공간이랑도 상관없고 이제 너의 문제니까 나는 좀 자유로울 수 있지만

어쨌든 되게 운 좋게 뭔가 연결되고 있는 게 있긴 있잖아.

채수정: 맞아.

정찬용: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 이게 어쨌든

프로젝트기 때문에 가능했던 지점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프로젝트라고 인식을 하면서 재미있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여기 공간 왜 이렇게 찾기 어려워?”, “포스터도 없고 간판도 없고 주소도...”, “나는 여기 내 작업실인데 누가 작업실을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하나”라는 부분이 있고. 또 작가 자체도 전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어쨌든 어떤 형태가 또 적합한 전시의

형태일까도 연구해 본 과정이었고. 어쨌든 이 전시라고 봤을 때 이

전시 디자인이나 구성 자체를 뭔가 비판적이거나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었지. 맞아, 예상치 못하게 장례식장 같다고...

채수정: 그 들어오자마자 혹시 “강아지 죽었냐”고, “장례식장이냐”고 그런 거 뭐 있었고.

정찬용: 새로운 피드백이었지. 그러니까 과거에 뭐 네 전시가 “너무 분위기가 무섭다”, 맞아 이런 얘기를 들었고 이제 그게 네가 별로 이제

뭐 좋지 않았던 그런 뉘앙스로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장례식인 줄 알았다, 이것도...

채수정: 좋은 그건 아니고.

정찬용: 어쨌든 뭔가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 의도치 않았던 새로운

반응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태도가 생긴 것 같아.

채수정: 그리고 그것도 또 하나는, 엄마가 보러 와서 “볼 거 없는데?”, “뭐 별로 볼 거 없네?” 이러는데 난 사실 볼 거 되게 많다 생각했거든.

정찬용: 네가 그러면은 생각하는 볼거리는 뭐야?

채수정: 볼거리? 일단 조각들도 다 다양한 형태로 있고 그 안에서 차별점들도 있고. 그래서 나는 뭔가 되게 비꼬아 보면서(자세히 보면서)

생각해 볼 게 좀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엄마는 이전에 전시보다 더 볼 게 없다 라는 얘기를 줘서 나도 좀 그게 생각 중이야.

볼 게 많은 게 뭔지.

정찬용: 단순히 작품의 물리적인 개수인지.

채수정: 개수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정찬용: 아니면 공간이 여기는 그냥 홀(Hall)이니까, 통자(통짜)니까 사실 중앙에 서서 한 바퀴만 돌면은 다 볼 수 있으니까.

채수정: 그래서 5분 만에 가라고 그랬지.

정찬용: 그치. 그런 근데 이게 전시라면은 사실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인데...

채수정: 프로젝트여서. 그 실험이니까.

정찬용: 만약에 이거를 어쨌든 만두... 내가 생각하는 가장 긍정적인 거는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이 구체적인 어떤 “이게

문제야” 라고 네가 발언한 적은 없는데, 어쨌든 약간 채수정 작가의 그 방법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알고리즘 방식이 만들어진 것 같아,

작업을 진행하는. 그래서 지금은 만두였지만 이 원소스인 만두를 다른 데이터를 대입을 해도 이 방식으로 똑같이 뭔가를 할 수가

있고, 그게 전시로... 그러니까 만두는 너무 개인적인 데이터니까 만두가 아니라 조금 더 뭐 시의성 있고 의미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유기전이라든지 혹은 동물복지라든지 이런 원소스를 같은 맥락이잖아. 사실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뭐가 나오든 간에 이

알고리즘은 작동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똑같은 알고리즘이라는 건 너의 어쨌든 방법론이니까 그거 하나가 지금은 그래도 형성이 된 거.

그전에는 사실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프로그램 쓰고, 그 GPT도 사실 그걸 어떻게 응용하는지가 다른 건데 그게 사실은 거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지만. 어쨌든 GPT 누구나가 쓸 수 있는 거니까 고유하게 네 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도 다 뜯어보면은 여기서는 생성형 못

쓰고 여기서는 뭐 쓰고 뭐 쓰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뭔가 어떤 비율로 조합을 해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느냐는 네가 만들 지금 알고리즘

형식이니까 그거 하나가 나온 거. 나는 그게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프로젝트에서 그거를 도출해 냈으니까, 그럼 전시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데이터를 넣어서 더 의미 있는,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전시로도 이제 귀결될 수가 있고. 혹은 개별 작품마다 같은 알고리즘으로 다른 데이터를 넣어서 그 또 집중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되게 그게... 내가 사실 이거 뭐 여담이거나 좀 편하게 얘기하자면 딱 그건 거지. 이게 만약에 전시였으면 그냥 수많은 전시 중에 하나가 됐을 것 같아.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는 당연히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프로젝트이고 내가 지금 뭐 '큐레이터 작업실'이라고 하는 곳에 작가들을 초대해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엄청 비효율적이잖아 누가 봐도. 너도 사실 이거 말은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쓴 비용이나 진짜 경제적 비용, 시간적인 비용, 너의 뭐 체력적인 비용까지 다 고려를 하면...

채수정: 전시랑 다를 게 없지.

정찬용: 전시보다 더 했지, 사실.

채수정: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전에 했던 전시보다는 더 열과 성을 다했지.

정찬용: 그래서 나는 이게 이런 성과가 없었어도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거든. 사실 뭐 늘 얘기하지만 **나는 큐레이터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여기저기서 다 큐레이터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큐레이터라고 날 소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볼지에 대한 시선에 대한 문제도 있고, 내가 이게 명확하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좋아하지 않는데... 이거를 거치면서, 이게 어쨌든 네 다음, 다음, 다음이 있잖아. 이것도 뭔가 명확한 방식의 릴레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연달아 하는 게 릴레이라면 점점 더 명확해질 어떤 자부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 생긴 게, "아 애네들 이거 절대 못 잊어."

채수정: 응, 맞아. 그건 맞아. 이전에 얘기했던 적도 있는데 확실히 내가 전시를 하면서 느꼈던 거랑 여기서 했던 거랑은 확실히 차별점이 있고.

정찬용: 근데 그 차별점이 지금까지의 문제는 그 차별점을 아주 명확하게 이런 말이나 텍스트로...

채수정: 표현을 할 수 없어. 표현을 할 수 없어.

정찬용: 너무 그냥 뭔가 감성적인 추상적인 접근이긴 한데. 이거를 내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전시가 반 정도 지나갔잖아. 다른 작가들 미팅이나 이제 다음 전시 작가들 미팅도 동시에 진행이 되잖아. 이게 오버랩 되는 순간들이 오니까 또 보이는 게, 이것 또한 결합이잖아. 사실상 내가 이 공간을 어떤 목적을 갖고 이런 방식으로 지원을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뉴미디어 작가들만 할 거야" 이런 걸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1년 임대를 했는데, 돈 아까우니까 놀릴 순 없으니까... 어떻게 작가 추천도 받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작가를 모았는데, 마침 기간이 맞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딱 맞고 하나는 사람들이 얼추 딱 모인 게 딱 맞아떨어졌고. 이것도 그냥 결합인 거잖아. 그 뭔가 이렇게 의도가 없었으니까.

정찬용: 근데 이 애네들을 지금 너는 전시 진행 중, 다음 작가 미팅, 다다음 작가 미팅 이런 식으로 또 3명이 오버랩 됐는데, 이거를 모아놓고 보니까 딱 나오는 게 프로젝트니까 가능한 것들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게 해봐야 아는 거지만 유의미한 과정이 될 자신이 좀 생겼어.

채수정: 일단 나한테는 유의미했어.

정찬용: 왜냐하면 너는 되게 운 좋게 바로 연결되는 성과들이 지금 여기서 공개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무언가가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채수정: 그리고 다음에 할 것들도 생각이 났고 하니까 의미가 되게 많지.

정찬용: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너의 표현으로는 이게 전시를 기존에 했던 것과 여기서 뭔가 프로젝트, 이제 큐레이터 작업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와서 뭘 한대의 차이가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는 어떤 차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제 조금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은 뭐냐면 딱 그건 거지. 여기가 어쨌든 작가는 전시장이 있고 작업실이 있잖아. 근데 나는 여기 내 사무 공간이 있고 전시 공간이 혼재돼 있잖아. 벌써 그래서 "나는 이게 문제가 될까?", 근데 이게 아니면은 사실 큐레이터가

어떤 창작 행위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업실이 어떤 형태인지는 사실 모르겠거든. 그래서 일단 사무 공간이나 전시 공간이 혼재돼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진행한 이 프로젝트만 봐도 이게 전시야 뭐 프로젝트야 라는 어떤 혼재되는 부분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쨌든 특징인 것 같아.

정찬용: 그러니까 큐레이터의 작업실이 작가의 작업실과 차별되는 부분, 플러스 크리에이터의 작업실이 그냥 기존에 있는 전시 공간이랑 차별되는 부분.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어쨌든 첫 타자였으니까 네가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적인 차별이 나는 뭔지 평생 모르겠지.

채수정: 그래? 오빠도 갤러리에서 일을 해보고 여기서 하는 거니까 그 차별점이 조금은 있지 않아?

정찬용: 근데 너랑은 다를 것 같은 게 딱 그건 거지. 그러니까 나는 생성형 AI, 그러니까 GPT 이런 게 너무 좋은 이유가 내가 명령을 하면 즉각적으로 틀리더라도 뭔가 반응을 해. 근데 일단 사람은 아무리 내 말을 잘 듣는 누군가가 있을지라도 즉각적일 수가 없잖아. 그 생각을 더 깊게 하니까. 근데 작가는 생각이 더 많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어떤 창작적 고뇌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갤러리는 답답한 게 우리가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봤잖아. 거의 붙어 지냈을 정도로 이번 겨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게 있었는데... 갤러리에서는 내가 얼마나 답답했겠니. 동시에 지금보다도 더 많은 작가들을 하나하나 뭐 이렇게 작업실을 맨날 가볼 수도 없고 지방에서 작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외 작가들도 있고 이런데 내가 일일이 내 어떤 통제권 안에서 컨트롤 할 수 없는 게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사실 막 내가 뭐 네가 어떻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지만 잔소리도 많이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랬지만 강압적으로 “내가 해” 그런 건 없었잖아.

채수정: 맞아.

정찬용: 그게 아무리 뭐가 여기는 내 공간에 너를 초대할 거라고 해도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근데 동시에 오히려 내 공간이니까

편하게 자주 볼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차이, 그거야. 어쨌든 프로젝트 발표 오프닝이 있었잖아. 거기서 어쨌든 뭐 아직 결제는 되지 않았지만 판매가 이루어졌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갤러리에서 일했을 때는 나는 딜러나 세일즈 파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사람들이랑 응대하거나 이런 상황이 많진 않았지만, 이런 질문은 역으로 할 수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왜 사요?”, 이거를. 맞잖아. 거기 갤러리의 목적은 어쨌든 좋은 작품을 소개하고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겠다는 고객한테 “왜 사요?” 이거를 도대체 물어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근데 나는 여기서는 그게 가능해서 했잖아. “왜 사냐”고 그랬더니 또 재밌는 답변이 돌아오는 게, 어떤 너의 작업적 시도나 이런 게 좋아서가 아니라 결국 판매, 돈을 쓰는 거는 “예빠야 되는구나” 싶은 게 자기 반려견이랑 닮아서 이거를 고르셨다... 이런 것들이 여기니까 또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 혼재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 처음에 그게 정체성이 없는 거고. 근데 혼재된 거랑 정체성이 없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여러모로 특히나 이제 네가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게, 처음 네가 나랑 작업을 처음 해본 거기도 하고 이 공간에서의 처음이기도 하고 이렇게 무언가를 해본 게 처음일 거라고 난 자부해.

채수정: 그지. 일단 기획자를 끼고서 한 것도 처음이었었으니까.

정찬용: 그러니까 절대로 절대로 뭐 공간이든 나는 못 잊는다. 이제 나는 그게 내가 가질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나는 뭐 항상 일을 이렇게 해왔으니까 너네는 잊혀질 수 있어. 근데 이 공간한테는 이 공간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 사실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근데 또 되게 유의미한 위치를 점했다는 거는 네가 시작을 해 가지고 그게 재밌는 것 같아. 이 공간 자체도 정체성이 없었잖아.

채수정: 맞아.

정찬용: 1차적으로는 내가 임대하고 들어와서 내 작업실이 된 거고,

그래서 내가 뭔가 이 정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박스 전시도 해보고 막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너의 방식대로 점유하면서 지금 이만큼의 정체성이 생겼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지켜보는 니 다음 타자들이랑 또 우리는 여기가 막 폐쇄적인 공간은 아니니까 또 교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뭐 재료를 공유한다든지 작업 방식에 대한 뭔가 아이디어를 공유한다든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러면 너무 이상적이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막 작업 얘기하고 막 예술 얘기하고 너무 막 좀 별로긴 한데, 약간 그런 게 내가 원하고 예상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채수정: 얼추.

정찬용: 작동은 하고 있다.

채수정: 올 때마다 그래도 다른 작가들도 있었으니까 같이 얘기하는 것도.

정찬용: 이게 그냥 만약에 전시장이야, 갤러리아, 혹은...

채수정: 이렇게 수다 못 떨지.

정찬용: 미술관,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 사무실이야.

채수정: 절대 못 떨지.

정찬용: 일단 놀러 가는 거 자체가 미리 예약하고 가야 되고. 그날 뭐 니네가 막 예기치도 않게 왔고, 뭐 무슨 작가는 갑자기 집에 있는데 전화 와서 “오늘 왜 작업실 안 열어요” 막 이러고 있지 않나. 재밌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과정도 어쨌든... 그러니까 전시라는 거에 너무 우리가 얽매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릴레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릴레이 전시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릴레이 프로젝트라면 사실 되게 가능성이 무한한 거고. 아 그런 부분들에서...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건 그거지. **이제**

철수 어떡해?

채수정: 철수? 철수는 금방 할 것 같아. 철수 뭐 금방 하지.

정찬용: 그래서 잠깐 이제 또 중간... 근데 우리가 얘기 진짜 많이 한 것 같잖아. 아직 1시간도 안 지났어.

채수정: 그래? 여기서 쓸 것들이 있을까? 오빠 말 되게 잘한다.

정찬용: 그리고 지금 그 GPT의 질문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다 했어. 대답을. 예를 들면 “그럼 이번 프로젝트에서 작가님이 만들어내고 싶은 상황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질문 자체가 상황에 대한 오해 때문에 좀 잘못돼 가지고. 예상 답변 보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설정 다 얘기했고, 시나리오적 요소 다 얘기를 했고. 벌써 그러면 1부가 끝인 거야. 와, 벌써 20분이 지난... “시추에이션 프로젝트가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우리가 전시를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실험이라는 게 흥미롭네요.” 이런 말 한 적 없는데... “다음 회차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과정에 다 얘기했잖아. 근데.

채수정: 그지. 그 과정에서 생긴 일도.

정찬용: 나눠볼게요. 그럼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휴식)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추에이션 프로젝트의 실제 구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기획 단계에서 예상했던 것과 실제로 진행하면서 달라지는 점도 많았을 같은데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앞에서 다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우리 웃긴 일들 되게 많았잖아. 인정해. 이제 네가 측정 잘못된 거.

채수정: 근데 측정을 잘못된 게 아니야. 왜냐하면 오빠가 한번 재봤잖아. 오빠도 같이 그때 진짜.

정찬용: 주문을 잘못된 거야, 그러면?

채수정: 아니야, 주문도 2800으로 똑같이 했어.

정찬용: 아니 2800이 아니야.

채수정: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 잘못은 이거였지. 여기 높이만 켜다는 거.

정찬용: 그러니까 이게 이게 좀 포장해서 얘기하자면... 처음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완전히 진행하고 진행하기 전에 이제 뭔가

이게 나한테는 하나의 실험장이고 연구실이니까 어떤 처음부터 공간 점유에 대한 얘기를 내가 많이 했잖아. 그래서 그 1차적인 이제 나의 뭔가 탐구했던 대상이 이 공간을 측정하는 방식 그거였고. 실제로 나는 도면을 만들어서 작가들한테 줘야 되니까 뭔가 개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측정을 하려고 레이저로 이제 막 몇몇 포인트들만 찍어 가지고 뭔가를 했으면 나한테는 그게 효율적인 방식인데... 이제 네가 하는 걸 보니까 되게 답답하긴 했지만 “아, 맞네. 너는 줄자로 더 디테일하게 네가 전시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 측정 안 하고 딱 필요한 부분들만 측정을 했잖아.” 그래서 “어, 맞네.”

“이런 또 공간을 점유하고 탐구하는 방식의 작가와 연구자 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그럴싸한데 막 이랬는데... 이제 설치 날이 돼 갖고 이제 벽에 붙일 게 왔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 많이 안 맞아.

채수정: 아니, 그 정도 많이는 아니야.

정찬용: 그 정도면 많이지. 왜냐하면 이게 전체가 안 맞는 거잖아.

채수정: 근데 밑에 잘라낸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밑에서부터 붙였으면은?

정찬용: 뭐 소리 하는 거야?

채수정: 위어가 뜨고 밑에가 남았잖아.

정찬용: 밑에가 전부 남은 게 아니잖아.

채수정: 이제 일부분만 남긴 했지.

정찬용: 저거 왜 저렇게 했는지 생각 안 나지? 너 일단 여러분, 작가가 다 할 것처럼 해놓고서 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사다리를 타고 제가 올라가서 당연히 이제 윗선에 맞췄죠. 그랬더니 이제 되게 다급하게 “오빠 오빠 안 되겠는데 이거 왜 이러지?” 그러더니 보니까 밑에가 뜨는 거야. 맞아. “야 그럼 밑선에 맞춰야 되겠다.” 그래 갖고 이제 밑선에 맞춘 거지.

채수정: 왜지?

정찬용: 그러니까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잘못됐는지 난 모르지.

채수정: 이제 높이를 쥔 거면은 공간에 가서 한 면의 높이만 쥔 게

아니라 다각도의 면을 높이를 다 재봐야 됐었다.

정찬용: 근데 그게 가능해?

채수정: 나는 당연히 이제 바닥이 수평일 거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그걸 전혀 고려를 안 했어. 바닥이 휘어져 있을 거라고는.

정찬용: 근데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페인트 칠하고 그랬을 때 엄청 개고생했잖아. 이 얘기도 나중에 기회 되면 풀겠지만 내가 그때 이제 막 건물주랑도 얘기하고 하면서 이 바닥도 야매로 다 만든 거고, 일단 야매로 만들었다는 게 어떻게 수평에 맞을 수가 있니?

채수정: 그러니까 전혀 그건 생각을 안 했지. 쥔 때 그냥 여기 높이만 재면 되겠지 했는데 여기 높이랑 높이들이 다 달랐고 길이도 다 다르고 가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달랐어. 그러니까 쥔 필요가 없었어.

정찬용: 제일 약간 예상이랑 다르게 진행됐던 거. 일단 벽지, 원래는 시트 프린트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거 불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 비용도 아끼고.

채수정: 왜냐하면 가로가 저게 지금 9m 8m 몇 미터였지?

정찬용: 9.3인가 막 그래.

채수정: 그랬었으니까. 근데 비용도 확실히 아꼈고.

정찬용: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진행 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이 공간이 막 그렇게 습하거나 막 그런 공간은 아닌데 이제 갑자기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종이가 이제 수축했다가 팽창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전시장이었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사고인데.

채수정: **여기 전시장이 사고야, 작가의 사고야? 전시장이 사고야 이거는?**

정찬용: 그렇지. 왜냐면은 온습도 조절을 못한 거니까. 근데 나는 애초에 이게 전시장이라고 했어도 너네한테 고지를 했잖아. “여기 말도 안 되는 공간인데 할래? 지원 사항도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일단 전시장이 아니고 여기서도 그래도 되는 게 프로젝트니까 재료에 대한 실험을 해본 거야. 적합한 그게 아니구나. 만약에 이거를 또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습도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재네 종이니까.

채수정: 저렇게 많이 뜯 줄은 몰랐어.

정찬용: 응, 그런... 그리고 부착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벽만 해도 벌써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아. 페인트도 할 얘기 진짜 많긴 한데.

근데 그거는 네 전시에 대한 얘기는 아니야.

채수정: 그치 그치. 그건 이 공간에 대한 그거였었으니까.

정찬용: 도와주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만두 천사' 조각들의 사이즈.

채수정: 아.

정찬용: 맞아, 예상과... 이거는 약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확실히.

그리고 저 '만두 천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프린트한 그 상태로는

아예 혼자서 직립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 설치의 형태에 대한

고민들이 의도치 않게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참에 어디까지를

고려해야 되는가, 작업을 만들어서 생산해 낼 때 창작을 할 때

어디까지 고려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예를 들면은 '만두 천사'

중에 그 모델링 중에 이제 공중에 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조각들,

피스들을 전시해 봤잖아. 이상하게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전시를 안

보던 친구들도 그거 보고 와서 "어 떨어졌다" 막 이러면서 사고인

것처럼. 나는 그 상황이 되게 재미있었던 거든. 근데 설명을 또 해 주면

굉장히 그럴싸해. 그러니까 막 관심이 없다가 결국에는 그냥 결론만

보면 이거 그냥 3D 프린팅이니까.

채수정: 그지. 그냥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제 생성해 준 이미지를 그대로

뺐은 거니까.

정찬용: 만약에 전시고 저게 어쨌든 뭐 특히 갤러리 전시였으면

완벽하게 뭔가 마감이 된 그거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러면

저 조각들은 있어도 없어져야 되는 애들인데 저게 그대로 노출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애네들은 보편적인 생각에 입각해 가지고 "이거

어디서 떨어졌다, 부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게 원래는 공중에 떠 있어야 되는데 공중에 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물리 법칙이 다르게 작용하잖아. 가상 세계와 피지컬 세계는." 이거는

강재원 작가 노트야. 이렇게 써먹는 거지. 이래서 작가 연구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영상 편집도 그렇고

어떤 포인트로 어떻게 잡을 것인가, 내가 또 구현해 내고 싶은 게

사실 프로그램 상에선 안 돼 갖고 내가 또 셀프로 막 하고 그랬었잖아.

결국에는 또 그 과정에서 인간의 기술이 되게 아날로그적인 노가다적인

기술이 어쨌든 간에 앞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채수정: 절대 이거는 애가 해주는 날도 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내가 다 해야 돼.

정찬용: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약간 직감적으로 어느 부분은 알고 있잖아.

왜냐하면 사실 우리 밥그릇이랑도 연결되는 문제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없잖아. 쉽게. 근데 체감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 난 내가 직접 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하는 과정들만 봐도 이렇게 느끼는데... 근데 웃긴

거는 어쨌든 그 조각도 AI나 인간이 만든 것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는데 지금 비유적으로는 지금 그 3D 프린트 AI가 만든...

채수정: 아니야 아니야. 거의 반반 아니야?

정찬용: 어쨌든 판매가.

채수정: 그지. 저거(만너스)는 내가, 내가 가져갈 거야.

정찬용: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나는 유의미한 뭔가 결과라고 생각해.

만약에 이제 압도적으로 내가 의도했듯이 내가 바라보는 관점처럼

'만너스'를 모두가 다 좋아해,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결론이 너무

뻥하니깐. 근데 일단 우리 관계에서부터 의견이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한번 그러면은 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했는데 반반이어도 재밌는

거고 AI가 만들어 놓은 게 더 예뻐도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심지어 이게 막 정말 실험전이라서 아예 우리가 판매를

진행을 하지 않았어. 가격 고민조차 하지 않았어. 그러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몰라. 왜냐하면은 그 다 그렇잖아, "이거를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나아?" 하면은 처음에 이제 그 질문을 다시금 확인을 해. 물어본

사람들이 이게 더 비싸잖아. 가격. 그럼 우리가 또 정정을 해.

"아니, 가격 고려하지 말고 그냥 봤을 때." 그러면 또 이제 고민하면서

얘네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집에 놓는다고, 우리 집에 놓는다고
생각한다고 가정”을 한단 말이야.
채수정: 맞아.

정찬용: 그러니까 이게 챗GPT가 한편으론 무서운 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프롬프트를 이해하잖아. 그러니까 되게 이 프로젝트가 되게
다층적으로 그런 질문이랑 대답 하나하나마저도 다 어쨌든 생성형 AI가
주로 다뤄진 기술이니까. 잠깐 쉬었다 할까요?

채수정: 잘 녹음됐어?

정찬용: 잠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다 가서가지고.

채수정: 아이, 이거 후드 품질이네 다.

정찬용: 이제 쇼핑 그만하시고 다시 집중하시죠.

채수정: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정찬용: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갈색이 얼굴 새하얗게 보이긴 이쁠 것
같아. 너는 약간 이런 색깔 별로인 것 같아.

채수정: 나 여름 쿨톤이래.

정찬용: 밝은 색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채수정: 아니 이거 나 3년 전에 샀던 거거든? 뉴진스 민지가 입고
땡기더라고. 개가 나 따라 했어.

정찬용: 이거 넣을 거야. 문제적 발언 “**뉴진스 민지가 나 따라 했어**”
이것만.

그래서 이제 2부 녹음하던 거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기획이랑
실제로 달랐던 거에서 설치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뭐 느끼는 바도 많았고 배우는 바도 많았다. 사실 그런
게 있었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어. 단 하나도. 네가 예상했던 좌대의
개수도 달라졌고.

채수정: 그지. 완전 애초에 기획했던 거랑은 완전 달라졌지.

정찬용: 좌대도 달라졌고 작품의 개수도 달라졌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확실히 아 이 방식이 작가들이랑 소통하는 데 확실히 먹히는 방법

중에 하나야. 이거 뭔가 기획하시는 분들한테는 비법이 될 수도 있는데
스케치업도 안 돼. 블렌더든 디멘션이든 모델링해서 렌더링한 전시의
디자인 이미지를 보여줘야 작가들은 오히려 시각적 자극에 약한 것
같아. 너 그거 보고 나서 “어 뭐야 오빠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갑자기
뭔가...

채수정: 카펫도 무조건 해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정찬용: 카페트랑, 그리고 좌대.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3D 프린트들을
4개만 하면 안 돼. “뭐 난 8개 조명마다 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네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는데 그걸 보여주는 순간...

채수정: 아니야. 원래는 돈이 많이 드니까는 힘들 것 같은데 했다가
AI가 4개씩 제시를 줬었잖아.

정찬용: 그중에서 하나씩 고르기로 했었어, 원래.

채수정: 그지. 근데 이제 굳이 고르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해가지고서는
초반에 8개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찬용: 아니야 아니야, 확답 안 줬어. “8개? 8개? 4개만 할까?” 그러면
네가 계속 돈 얘기하니까. 맞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다가
“아닌데 8개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때 이제 내가 그걸 보여준 거야.

그래서 “왜 ㅋㅋㅋ 또?” 이러길래 “내가 보여줄까?” “존나 멋있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 갖고 이제 이 구도가 완성이 된 거고. 이렇게 진행 중에
변수는 저 벽을 어떻게 해야 되냐, 대칭을 할 거냐, 뭐 중앙에 하나하나
놓을 거냐, 늘릴 거냐...

채수정: 원래는 계획이 그거겠지. 여기를 정면만 벽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 다 벽지로 해가지고서 약간 패턴식으로 약간 계속 반복되는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경제적인...

정찬용: 맞아. 계속 돈 얘기하니까 나는 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현실적인 거를 계속 고려해 보다가 약간 집중도 높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이제 그게 너한테 먹혀들었고. 그렇게 진행하던
중에 하도 저 벽 어떻게 하는지, 뭐 기둥을 빼니, 뭐 하나를 길게
늘리니, 임팩트가 없니, 가운데 기둥도 감싸니 어찌니... 막 이런 거

하던 중에 이제 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생각을 돌리려고 카페트를 빨갭게 깔아봤는데 “야, 깔아야 되겠는데?” 약간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시각적 자극에 약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사실 그게 프로그램 상에서 모델 렌더링 한 거는 현실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빠뜨려진 공간인 줄 몰랐지. 그래서 뭐가 이렇게 그런 변수가 있었고. 근데 그 변수는 뭐 항상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질문이 또 그거야. “실제로 실행해 보니까 뭐가 가장 크게 달랐나요?” 해서

모든 게 다 달랐네.

채수정: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 하나 생각했던 것대로 되지 않았다.

정찬용: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그래서 보통 전시는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게 중요한데...” 중요하지. “시큐에이션 프로젝트는 오히려 변수를 즐기는 방식이네요.”

채수정: 즐긴 것까지는 아니고... 즐긴 건 아니고 그냥 경험해 봤다. 새로운 걸.

정찬용: 근데 확실히 이거에 대해서는 몰라. 이제 너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작가라서 좀 유연한가? 내가 더 예민했잖아. 확실히. 그러니까 너는 막 “이렇게 시간이 너무 필요해”, “너무 힘들어”, “피곤해”, 이거에 대한 거였으면 나는 내가 이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오히려 너는 “오빠 뭐 어찌고저찌고 할게”, “내가 뭐 나 할게”, 뭐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결국에는 그거 하는 건 나야.

채수정: 아니 그리고 설치도 원래 일주일 전에 하기로 했다가 불안해 가지고 오빠가... 맞아 설날에.

정찬용: 테스트만 해보자였지. 테스트만 해보자.

채수정: 그냥 한 장만 붙여보자였는데 이제 그때 필 받아서 다 붙이고.

정찬용: 한 장 붙이느니 그 하나로 가늠이 안 되니까 다 붙여봐야 뭐가 나올 것 같아서.

채수정: 그래서 전시 시작하기 2주 전에 설치가 벌써 다 끝났었지.

정찬용: 그래서 디테일을 잡을 시간이 좀 많았지.

채수정: **전시가 아니라 프로젝트.**

정찬용: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 이거 첫 번째 팟캐스트 녹음하면서도 이미 내가 말을 내뱉으면서도 또 전시라고 그랬네.

채수정: 이게 전시라는 말을 더 많이 써서 그런가. 뭐가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예요”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그냥...

정찬용: 전시는 한글이고 프로젝트는 영어라서 안 붙는 거 아냐?

채수정: 그런가. 네 글자와 두 글자.

정찬용: 근데 이제 전시라는 말 자체도 좀 여담인데 큐레이터랑 비슷한 것 같은 게 전시는 그냥 그 사전적 의미까지 갈 것도 없이 한자어만 풀어도 펄 전자(展)에 보여줄 시(示)잖아. 그 펼쳐서 보여주는 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전시는 전시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미술계에서 통용되는 미술 전시라는 형식이 있으니까 그 상징적으로 되게 뭐가 권위가 있잖아. 전시를 한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너네들도 전시한다고 그러면 부담스러운데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나는 이것도 되게 의아했던 말이야. 이 공간을 프로젝트 이제 구획할 때 너네들한테 제안하는 것도 나는 하자 그러면 무조건 다 할 줄 알았어.

채수정: 그래? 다 하지 않았어?

정찬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담스러움도 느끼지 않고 그냥 더 재미있게 자유롭게 뭐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되게 호의적일 줄 알았는데 호의는 호의인데 되게 걱정스러운 걱정이 앞서는데...

채수정: 왜냐하면 공간이 다들 예상해놓은 것보다 너무 커졌으니까.

정찬용: 그러니까 넓이에 대한 부분은 너한테는 있고, 다른 친구들은 뭐 준비하던 게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

채수정: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사람들.

정찬용: 근데 나는 이미 뭐가 섭외하기 전에 인터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애네가 느꼈던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고 내가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얘기들 다 했는데도 할 게 없다고 그러면은... 약간 뭐지? 그래서 그래 그럼 전시가 아니어도 그냥 나랑 뭔가를 해도 돼. 그게 과정이 돼도 되고 그냥 뭐 퍼포먼스가 돼도 되고 그냥 프로젝트가 돼도 되고. “프로젝트요? 그러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시 같은 거야.

채수정: 약간 나 그래서 약간 세뇌시키는 것도 있었어. 따로 이제 내 뒤에 할 작가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작업 얘기할 때 “프로젝트라고 우리.”, “프로젝트요 프로젝트.”

정찬용: 가스라이팅이야?

채수정: “프로젝트예요 전시 아니고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실험 실험” 계속 이렇게 얘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찬용: 프로젝트라이팅. 그래서 변수를 즐기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채수정: 또 괴롭진 않았어. 그 변수가.

정찬용: 아니야, 괴로웠어 나는.

채수정: 그래? 나는 괴롭진 않았어.

정찬용: 나는 괴로웠고. 근데 이제 괴로웠던 이유도 그건 것 같아. 나도 전시처럼 생각하고 뭔가 이 프로토콜 자체를 그냥 “이때까지는 나 이거 해야 되니까 이때까지 너 자료 넘겨줘야 돼.” 이런 거... 근데 그전에 이제 너한테 부담 갖지 말고 해. 어차피 이거 뭐 누구 부를 것도 아니고 전시도 아니고 판매 목적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하다가 우리 시간 나면은 자리도 바꿔보고 그때 가서 사진 찍어도 되고 약간 이랬는데 이제 설치가 되고 나니까 뭔가 퀄리티가 있어 보이잖아.

채수정: 맞아. 그날 사진 찍고 그 에피소드. 그 에피소드 얘기하자. 우리 작품 사진을 우리가 찍었잖아. 근데 이제 나도 카메라를 이제 남자...

정찬용: 좋은 카메라 있잖아. 되게 좋은 카메라.

채수정: 이제 남자친구가 영상 쪽에 있으니까 좋은 카메라와 좋은 삼발이를 빌려다가 가지고 오고 이제...

정찬용: 야, ‘삼발이’ 없어 보여. 트라이포드. 얼마짜리라고요?

채수정: 그게 아마 400만 원인가.

정찬용: 아니 트라이포드가 그 정도면 카메라도 렌즈랑 엄청 비쌀 텐데.

채수정: 근데 난 쓸 줄 모르는데 일단 좋은 장비면 더 잘 찍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빠도 이제 나름대로 여기 공간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카메라를 구매한 게 있어서 이제 같이 사진을...

정찬용: 근데 나는 예산이 이제 생각보다 이거 준비하면서 내 예상보다 돈을 훨씬 많이 쓴 거, 한 10배를 썼어. 그래서 “야 너 핸드폰 좋으니까 폰카로 찍자.” 나 전경 사진은 필요하니까. 어쨌든 그 모든 과정을 참여자들에게 일임을 했잖아. 일종의 책임감 회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 해보면서 배우는 게 맞잖아.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GPT한테 추천을 받아서 샀는데 한 번도 이제 제대로 써보지는 못하고. 내가 이제 프리 프로젝트 했을 때 그냥 뭔가 대충 찍었는데도 나쁘지

않은 거야, 여기가. 그래 갖고 이제 수정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해달라면 해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작가들이 사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결국에 남는 건 사진이니까. 니네가 뭐 공모를

쓰든 포폴을 만들든 사진을 계속 쓰니까 한 번 찍을 때 들여갖고 잘

찍어놓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나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좋은

카메라랑, 뭐 너는 웃기려고 한 얘기겠지만 이게 또 몰라. 이게 뭐 약간

남자 여자 가르는데 아니지만 약간 그 남자들이끼리의 묘한... 그 약간

테크 그게 있어, 부심. 나는 자동차 이런 거 뭐 시계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아 꼴에 나도 남자인가.” 싶은 게, 이제 막 네가 이거

얼마짜리라고 그리고 네가 계속 남자친구 회사, 남자친구 어디서 빌려서,

남자친구가 이거 조심하라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주눅이 든 거야. 그래갖고 아씨 근데 니가...

채수정: 난 그거 나 혼자한테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였어.

정찬용: 근데 사진을 네가 못 찍는다고 했는데 그냥 못 찍는 게

아니었잖아.

채수정: 아니 그냥 카메라를 난 분명히 그래서 학부 때 사진 수업도

듣고 되게 유명한...

정찬용: 이것도 스스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채수정: 유명한 교수님, 사진으로 유명한 교수님한테 사진도 배우고 했었기 때문에 과거에 10년 전에. 난 당연히 이 정도 카메라면은 뭐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은 카메라다 보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찬용: 그래서 GPT가 추천하는 대로 막 뿔 하고 어떻게 어떻게 그날 찍어 가지고. 촬영을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했어. 그래 갖고 막 조명에 맞춰 가지고 설치 전에 한 번 싹 돌리고. 작품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빠 그냥 사무 공간에 있는 조명이 더 나은 것 같은데” 해갖고 여기서 또 한 번 다 찍고. 그러고 나서 네가 이제 나를 혼자 보정을 해본다. “보정으로 처리하면 돼.” 그러더니 보정도 너무 바보같이 했고.

채수정: 아니 노이즈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기 공간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손도 댈 수 없는 수준이었어.

정찬용: 그래 가지고 이제 내가 갤러리에서 일했을 때 되게 비싸고 유명하신 분들이 어떻게 찍는지를 본 게 있어 갖고 대충 이제 설명을 해주니까 나중에 찍은 버전으로는 결국 네가 잘 흉내를 냈잖아. 그라데이션.

채수정: 아, 그지 그지 그지.

정찬용: 그래서 근데 이제 또 다시 촬영해야겠다고 설치가 끝나고 전경 찍겠다고 이제 들고 와서 또 막 난리를 피우다가 그냥 내가 찍어도 될 것 같아서. 이것도 되게 너는 그렇게 못 느꼈을 수 있는데 엄청 눈치 보다가 멧쩍게 가고. 나도 이제 내 거 찍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들고 나왔는데 너무 잘 나오는 거지. 화각부터가 좀 달랐지.

채수정: 어 완전 달랐고 노이즈도 오빠께 더 없어 보였고 완전 달랐어. 그래서 이제 이제 좌대가 여기 8개 있으면은 오빠가 첫 번째 좌대 찍고서는 두 번째 좌대 가면 내가 첫 번째 좌대 다시 찍고.

정찬용: 내가 찍었던 자리에서 똑같은 구도로.

채수정: 다시 찍고. 그리고 결국은 GPT가 알려준 대로 조리개나 이런 모드 안 하고 결국은 P(프로그램) 자동으로 찍었어 다 나.

정찬용: 어 맞아 맞아.

채수정: 다 자동으로 해서 자동으로 찍고.

정찬용: 나는 나는 잘 지켜서 찍고. 그거 뭐 하면서 결국 작품 사진 다 다시 찍고 결국에는 까만색 천 들고 온 거 네가 들고 서 있고.

채수정: 맞아. 걸 데도 없어서 들고 서서 찍고 했어.

정찬용: 그래서 또 배운 거지. 이걸 모든 게 변수였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중요한 거인 만큼 돈 주고 찍자.

채수정: 아니 근데 다시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굳이 돈 주고 찍지 않고.

정찬용: 그럼 넌 배운 게 없는...

채수정: 이번 기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정찬용: 그래서 모든 순간들이 예상치 못했던 것도 맞고. 그리고 사실 뭐 여기 질문에는 예상 답변으로 “계획된 전시와 즉흥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내가 얘기했던 여기가 큐레이터 작업실이고 이게 전시가 아니라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작동하는 어떤 혼재된 방식. 그게 나는 문제점으로 처음에 인식을 했는데 그게 문제점이 아니라 특징적인 요소로 작동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에 이거를 계속 운영하게 된다면 내 개인적인 성향이 금방금방 질리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이게 작동하는 방식 중에 중요한 게 **무의미한 공간을 점유하기 시작하면서 정체화가 동시에 작가들의 점유에 의해서 진행되고.** 근데 그게 1년이 됐든 어떤 마무리 발표가 되는 또 프로젝트의 마감에 있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계약했으니까 1년 계약의 마지막 지점이 마감이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정체화가 일종의 어떤 기간 동안은 끝나는 거잖아. 그럼 정체성이 부여됐으니까 나한테는 재미가 없어질 거 같아. 왜냐면은 너도 처음이니까 오히려 더 재밌었을 수도 있어.

채수정: 이제 그 뒤에 이제 계속하면서...

정찬용: 하면은 계속 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만큼은 작가들이 그렇잖아. 전시 기간 준비하는 시간 어떻게든 벌려고 “좀 하반기에 하면 안 돼요?”, “12월에 하면 안 돼요?”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여기는 먼저 하는 게 오히려 이득이다. 왜냐하면 먼저 하는 게 더 자유롭고 눈치 안 봐도 되고.

채수정: 맞아. 그리고 오히려 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정찬용: 그치 그치 그치.

채수정: 계속 뭐 하나 만들 때마다 가지고 오고 가지고 와서.

정찬용: 근데 그거는 사실 뭐 하고 있어도 여기는 그게 가능하니까.

근데 오히려 너는 그런 분위기조차 형성이 안 됐던 시기부터 그냥 자유롭게 들락날락이면서 네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그냥 와갖고 너 뭐 하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끼어들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

채수정: 같이 이야기하고.

정찬용: 그런 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이제 뭐 굳이 이게 뭐 어떤 대안이 되는 주체는 없으니까 대안 공간은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뭐 기관이다 갤러리다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대안 공간이고 또 거기에도 속하지 않으면 신생 공간 뭐 이렇게 구분 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근데 그게 명확히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 근데 대안 공간의 시대가 끝난 기점이 결국에는 제도화돼 버렸잖아. 뭐가 제도권으로 흡수돼 버렸잖아. 그게 뭐 자본의 문제건 어떤 차별점을 획득하지 잃어서건. 근데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고착화가 돼버리면...

채수정: 흥이 떨어질까 봐?

정찬용: 나는 개인적으로 **똑같은 게 유지되는 거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거는 기획이 아니라 운영과 진행의 영역이니까.

채수정: 근데 옳바는 1년이 충분하다고 봐? 이 정체성이...

정찬용: 나는 지금 이거 하나 하는 것만 해도 맨날 얘기하잖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렇게 뭔가 문득 느끼는 지점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1년... 나는 반 년? 뭐 혹은 더 사실은 그렇잖아 한 달이라도 니네 기간을 2~3일로 줄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설치랑 그것만 조금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4주씩 배정을 한 것도 너무 전시의 개념 관점으로 생각을 한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학교에서 교내 전시한다고 그러면은 뭐 1주 2주 길어야 2주잖아. 그것도 나쁘지 않았겠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랑 뭘 해볼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기간은 한 달을 배정을 하지만 오히려 그 한 달에서 2주를 쪼개서 발표는 2주만 하고 2주 동안 이미 설치하는 끝났지만 이 안에서 뭔가를 더 바꿔보면서 논의를 해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좀 적용을 해볼 거야. 남은 기간 남은 작가들한테는. 이거는 이제 내 관점에서 릴레이가 되는 거지 계속 연장하면서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 같은데 1년 이상이 되는 게 우려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 그거잖아.

그러니까 **대안 공간, 신생 공간이 실험적인 거 더 하고 기회를 획득하지 못한 어떤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사람들이 스스로 기회를 만들려고 이제 한 거잖아.** 시작된 거잖아. 근데 결국에는 거기도 유명해지고.

채수정: 맞아.

정찬용: 거기서 뭔가 전시를 하면 스펙 쌓기에 큰 도움이 되니까 뭔가 되게 경쟁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도 결국엔 똑같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 거지. 퇴색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라면 공간이 계속 바뀌어야 돼.

채수정: 아예 공간 자체가.

정찬용: 또 의미 없는 공간, 그러니까 틈새 공간을 찾아서 나는 또 이제 작업실을 구하고. 작업실을 여기를 구한 이유는 난 명확하잖아. 직주 근접 때문이잖아. 그래서 무리하면서도 여기에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나 좀 바다 있는 데서 살아보고

싶어서 갑자기 제주도나 부산으로 가.

채수정: 재밌겠다.

정찬용: 그러면 또 벌써 막 아이디어가 솟잖아. 그러면은 같은 비용, 만약에 내가 유지할 능력이 유지가 된다면 같은 비용이면 거기서는 조금 더 넓거나 뭔가 공간이 더 구체화 있거나 그러면 조그맣게 너네한테 방을 내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 숙식은 안 되겠지만.

채수정: 약간 또 다른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레지던시 같은.

정찬용: 그치. 레지던시 프로그램처럼 운영할 수도 있는 거지. 약간 벌써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 보면 확실히 여기에서는 어떤 그제 여기에 생명이라는 게 유한한 것 같다. 무한하지 않다.

채수정: 너무 짧은데 1년.

정찬용: 왜냐하면 벌써 이제 공간을 어떻게 점유하는가가 다 다를 필요는 없지만 한정돼 있잖아. 이 공간은 유한하니까. 근데 1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뭔가 레퍼런스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카이브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공간이 너무 어려우면 이 공간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썼나 찾아보잖아. 나는 그게 없어야지 더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상황일 수 있지만 그게 없어야지 좀 더 자유롭게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거지.

채수정: 아니 오빠가 여기 공간을 바꿔보는 거는? 지금은 사무 공간이 여기로 정해져 있잖아. 근데 이제 전시 끝날 때마다 사무 공간의 위치를 바꿔.

정찬용: 그래 봤자 큰 틀은 같잖아.

채수정: 이렇게 세모로 바꿀 수도 있고.

정찬용: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는 자체가 도면은 똑같잖아.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조명의 위치는 정해져 있어.

우리가 생각보다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사실은 나는 물리적인 공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간만 지원하고 다른 것들은 니네가 알아서 해결해라였는데, 사실은 공간보다 조명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만약에 여기가 레일이 달려 있고 조명의 위치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자유롭게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무언가 사진이 예쁘게 나오거나 작품이 예쁘게 보일 수 있는 위치는 조명의 영향을 너무 받으니까 아무리 내가 스마트 조명 “야 이거 완전 신기술이야 이거 다른 갤러리나 기관은 없을걸.” 막 해도 그 위치 자체를 바꾸지 못하니까 아무리 색이나 밝기를 조절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전체가 이제 나한테는 공간의 영향권이니까. 그냥 단순히 위치만 바꾼다고 해서 지금 ‘만너스’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잖아요. 최적의 위치를 우리가 찾은 거니까 단순히 그냥 그렇게 조율로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길게 할 생각은 없다. 근데 이 명맥을 유지할 어떤 방식들은 아까처럼 뭐 이사를 한다든지, 뭐 똑같은 공간을 운영을 하는데 내년에는 아싸리 갤러리로 바꿀 수도 있고. 뭐 한 해야 뭐 여기도 먹고는 살아야지. 나는 뭐 땅 파서 월세 내나. 근데 이것도 지금 올 한 해 동안에는 내가 이거를 퇴직도 했겠다,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어쨌든 나는 그러면은 백수 겸 대학원생 신분이니까. 대학원생 신분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 시기만 누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만끽해보자. 돈에 쪼들리는 건 당연한 건데. 너 돈에 쪼들려 안 쪼들려.

채수정: 나 개쪼들리지.

정찬용: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거란 얘기야. 이게 굳이 대학원생 신분의 퇴직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큐레이터라든지 뭐 작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똑같은 상황일 테니까... 그거는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내가 지금 당장 가장 흥미롭고 재밌는 거는 공간에서 채수정이랑 뭐 해 막 하면서, 뭐 이 ‘창작적 폭발’이란 말이 너무 유치해서 저번 팟캐스트 녹음하면서도 내가 막 어이없어서 웃었는데. 근데 그런 게 재밌는 거잖아.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의 고민은 그건 거야. 이제 막 다음의 질문들이 대부분 여기는 과정 중심이다, 뭐 그것에 대해서 아카이빙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 **왜냐하면 기록되는 순간 사실 전시랑 차이점은 없어져 버리니까 이미지로만 남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팟캐스트도 그래서 하는 거고. 팟캐스트도 녹음했더니 뭐 피드백이 온 게

가래 끓는 소리...

채수정: 나 오늘 침 되게 열심히 삼켰어.

정찬용: 그래 갖고 아니 나는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려고 또 GPT랑 클로드에 검색해 보면서 좋은 그 녹음 장비 가성비 있게 뽑으려면...

그래서 이것도 중고로 되게 비싸게 주고 샀어, 나름.

채수정: 그래 이게 전문 장비야 이것도.

정찬용: 근데 사실 이렇게 쓸 거면 아이폰으로 했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있어 보이니까.” 이러면서 또 한 번 이런 장비도 한 번 경험해 보는 거고.

채수정: 생각보다 장비 욕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오빠가.

정찬용: 왜냐면 이번에 유독 그랬던 게 네가 이제 데이터랑 기술 이런 거 다루니까 네가 답답하게 구는 거를 내가 해결하는 데 서포트를 하거나 “너 그런 거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뭔가 잔소리나 화를 내려면 내가 너만큼은 다룰 수 있어야 돼. 그래갖고 사실 우리 이거 막 시작하는 오프닝 음악 나오는 거, 네가 막 그 AI 음악 만드는 플랫폼 이런 거 막 찾아보다가 시도했는데 이 이상의 좋은 곡이 안 나온다 그런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 그러면서 갑자기 막 GPT 공부도 더 하고 막.

채수정: 나보다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이제.

정찬용: 활용도 너보다 잘하지. 완전 막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채수정: 나도 대화 자주 해.

정찬용: 근데 쓸모없는 대화하잖아.

채수정: 아니 그게 중요한 거지 꼭 필요한 것만 물어봐야 돼?

정찬용: 너는 그거니까 협력자니까.

채수정: 일상 얘기도 많이.

정찬용: 반려 친구니까.

채수정: 친구야 거의 친구.

정찬용: 나는 그냥 철저히 수단이고 그냥 기술로 내 어시스트로만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과정 때문에 이런 것도 써보고 그리고 그래야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러니까 돈 주고 말기면

무조건 좋지. 근데 그럴 거면 이 공간도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막 처음에 큐레이터 진짜 작업실 안 주네. 뭐 이론 전공 작업실 없네.

다른 데도 뭐 연구실 정도 그냥 동아리 방 정도 배정해 주네. 그러면 나도 뭔가 이렇게 작당모의 같은 거 하고 싶은데 공간이 있어야겠네.

해서 뭔가 이제 내가 궁금하니까 내 돈 들여서 해야지 누가 해주지 않잖아. 만약에 이제 “큐레이터는 작업실이 왜 없을까요? 혹은 있어도 왜 이런 형태가 아닐까요? 내가 테스트해보게 지원해 주세요.” 한다면 뭐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주겠냐고.

채수정: 그러면 오빠한테는 큐레이터한테 창작 공간이 왜 필요한 것 같아? 지금까지 약간 나밖에 안 해보긴 했지만.

정찬용: 일단은 이거는 뭐 각자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요새 스투드 이런 거 보면 한창 그런 게 살짝 워낙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파급력은 적지만 살짝 쿵 이슈가 이제 관련자들한테 있었던 게 “큐레이터가 뭐냐”였어. 근데 이걸 내가 항상 갖고 있는 질문이었고. 근데 실제로 이제 실제 큐레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제 미국 기준 그러니까 서구 기준이지 거기서 넘어온 건 맞으니까. 서구 기준에 부합하는 서구의 대학 박물관이라든가 어디 유명 기관 소속의 부서의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연구직이다. 그리고 갤러리에는 큐레이터가 존재할 수 없다.

채수정: 약간 뭐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들.

정찬용: 그치 그치. 근데 나는 너도 알다시피 갤러리에서 일하긴 했지만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일했잖아. 그래서 많이 싸우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미디어나 매체에서 유명한 갤러리들을 얘기할 경우에 거기서 이제 출판도 하고 그렇지 단순히 작품만 팔지 않잖아. 물론 자기네들이 소개하는 작가와 작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출판도 하고 연구를 하는 거라고 해도 어쨌든 그것도 연구는 연구인데. 그러하면 그 연구를 진행하는 큐레이터들은 갤러리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큐레이터가 될 수 없나. 약간 이런 질문까지 하면서 논쟁이 있었어. 그러다가 얼토당토하게 끝난 게 누가 등장했냐면 도슨트들이 등장해.

채수정: 어.

정찬용: 도슨트는 사실 몰라 한국의 경우에는 직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고 그게 우리나라는 되게 현지화를 잘하잖아. 그래서 월마트나 이런 거 다 망하잖아. 이마트한테 지고 나가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그 해외 기관에서 일하시는 자칭 썬 큐레이터는 도슨트는 자원봉사다. 그리고 도슨트를 누가 교육시키냐 학예사들이 한다. 도슨트는 큐레이터와 다르고 교육직도 아니다. 그냥 자원봉사다. 그냥 나레이터일 뿐이다. 근데 맞거든.

채수정: 그래서 자원 봉사로 뽑으니까 일단 뽑을 때.

정찬용: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스타 도슨트가 있어. 스타 큐레이터는 난 지금 누군지 모르겠거든. 국내에서.

채수정: 나 도슨트는 그래도 인스타에서 많이 본 것 같아.

정찬용: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니까 막 대중적인 시각에서 본다고 그러면 큐레이터보다 도슨트들의 인지도가 훨씬 높을걸. 이런 이슈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큐레이터라는 것들 큐레이터한테 창작 행위가 과연 해당이나 될까. 이미 진짜 그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물며 뭐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내가 이제 지도 교수님이랑 면담을 할 때도 뭔가 선긋는 느낌을 받을 때 “네가 그거를 왜, 그거를 큐레이터가 왜, 너는 큐레이팅을 그럼 왜 하고 싶은 거야.” 뭐 이런 질문을 하실 때. 내가 자신이 없어서 쉽사리 대답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큐레이터는 창작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구만 해야 되나? 그럼**

내 기준 내 표현으로 그러면은 큐레이터는 결국 작가들 따かり야?”

이렇게 되는데 나는 창작욕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채수정: 함께 뭔가 꾸려나가고 싶은 거지?

정찬용: 근데 이게 전시장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게 전시의 주인공은 단연 작가도 아니고 난 작품들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작품과 동시에 당연히 그거를 창작해낸 작가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기획자. 큐레이터도 아닌 것 같아, 기획자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전시가 일단 아니니까. 우리 계속 했던 얘기.

채수정: 그렇지 프로젝트니까.

정찬용: 이거는 내 마음대로 뭔가를 시도해 볼 수 있잖아. 작가랑 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전시였으면 나는 너가 없으면 아예 뭔가를 해볼 수가 없는 존재야. 왜냐하면 전시라는 건 작가가 직접 기획하기도 하고 그냥 갤러리 전시 같은 경우에 사실 따로 기획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여기는 내가 없으면 넌 못했어. 상황이 역전이 된 거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나한테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공간이지만 이 공간이 매체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작가와 함께 뭔가 창작 행위를 흉내라도 내볼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지금까지는 생각한 거지. 근데 이제 큐레이터가 창작 행위를 왜 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래서 내가 GPT한테 물어봤어 “큐레이터는 창작자야? 창작 행위는 뭐야?” 그랬더니 확답은 안 줘. “창작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로 끝나. 요새는 전시가 옛날처럼 단순히 나열하고 막 되게 명확하게 뭐야 이건 뭐야가 아니잖아 되게 열린 결말 같잖아. 요새 전시들은.

채수정: 뭔가 꾸러 나가는 것도 창작 행위긴 하잖아.

정찬용: 꾸러 나간다는 게 뭔데 네가 생각했을 때.

채수정: 그 작가들이 직접 작품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공간을 같이 구성하고 뭔가 생각하고 이런 것도 창작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정찬용: 그러니까 그러면은 큐레이터랑 전시 디자이너의 차이는 뭐야?

채수정: 큐레이터 전시 디자이너? 글썄.

정찬용: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이제 조금씩 나도 공부하다 보니까 막 업계 자체가 너무 막 박봉이고 이런 이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멀티 플레이어가 돼야 되잖아.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약간 멀티 플레이어로 통쳐지는 게 아닐까 큐레이터라는 게. 그리고 너무 다양한 분야에서 큐레이터라는 말을 쓰니까 어제 뭐 유튜브를 보다가 인플루언서랑 패션 브랜드랑 중개를 해주는 어떤 그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업인데

이제 어플로 신청할 수 있고 막 이랬는데 큐레이터라고 하더라고 그 인플루언서들을.

채수정: 어.

정찬용: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만약에 내가 되게 클래식하게 막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되게 그런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불편해하고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겠지만... 근데 이미 그렇게 사람들이 무언가를 편집해서 어떤 기준으로 그게 취향이 됐든 감각이든 어떤 그걸 분류해 갖고 보여주는 방식, 편집하는 방식 뭐 이거라고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쓴다는데 뭔가 미술계에서는 그게 그게 아니라 하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거부하면...

채수정: 근데 내가 그래서 사전적 의미 지금 찾아봤는데 그래도 미술관에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큐레이터라고는 완전 사전적 의미로는 있네. 큐레이터가.

정찬용: 그러니까 미술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큐레이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채수정: 근데 아예 미술관이라고 특정을 지어봤네.

정찬용: 미술관 박물관 뮤지엄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좀 그래.

채수정: 막 더 흠 큐레이터 막 되게 많네. 흠 큐레이터?

정찬용: 뮤직 큐레이터 하면 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뭔지는 알겠어.

뮤직 큐레이터 하면 음악 좋은 음악을 선별해서 보여주는 거잖아.

이런 식이라면 갤러리 큐레이터는 좋은 작품을 선별해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거는 잘못된 거야. 갤러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큐레이터가 없고 갤러리스트, 디렉터라고 해야 돼.

채수정: 카페 큐레이터 되게 뭐 엄청 많아. 그러니까 HRD 큐레이터.

정찬용: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더 많이 다수가 사용하는

큐레이터의 어떤 통상적인 정의라면 이거를 막 부정하는 것 자체가 특히 미술계가 되게 폐쇄적이잖아. 막 상업 미술 뭐 가르고. 뭐 최근에

‘널 위한 문화예술’ 콘텐츠에서 되게 예술 경영 쪽에서 유명하신

교수님 나오셔서 “소셜아트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막 댓글이 또 막 여러 개가 달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교육의 부재가 난 제일 큰 것 같고. 오해할 만한 여지가 되게 많은 “예술은 모두의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하는 그게 뭔지 정확하게, 다르지만 너 얘기할 수 있어? 네가 하는 이 예술, 시각예술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예술과 뭐가 차별점이 있는지. 너무 어렵지. 큐레이터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큐레이터의 창작 행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주눅 들고 조심스럽게 만드는 질문인 것 같고 나는 아직도 큐레이터라는 말을 쓰고 싶지 않고.

채수정: 근데 이제 약간 정의를 내린 거 아니야? ‘큐레이터의 창작 공간’, ‘큐레이터의 공간’ 약간 이렇게.

정찬용: 정의를 내릴 수 없지. 질문이 된 거지. 큐레이터의 창작 공간이, 작업실이 있다면 이런 창작 행위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어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창작 행위로 볼 수 있지 않을까까지 온 거지. 이거는 내가 “이거는 창작 행위야”라고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잖아. 그 정도가 된 거지. 그래서 아카이브를 한다고 했을 때 과정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결과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작가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되게 잘, 디테일, 네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 조명 그림자도 잘 안졌으면 좋겠고 뭐 어디 하나 깨지는 부분 없이 그 색 색도 이제 원래 의도했던 색 보다 더 예쁘게 나오면 좋고 이런 게 있겠지만 나는 이걸 어떻게 기록화해야 될지를 모르겠는거야.

채수정: 사진이 아닌?

정찬용: 사진으로는 너의 아카이브와 내 아카이브가 차이가 없잖아. 그럼 CCTV를 다 일일이 해놔야 되나.

채수정: 근데 그래서 우리 막 계속 하면서 얘기했잖아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거 계속 남겨놓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

정찬용: 근데 이제 용량에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게 다 비용이니까.

채수정: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정찬용: 그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서버를 사야 돼. 그 정도면.
채수정: 근데 CCTV가 되게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 오빠가 몇 개,
왜냐하면 몇 개 이렇게 파편적인 것들만 보여줬었잖아. 근데 거기에
진짜 별의별 게 다 담기면서 그 우리가 보지 못한 모습들이 담겨
있으니까.

정찬용: 근데 이제 내 그 하나 여담으로 또 그냥 안 해준 얘기하자면
그때 저거 인쇄된 거 롤지 와가지고 포장 뜯고 할 때 너무 커가지고
막 막 네가 엄청 안절부절하면서 막 애지중지했잖아. 근데 뭐 하다가
네가 뭐 잘못 건드려 가지고 내가 네 머리를 이렇게 때린 적이 있는데,
꿀밤 때린 적이 있었어. 근데 그게 바로 CCTV 위치였던 말이야. 근데
8배속으로 하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탁탁탁탁 넘어가니까.

그래 갖고 8배속으로 한 걸 올린 거야.

채수정: 아 그게 그 사이에 담겨 있는 거야?

정찬용: 이렇게 8배속 화면은 끊겨서 이동을 하잖아. 혹시나 또 막.

채수정: 문제 될까 봐?

정찬용: 이상한 또 논란 생길까 봐. 여성 작가 폭행한다 뭐 이런 이슈
또 발생할까 봐.

채수정: 난 맞은 기억도 없는데.

정찬용: 나 그때, 너 맞을 만했어. 뭔지 나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것도 어이없는 얘기해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아카이브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나는 결국에는 공식적인 기록이 되는 아카이브라 함은
사람들이 그만큼 쓰니까. 그러니까 그 사진이든 영상이든 무슨 구술
채록이든 그런 방식들이 있잖아. 그리고 형식들이 있잖아 사진도 막
영똥하게 찍은 거는 절대 안 남게 다 지워버리잖아.

채수정: [▲]맞[▲]아 [▲]잘 [▲]나[▲]온 [▲]것[▲]만 [▲]남[▲]겨[▲]놓[▲]지.

정찬용: 그러니까 뭔가 그 잘나옴의 기준이 각도나 구도가 다 정해져
있잖아. 조명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공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아카이브가 되는 것 같고. 이게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내가 아무리 Unoccupied GAPS에서 공표하는

공식적인 아카이브라고 해도 똑같은 이 프로젝트를 두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퀄리티가 작가의 아카이브가 더 좋아. 나는 당연히 비공식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런 어떤 경계의 지점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팟캐스트, 뭐 팟캐스트 이거 뭐 스포티파이가 좀
있어 보여 갖고 심지어 이게 무료라서 나는 쓰는 거거든. 있어빌리티는
나중 문제고. 근데 이거 올렸더니 돈 내야 돼, 돈 내야지 들을 수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유튜브에도 또 올렸어. 음원만 따가지고. 갑수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록에 대한 부분들도 그 모든 기록이
아카이브는 될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방식이
이 프로젝트에 맞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또 생긴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야
아웃트로. 오늘 시추에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 전시
혹은 프로젝트를 기록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이게 이 GPT의 질문조차 약간 되게 오해의 지점이 많네. 여기서는
전시라고 계속 하는데 이게 아니라 그거지. 여기서 프로젝트를 내가
진행하고자 했던 거는 전시가 어쨌든 항상 결과물의 형태로 일시적으로
관람자들에게 보여지니까 그게 아닌 형태에 대한 고민. 그래서 과정과
변수도 이 프로젝트에 다 유의미하게 포함되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분명히
그것들이 존재했는데 이거를 아카이브화 하지 않으면 이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카이브 얘기까지 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채수정 작가님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채수정: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어떤 행보를 말씀하시는.

정찬용: 아니 뭐 있잖아. 이거 막 무슨 연예가 중계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채수정: 아니 근데 아직 공표된 게 아니니까 이제 딱 나오는 게.

정찬용: 아니 일이 아니더라도 그냥 가벼운 이거 뒷얘기하는 그거잖아요.
저 드디어 복학해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채수정: 그지 이제.

정찬용: 수업은 뭐 듣고요, 뭐 수강 신청 개망했고요.

채수정: 복학을 하긴 하죠. 복학을 하는데 네 복학해 복학하고 이제 또... 뭐 있나? 복학하고 이제 3월에 이제 발표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제가 벌려놨던 일 저질렀던 일들 좀 이제 수습을 해야 3월 달부터 해야 할 것 같고.

정찬용: 그럼 좀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작업에 관한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초반에 이제 네가 안녕하세요 뭐 채수정입니다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 했잖아. 그때 이제 네가 “나 그거 해왔어.” 하면서 정리된 뭔가 멘트가 있었잖아. 안 바꿀 거야? 너 뭐 거의 한 달 한 달 무슨 수업마다 맨날 바꿨었잖아.

채수정: 음.

정찬용: 유지될 것 같아?

채수정: 당분간은? 한 1년 동안은 유지가 될 것 같아. 왜냐하면 1년 동안 이제 이거 프로젝트 하면서 그다음에 내가 1년 동안 뭐 해야 될지가 이제 또 생겼으니까 그때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내년에 뭐 하는지가 또 만약에 조금 바뀐다면은 또 조금 바뀌지 않을까?

정찬용: 약간 ‘야망녀’라는 오해가 있었잖아.

채수정: 저 야망녀 맞아요.

정찬용: 그럼 다음 야망은 뭐가 있어?

채수정: 다음 야망?

정찬용: 작업과 상관없이 그냥 뭐 했으면 좋겠다.

채수정: 다음 야망?

정찬용: 상 받고 싶다. 올해의 작가상 하고 싶다. 뭐 짧은 모색 하고 싶다.

채수정: 그러니까 가까운 야망? 아니면 먼 야망?

정찬용: 두 개 다 얘기해도 돼. 많이 내뱉어야 진짜 이루어진다니까.

채수정: 가까운 거는 뭐 나도 송은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거 넣을 거야?

정찬용: 근데 말투가 왜 그래? 그동안에 선정된 작가들이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채수정: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자신은 없으니까 아직 막 100%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도 공모니까 그냥 한번 그냥 나도 그런 데서 전시해 보고 싶다. 그게 있지.

정찬용: 먼 야망?

채수정: 먼 야망 항상 얘기했듯이 작가들한테 약간 그런 게 있잖아. 약간 비엔날레나 그런 올작(올해의 작가상)이나 그런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건 너무 먼 미래여서 아직 나한테는.

정찬용: 그래 송은도.

채수정: 송은은 그래도.

정찬용: 송은은 가까워?

채수정: 올작이나 이런 거는 한 2~30년 뒤라고 생각을... 송은은 그래도 10년? 10년...

정찬용: 송은은 나이 제한 없나?

채수정: 있어? 아직 공고 본 것도 없고 그냥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

정찬용: 그렇습니다. 그렇다네요 아무튼.

채수정: 이거 다 넣을 거야? “그냥 복학해서 학교 열심히 다니고 싶어요.” 이거 넣어줘.

정찬용: 오늘 채수정 작가랑 이런저런 얘기 되게 의미 있는 얘기 많이 한 것 같고. 원래는 채수정 작가가 뭐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 연습해 보자고 꼬셨는데 사실 전혀 다른 얘기들을 해가지고.

채수정: 지금 나 발표 걱정밖에 없어.

정찬용: 아무튼 오늘 재밌는 이야기 나누게 돼서 즐거웠고요. 앞으로 꽃길만 걷길 바라면서 오늘 팟캐스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채수정: 감사합니다. 무슨 인사?

정찬용: 끝이야? 근데 녹음 하나도 안 돼있고.

채수정: 아 너무 힘들어.

정찬용: 이것만 잘라서 넣어야지. “너무 힘들어.”

채수정: 아니 이렇게 평소랑 대화하는 것보다 이게 더 힘든 것 같아. 말하는 게.

[팟캐스트 'Filling Gaps'¹ 인터뷰 발췌록]

본 프로젝트에서 수행된 팟캐스트 녹음과 라운드 테이블은 단순한 부대 행사가 아니라, 폴 오닐과 Mick 윌슨(Paul O'Neill & Mick Wilson)이 논한 '교육적 턴(Educational Turn)'의 실천적 적용이다². 큐레이터의 작업실은 전시장이자 동시에 배움과 대화가 발생하는 '파라-에듀케이션(Para-education)'³의 장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완성된 결과물보다 지식이 생산되고 교환되는 과정 자체에 우위를 둔다.

에피소드 #2. 시선, 욕망, 그리고 이지컴이지고 (Easy come, Easy go)

일시: 2025. 3. 19. (수)

참여자: 정찬용(기획/진행), 장승근(일일 MC/작가), 김이지(작가)

장승근: 이렇게 또 한 번 까였네요. 뭐지?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찬용 씨의 컨디션 문제로 제가 일일 MC로 대신 온 장승근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아주 어렵게 모셨죠? 네네, <이지컴 이지고(Easy Come, Easy Go)> 전시... 아, 프로젝트인가요? 프로젝트의 주인공 김이지 작가님 모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이지: 안녕하세요. 김이지입니다.

장승근: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날도 추운데 오시느라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형,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제 이것까지 추는 거지?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바로 이렇게 진지한 얘기 하기보다는 아이스브레이킹을 좀 할까요?

김이지: 무슨 아이스브레이킹이요?

장승근: 근데 이렇게...

김이지: 해봐요. 해 봐요.

장승근: 근데 마이크 앞에 서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배려를 해줘도 왜 지랄이세요? (웃음)

김이지: 해 봐.

장승근: 배려를 해줘... 아니, 당신이 해야지 뭐 오늘 뭐...

1 "FillingGaps는 큐레이터와 작가가 작업실에서 나누는 솔직한 이야기와 예술적 실험의 뒷얘기를 엿보는 팟캐스트입니다. 큐레이터와 작가가 기획하고, 시도하고, 때론 망가지는(?) 과정 속에서 탄생하는 작은 이야기들이 담깁니다. 마치 남의 일기장을 훑쳐보는 듯한 가벼운 수다와 함께, 예술의 빈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해보세요." (팟캐스트 공식 소개글 중)

2 폴 오닐, Mick 윌슨 엮음, 『큐레이팅의 교육적 전환』, 김아람 옮김 (서울: 더플로어플랜, 2021), 13-22쪽. 본 연구는 전시 공간을 지식 생산의 장으로 재정의하는 이들의 논의를 따라, 큐레이터의 작업실을 교육과 큐레이팅이 교차하는 '파라-에듀케이션'의 현장으로 해석한다.

3 애니 플레처, 세라 피어스, 『파라교육 부서』, 위의 책, 191-195쪽.

정찬용: 그러면 작가가 스스로 자기소개하는 거 되게 간지럽잖아. 네가 이지 소개를 간단하게...

김이지: <엽기적인 그녀> 느낌으로.

정찬용: 작가, 작가, 작가.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

장승근: 뭐, 뭐였지? 김이지 작가... 네, 누구야? PD 작가 톤? 또 뭐야? "김이지 작가는요, 지금 성균관대 학부를 졸업해서..."

김이지: 아니 근데 나 오빠가 옛날에 해줬던 그 말이 좋았는데. 관찰자의 시선,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관전 스타일이라고. 그런 것 좀 해줘 봐. 나도 좀 나중에 듣게.

장승근: 제가... 어, 제가 좀 봤던 김이지의, 그녀의 첫인상은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저희 신입생 환영회 때 처음 만났잖아요. 약간 김이지 씨를 처음 봤을 때, 어 좀 그런 느낌 들었어요. 약간 좀 '통제형 인간'이다. 맞아. 관찰자가 아니라 통제형 인간이었어. 왜 통제형 인간이냐면, 뭔가 약간 뒤에서 팔짱 끼고... 비유를 하자면 네, 팔짱 끼고 '애네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보자', 약간 내 눈에 다 담아야 된다는 그 강박이 좀 있는? 혹은 그걸 좀 즐기는 사람? 그래서 약간 내 시야에서 벗어날 때 약간 좀 매질해서 다시 안쪽으로 집어넣고 좀 그런 걸 좋아하는 것처럼 느꼈거든요.

김이지: 약간 그런 것 같아.

장승근: 그래서 약간 그냥 머릿속에 '통제형 인간'이라는 단어가...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통제형 인간이다.

김이지: 뭔가 지켜보는 걸 좀 좋아하는.

장승근: 지켜보는 거는 약간 좀 작은 원인 것 같고, 큰 거는 약간 좀 슈퍼바이저(Supervisor)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래서 그런지 작업도 뭔가 좀 시선에 관한 게...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시선에 관한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진짜 저는 약간 다큐멘터리 같이...

네, 페이크 다큐라고 하나요? 이거 장르를 제가 영상으로...

김이지: 그건 진짜 실제 상황이니까 그냥 다큐인 것 같아요.

장승근: 그렇지. 뭔가 어느 걸 하나를 또 이렇게 담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제가 좀 잘 본 것 같아요. 혹시 실제로 연애할 때도 좀 통제형인가요?

김이지: 어...

정찬용: 왜 저래 진짜.

김이지: 너무 사적인 거 아니야?

정찬용: 이거 하면 자르고 가고. 간단하게 이제 우리 '장감자' 씨, '엉뚱이들'의 장감자 씨.

김이지: 데뷔하셨잖아요, 유튜브.

장승근: 그렇죠, 그렇죠.

정찬용: 특별 출연해 주셨고요. 감사하게 이제 감초 역할 해 주실 건데. 작가 소개 간단하게 잘해 주셨고, 아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외부 프로젝트가 처음이죠. 그래서 되게 고생이 많으셨던 걸로 아는데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다 훌훌 털어버리세요. 어떤 지점이 힘들었는지. 그리고 어쨌든 비슷한 시기, 비슷한 나이에 장감자 씨도 저랑 만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장승근: 제가 만났을 나이랑 같은 나이인가 지금? 저도 그때 정찬용 씨 만나고 많이 속으로 울었죠.

김이지: 같은 나이야? 오빠 그때 스물일곱이었어?

장승근: 그때 스물여덟?

정찬용: 너가 더 어렸다. 26이었다. 스물여섯 아니야?

장승근: 스물여섯에서 27 넘어가는 겨울쯤, 그때였다.

김이지: 그때 개인전 이미 한 번 한 상태야?

장승근: 그때 안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나는 솔직히 그리고 또 약간 좀 극적으로 만나 가지고... 뭔가 SNS라는 걸로 만남을 처음 한 거지. 그래서 약간 나는 되게 기쁘고 설레고 좀 무섭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게 있었지, 나는 확실히.

정찬용: 어땠어, 이지는? 솔직하게.

김이지: 이거 전시하면서 힘든 순간?

정찬용: 그러니까 이 어쨌든 이 프로젝트 과정이 네가 나한테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볼래?"라고 한 상황이었잖아. 너한테도 내가 "우리 뭐 해볼래?"였잖아.

장승근: (괄호 치고 '거절하면 손절이야')

정찬용: 아 왜 그래 진짜. 근데 틀린 말은 아니야. 얘기해 봐. 승근이는 이제 네 얘기를 들어줄 그거는 되지.

장승근: 그치. 우리는 내 얘기가 아니라 이제 너 얘기를 하는...

정찬용: 나는, 나는 네가 그런 얘기해도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김이지: 어떤 거?

정찬용: 일단 힘들었지?

김이지: 힘들었죠 뭐. 처음이니까. 왜냐하면 외부에서 뭔가 해보지도 않았고 아직 어떤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소개하기도 이른 단계여서, 이걸 했을 때 뭐 내 작업을 소개하는 방식도 잘 몰랐고.

정찬용: 그럼 지금은 뭐라고 소개할 것 같아? 이제, 이제 네가 소개해 봐.

김이지: 아직도 모르겠어.

정찬용: 그게 간단하게라도 뭐가 있지 않을까?

김이지: 근데 이거를 하면서 내가 어떤 거를 좀 하고 싶고...

정찬용: 어떤 건데, 하고 싶은 게?

김이지: 어떤...

정찬용: 명확하진 않더라도 뭉뚱그려서라도 자꾸 얘기해버릇 해야 그게 자기도 정리가 되면서 인식이 확실히 되니까. 처음에 상황은 자연스럽게 넘어가자면... 이제 승근이가 요거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뭐 '시선'이라든지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전시 준비, 이거 프로젝트 준비하면서는 한 번도 '시선'이라는 키워드가 나온 적이 없었어. 하다가 마지막쯤에 나온 키워드가 시선이었고 원래는 거의 '욕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장승근: 욕망에서 비롯되어서 시선이 좀... 시선이라는 단어가 파생돼서 나온 느낌은 있죠. 아무래도 저 영상 기준으로 페인팅이 좀 나온 느낌은 있어서.

정찬용: 나는 그러니까, 이게 막 김이지 작가도 살짝 걱정했던 게 어떤 페인팅이 영상의 구체적인 보완 역할을 하는 그냥 파생물 정도로 작가가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 가지고. 근데 오히려 나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냥 각기 다른 시리즈의 작업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모여 놓고 보니까 다양한 이제 시선이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장이 마련됐다, 이렇게 그냥 느껴져서 시선에 대한 얘기를 뽑아냈었는데. 이런 것처럼 사실 나도 이제 작년에 '디나이얼(Denial)'이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약간...

장승근: 디나이얼? 그게 뭐예요?

정찬용: 약간 감추는 거. 인정하지 않고. 근데 약간 김이지 작가도 분명히 그냥 내 표현으로 그냥 솔직하게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되는데, 약간 이렇게 어렵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쉽게 들이대지 못하는 것 같아. 이게 뭐 시선이면 시선, 그러니까 여성 욕망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여성'이라는 말을 하는 거를 되게 조심스러워했고. 내 기억에 의존하자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은 또 "여성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다 맞는 얘기긴 한데 이게 되게 내가 느끼기에는 여성이라는 그거를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느낌이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집요하게 파잖아.

장승근: 그렇죠.

정찬용: 그래서 이제 집요하게 파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지가 그때 악에 받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 "아니 작가가 여성이라서, 화자가 여자라서 이렇게 여성이 등장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뭐 설명하냐. 내가 남자를 그럴 순 없지 않느냐." 약간 이런 식의 발언이었는데 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조심스러웠던 게 맞는 거죠?

김이지: 약간 나만의 생각이라는 얘기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여성'이라는 키워드도 너무 나한테 큰 것 같았고. 그래서 모든 여성들이 다 이런 거에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내가 경험했고, 뭐 내가 본 거고 이런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장승근: 그러면은 좀 그냥 내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마침 내가 여성일 뿐이었던 거네. 생물학적으로 여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 성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기보다 그냥 너는 너의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너가 마침 여자였던 거지.

정찬용: 내가 왜 '디나이얼' 같다고 또 얘기를 했냐면, 설명만 들었을 때는 지금 장감자 씨 말처럼 나도 이해를 하게 되는데 작품을 이제 완성되기 직전에 이제 바라봤잖아, 새로운 작품을. 근데 이제 그 관점으로 바라보기에는 이제 '남근 축제', 약간 까는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일단 사실 좀 어려웠고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여성이었으면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그게 제일 힘들었어, 이번에.

장승근: 약간 좀 그럴 것 같아요. 나이 차이 많이 나지, 성별 다르지.

정찬용: 성별이 다르고 세대 차가 다른 데다가, 작업 자체가 자기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뭔가 약간 젠더 이슈로 얽혀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막 다른 친구들과 대하듯이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내가 거기에 잘못된 왜곡된 시선과 권력 구조에서 내가 이제 그 위쪽에 위치해 갖고 이제 하대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꼴이잖아. 사실 그래서 약간 내가 느끼는 작가한테 부당한 부분도 되게 많았는데 역으로 내가 그러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서로가 되게 눈치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이번에 '시선'이라는 키워드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다. 좋았던 것 같다. 한 번은 겪어야 되니까, 오래 살아남을라면.

김이지: 그리고 이게 뭔가 이 주제로 작업이 많이 쌓이면은 “저는 뭐 어떤 젠더 이슈를 다루고 싶습니다”, “여성의 그런 섹슈얼리티를 다루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뭐 몇 개 없고 이제 막 처음 보여주는 단계였으니까 설득력을 갖기에는 뭔가 “내가 이렇게 느끼고 그거를 표현한 것입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이제는 뭔가 그렇게 넓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장승근: 그럼 여기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더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더 자아, 그러니까 ‘참 나(참된 나)’라고 하나? 자기 참나에 더 작업의 의식이 더 흐름이 그쪽으로 갈 것 같은지, 아니면은 젠더 이슈나 혹은 여성 이슈로 좀 더 가게 될 것인지 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좀 어느 쪽에 좀 더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전시...

정찬용: 벌써, 아니 자꾸 눈이...

김이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장승근: 야 이거 사람들 들을 때는 이 톤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야 안태원도 처음에 부담스럽다고 했거든? 근데 편집한 거 보면은 내가 맞아.

김이지: 알았어. 알았어.

김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서 보지 않을까. 작업의 소재도 그렇고 주제도 그렇고.

정찬용: 너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근시, 원시.

장승근: 그러게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가까이 있고 멀리...

정찬용: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그러니까 작품 주제는 점점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 과정 중이라서 어려웠을 거는 맞고. 사실 더 어려웠을게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고 불러놓고서는, 내가 사실 이지랑 이걸 하겠다고 한 이유는 그런 작업적인 주제 형식... 난 사실 페인팅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런 게 아니라 회화랑 영상이 같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형태에 대한 발표를 했잖아, 수업 때. 나는 그게 마치 니네가 전시, 프로젝트 “나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부담감을 달리 여기는 것처럼 “아니 회화가 있었기 때문에 영상이 있는 거고, 그리고 각기 그것들이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고 다른 성질의 것들인데 그냥 봐 보면 되는 거지. 저거 고민이나 해야 될까”라는 이제 가벼운 생각이 있었고.

그럼 내가 여기 작업실 구할 거니까 이거 해보면 되겠다라는 진짜 단순한 접근. 근데 이제 다들 작가들이니까 알겠지만 뭔가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고 잘하고 싶기 마련이고. 왜 그럴까?

김이지: 어쨌든 보여줘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장승근: 근데 뭐...

정찬용: 잘난 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지.

김이지: 난 그런 게 있지.

장승근: 그래서 제가 이지 씨한테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김이지: 똥을 싸라?

장승근: 똥 많이 싸라. 똥을 많이 싸야 돼요.

정찬용: 네가 할 말은 아니지 않나? 아니 똥을 많이 싸는 건 내가 알아.

장승근: 진짜 많이 썼지. 나는 근데 약간 똥을 부검하는 과정에서 뭐가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똥을 썼어. 거기에 이제 똥에 콩나물이 나왔어. 그럼 내가 점심에 콩나물을 먹었겠지.

장승근: 그래서 약간 계속... (이지: 이거 들어가? 여기에 좀 그런...) 똥을 싸고, 그걸 부검해 보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혹은 어떤 상태를 소화하고 있는지를 좀 들쳐낼 수... 할 수가 있는 거죠. 건져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 좀 뭔가 똥에 데이터가 너무 없다.

김이지: 싸긴 하지 개인적으로. 근데 꼭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그 콩나물 들어가 있는 똥이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정찬용: 너무 고차원적인 얘기라서 나는 이해 못 하겠다.

김이지: 다 그냥 버리지. 남들 모르게 내 마음속에 묻지.

정찬용: 그러니까 성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장승근: 성향 차이. MBTI 뭐세요?

김이지: 저요? ENFP였는데 TP가 된 것 같아.

장승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전시 제목에 <이지컴이지고(Easy Come, Easy Go)>는 누가 지은 거예요? 이게 사실...

김이지: 찬용 쌤이 먼저.

정찬용: 근데 나 이거 진짜 이제 우리가 그날 5시간 미팅 때 애도 힘들었겠지만 내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 때문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해야 되는 거를 그날 끝내야 되잖아.

내가 목표한 거. 근데 이제 그거를 하나도 못 건드린 상태로 5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야. 이제 모르겠다. 나 이제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근데 내가 정말 나쁜 의도가 아니라 빨리 나는 해야 할 걸 하고 싶은 그 마음에 얘기를 한 건데 이제 말을 내뱉고 나서 이제 나도 아차 싶은 게, 항상 내 의도와 달리 “야 너 알아서 해” 이렇게 들을 게 뻔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빨리 해결하고 싶어 갖고 빨리 제목 짓고 가자 그러면서 “이지컴 이지고 어때?”

장승근: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약간의 아재 유머라고 해야 되나.

이게 딱 찬용이 형...

정찬용: 아니 원래는 사실 원래는 그거였어. 이제 이지컴 이지고가 그거잖아 이디엄(Idiom, 관용구)이잖아. 그 ‘쉽게 얻은 것을 쉽게 잃는다’ 뭐 이런 뜻이잖아. 나는 처음에 그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라 ‘컴(Cum)’이 ‘사정’의 의미가 있잖아.

장승근: 그렇죠 그렇죠. 정액인가 사정인가.

정찬용: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지한테 설명해 주면서도 내가 되게 민망하고. 근데 어쨌든 어떤 근데 그것도 맥락에 맞잖아. 그게 왜 이렇게 좋아해? 진지하지 못해. 나는 그래도 사뭇 진지하게 접근했잖아.

장승근: 저는...

김이지: 똥 얘기만 나오면 까르르 웃는 아기 같아.

장승근: 아니 이게... 네 그러게요.

정찬용: 아무튼 그거가 시작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그 엄정화 노래 중에도 <컴 투 미>가 영어 표기가 ‘come’으로 안 돼 있어

‘cum’으로 돼 있어.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됐었다, 막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것도 약간 실수 같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 눈치를 보게 되는 거야. 내가 나보다 띠동갑 연하인 여성 작가한테 내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성희롱이진 않을까 이거를 내가 계속 신경 쓰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우리 되게 힘들게 준비했으니까 이거 쉽게 잃지 말자” 약간 이런 의미도 담고. 또 이거 이렇게 맥락 만들려고 제목에서도 이제 서문도 아니다, 텍스트에다가 그 부제도 만들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전시 홍보 그거 올리니까 사실 내가 <보헤미안 랩소디>로도 올리고 이번 거는 이제 다른 거 올리고 이랬었는데...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그 언어 유희만 갖고서 놀려고 했던 건데, 갑자기 이지 작가한테 카톡이 왔는데 이제 교수님들한테 보냈는데 남 교수님들이 너무 좋아하신대. 제목이 너무 좋다고 막 그랬다고. 근데 또 아재 감성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장승근: 근데 약간 아재 감성이 좀 낭낭하긴 한데.

정찬용: 아재 감성이라고 그러니까 또 막 그런 거야.

장승근: 그럼 이게 그러면 ‘이지컴 이지고’ 뭐 쉽게 오는 건 쉽게 간다인데, 부제가 ‘스쳐가는 욕망, 머무는 시선’인데 **그럼 뭐가 쉽게 오고 뭐가 쉽게 가는 건지?**

김이지: 근데 나는 이지컴 이지고를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가 찬용 쌤 작업실이잖아. 내가 여기 컴(Come) 했다가 고(Go) 하는 프로젝트.

장승근: 아.

정찬용: 그럼 그냥 이게 다 달라.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 때문이니까 가능한 거지. 이게 전시였으면은 이제 망한 거야. 해석의 여지도 뭐 어느 정도여야지 극과 극을 달리게 되니까. 여기서는 이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인 거지.

장승근: 그리고 저도 이거 진짜 궁금하긴 했는데 회화와 영상 두 매체를 심지어 또 한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물리적인 어려움도 물론 있고 그런 맥락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좀 쉬운

방식은 아닌데, 이 두 가지 매체를 좀 하고 싶으신 이유가?

김이지: 근데 너무 질문이 크다.

장승근: 그런가? 그러면은 일단 그럼 내 경우부터 좀 그냥 내 감상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물리적인 환경에서는 당연히도 영상을 보려면 조도가 낮아야 되는데 회화를 보려면 조도가 높아야 되고.

그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영상이라는 매체가 가진 어떤 좀 친절한 속성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시각, 청각 이런 거 속성과 그다음에 회화가 가지는 뭔가 약간 시적인, 약간 좀 절제된 이런 속성이 되게 좀 대비가 되는데. 그래서 '야 이거 좀 참 쉽지 않았겠다'. 왜냐하면 저도

5년 전에...

김이지: 영상을 하셨잖아요.

장승근: 영상이랑 회화랑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번 생각을 했다가, 한번 찬용이 형이 봤지만 제 첫 개인전 때 대차게 말아 먹고.

정찬용: 근데 좀 심했어.

김이지: 오빠 거기 영상도 있었어?

장승근: 나 영상 있지.

정찬용: 유튜브에 있어 그 짜파게티...

김이지: 아니 그건 아는데 그걸 첫 개인전 때 같이 틀었어?

장승근: 같이 틀었지. 약간...

김이지: 아 진짜?

장승근: 약간 나도 큰 공통의 속성이 있다라고 약간 고집을 피웠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근데 그러면서 주변에서 다 그냥 "회화만 하지, 회화만 하지" 했을 때 속으로 약간 솔직히 말하면 "니들이 뭘 아는데", 약간 이게 솔직히 말하면 있었어. 근데 펼쳐놓고 보니까

오케이, 다시 안 해도 되겠다.

정찬용: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게, 나는 좀 갑자기 이제 승근이 얘기를 하게 됐지만 나중에 또 하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막 "야 너 빨리 개인전 해야 돼", "빨리 스타트 끊어야지 유리한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도 개인전에 공모 따고 싶어 하고 자기 돈 보통 잘 안 들어서 하고 싶어 하는데. 승근이 지 모았던 돈으로 대관해 가지고, 그것도 다들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인사동에 대관해 가지고 어떻게든 해낸 게 그거였어. 근데 해보고 나니까 얘가 이제 '나는 회화 해야겠구나' 이것도 있었을 거고. 그게 왜 잘못된 전시인지도 알았을 거고. 펼쳐 놓고 보니까 보이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지.

장승근: 응 맞아.

정찬용: 그래서 나는 어쨌든 첫 개인전에 사실 첫 개인전을 말아먹는 게 낫지.

장승근: 아 그럼요.

정찬용: 지금 너 벌써 몇 년 차야?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이제 그, 이게 언제 내가 편집해서 올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홍보하자면 <에브리데이>... 개인전 한대요, 장승근 작가.

장승근: <살에 붙는 그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정찬용: 근데 만약에 거기서 만약에 말아먹었어봐. 그러면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거니까.

김이지: 그래, 해보고 안 하는 게 낫지.

장승근: 아무튼 그래서 얘기가 좀 멀리 돌아왔는데, 왜 하려고 했으며 해보니까 어떤 느낌? 본인의.

김이지: 저도 뭔가 그림 전공이었고 계속이라 해야 되나 회화만 했었는데, 회화가 어쨌든 이야기적으로 제한되는 게 있잖아요.

장승근: 그치.

김이지: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어떤 갈증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느꼈고 보완적 매체로서 영상을 선택했었는데. 사실 저도 뭔가 고정관념이라 해야 되나 그냥 두 개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계속. 그러면서 저기에 걸 때까지도 '이 이미지가 너무 충돌하지 않을까' 의문이 들었었지만 생각보다 좀...

장승근: 괜찮았다.

김이지: 저런 접근으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서.

장승근: 좋아요. 그러면은 생각, 약간 내가 본인이 생각한 만큼은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김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개가 뭔가 상호보완적으로 느껴져서.

장승근: 오케이 알겠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참 대견하다 싶고요. 저 TV 크기 보면서 좀 짠하다 싶었어요. 약간 딱 들어와서.

김이지: TV 크기요?

장승근: 응. 이렇게 되게 조그마한 애가 저 TV 들고 오는데 힘들었겠다 했어요.

정찬용: 내가 다 했어. 그러니까 너도 굉장히 지금 되게 스테레오타입적으로... 저 무거운 거 막 내가 뭐 아무것도 안 도와줬을 것처럼 너한테만 그러지. 야, 저거 들고 나 얼마나 힘들었는데.

장승근: 그러면 찬용이 형이 좀 짠해 보이네요. 저 무거운 걸 들고...
정찬용: 나 진짜 힘들었어.

장승근: 맞아요. 찬용이 형이 짠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정찬용: 근데 뭐, 어, 또 막 눈치 보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어린 애들 데리고서 나 힘들었어 막 이러는 거잖아 지금.

장승근: 아니죠. 이게 뭐냐, 인정받을 건 인정받아야지.

정찬용: 원래, 원래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스트레스였잖아. 이제는 됐다, 니들 데리고 뭐 하니 약간 이런... 아무튼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영상 작업 얘기부터 간단하게 하고, 지금 딱 얘기 너무 많이 해갖고 뒤에서 할 얘기까지 다 챙겨서 하고. 진지할 필요는 없는데.

장승근: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찬용: 그러면 이제 영상... 상호 보완이라 그랬는데, 영상도 지금 두 작품이 있고. 그러니까 회화는 같은 시리즈로 묶을 수 있는 다섯 작품이 하나라고 친다면 영상은 이제 두 개가 다른 작품이고, 이게 서로 어떤 식으로 상호 보완이 됐다고 생각하는지가 난 좀 궁금해. 그게 어떤 작업의 내러티브적인 부분인 건지, 그냥 형식적인 건지, 혹은 이 전시의 어떤 구성 면에서 보는 건지. 나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정말 뭔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나도 사실 되게 걱정 많이 했잖아.

근데 이지한테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해놓고서는 사진 찍어보니까 있어 보이는데? 괜찮은데? 있어빌리티인데? 약간 이려고 그런 건지.

김이지: (침묵) 아니야, 아니 생각 좀 하고...

정찬용: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이지: 왜? 이거 대답 안 해도 돼?

정찬용: 아니 뭐...

장승근: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

정찬용: **억지로 짜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김이지: 근데 아까 말에 있었는데, 약간 그냥 이야기가 부족한 거는 영상으로 풀고...

정찬용: 나는 그 '이야기가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장승근: 그게 나는 왜냐하면 좀 다르다고 생각해.

정찬용: 그러니까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함축적이냐 이거를 풀어내느냐 그 차이인 거지. 어떤 시간성에 있어서 오히려 이게 함축적이긴 하지만 회화가 정지된 화면이니까. 근데 오히려 그게 되게 수많은 어떤 상상이나 어떤 사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관점이라면 영상은 조금 선형적으로 진행되잖아. 그래서 그게 좀 제한되고, 난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영상이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나? 저렇게 이제 그 흐름이 플롯이 정해져 있는 거라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반대라서 조금 궁금했어.

김이지: 그러니까 영상은 내 말이 많은 거고, 회화는 보는 사람들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거지.

정찬용: 어떻게 생각해?

장승근: 뭐 그러니까 그 영상이랑 회화랑 그 서로 이렇게 뭔가 부족... 아니 그러니까 회화가 부족한 걸 영상이 상호 보완한다고 하는 거에 맞는 대답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러니까 나도 찬용이 형이 궁금한 지점 나도 궁금한 게, 회화가 이제 관람객이 개입할 여지를 많이 남기는 어떤 빈틈이 많은 무언가라고 한다면 그 빈틈을

그 회화 안에서 메꾸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영상인데. 회화가 지닌 그 빈틈을 보완하는 영상이 무엇을 보완하는지?

무엇을 보완하는지 그게 좀 잘 모르겠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회화랑 영상이랑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난 아예 상호 보완이라고 하니까 어떤 점이 상호 보완인지 그거를 아까 찬용이 형이 물어본 거.

김이지: 그러니까 다른 역할을 하며 상호 보완하는 거지.

장승근: 다른 역할을 하면서... 너무, 너무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사실 좀 너무...

정찬용: 이래서 내가 미쳐버린 줄 알았다니까. 아직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하기가... 이제 뭔가를 시도해 본 거니까. 근데 이런 거는 중요한 것 같아.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수다 떨듯이 녹음하고 있지만 이것도 다 피드백이고. 여기에서 되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난 잘못된 것 같고. 어쨌든 우리의 질문의 요지들이 뭔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더 이렇게 구체화되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어쨌든 작업이랑 이 프로젝트를 보고서 나온 질문들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이지는 싫어할 것 같은데 오픈한 날 나랑 좀 친분이 있는 작가들 뭐 이렇게 놀러 온 사람마다 다 붙들고 물어봤어. “이거 F(페미니즘)로 읽혀 안 읽혀?”, “이 시리즈가 페미니즘으로 읽혀 안 읽혀?”, “80% F다”, “작가는 아니래. 어떻게 생각해?”

김이지: 아니, 아니라고 하진 않았어. 근데 이게 막 그런...

정찬용: 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라고 하셨고요.

김이지: 아니야, 아니라고 안 했어 진짜.

정찬용: 진짜 아니라고 하셨고요. 분명하게 아니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설명했어요. 페미니즘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페미니즘처럼 그런 것만 페미니즘이 아니고 이제 이 페미니즘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세계 있으니까 ‘여성주의’라고 이 말까지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것부터가 여성주의의

시작인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작가님이 “나 사실 페미니즘 잘 몰라요”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얘기를 안 했다고 하시면 이거는 아예 잘못된 거죠.

김이지: 아니, 이게 어떻게 그렇게 찬용 쌤이 읽었냐면 처음에 저 영상이 먼저였잖아요, <영광으로 가는 길>이.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되게 사소한 개인적인 주변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잖아. 그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전면으로 어떤 거에 빚대어서 표현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단순히 출발했던 거라서 이거를 “페미니즘 영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무거웠지, 내 스스로. 그래서 페미니즘이 아니더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저 <남근 제사>를 찍었는데, 그래서 ‘이게 왜 드러내기 어렵지?’라는 생각에서 왜곡된 시선으로 이어졌고 그 왜곡된 시선을 드러낼 수 있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 해서 저 남근 숭배 제사를 찍었던 건데... 이제 거기서부터 페미니즘으로 읽히는 거는 그거는 내가 아니라고 말을 못 해.

장승근: 오케이.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오독의 여지가 좀 많긴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도 아까 사실 아까 했던 질문이랑 연결되는 거긴 한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이후로 작업에 뻗어나가는 방향이 좀 더 자아에 대한 이야기로 갈지 아니면 어떤 젠더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F로 가는 게 맞나... F로, F로 갈지. 그게 이제 좀 더 관심사가 어느 쪽으로, 내가 봤을 때 이거 두 두 개는 같이 갈 수 있는데 본인이 본인 입으로 두 개는 분리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럼 그 둘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이 생기게 되었냐에 답을 해줘야 될 것 같긴 해. 그래야 이제 뭔가 그다음 질문들이 계속 나가는데 지금 뭔가 계속 약간 조금 좀 세계 얘기해서 좀 비겁하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 약간.

정찬용: 내가 디나이얼 같다고 얘기한 부분이 이런 부분.

장승근: 좀 뭔가 약간 어느 한쪽을 뭔가 좀 뭔가 뭐가 택하면 손해? 그러니까 이렇다라고 지금...

김이지: 내가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말을 한 거고.

장승근: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관심사 더 끌리는 거.

김이지: 뭔가 얘기가 또 이렇게 됐네. 더 끌리는 거...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처음에 어떤 시발점이 내 안에서였다면은 그걸 이제 멀리서 보면서 공통된 주제를 이끌어내고 싶은데 그게 여성 욕망에 국한되는 것 같지는 않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어떤 그걸 바라보는 규정된 시선이라든지 그런... **뭐냐 뭐라 해야 돼, 그런 거여서 그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

장승근: 잘했네. 말 잘했어. 역시 약간 그거 알아요? 원래 전쟁통에 예술 천재들이 탄생을 많이 한대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미학 교수님이 해준 얘긴데 학부 때, 생명의 위협을 막 받으니까 진짜 그 극한의 뭐라 그러니 그 본능이 깨어난, 창작 본능이 막 깨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파다 보면은 지금 똥 파니까 콩나물 나온 거예요, 지금. 그 약간 김이지의 다음 관심사는 조금 시선 쪽이지 않을까 한번 추측을 내려본다.

김이지: 그러니까 큰 주제는 그런 것 같고 거기서 뭐 여성에 관련된 게 아닐 수 있다는 말이죠.

장승근: 아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정찬용: 근데 나는 그 말이 그냥 조금 되게 어려웠어. 그러니까 좀 불편하기도 했고. 본인이 여성이라서 여성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한 얘기인데 오히려 그 태도가, “여성주의 작업은 생각하고 안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했어.

장승근: 작업의 시발점으로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현상인 것 같기는 해요.

정찬용: 근데 이제 여성으로서의 자아잖아. 근데 그 여성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 게 F의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냥 공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제는 왜, 왜... 어쨌든 지금 가벼운 시도로서 접근했던 거를 내가 프로젝트로 끌고 왔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인 것 같고. 이렇게까지 해보려고 했던 게 아니었으니까.

저 <러너스 하이>라는 작업에 “왜 굳이 여성 러너가 등장해야 되느냐”가 질문이었어요. 이게 굳이 여성주의적 관점이 아니라면 남자도 등장하고 나레이션도 남자가 이제 바뀌어도 보고, 극적으로도 얘기해 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나왔던 질문 이제 답변이 본인이 이제 “여잔데”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 나도 얘기를 끌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확장이 된 건데. 이제 앞으로는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지, 치밀하게.

장승근: 그렇죠. 접근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정찬용: 재밌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위트가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막 놀라는 그 다양한 시선 표정을 지닌 그 회화 작품들도 그게 막 너무 괴팍하거나 너무 진지하거나 막 그런 어떤 감정이 아니라 뭔가 되게 복합적이잖아.

장승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네일로 흑자 가린 거, 저 작업이 좀 좋았어요. 제 취향이었어.

정찬용: 왜? 이거 뭐 어떤 부분이?

장승근: 그냥 뭔가 시선 가지고, 이미지 시선에 대한 거를 뭔가 이미지적으로 장난치는 걸 좀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

정찬용: 그럼 저 뒤에 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승근: 이거는 제 취향이 아니에요.

김이지: 나도 아니야. 나도 아니야. 근데 저거 되게 급하게 해서.

장승근: 약간 저거는 약간 놓아준 거죠. 약간 이지고(Easy Go)죠, 저거는. 저건 이지고. 제목 이지고.

김이지: 안 걸었잖아.

장승근: 근데 이렇게 진짜 이런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B컷들을 계속해서 아무렇지 않게 좀 내비치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B컷을 계속 계속 내비치는 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아. 되게 땀 얘기지만 동료 작가들 중에서 좀 되게 쿨한 것 같아, 그런 작가들. 약간 **“야 나 이번 그림 망했는데 이거 왜 별로니?”** 하면서 그림을 보여주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근데 나도, 나도 근데 거기까진 그렇게까진

못하겠는 거야.

정찬용: 왜, 왜 너는 왜 못해? 너는 쿨해지고 싶지 않아?

장승근: 아직 그 경지에 못 도달한 것 같아요. 그 경지에 못 도달, 하지 못...

정찬용: 지금은 또 왜 이렇게 쿨해? 그게 언제 도달하지 못했다고 왜 이렇게 또 쿨해?

김이지: 그래도 그림은 못 보여주니까? 망한 그림은?

장승근: 만약에 누가 내 작업실에 왔을 때는 거리낌 없이 보여줄게. “야 나 이번 거 마음에 안 드는데 왜 그러니?” 보여줄 수 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남한테 찾아가서 보여주는 것까지는 못하겠어. 그거는 저거 얼마나 쿨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

정찬용: 쿨한 게 아니라 짜질한 걸 수도 있어.

장승근: 그럴 수도 있어요.

정찬용: 그렇다. 그래서 뭐 빠리빠리 뭐 어쩔 블라블라 했는데. 공간도 사실 되게 제약적이라서 막 이거 사실 이 스크립트 GPT에다 돌리고 뿔은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써줬는데... 오[△]히[△]려[△] 근[△]데[△] 제[△]한[△]적[△]인[△] 것[△] 때[△]문[△]에[△] 뭐[△]가[△] 재[△]미[△]있[△]는[△] 게[△] 많[△]이[△] 나[△]온[△] 것[△] 같[△]아[△]. 저 프로젝터 위치도 몇 번이나 바꾸면서 우리가 예쁜 화각을 찾으려고 제일 중앙에서 볼 수 있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전체가 밝아지는 걸 보고 영상 쓰는 기기도 바꾸고 모니터랑 프로젝트나 이런 것도 콘센트 위치랑 이런 거 고려해 갖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현실적인 이유들만 고려했는데 최적의 자리로 예쁘게 나왔어. 맞아요.

장승근: 그래서 저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연히 방금 형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뭐 어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비롯된 디스플레이들이 약간...

정찬용: 말을 너무 슬프게 한다. ‘어쩔 수 없는’이라니.

장승근: 그러면 ‘불가항력적인’.

정찬용: **그 제한적 조건을 극복하는 가능성인 거지.**

장승근: 와, 역시 기획자. 아무튼 이런 극복하는 과정에서 약간 어느

재미를 좀 발견했는지, 작가님만이 아는 약간 ‘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났더니 이래서 재밌네’ 약간 이랬던 게 있는가. 뭐 이룰테면 전 모니터 바닥에 둔 게 좀 인상적이거든요. 선도 정리 안 하고 저렇게 러프하게 두는 저 저런 방식 되게 좋아해요, 진짜로.

김이지: 아니야.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벽에 그림을 못 걸잖아요.

장승근: 응, 그렇죠.

김이지: 군데군데 숨겨놓게 됐는데.

정찬용: 근데 그것도 이슈가 있었던 게, 원래는 여기에다가 하나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분명히 대강 뭐 이렇게 했을 때는 딱 될 것 같았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막 아이디어를 짜내는 상황이 생겼지.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근데 저 모니터 바닥에 놓는 것도 그렇고, 저기에는 나는 의자를 놓지 말자 그랬는데 이제 채수정 작가가 와서 도와줬는데 의자 있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말하라고 그래. 근데 이제 나도 이제 결국에는 오케이 한 게 헤드폰을 거치할 데가 마땅치가 않은 거죠. 헤드폰 비싼 거거든.

김이지: 근데 어찌저찌 되게 잘 된 것 같아서 디스플레이는.

장승근: 자꾸 답변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김이지: 아 정리하는 거죠. 정리.

장승근: 이 ENTP 맞아요? T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 어떤 게 좀 재미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좀 왜 재미있었던 것 같은지 한번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김이지: 예? 지금 다 한 거 아니야, 앞에서?

장승근: 아니 다 찬용이 형이 얘기했지 네가 얘기는 안 했잖아.

김이지: 근데 디스플레이적인 부분에서는 찬용 쌤이 하신 게 많아가지고.

정찬용: 내가 의견을 많이 내긴 했는데 정리를 해 준 거야. 그래서 그 바닥에 놓는 거 뭐 의자 어떻게 배치할지 사실 저 프로젝터 있는 쪽 의자는 공간이 비어 보여서 세 개를 다 꺼내놓은 것도 있고. 근데 얘 아마 안 봤을걸? 숨겨진 그림이 하나가 있어.

김이지: CCTV 위에.

정찬용: 그거 말해주면 어떡해.

장승근: 그건 몰랐어.

김이지: 그러니까 몰라. 어차피.

정찬용: 그거는 맵에도 번호 표기 안 하고 그냥 별표로 따로 빼놨거든.

그런 거 사실 우리 이거 어디서든 해 볼 수 있는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별거 아닌데 그 별거를 놓치는 경우가 좀 있더라.

김이지: 어찌어찌 잘 되게 돼 있다.

정찬용: 어쨌든 전시는 올라가. 쇼 머스트 고 온(Show Must Go On).

장승근: 그렇죠. 우리 팟캐스트처럼 어찌어찌 흘러가.

김이지: 뽕뽕맞은 거만 아니면.

정찬용: 그래서 아무튼 그랬다. 그래서 뭐 사실 글 써야 되니까

나는, 나도 이거 연습이니까 어떤 성격의 텍스트인지 나는 몰라.

이게 서문인지 작품 소개글인지 작가 소개글인지 혹은 이 프로젝트 소개글인지 정체성이 모호하지만 어쨌든 나도 과정 중에 있었던 거를 글로 이제 정리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갖고 온 개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사실 다 억지고. 근데 완전히 또 억지라고는 말 못

하는 게 또 적용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다.

장승근: 그럼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페이스북

했을 때 <인문학적 개소리>라는 페이지가 있었어요. 알아요?

정찬용: 유명하죠.

장승근: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되게 쓰잘데기 없는

짤이나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온갖 철학적 당위를 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약간 피식하게 되는... 약간 그럴싸하게

표상을 좀 웃기게 잘해. 그걸 좀 그거 보면서 약간 나는 좀 연습

아닌 연습을 했던 것 같아. “이걸 이렇게 이따위로 묶는다고? 골

때린다.” 약간 이러면서 참 재밌었는데. 근데 그거 요즘 유튜브에서는

‘이동진(평론가)’을 인문학적 개소리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이동진을

패러디한 거야.

김이지: 누군지 알아.

장승근: 알지 알지. 근데 근데 솔직히 개는 개보다는 인문학적 개소리가 훨씬 밀도가 있었다.

김이지: 네.

장승근: 아니 당신이 말을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당신이...

김이지: 아니 왜.

장승근: 그래서 통제, 계속 슈퍼바이저처럼 구는데 지금 당신 팟캐스트야 이거.

김이지: 아니 난 정리를 이제 해주는 거지, 계속.

정찬용: 그러면 어쨌든 ‘시선’이라는 건 이번에 도출이 된 거고.

이제 최종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얻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진행해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시선이라는 거를 제외하고, 시선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뭔가 둘이 “이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합의를 본 지점이 시선이었고 그게 어떤 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제외한다면 지금 작품들을 봤을 때 ‘욕망’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고, 욕망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혹은 ‘서사’의 관점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지점이 더 중요한 것 같아? 혹은 잘 맞거나, 지금 현시점에서 작가한테.

김이지: 욕망이랑 서사?

정찬용: 그게 이제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분리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지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작품들만 봤을 때 욕망의 관점으로 보면 또 그렇게 읽히고, 서사를 따로 빼서 읽히면... 예를 들어서 저 남근 축제 같은 경우에도 저 안에 너의 서사도 있지만 저 사람들의 서사가 또 분명히 존재하잖아. 욕망이 드러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잖아. 어떤 지점이 더 중요한 것 같아?

김이지: 욕망이라는 단어에 앞으로의 작업이 뭔가 한정되고 싶지는 않고. 구체적으로 뭔가 말하면은...

정찬용: [▲] 뭐야, [▲] 신비주의인가 [▲] 봐.

장승근: 우와 이거 피타고라스인데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이제 저기 신비주의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 뭐냐 신분 철저하게 숨긴 그런 학파죠.

정찬용: 피타고라스 그 수학 그거 아니야? 개네가 신분 그렇게, 그거야?

장승근: 네, 개네 자기네들 약간 프리메이슨처럼 행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찬용: 아는 게 많다.

장승근: 약간 알쓸신잡 같은 거.

김이지: 왜 지금 내가 말하는 게, 근데 왜? 뭐가 피타고라스 같은 거?

정찬용: **그러니까 지금 막 되게 조심스럽잖아.** 욕망으로 뭐 하나 이렇게 하기에는 어찌고저찌고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그 고착화될까 봐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 이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장승근: 일단 틀려도 좋으니까 가설을 계속 세워봐.

김이지: 아니 지금 말하고, 지금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왜.

정찬용: 너무 답답해서 그런가 봐. 미안. 한남들이 이해 못했다, 야.

장승근: 또 상상하는 거. 한번 얘기해 보면 시선이랑 욕망이랑 또 어찌고 보면 좀 연결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

김이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욕망, 꼭 욕망이 다음 작업에 나올 거라고 말을 안 했잖아. 왜곡된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는 어떤 다른 소재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 정리를 또 했던 거는,

나는 담고 싶은 거를 기다리진 않고 뭔가 만드는 방식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다. 연출이라든지. 그러니까 회화에서도 뭐 주변에 일상의 소재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 모델을 섭외하고 그 분위기를 찍고 이런 거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고 영상도 같은 맥락에서.

장승근: 그래 잘하네.

김이지: 그래 난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느리다고 막.

정찬용: 한남이라서.

장승근: 미안합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정찬용: 이게 그 왜곡된 그거야.

장승근: 아니 이 작가님 옛날 작업들도 보면은 다 생각해 보니까 다 이렇게 뭔가 어떤 시퀀스처럼 연출된 회화들이 되게 많고.

정찬용: 근데 이제 오프닝 때,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 나는 어쨌든 시선이라는 거를 막 그 맥락으로 파악한 게 아니라 작품 보다가 그냥 시선이 다 드러나잖아. 눈이 다 나오긴 하니까 그냥 되게 단순한 관점이었는데. 그 모 작가가 이제 오프닝 나와가지고 그걸 물어보더라.

“그러니까 F 같지?” 그랬더니 “F 같진 않대”, 자기는. 근데 이지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근데 왜 이렇게 다 핑크색을 많이 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게, 너 왜 핑크색 많이 썼어?”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된 거지. 핑크색. 약간 되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른 관점의 시선인 거잖아. 핑크색. 나는 놓치고 있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되게 시선이, 시선에 대한 우리의 고정적인 또 그게 있어. 고정적인 시선이. 난 그것도 재밌었어. 저 사람이 화면 밖의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지점도 되게 재미있었고 오히려 그 설정이 재네가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극적인 상상을 좀 해보자면... 그래서 약간

극적이라는 거, 또 학부 때 공연 전공했으니까 되게 잘 어울리는데.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거 잘못 쓰면 되게 공격의 대상이 되더라고. 특히 페인터들한테. 연출적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인지는 너무

이해는 하는데 공감은 사실 안 돼. 그 공격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김이지: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어?

정찬용: 작위적이라는 거지.

김이지: 자연스럽지 않고?

정찬용: 그러니까 회화성이라는 게 분명히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되고 있는데 어쨌든 사진이 나오기 시작했고 어떤 기록물로서의 매체가 대체가 됐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화성이라는 건 우리가 연구하고 회화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다양한 탐구를 하는 건데, 이제 작위적인 연출적인 상황은 결국 기록의 수단으로서의 매체에 더 많이 할애되는 거라는 거지.

장승근: 기록이라...

정찬용: 왜냐하면 영상, 영상도 이제 기록이잖아. 이미지 기록이고
사실 회화가 아니라 그림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과거에는 그게 그냥
기록이잖아. 사진이 없었으니까.

장승근: 그래요. 저는 그냥 모르겠습니다. 기록이라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연출을 가미한 회화 전시가 기록에...

정찬용: 그러니까 회화라는 게 과거에는 어떤 기능을 했었는지를
생각해 봐. 회화가 과거부터 예술적이었지는 않았잖아. 다 기록이었잖아.

장승근: 지금에 와서는 좀 어떤 전시라는 경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정찬용: 전시가 아니라 회화.

김이지: 아니 우리 그림, 그림 얘기하고 있었어.

장승근: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정찬용: 그런 거.

김이지: 각자 뭐 어떻게 될 더 추구하냐에 따라 다른 거 같아.

정찬용: 너무 순진하시다. 앞으로 올 일이 많겠네. 그래서 나는 어쨌든
마무리하면 빨리 개인전 했으면 좋겠어.

장승근: 아니 뭐 이 전시는... 형의 어떤 간택 아닌 간택으로 이지킴
했지만 이지고 하지 않길 바라면서. 마무리 멘트 뭐...

김이지: 뭐야 이게 끝난 거야?

정찬용: 한마디 해줘, 마무리는.

김이지: 근데 쓸 말이 있을까? 여기서 많겠지?

장승근: 마무리 한마디 하고 마치시죠.

정찬용: (한숨)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겁해.

[팟캐스트 'Filling Gaps'¹ 인터뷰 발췌록]

본 프로젝트에서 수행된 팟캐스트 녹음과 라운드 테이블은 단순한 부대 행사가 아니라, 폴 오닐과 Mick Wilson(Paul O'Neill & Mick Wilson)이 논한 '교육적 턴(Educational Turn)'의 실천적 적용이다². 큐레이터의 작업실은 전시장이자 동시에 배움과 대화가 발생하는 '파라-에듀케이션(Para-education)'³의 장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완성된 결과물보다 지식이 생산되고 교환되는 과정 자체에 우위를 둔다.

에피소드 #3. [팟캐스트 녹취록] 저 못느껴요, 잘: 불능감과 유예의 시간

일시: 2025. 5. 14. (수)

참여자: 정찬용(기획/진행), 황규민(작가)

정찬용: 시작해 볼게요. 원래 시작은 이래.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황규민: 어떤 걸요?

정찬용: 너가 누군지?

황규민: 저는 92년에 태어나서 대전에 있다가 작년에 서울로 올라온 황규민이라고 합니다.

정찬용: 네, 이번에 저랑 같이 이제 공간에서 세 번째 프로젝트죠. 공식적으로는 <저 못느껴요, 잘>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황규민 작가와 한번 전시 리뷰 겸, 수다 겸, 팟캐스트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GPT가 또 대본을 이렇게 써줘가지고... 자 1부를 진행해 볼게요.

1부의 제목은 '몸 풀기: 지금 여긴 뭐지?'. 가볍고 편안하게 시작하는 도입부입니다. "요즘 감각 어때?" 이 지랄.

황규민: 어떤 감각이요?

정찬용: 나야 모르지.

황규민: 어떤 감각을 좀 구체적으로 여쭙봐 주시면 좋겠긴 하겠는데.

정찬용: 작업, 뭔가 사는 거에 대한 걸 수도 있고 생활에 대한 걸 수도 있고.

황규민: 꽤 많이 죽어 있죠.

1 "FillingGaps는 큐레이터와 작가가 작업실에서 나누는 솔직한 이야기와 예술적 실험의 뒷얘기를 엿보는 팟캐스트입니다. 큐레이터와 작가가 기획하고, 시도하고, 때론 망가지는(?) 과정 속에서 탄생하는 작은 이야기들이 담깁니다. 마치 남의 일기장을 훑어보는 듯한 가벼운 수다와 함께, 예술의 빈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해보세요." (팟캐스트 공식 소개글 중)

2 폴 오닐, Mick Wilson 엮음, 『큐레이팅의 교육적 전환』, 김아람 옮김 (서울: 더플로어플랜, 2021), 13-22쪽. 본 연구는 전시 공간을 지식 생산의 장으로 재정의하는 이들의 논의를 따라, 큐레이터의 작업실을 교육과 큐레이팅이 교차하는 '파라-에듀케이션'의 현장으로 해석한다.

3 애니 플레처, 세라 피어스, 『파라교육 부서』, 위의 책, 191-195쪽.

정찬용: 여전히? 오케이, 이유는 묻지 않겠어. 이번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 맥락에서?

황규민: 죽은 감각 정리하기.

정찬용: 응, 괜찮다. 그러면 다음. "저 못느껴요,

잘"이라는 말, 네 입으로 다시 말하면 어떤 느낌이야?

황규민: 그냥 뭐... 지금 가장 잘 체화된 감각 같은데.

정찬용: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어떤 감정이나 감각의 차이가 있나?

황규민: 조금 그래도 후련한 느낌은 살짝 있어요.

정찬용: 그럼 처음 우리가 이 얘기 꺼냈을 때... 이

얘기라는 게 나도 뭘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이 프로젝트 전체라고 놓고 보자. 애초에 내가 이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 솔직히 어땠어?

황규민: 언제?

정찬용: 완전 처음에. 완전 애초에 "이런 거 할 건데".

황규민: 너무 좋은데 그때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정찬용: 빨랐으니까? 니가 그러면 생각했던 적절한 시기는 언제?

황규민: 근데 그때는 이제 한 10월달 정도가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때는 그냥 뭔가 전시라고 생각하고서 생각했어서 그랬던

것 같고. 막상 해보니까 그냥 닥쳐서 또 할 수 있었던 것 중에서

조금 적절한 걸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해요.

정찬용: 전시라고 만약에 한다고 했어도 너 지금, 다른 말할 수 없는 여타 전시 준비하는 꼬라지 보면... (웃음) 1부가 끝났습니다. 너무 빠른데? 1부 10분 동안 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1시간 구성의 대본이란 말이야. 2부 바로 들어갈게요. 2부의 제목은 '비틀어진 작업실: 되기와 못되기의 리듬'. 전시와 작업을 기획이 아닌 살아본 시간으로 이야기하는 섹션. 이거 질문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 얘기까지... 아까 우리가 사실은 녹음 전에 나름의 인터뷰 아닌 인터뷰, 뭐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거를 홍보 영상?

황규민: 인터뷰긴 인터뷰죠. 인터뷰죠.

정찬용: 찍었잖아. 외부 어떤 플랫폼에 의해서. 그때 이제 의도치 않게 나도 뭔가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넣을까 말까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까 뭐지... “^모^르^니^까 ^하^는 ^거^다”, 약간 이거에 이어서 이거가 우리가 그런 이슈가 있었잖아. 그 ‘**비커밍(Becoming, 되기)**’과 ‘**비잉(Being, 있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네가 “때려치우고 싶다” 혹은 나도 “때려치우고 싶다”는 말 자주 하고, 작가들이 때려치우고 싶다는 말 자주 했을 때 분명한 목적을 두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돈이라든가),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그렇잖아. 작업을 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작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작업자의 입장에서 때려치우고 싶을 때는 뭔가 손에 안 잡히거나 뭘 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혹은 막 그 흰 캔버스가 제일 두렵다라는 말도 있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의미 있는 걸 자꾸 바라니까 그게 두려워지고 못하겠고 때려치우고 싶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서 하는 시간은 그런 거 다 이제 감정 같은 거 다 배제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만으로도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거가 어쨌든 결론이 나왔잖아. 여기에 이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지는 나중 문제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살아본 시간’이라는 개념이 어쨌든 GPT랑 내가 대화를 되게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전시 소개할 때도, 그러니까 전시를 결과 위주고 이런 거보다 이 프로젝트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멘트가 ‘되기 이전의 상태’를 경험해 보는 거. 혹은 이제 네가 막 “못 느낀다”고 그러고 그게 되게 야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말일 뿐이고. 무얼 감각하지 못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되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의미를 찾았을 때 뭔가 생산적인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되게 의미 있는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네가 나한테 막 그랬잖아. “작업실 매일 가긴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와요.” 막 이런 얘기했잖아. 근데 사실 그게 정말 막 작가들이 막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난 아직도 생각하지만(웃음), “이거 다 작업 구상하는 거야” 막 이런 것처럼 그게 실제로 의미 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왜냐면은 이게 그런 거를 뭔가 목표를 두거나 뭔가 되게 의미 있으려고 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출퇴근하면서 반복적으로 뭘을 조립하고 기록하고... 이것만으로 어쨌든 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감각하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은데. 예를 들면 네가 극한의 스포츠를 해야 신체를 감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무의미한 거를 반복해봐야 그게 쌓였을 때 시간 자체를 감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그걸 감각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질문이 왜 ‘살아본 시간’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돼. 그러니까 ‘되기와 못되기의 리듬’ 이런 게... 그러니까 항상 항상 너네가 의미 있는 거를 창작할 순 없잖아. 의미 없는 것도 하고 그게 되게 이제 병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리듬일 수가 있는 거잖아. 밸런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면, 작업실에 매일 출근해서 조립하고 기록하는 거, 어떤 기분이었어?

황규민: 기분이라기보다는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정찬용: 차라리 '설명서 만들기'가 실제로 설명이 되던가?

황규민: 무슨 말이지? 설명서 만들기가 실제로 설명이 되던가?

정찬용: 설명서 만들기라는 행위가, 그 설명서가 아니라... 여기에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건 완성된 어떤 결과물로서의 설명서가 아니라 '설명서 만들기'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 행위가. 이거를 설명이 되냐, 그러니까 너 스스로 납득이 된다?

황규민: 이거는 스스로 아까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인터뷰를 아까 했었잖아요. 이거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었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설명을 또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설명이 됐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정찬용: 근데 여담이지만 내가 이렇게 뭐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했을 때 한 번도 의심을 놓은 적이 없잖아.

황규민: 아, 아니에요.

정찬용: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별로야. 당사자가 있는데 아니라고 통 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

황규민: 그런 것 같네. 뭔가.

정찬용: 그래서 조립하면서 "아 이걸 진짜 내 거다" 싶은 순간이 있었어? "아 이거 진짜 내 거다"는 이거는 나는 모르는 감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작가의 관점에서 예를 들면은 좀 유추하던데, 그런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단순히 재료를 모아놓은 건데 저게 '빌렌도르프 비너스'처럼 보인다거나... 근데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게 황규민의 프로젝트에서 저게 저렇게 놓였기 때문에 빌렌도르프 비너스처럼 연상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 어쨌든 그 연상의 구조는 황규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 그거를 중심으로 그런 부분을 작가 본인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은 이렇게 감각한다는 거를 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걸 보고 겪었잖아.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너한테도 스스로 있었는지.

황규민: 그런 거를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제... 그냥 보여주니까 제 이름을 보여주니까 제 거긴 한데. 그냥 뭔가 이제

설명서를 만들고 모듈화를 시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정찬용: 근데 결론은 어때? 누구나, 누구나 이제 그 과정은 딱 너의 고유한 것이 아니니까. 사실 누구나 이 과정을 예를 들어서 앞서 프로젝트 진행했던 채수정이나 김이지가 이런 식으로 똑같이 뭔가를 한들 똑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 변별점을 가져가는 부분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재료적인 거, 뻔하게 이제 뭔가 차별화할 수 있는 재료라든가 뭔가 어떤 미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외[▲]했[▲]을[▲] 때[▲] 남[▲]는[▲] 어[▲]떤[▲] 에[▲]센[▲]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어떤 분위기라든가 뉘앙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단순 재료의 모음이 뭔가 되게 황규민을 연상시키는, 기존의 터프팅(Tufting) 작업을 연상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기존 작품들의 톤이랄까 칼라 톤, 그런 거가 떠오르기도 하고. 뭔가 그런 부분들이 "저거를 사실 저렇게 놔도 될까요?" 네가 이제 역질문했는데 결국에 놓기로 했잖아. 그런 부분이 적용돼서 놓기로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 문득.

황규민: 그럼 지금 약간 말이 길어져서 조금 헛갈리는데...

정찬용: 여기서 말하는 "이거 내 거다"라는 게 굳이 "이거 내 거다"라고 느끼지 않더라도 뭔가 너한테...

황규민: 저한테서 풍기는 느낌의 어떤 무언가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정찬용: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3자가 보는 관점인 거고. 근데 이제 스스로 작업을 하면서 뭐 하다 보니까 '어 이거 난데?', '이거 나 원래 하던 건데?', 아니면 '비슷하네?', 아니면 뭐 '뭐가 될지 난 모르지'. 그런 포인트가 있었는지.

황규민: 어... 저거 이제 벽에다가 드로잉인지 뭔지 하는 거를 그렸을 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의 제약이 있고 제가 빠른 시간 안에 저거를 어떻게 보면 조합을 해내서 한 거잖아요. 근데 저런 뭔가

구성이나 이런 것 자체가 제 거라고 생각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런 조합이나 이런 게 빠른 시간 내에 그래도 내 눈에 너무 어색하지 않은 것들을 제가 조합을 해냈었고. 그리고 뭐 재료적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저런 거를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나중에 그걸 조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남의 거를 보지 않고 제가 만든 걸로만 조합을 한 거잖아요.

‘어 저거는 그래도 내 거 같은 나의 어떤 감각이 들어가 있는 뭔가 드로잉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찬용: 이런 얘기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네 작업을 두고 얘기할 때.

중간에 멈추고 싶었던 날도 있었어?

황규민: 중간에... 뭐 일찍 갔죠, 그럴 때.

정찬용: 이 억지로 한다는 건 되게 어렵긴 한데. 아예 이제 너랑 나랑 성격이 너무 다르니까 내가 느끼는 멈추고 싶었던 날은 이 프로젝트를 중단할 얘기할 것 같아.

황규민: 시작했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죠.

정찬용: 시작하고 나서. 시작 전에는 고민을 했었나 보네.

황규민: 시작 전에는 이제 긴 시간이 있었으니까. 이게 자꾸 뭔가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내려놔야겠다고 스스로 생각을 엄청 많이 했으니까 그때.

정찬용: 솔직히 이걸 실패한 것 같다고 느낀 부분 있어?

황규민: 실패가 있을 수 없는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정찬용: 그래도, 그래도 뭐.

황규민: 실패. 과정 중에 뭐... 그냥 저렇게 걸어놓은 빨간색 가죽들을 걸어 놓은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는 다 뭔가 예쁘게 팽팽하게 걸릴 줄

알았는데 줄이 약간 뭐 이렇게 느슨하다거나 튀어나온다거나...

정찬용: 그거는 **좋은 실패지**. 해봤으니까 다음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완성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중이라는 건 너한테 어떤 감각이야?

황규민: 완성된 거를 만드는 게...

정찬용: 이거 약간 질문을 풀면 그건 거지.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

이게 왜 프로젝트고 전시가 될 수 없는지, 저게 왜 작품이 아니고 과정 중이고 굳이 작품이라고 한다면 왜 프로토타입이 될 수밖에 없는지 같은 얘기인 거지. 어쨌든 이게 전시라고 했으면 아무리 여기에서 작업을 한다고 해도 무언가 완성을 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사실 완성보다는 시간에 맞춰서 중단한 거잖아, 행위를.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다가왔는지 어떤 느낌이었는데 그걸 애가 자꾸 “어떤 감각이야?”라고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

황규민: 그냥 프로젝트니까 여기서 멈춰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긴 한데. 그냥 뭔가 크게 생각해 보면은 약간 어떤 분이 이제... 그러니까 오늘도 인터뷰하러 오고 그러신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보면 전시회 형태를 바라보고 뭔가 그렇게 됐을 때는 뭔가 짹짹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뭐 의도가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라고.

정찬용: 이거 보여주는 거에 대한 부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나도 오늘 그냥 옆에서 촬영 따로 하고 뭔가 인터뷰 녹취 따로, 따로 이런 건 줄 알아가지고 되게 편하게 하고 왔는데. 시발 그랬으면 막 새딩을 오지게 하고 돼지같이 나오면 넌 죽을 줄 알아.

(웃음) 이걸 여담이지만 약간 이런 거잖아. 준비되지... 뭔가 완벽하게 내 판에, 남들의 만족이 아니라 내 기준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 준비가 됐다라고 했을 때 노출되는 것과 “편하게 가자” 했는데 갑자기 촬영한대, 마이크 쭉... 하지만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 공간에서만큼은 작가를 서포트하는 큐레이터가 되자, 프로페셔널한 모습으로 잘 설명을 했잖아. 짜증 안 내고. 그러니까 작가도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완벽한 작품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고 완벽한 전시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고. 근데 좋고 나쁨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막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작업실에서 무언가를 해본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실패가 용인되는 거잖아. 그리고 전시에서 솔직히 실패하면 좀 어때?

황규민: 맞아요. 상관없죠.

정찬용: 그냥 뭐 절필하면 되지. 그치?

황규민: 저는 그 마음 갖고 항상 살아가려고 노력해야죠.

정찬용: 근데 그 마음 갖고 살아가는 애들이 룡련하는 것 같긴 해. 아무튼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조립, 반복, 설명, 생략. 이 단어들을 애가 언급하는 이유는 너에 대해서 뭔가 내가 안 풀릴 때 GPT랑 계속 대화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GPT를 내가 여러 가지 텍스트라든지 내 관점이라든지, 그때는 널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네가 이렇게 보이고 너의 의외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입력을 하고 분석을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키워드들의 그 종류거든. ‘조립, 반복, 설명, 생략’. 근데 이제 그런 내 질문들에는 맥락이 있었는데 지금은 맥락 없이 키워드만 뺐을 때 ‘조립, 반복, 설명, 생략’은 그 단어 그 자체로 생각을 하고서... 여기서 이제 가장 너다운 게 뭐냐고 묻는 거야. 이 프로젝트뿐만이 아니라.

황규민: 생략이죠.

정찬용: 진짜? 이건 되게 의외인데. 왜?

황규민: 저는 그냥...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생략을 많이 시키고 말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막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사람을 만나서, 어느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제 스탠스는 항상 변한다고도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생략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생긴다고는 느끼니까. 저를 전체적으로 담아내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도 생각하고.

정찬용: 그럼 이거는 약간 그 번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나는 ‘조립’ 같은 거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거든. 내가 막 작가들한테 흔히 얘기하는 “솔직하지, 왜 이렇게 너네들은 솔직하지 못하냐”. 뭔가 이렇게 말을 어거지로 내가 한 말 오해해서 니들 관점에서 해석한다거나... 이것도 다 조립의 형태고. 전이나 작업을 뭔가 임하는 태도를 봤을 때도 다 어디서 본 거 짜집기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또 그거를 극복하고 싶어 하는데 극복하기 위한 방식도 일종의 조립의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갖고 이제 나는 조립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뭐가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략’이라고 생각하는 건 네 얘기를 들어보면은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큐레이터나 기획자로서 본다면 그러면 오히려 너다운 작업에 대한 어떤 갈망이 너가 되게 있었잖아. 그럼 생략이 이 중에서 만약에 이 네 가지 키워드 자체가 너를 중심으로 도출된 키워드들인데 너가 스스로 생략이 가장 너답다고 생각한다면...

황규민: 그렇죠. 답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찬용: 그러면 이 생략이 작업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야 되는 부분은 아닐까라고 난 생각하는 거지. 사실 생략적인 작업은 아니었잖아. 그동안의 작업들이 조립이나 해체에 가까운 거지. 이거는 조금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 생략은 요번에 방금 전에 이제 너의 답변, 이런 말 네가 처음 하는 것 같은데 했던 거... 그러니까 “저거 그림인지 드로잉인지 뭔지 모르는 걸 하면서 그래도 이거는 다 내가 생산해 낸 이미지를 갖고서 뭔가를 구성한 거니까 내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방식 자체도 조립이잖아. 나는 약간 그 외부자로서 봤을 때는 이제 조립이 제일 너답지 않을까, 만약에 애가 자기 객관화를 잘하고 있다면 했는데. 스스로 이제 바라봤을 때 생략이라는 부분이... 근데 또 이게 “저는 그건 아니지”라고는 못하는 부분이거든. 이것 때문에 나도 짜증이 많이 나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생략된 부분을 내가 계속 메꿔야 되잖아. 또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설명을 또 해 주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또 알아가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생략에 대한 거를 만약에 기존 작업에서 생략을 어떻게 답을 것인가 하면은 또 해볼 만한 것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 그런 것도. 아무튼 그래서 2부가 끝났다.

정찬용: 이제 3부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3부는...

황규민: 파인애플 피자? 그럼 저 중요한 거 하기 전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휴식)

정찬용: (잠시 후) 다시 녹음을 시작합니다. 3부 '불능감과 파인애플 피자: 감정 없는 감정 이야기'. 좀 더 솔직한 내면, 못 느끼는 감정에 대해 말해보기. 작업하면서 이걸 너무 뻘한 질문이긴 하다. 근데 작업하면서 "이게 왜 좋지?" 말고 "왜 아무것도 안 느껴지지?" 했던 적 있어? "아무것도 안 느껴지지"가 너무 질문이 애매하면... 그러니까 "이게 왜 좋지?"가 긍정적이라면 뭔가 부정적인 생각?

황규민: 이게... 뭐 항상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아까도 뭔가 말했었는데 "내가 이거 만들어서 뭘 하는 거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뭔가 조금 그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생각을 전해줄 수 있는 거지?", "내가 만들어낸 것들로 그냥 뭔가 내가 뭔가 토해내듯이 했던 작업들인데 그게 그러면 뭔가 그냥 토사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찬용: 근데 꼭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아도 되잖아. 그냥 어떤 그냥 관심을 바라는 거 아니야? 긍정적인 영향이 있길 바라?

황규민: 이제 근데 긍정... 그것도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세요", 이걸 아는데 내가 스스로 뭔가 조금 쓸모 있는 말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정찬용: 그럼 이제 보통은 작가마다 작업 방식이 다르니까, 어떤 작업을 시작한다 그랬을 때 일단 이런 경우가 있나? 전시라든지 아트페어라든지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도 작업을 하긴 해?

황규민: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저거... 저를 아무도 안 불러주면은 그때서야 그냥 하고 싶은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 작업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정찬용: 나는 사실 그래야 이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왜냐하면 다 목적을 두고 작업을 한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작업들은 예를 들면 학교에서도 과제가 있어야 작업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다음 질문. 미술이 감정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질문을 너는 어떻게 받아들이니?

황규민: 그냥 제가 약간 그 뭐지 막 이렇게 전시라고 치면은 제가 잘못 느껴요, 약간 그렇게 감정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도 모르게 말해 줄 수 있냐라고, 이 전시가?

정찬용: 이 감정을 대변한다는?

황규민: 그렇게 뭐 해줄 수 있지 않나라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느낀다는 건 아니고.

정찬용: 그래서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게 해 준다고 생각해?

황규민: 그거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죠. 실질적으로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닌 것들을 대변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운이 좋으면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고.

정찬용: 결론은 다작 해야지. 가장 최근에 작업 말고 뭔가에 강하게 감정 느낀 순간은 없나요? 사적인 내용.

황규민: 작업 말고 그냥 그 썸 탈 때?

정찬용: 내가 너 빨리 연애, 연애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잖아.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막 예를 들면 상경을 그토록 생각하던 애가 어쨌든 모험이잖아. 용기 있게 상경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뭔가 되게 액티브하게 받아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액티브하게 받아치지 않았던 것 같고.

황규민: 그렇죠. 뭔가 그냥 다 견뎌내기에 조금 그냥 급급했었던 것 같아요.

정찬용: 견딘다고 모르겠어. 버티기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눌러앉은 느낌.

황규민: 눌렀다.

정찬용: 그냥 눌러 앉아 있는 느낌. 여기에서 자리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자리 맡아 놓을 때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뒷사람들이 막 이렇게 컴플레인 걸잖아요. 다시 뒤로 가시라고. 약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쉽사리 뭘 시도하기도 애매하고 작업을 하는 것도 계속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생각으로 치닫게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서 내가 이제 바라보기에는 그러면 연애라도 하면은, 그거는 또 다른 감정이니까. 흔히 말하는 “예술가는 사랑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이런 고루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 얘가 막 뭔가 되게 무딘 것처럼 세상 다 산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 모르는 것도 많고 아직 해봐야 되는 것도 많고. 근데 이제 그거를 건들여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극체가 연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예전에 이제 연애 좀 하라고 막 그랬던 게, 근데 그때도 너는 그거에 대한 리액션이 아니라고 이제 연애, 연애 못할 것 같다, 생각 없다고... 그냥 못... 할 수 있을까요? 막 근데 너무 웃기죠. 그게 불과 한 뭐 1년, 1년 반 전 너의 반응이라는 게. 아무튼 누군가 네 작업을 보고 “불감증 같다” 말했을 때 어땠어요? 이걸 사실 작업 보고 얘기한 건 아니고 포스터 보고 얘기한 거긴 했는데. 이 질문 보고 또 드는 생각이 옛날에는 작업에서도 이런 느낌을 받긴 받았었거든. 불감증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그런 섹슈얼한 의미가 아니라 청구전에서도 그 의도가 그렇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하긴 했었지만... 그 구성을 놓고 작품을 따로 떼어놓고 보더라도 뭔가 이거를 ‘이게 뭐 느끼고 못 느끼고’ 이런 말장난이 아니라 ‘왜 하는 거지?’, ‘이거를 왜 했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냥 욕구불만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그게 뭐 그게 불분명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성공에 대한 열망인 건지, 혹은 어떤 잘 나가는 작가에 대한 시기 질투인 건지, “저 작가가 저 정도는 아닌데 왜 저런다고” 약간 이런 건지. 근데 그것조차도 부러움일 수 있는 거잖아.

정찬용: 사실은 근데 그런 것보다도 확실하게 이제 다가왔던 거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를 터프팅으로 깎아놓고서 제목을 이제 ‘미의 도상’이라고 이제 정해놨던 게... 이제 거기에서 연상되거나 유추될 수 있는 내용이 얘가 그래도 본인만의 뭔가 추구미는 뭔지 모르겠지만 지가 어쨌든 뭔가 닿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뭔지 난 모르겠으나 어쨌든 ‘미술인 것 같긴 하네’라는 지점이 있어서. 이제 그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설명을 하기에든 혹은 조금 같이 고민을 해 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 작업을 되게 좋아했던 건데. 왜냐면은 되게 추상적인 거를 어쨌든 촉각적으로 그때는 이제 만져도 된다고 네가 설명을 했었잖아. 그래서 그거를 뭔가 추상적인 거를 물리적으로 만져볼 수 있게끔 해서 감각하게끔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되게 영리한데 이 친구’ 했는데 이제 너무 큰 착각이었던 거지. (웃음) 너무 이제 내가 배보다 배꼽으로 해석을 과대 해석을 했었던 게 아닌가.

황규민: 그게 미술이죠.

정찬용: 아무튼 뭐 그랬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거 같아? 질문을 좀 바꿔서 지금은 어떤 것 같아?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터프팅 작업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도 들었다 그랬었고. 지금은 터프팅이 아예 없는... 근데 개인전에서 항상 터프팅 동양장에서는 했었고 다 있긴 있었구나. 터프팅 아예 없는 건 이번에 처음이구나.

황규민: 아예 없는 거 아니지. 작년 부산 있긴 했었다. 여관에서 했던 게 있긴 하니까. 그죠.

정찬용: 아예 배제된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어떤 거 같아? 터프팅이 있어야만 느낄 수 있어?

황규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뭔가 작년에 부산에서 했던 것도 “나 터프팅 안 해” 하고서 했던 거니까. 마지막에 그게 그렇게 작업이 들어갔었던 거는 뭔가 저한테는 조금 약간 급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어 약간 그런 생각은 해요.

정찬용: 사실 너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지? 되게 뜬금없이.

황규민: 안 좋아해요.

정찬용: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황규민: 파인애플 피자 맛없잖아요.

정찬용: 그 맛없는 포인트가 뭔데?

황규민: 그냥...

정찬용: 짹짹해야 되는데 과일의 단맛이 들어가서?

황규민: 네. 근데 뭔가 이제 주시(Juicy)한... 근데 주시하지 않아도 좋아하지 않은데 약간 더 주시한 맛이 있으니까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죠.

정찬용: 근데 막 고르곤졸라 피자 같은 것도 꿀 찍어 먹고 그러잖아. 과일의 신맛과 신맛 단맛 이런 게 싫은 건가?

황규민: 과일의 신맛 단맛 그런 게 이제 피자에 있다는 게 그렇게 좋진 않죠. 그러니까 원래 그 고구마 이렇게 올라간 것도 있잖아요. 크러스트나 고구마 무스 올라간 피자도 마찬가지로 안 좋아하긴 해요. 그래도 먹을 수는 있어요. 시켜 먹진 않지만.

정찬용: 아니 되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 이 3부의 제목이 ‘불능감과 파인애플 피자’라는 게 뭔가 이걸로 전시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어떤 조합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 미묘한...

황규민: 뭐 제 미감이 들어가게 되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취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찬용: 파인애플 피자를 가지고 전시를 하나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작업을 하는데 이제 모티브가 파인애플 피자가 되는데, 그 시각적인 어떤 파인애플 피자가 아니라 지금 말했던 그 파인애플 피자에 대한... 그동안에는 욕망하는 것에 대해서 할 때 결국에는 추구하거나 갈증 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호’로 가잖아. ‘호(好)’로 가잖아. 근데 이제 ‘불호’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싫어서 싫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사람도 그렇고.

황규민: 지금 생각 든 건데 아까도 전시 제목 때문에 궁금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하와이안 피자는 피자인가”라고.

정찬용: 되게 웃긴다. 하와이안 피자가 있는데 왜 파인애플 피자라고 했을까.

황규민: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웃음)

정찬용: 4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것: 일상, 반복, 존재’. 나는 이게 사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작용됐으면 좋겠는 부분인 것 같고.

전시 이후를 향한 감정, 반복과 존재에 대한 진심에 대한 이야기래. 이 프로젝트가 너한테 남긴 건 뭐 같아? 쓰레기?

황규민: 아니죠.

정찬용: 파인애플 피자?

황규민: 아니 아니. 그때 뭐 그거 피자 엄청 먹었거든요, 집에서. 그래 뭐 그냥 다음에 뭔가 9월에 뭐 할지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실마리였던 것 같아요.

정찬용: 실마리가 남았다.

황규민: 실마리를 찾았다.

정찬용: 찾았다. 이제 매일 안 와도 되는데 괜찮을까?

황규민: 그건 아니죠. 저는 또 이제 혼자 놔두면 또 또 정신이... 네,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까 또 가끔 혼자 있을 때는.

정찬용: 이거 뭐지, 약간 여담으로 사실 레지던시가 여러 가지 목적이나 기능이 있지만 뭔가 이렇게 조금 레지던시보다 작업실 세어를 하면 서로서로 약간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작업에 크게 방해만 안 된다면.

황규민: 근데 이제 저도 대학교 생활을 했잖아요. 작업실을 공유했잖아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게 레지던시면 차라리 일적으로 생각하고서 하면 그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작업실 세어는 저한테 그렇게 그런 거를 해결해 주는 그거는 아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원 때까지 진짜 작업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정찬용: 그건 네가 잘못된... (웃음)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제 매일 여기 안 와도 되는데 괜찮을까” 해서... 사실 이거 이런 프로젝트를 이런 방식으로 하자, 거기에 이제 이케아 가구에 대한 컨셉이 들어가고 설명서가 들어갔던 게 이제 그 설명서의 과정이 사실은 네가 되게 하고 싶어 하는 니 작업의 어떤 체계화인 거잖아. 근데 그거를 했는데 안 오면 안 된다고 하면...

황규민: 그거 그거, 그렇죠. 할 수... 근데.

정찬용: 근데 사실 여기서 뭐 새로운 걸 한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내 작업실에 세어했을 뿐인 거잖아. 너 딱히 뭘 하지 않더라도 작업실은 가긴 간다고 그랬잖아.

황규민: 네. 그러니까 뭔가 혼자 놔두는 상황에서 뭔가를 그냥 잘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정찬용: 여기서도 거진 너 혼자?

황규민: 그래도 이거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정찬용: 그럼 나는 이제 너를 도우려면은 약속만 해주면 되는?

황규민: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정찬용: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약속이 뭐지.

황규민: 아니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근데 약속도 그냥 약속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조금 구체적인 상황들이 있는 약속이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정찬용: 결국에는 뭐가 잡혀야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황규민: 그런 인간인가 봐요. 아무튼.

정찬용: 아무튼 그거는 이제 뭐 차차 알아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운동 가잖아, 너 운동 좋아하고. 약간 운동도 스스로와의 약속 같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운동만큼은 네가 되게 빠지지 않고 꾸준히 하잖아. 뭐 예를 들면은 웨이트를 못 가게 됐을 경우에는 러닝이라도 하고, 뭐가 아니면 뭐 버피라고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황규민: 아니 버피는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거는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러닝을 대신 했었죠.

정찬용: 그러니까 뭔가 그거는 꼬박꼬박 하는, 뭔가 이미 대체 상황까지 고려돼 있는 너와의 약속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은데. 작업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 아니야?

황규민: 그렇죠. 그 뭐가 그렇죠. 어렵긴 해요. 작업실 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정찬용: 그래. 근데 그거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해. 작업실 환경을

니가 돈을 벌든 따로 뭐 어디서 지원을 받고 레지던시에 들어가건 작업실 환경이 어쨌든 환경이라는 게 되게 영향을 많이 주니까 사람한테. 작업실 환경이 조금 좋아졌을 경우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분명히. 근데 그거는 스스로 뭔가 얻어와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그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안 괜찮다”. 작업실... 나는 되게 뿌듯하지. 여기 온 게 어쨌든 의미 있었다는 거니까. 이번에 한 이 방식 기록, 조립 방법을 다시 할 생각이 있어?

황규민: 그렇죠. 9월달에 뭔가 이거에 대한 연장으로 하기로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맨 처음에 만나기, 그러니까 오늘 만나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9월에 하는 얘기.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조립할 수 있는 거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터프팅 작업을 연결해서 한다고 했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식을 적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요. 이제 터프팅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 자체도 제가 항상 고민을 했었던 거잖아요. 정찬용: 아.

황규민: 여기에 그거를 약간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뭔가 그런 생각은 해요. 별로 사람들이 원할 것 같은 이미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 터프팅으로 옮겨 났을 때. 그래서 그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또.

정찬용: 근데 그거는 또 말 안 들겠지만, 여실히 이거는 너도 아는 너와 나의 통계에 기반한다면 네가 이럴 거라고 예상했던 것 중에 맞았던 게 하나도 없어. 진짜 100%의 확률로. 그래서 그냥 그거는 해보면 좋겠어. 예를 들면은 저 벽화 같은 경우에도 같은 고민, 같은 결의 고민은 네가 분명히 했었거든. 근데 사람들은 사실 시뮬건 뭔지도 모르는 저 큰 구조물이 가장 눈에 먼저 띄는데 사실은 반응하는 건 저 벽화란 말이야. 근데 이 구조물의 과정이 없었으면 저 벽화는 나올 수가 없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사전 검열** 같아. 뭔가 너의 지금 이런 걱정과 고민이 스스로의 작업을 이렇게 밀고 지금 치고 나가도

모자랄 타이밍인데 스스로를 검열하고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 근데 안 좋아하면 언제 사실.

황규민: 그렇죠 맞아요. 안 불러주면 안 하면 되고.

정찬용: 되게 웃긴 게 사람들이 좋아해도 네가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면 넌 별로 안 좋아하고. 너는 좋은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운이 좋아야 맞아떨어지는 거는 네가 얘기했잖아.

황규민: 그렇죠. 근데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욕망도 있는 거죠. 둘 다 맞아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긴 하죠.

정찬용: 근데 그게 항상 생각하지만 절대적으로 마치 로또 같은 거라는 건 너도 알잖아. 니가 더 잘 알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뭔가 작업을 진행 못한다는 거는 너무 모순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 계속... 운동이 그렇잖아. 알잖아 이렇게 근력 운동하면 근육이 커다는 거 알지만 한순간에 하루 했다고 이게 막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잖아.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경우도 있고 “너 요새 운동해?” 예를 들면 뭐 “너 왜 이렇게 체구가 작아졌어”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근데 꾸준히 뭘 해야 어떤 반응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작업도 계속해야 되고 전시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잘 나가 못 나가’ 이런 부분도 적용이 안 되진 않겠지, 사람인지라.

황규민: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인식하는 것들이.

정찬용: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애초부터 ‘미술계 왕따’라고 내가 자처를 했고 어디에 끼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적인 호기심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인데 이게 어떻게 되다가 막 이런 오해를 받고 무슨 전시 공간이니 뭐니 이런 뭐 니 덕인지 탓인지 인터뷰 비스무리한 것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게 되게 재밌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살면서 너무 겪어 왔잖아. 근데 이제 내가 그러니까 막 “누가 더 불쌍해” 이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도 너네는 우리 둘 다 뭔가 무형의 가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데 너네는 피지컬하게 뭔가

남기라도 하잖아. 사실 나는 어떤 기록만 남을 뿐 어떤 결과물이 남진 않잖아, 사실.

황규민: 네.

정찬용: 그냥 무조건 했으면 좋겠어. 이런저런 고민하지 말고. 저거 ‘쩍:되기’ 할 때도 얼마나 많은 반발 아닌 반발이 있었니. 의심 아닌 의심이 있었고. 그냥 반발과 의심이라고 안 했잖아. ‘반발 아닌 반발, 의심 아닌 의심’이라고 했잖아. 근데 사실 해보면 별거 아닌데.

황규민: 그렇죠. 근데 별거 아닌데 그냥 별거 아닌 거 만들어낼까 낼 것 같은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

정찬용: 아니 근데 그 별거 아닌 게 서문에도 적었지만 ‘실용적’이라는 게 너무 상대적인 거라서, 나한테 되게 실용적인 게 너한테 쓸모없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 이제 그 모두의 니즈를 맞출 수 없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 대중적인 무언가라고 해도 그 대중이 전부를 포함하진 않잖아. 팬덤이 있으면은 안티가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너무 약간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편협한 것 같아, 시각이. 예쁨 받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럼 예쁘려고 노력을 하라고. 예뻐지려고 노력을 하라고. 그래서 나는 기록, 조립, 반복 이 질문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 만약에 터프팅의 방식을 생각한다면 그거를 여기에 이제 응용하거나 적용하는 게 아니라 터프팅 뭐 예를 들면 반달리즘 전시했던 거 그거 전체를 해체해서 이 방식으로 다시, 이 형식으로 다시 진행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매일매일 오고 여기에서의 컨셉은 그거잖아. 매일매일 일정한 행위를 반복하면서 생기는 기록이 있고, 그 기록들이 또 쌓이면은 그거를 또 활용해서 네가 조립이 되고, 또 그거 전체가 반복이 되고 이 구조가 순환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달리즘 전시 때에는 어쨌든 터프팅, 라텍스, 그리고 비너스라는 키워드가 3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매일매일 와서 뭘 해. 그러면 이제 처음 내가 지금 생기는 어떤 궁금증,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가정한다면 애는 이미지를 먼저 그럴까, 아 스케치를

일종의 프레임 같아.

화가 하려면 그 빵 모자 쓰고 그런 것처럼 가난한 예술가 이미지처럼.

사실은 이 업이 되려면 더 철저히 분리를 해서 생활은 생활대로 유지를 하고 일은 일대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긴 해.

이마저도 사실은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전시가 너한테는 **‘되기(Becoming)’였을까 ‘있기(Being)’였을까?** 이거는 그 제목이랑 제목 문제랑 이어지는...

황규민: ‘있기’? 있기가 여기서 어떤 거죠?

정찬용: 있기가 Being이겠지. 되기가 Becoming이고.

황규민: 그냥 둘 다였지 않았을까요? 그냥 ‘되기’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뭔가 해보기 위해서 했었던 거고, 여기서는 그걸 위해 그냥 최대한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그냥 머물면서 ‘있었던’ 것 같고.

정찬용: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서 말하는 되기와 있기의 차이는 그런 것 같아. 이제 ‘되기’는 뭔가 바라는 대상을 향해서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전시가 되기에 더 가깝겠지.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기반으로 결과물을 만들고 그거를 노출시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있기’는... 있기가 조금 더 이제 제목도 그렇고 그 그런 부분에서 더 적용되는 부분인 것 같은 게, 결국에는 스스로 알아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거든. 반복적인 행위 하면서 사실 무쓸모, 쓸모 무쓸모를 고민하면서 결국 하기로 한 거니까 해. 이건 결국 무쓸모로 귀결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가 하는 일 생각하면 다 사실 쓸모없는 짓이고 환경 오염도 사실 인간이 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 (웃음)

황규민: 그렇죠.

정찬용: 그래서 그러니까 ‘황규민으로서 존재하기’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프로젝트였다고 생각.

황규민: 그렇죠 맞아요. ‘있기’였던 것 같아요.

정찬용: 그리고 되게 또 아이러니하게 이제 시기적절하게 이제 한 아트페어에서 동명이인의 표기 오류에 대한 부분에서 너의 존재에 대한

먼저 할까, 아니면은 그 터프팅 판을 먼저 잘까?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것들을 다시금 네 걸로 갖고 온다는 컨셉을 이미지적으로 그냥 국한하지 않고 아예 행위 자체를 갖고 와 봐도 재밌을 것 같아. 이게 굳이 터프팅 작업이 아니라 그게 이제 ‘RE:RE’ 전시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작업 정리를 딱 했잖아. 구글 드라이브에 굉장히 진짜 최초의 작업... 작업으로서의 작업 중에 최초의 작업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은 그때 네가 어떤 감정이었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비슷한 감정이 지금도 분명히 남아 있을 텐데 그거를 대처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은 말이야. 성장했을 수도 있고 환경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혹은 테크니컬리 나아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되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할 생각이 있다는 거는 좋은 결과인 것 같아, 프로젝트.

작업이 네 삶을 대신할 수 있다고 느낀 적 있어? 이거는 작가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너 아닌 것 같아.

황규민: 아닌 것 같아요.

정찬용: 나는 이게 되게 의외였던 게, 어쨌든 너도 원하는 거를 해보거나 얻기 위해서 전과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순탄치만은 않았잖아. 그렇게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내가 애초에 관심이 있었던 거는 창작 행위였고 그게 이제 보통 큐레이터보다는 작가들이 행하는 것이니까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나는 만약에 내가 진짜 어렸을 때 생각이지만 내가 작가나 작업 행위를 한다거나 창작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나는 몸 팔아도 상관없었거든. 그래서 실제로 모델 하면서 돈을 벌었었잖아. 나는 작가들이 더 나보다 절실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실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박그림이랑 나랑 같이 살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나는 돈이 없어도 그냥 헬렐레 팔렐레야. 그림이는 이제 걱정이 시작되는 거지, 현실적인.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껴서 이게 사실 작업이 혹은 작품이 어떤 창작자의 삶을 대신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위기 의식을 난 좀 느꼈으면 했거든.

황규민: 그래요. 그냥 그렇게 위기 의식까지는 안 느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냥 저로 '있기'로 했으면 뭐든 상관없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정찬용: 네 존재를 인식을 못 하는 거잖아. 사람들이.

황규민: 바보들이죠. DM을 보내도 안 고쳐놓고.

정찬용: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뭔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예를 들면 박그림도 그런 게 있었잖아. 근데 그 두 작가는 실제로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장르도 다르고 이제 이름의 성이 다른
건데... 니네는 완벽하게 동명이인이니까 여기서는 누가 누가 더 잘
나가냐의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고 이제 5부 마무리인데. 이제 네가 나한테
 물어보는 건데 이거대로 안 물어봐도 돼. 내가 뭐 "너도 나한테 묻고
 싶은 거 있어?" 이것까지 나와 있나 봐. 안 쥐어짜도 돼. 물어볼 거
 없으면 안 물어봐도.

황규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정찬용: 아니 생각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해야지.

황규민: 그 뭐지... 이제 9월달에 하게 될 그 전시에서 제 작업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정찬용: 그러니까 '잘 나온다'는 게 도대체 뭔지 난 모르겠다니까.

황규민: 그냥 항상 막 순탄하진 않잖아요. 고민도 많고.

정찬용: 순탄하지 않을 거는 장담해.

황규민: 결과물이 그래도 그냥 뭐지 샘의 어떤...

정찬용: 아니 근데 이 질문이 너무 별로인 게, 그간에 내가 괜찮다고
 그래도 네가 별로라매.

황규민: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9월에는 그래도 뭔가 제가 항상
 별로라고 했었던 부분이 조금 해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찬용: 그건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황규민: 그냥 추측 추측. 이거를 같이 했으니까 또 이거를 토대로

한다고 하니까.

정찬용: 나는 높은 확률로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네가 이렇게 연장선으로 뭔가를 디벨롭 하겠다고 하지만 분명히 다른
 식으로 삽질을 할 것 같아. 일단 거기에서 나는 되게 대단히 실망을
 할 거고. 너와는 상관없이 나 스스로. 그리고 어쨌든 그거는 또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가 리드해야 되는 전시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또
 이제 또 내가 되게 힘들겠지. 설득의 과정이 있을 테니까. 근데 확신은
 있어. 무조건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는 "굳이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왜 이렇게 나를 서로
 힘들게 하니"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다시 다 내 쪽으로 끌어올
 거니까. 여기에 만족을 못 한다 그러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나는 무능력한 것밖에 안 되는 거고 "내 쪽으로 끌어왔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이런 식으로 내 성에는 찰 자신이 있어. 그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네가 어떻게 느끼지는
 지금의 상황들을 되돌아봤을 때, 이번에는 약간 의외로 과정은 여전히
 서로 힘들었는데 근데 그 힘든 방식도 조금 달랐고. 근데 프로젝트에
 돌입하기 전까지 직전까지는 완전 똑같았지, 힘들게 했던 방식이.
 진행하면서 겪었던 거는 조금 달랐던 것 같고 힘들었던 부분이.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네가 작업을 하면서
 나한테 던졌던 그냥 되게 의미 없는 그런 말들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뭐가 다르긴 할 거 같은데. 그냥 확답으로
 "그렇다"라고는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안 그랬던 적이 더 많으니까.
 확률적으로.

황규민: 훨씬 많죠.

정찬용: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못 줬지만 미안하진 않고.

황규민: 아 괜찮습니다. 뭐 이제 마무리?

정찬용: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있어? 작업한 자신에게든

관객에게든 혹은 나한테든.

황규민: 감사합니다.

정찬용: 좋은 말이네. 스스로한테도 좋은 말이네. 아무튼 마지막 질문.

이 제목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

황규민: 처음에는 이 제목대로 뭔가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냥 제목이 저렇게 있으니까 저도 생각을 작업을 하면서 그쪽으로 생각하면서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다고 하니까. 작업 자체들도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정찬용: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인사, 마지막 인사 안녕히 계세요.

황규민: 안녕히 계세요.

[팟캐스트 'Filling Gaps'¹ 인터뷰 발췌록]

본 프로젝트에서 수행된 팟캐스트 녹음과 라운드 테이블은 단순한 부대 행사가 아니라, 폴 오닐과 Mick 윌슨(Paul O'Neill & Mick Wilson)이 논한 '교육적 턴(Educational Turn)'의 실천적 적용이다². 큐레이터의 작업실은 전시장이자 동시에 배움과 대화가 발생하는 '파라-에듀케이션(Para-education)'³의 장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완성된 결과물보다 지식이 생산되고 교환되는 과정 자체에 우위를 둔다.

에피소드 #4. [팟캐스트 녹취록] 잡기 직전에 생긴 일: 촉각과 틈의 미학

일시: 2025. 6. 14. (토)

참여자: 정찬용(기획/진행), 송민서(작가)

정찬용: 말해 봐. 아, 아. 그렇지만 너무 작아 소리가.

송민서: 제가 크게 말할게요.

정찬용: 지금부터 앞부분은 좀 작을 거니까...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세요.

송민서: 안녕하세요. 송민서입니다.

정찬용: 어떤 작업 하고 계신가요?

송민서: 저는 주로 촉각 관련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정찬용: 네, 일단 다섯 가지의 챕터로 대본을 짰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기반해서 GPT랑 대화를 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하니까 1부부터 5부까지 구성을 해줬어요.

1부의 제목은 '작업실에 들어온 첫날'. 첫 번째 질문은 근황이에요. 요즘

어때요?

송민서: 제가 전시 두 개를 병행하면서 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는데,

이게 작업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집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작업을 하고, 뭔가 제 개인 시간이 없어진

느낌이었다가 요새는 이제 다 끝내고 나니까 되게 흥분하고.

정찬용: 잠깐의 자유?

송민서: 네, 잠깐의.

정찬용: 다음 질문은 한국 돌아와서 처음 하는 전시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 처음 봤을 때 어땠는지.

1 "FillingGaps는 큐레이터와 작가가 작업실에서 나누는 솔직한 이야기와 예술적 실험의 뒷얘기를 엿보는 팟캐스트입니다. 큐레이터와 작가가 기획하고, 시도하고, 때론 망가지는(?) 과정 속에서 탄생하는 작은 이야기들이 담깁니다. 마치 남의 일기장을 훑어보는 듯한 가벼운 수다와 함께, 예술의 빈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해보세요." (팟캐스트 공식 소개글 중)

2 폴 오닐, Mick 윌슨 엮음, 『큐레이팅의 교육적 전환』, 김아람 옮김 (서울: 더플로어플랜, 2021), 13-22쪽. 본 연구는 전시 공간을 지식 생산의 장으로 재정의하는 이들의 논의를 따라, 큐레이터의 작업실을 교육과 큐레이팅이 교차하는 '파라-에듀케이션'의 현장으로 해석한다.

3 애니 플레처, 세라 피어스, 『파라교육 부서』, 위의 책, 191-195쪽.

송민서: 저는 사실 찬용 님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살짝 너무 허름하다고 말씀하셔서 가지고 정말 최악의 최악을 상상하고 왔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되게 깔끔했고. 이제 그때는 제가 벽을 칠하기 전 모습을 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벽을 뚫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셔서.

정찬용: 제약할 게 많았어. (웃음)

송민서: 제 작업은 또 설치 쪽이니까 "이거를 벽을 안 뚫으면 어떻게 설치하지?"라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정찬용: 'Before the Grip'이라는 제목을 제안했을 때 되게 흔쾌히 수락을 했잖아요. 왜? 뭘 믿고?

송민서: 일단은 그 짧은 한 문장으로 제 작업이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Before the Grip'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잡기 직전'을 의미를 하는데, 그 잡기 직전이라는 거는 이제 잡으려는 행동도 있고 그리고 잡기 직전, 그 닿기 전에 그 공간도 보여지는 게 제 작업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흔쾌히.

정찬용: 전시를 준비하면서 작업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예를 들면 어쨌든 'Grab' 시리즈라고 하는 거를 내가 제안을 했었고, 그 이유는 사실 그게 작업이 마음에 든 것도 분명히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 공간에 대한 다양한 제약들이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제안을 했는데... 사실상 여기는 'Grab'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준비하면서 처음과 지금이 달라졌다거나, 혹은 지금 작업하는 곳이 작업실이 아니라 집이라서, 혹은 국가가 달라져서, 혹은 일이랑 병행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작업 중에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지.

송민서: 일단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Grab'을 중점적으로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제약들이 몇 개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공간 활용을 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Grab'이라는 것 자체가 작품 크기도 워낙 작고 그리고 벽도 못 뚫는 상황에서 최대한 그 'Grab'을 연관 지어서... 근데 마냥 똑같이, 제가 영국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하지 않으면서 여기 공간 자체랑 좀 연관 지어서 할 작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틈(Gap)'이랑 연관을 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뀌게 된 거예요.

정찬용: 다음 질문이랑도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처음 이 전시... 처음에는 전시로 얘기를 끝냈고, 그리고 이제 진행 과정 중에서 이게 이러이러해서 '프로젝트'의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그게 프로젝트건 전시건 민서 작가한테는 하나의 해프닝이자 이벤트인데, 그 얘기를 꺼냈을 때랑 지금이랑 이 해프닝 자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달라진 게 있는지? 아니면 해보니까 또 다른 게 있는지.

송민서: 생각 자체는 크게 달라진 건 없고. 그냥 설치할 때, 설치할 때 했던 그 고생들이 조금 생각하면서 '다음 전시 때는 그런 설치적인 부분에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겠다' 그 정도.

정찬용: 약간 작업 자체보다는 그거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 효율적인 방식들을? 벌써 1부가 끝났고요.

2부인데, 2부 제목은 '붙잡기 전에 생긴 일'이래. 이제 앞에 질문에서 연결돼서 좀 확장되거나 파생되는 질문들인데. 아까 답변을 하긴 했지만 'Grab' 시리즈에서 확장된 작업인데 이번에는 뭐가 제일 달랐는지? 약간 어쨌든 'Grab'보다 이 공간을 조금 특성화된, 혹은

'틈'에 초점을 맞췄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점에 대해서 기존 작업과 비교해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송민서: 그전 작업에서는 제가 정말 '촉감'에만 집중하고 '잡는 행위' 이런 거에만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그 촉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게 사실 무언가 만지려면 그 만지려는 물체 자체를 받쳐주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게 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벽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사실은 촉감을 이루어 낸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포함시키려고 했어요.

정찬용: 또 다음 질문도 이어지는 건데, 이번에는 손잡이보다 '틈'이 더 중요해졌는데. 어쨌든 '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계기가 됐는지? 처음부터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확장했는지, 전개됐는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송민서: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사진 작업이 있었는데 그 작업이 그 '틈'에 관련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틈이 이제 문과 문, 아니면 벽과 문 사이에 끼어 있다... 그 뭔가 '틈이 끼어 있다'라는 것 자체, 그 문장이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 틈 사이에 끼어 있던 물체들을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 사진 작업. 근데 이번 작업을 하면서 이제 제가 문이나 아니면 벽 사이의 공간, 그리고 Grab, 그 촉감을 다 합쳐져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연관 지어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정찬용: 완전히 뭔가 이렇게 다음 스텝 새롭게 나간 게 아니라 다시 이제 과거 거를 끌고 온 거네. 나는 그 작업에 대해서는 사실 몰랐으니까. 다음 질문은 이거 아까 설치 얘기로 연관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나는 다른 측면에서 내용을 적었던 건데. 이제 어쨌든 조각이라든지 설치라든지 입체적인 작업을 하니까 조립하고 붙이고 만지고 만드는 과정이 사실 다 촉각적인 행위인데, 그 '반복'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거는 약간 웃기지만 우리 설치할 때 장면이랑 더 맞는 질문인 것 같아. (웃음) 어쨌든 그 과정을 완성시킨

상태에서 다시 해체해 갖고 이 안에서 또 뭔가 칠까지 하면서 보완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강구하겠다’, 이것도 결국에는 반복의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송민서: 저는 그냥 앞으로 전시를 할 때도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하면서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뭐 마냥 항상 편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설치 작업이다 보니까 안전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정찬용: 재료적인 거는 어때요? 어쨌든 그만 안전성이 그래도 확보된 재료들을 주로 쓰겠지만, 만약에 뭐지 레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레진도 다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관련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촉각’이라는 게 결국 사실 뭔가 꺼림칙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제 감정이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저 우리 큰 구조물에 대해서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 스케일이나 어떤 무게감이나 와닿지 못하다가, 정작 이제 눈앞에 마주하게 되니까 느껴지는 일종의 공포감이랄까 두려움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다 뭔가 나는 이게 약간 반복되는 상황 같거든요. 항상 이제 전시나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나는 이제 계속 뭔가를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냈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오는 것처럼.

송민서: 맞아요.

정찬용: 분명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해프닝, 혹은 약간 그것도 소름 끼치는 거니까 촉각적인 반응이 아닐까? 어쨌든 작업을 보고서 느낀 감각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건 질문에 조금 넣어봤고. 이어서 질문을 또 하자면, 관객이 작품을 만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갤러리에서부터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한 설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송민서: 저는 사실은 만들기 전이랑 만들 때도 그렇고, 그 촉감을 허용할 수 있는 작업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망가질 거를 각오를 하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그 관객이 ‘일부러 망가뜨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뭐 없겠지... 뭔가 그리고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드무니까. 그래서 뭐 만지다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훼손이 돼도 저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촉감의 흔적’이니까. 저는 괜찮아요.

정찬용: 작업이 망가진 상태, 그러면 약간 그 작업 자체는 일회성인가 일시적인 건가?

송민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뭐 그거대로 또 전시를 하기는 힘들어도 그래도 계속 작업이라고 볼 수는 있으니까.

정찬용: 작업은 작업인데 어쨌든 뭔가 똑같은 거를 다시 제작한다고 했을 때 넘버링을 한다든가 뭔가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거를 해보려고 하는 게 프로젝트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아카이빙을 하고 작업이라는 게 뭔가 기록화돼야지 가치를 부여받는... 이게 어쨌든 누구의 합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합의가 됐고 그걸 통해서 연구가 진행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계속 앞에서 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느 정도 해줘 가지고 반복적이긴 한데, 직접 만지는 행위를 열어줬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였는지? 작업에서 단순히 촉각에 대한 작업을 하니까 만질 수 있게 했다,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촉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왜 촉각이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송민서: 이 촉감을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은 ‘Grab’ 시리즈가 처음이었는데, 그 이유도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많은 제지를 당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영국에 돌아갔는데 한국이랑 다르게 또 되게 그런 코로나 관련된 법들이 되게 너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마스크도 잘 안 쓰고. 그래서 안 그래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코로나 시기랑 겹치면서 그런 것까지 제지가 되니까 그 쉽지 않은 그 환경을 작업으로 풀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그 이후에도 지금은 이제 그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지만, 그래도 최대한 접촉이 없게끔 하는 환경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반복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만큼 반복적인 물건들을 만지고... 그러면 이제 제 작업을 보러 온 그 시간만큼은 좀 새로운 촉감을 만져봤으면,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찬용: 결국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작업이 사회성을 부여받으려면 전시가 필요하고 관객을 만나야 되니까. 관객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그냥 뭔가 기존의 수동적인 그것처럼 “이렇게 설치해 놔으니깐 봐라” 이게 아니라 “직접 만지고 경험해 봐라”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 다음 3부로 넘어가면, 3부 제목은 ‘가끔은 잘 모르겠는 순간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야. 작업하면서 “이건 아닌데” 싶었던 적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잘 풀리지 않았다거나.

송민서: 네, 그냥 설치할 때 빼고는. (웃음)

정찬용: 딱히 없었나 보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친구들은 이제 여기에 베이스가 ‘실패해도 되고 딴 데서 허용 안 될 것 같은 거’, 아니면 ‘그동안에 뭔가 해보고 싶었던 어떤 욕망을 분출한다’든가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다가 이제 구현했을 때 잘 안 풀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한다든가, 혹은 내가 이제 잔소리를 한다든가 “거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되게 스무스하게 진행되는 편이었잖아 우리가. 그래갖고 이거는 그냥 내가 약간 궁금했던 지점들이었고. 이거는 설치하거나, 혹은 이제 종종 미팅... 아니 미팅을 잠깐잠깐씩 할 때 내가 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작품을 만지지 않고 그냥 지나칠까 봐 그런 것들을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송민서: 맞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계속 제가 전부터 고민을 해왔던

건데. 그 사람들 자체가 인식이 좀 ‘작품을 만지면 안 된다’라는 인식도 강하고, 어쨌든 본인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만지기가 꺼려지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그냥 전시를 할 때 문구를 써두고, 그게 반복적이게 하다 보면은 제 작업들은 만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을까.

정찬용: 전시 많이 해야 되겠네, 엄청. 글로벌하게 전시를... 그러니까 어떤 뭔가 그러니까 많이 알려지는 건 중요한 것 같아. 유명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민서 작가는 이게 전시라고 생각할 거고 나는 이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큰 틀 안에서는 어차피 지나가면 잊혀질 만한 그런 건데. 사람이 많이 오면 좋겠지만, 많이 오든 안 오든 어쨌든 인터넷에 한 공간의 기록으로 남겨져야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름 썼을 때 순위가 올라가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랑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도 그거고, 약간 나는 첫날 이제 오픈 날 왔던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내가 응대하느라 그 친구랑 얘기를 많이 못 했는데, 이제 내가 밖에 나가 있을 때 와서 들어와서 보고 밖에서 또 이제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친구가 나오면서 마주쳤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나한테 한 말이... 나는 서문을 보는 행위 자체가 전시를 되게 수동적으로 보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 뭔가 자연스럽게 전시를 능동적으로 막 이렇게 확보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플로우 플랜도 번호를 우리가 매기니까 그 번호 순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혹은 그냥 먼저 전시를 보고 잘 모르겠거나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를 나중에 서문을 보면서 기획자의 관점에서 작가의 관점을 확인하라, 이게 아니라 일단 이 텍스트를 보고 여기에 프레임에 맞춰서 전시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친구도 어쨌든 뭔가 예술학을 전공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문을 보는 위치 옆에다 우리가 라벨링을 해놨잖아.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만져도 된다고 그래서 다 만져보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내가 생각했던 그 개념이 약간 반전된 거잖아. 약간 그런 것도 재미있었고. 만져본다는 만지게 한다고

해도 나는 안 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서문에다가, 서문 근처에다 그걸 해놓으니까 오히려 뭔가 행동을 유발할 수는 있겠구나 싶긴 한데... 이제 그 이후로 진행하면서 좀 느꼈던 생각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뭔가 얘네는 저 문을 원래는 자연스럽게 열어두려고 한 건데 너무 확 열다 보니까 뒤에 소리가 너무 크게 난다던가, 그걸 방지하려면 저 문 뒤에 이제 쿠셔닝을 한다든가... 뭔가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약간 촉감을 경험시키는 것도 되게 좋지만 그거를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 그래서 만약에 ‘Grab’ 시리즈끼리만 있으면 이거는 뭘 만져도 되는지가 확연하게 그냥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저 이제 화장실 칸막이처럼 생긴 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 뒤로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되게 체계적으로 설치를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그 구조를 짤 때 예를 들면 저거를 오히려 중앙으로 뺀다든지, 그래서 의도치 않게 사람들을 그 안에 가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왜 저기에 났는지들은 의도를 우리가 이제 공유를 했으니까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똑같은 질문인데 ‘만질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게 편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약간 이런 질문이었는데 어쨌든 망가지는 것까지 작업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이 질문도 이제 패스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질문 하나.

큐레이터로서 내가 너무 많이 개입했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송민서: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정찬용: 그래? 그럼 너무 개입을 안 했어? 너무 너무 방관자처럼?

송민서: 아니요. 오히려 저는 “이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말씀이 한마디는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정찬용: 나는 그래도 많이 제안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조심스럽긴...

송민서: 색깔 정도? 좀 더 노란 기가 없는 빛이 좋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정찬용: (웃음) 그래서 이거는 계속 내가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 한 말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나는 어쨌든 조각을 하는 친구라고 알고서 뭔가 제안을 한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펼쳐놓은 이 결과물은 어떤 조각이라기보다는 조각의 어떤 형태라기보다는, 여기서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프닝이 일어나는 ‘상황’을 펼쳐 놓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송민서: 거의 지금 비슷한 문장을 조금씩 단어를 바꿔가면서... (웃음)

정찬용: 질문은 다 다른데 앞에서 이제 답변을 다 한 거야. 너무 이게 GPT 질문 편집의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래서 이제 편집을 어쩔 수 없이 팟캐스트는 원래 그냥 라이브로 하는데 편집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어,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어쨌든 앞에 전시 프로젝트 진행했던 채수정 작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상황’을 펼쳐놓는 거 자체로 이제 진행을 하거든. 우리가 이걸 했을 때는 “상황을 만들자”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그랩에서 틸트로 이야기가 만들어졌고, 이제 그 틸트에 대한 이야기를 기반으로 또 이 공간과 뭔가 맞닿은 서사가 생겼고 이런 식이었지, 이 공간 자체의 어떤 상황을 만들자 이거는 아니었으니까. 보편은 촉감이라는 거, 틸트라는 거... 그 키워드로 이 전체를 해석할 수는 있지만 사실 개개별로 봤을 때는 뭔가 하나로 이렇게 묶여지진 않잖아. 근데 얘네들이 이제 모여 있을 때 이 공간과 되게 잘 어울리고, 의도했겠지만 촉각이라는 어떤 키워드랑도 잘 어울리고 그동안에 했던 작업들, 그리고 틸트라는 것도 이제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끌고 왔고 이 공간이랑도 잘 매칭을 시켜서 이제 풀어놨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의 이제 상황이 구현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내가 약간 그런 해프닝을 좋아해서 이렇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작가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고려를 했는지, 아니면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일 수도 있고.

송민서: 전체적인 설치를 상상을 하고 또 계속 구상하면서 작업을 해서 그렇게 보일 수 있을...

정찬용: 작업을 시작할 때 어쨌든 뭔가 공간이 먼저 구성돼 있으면

좋은 거지?

송민서: 네 맞아요.

정찬용: 작업을 할 때는 그 공간의 베이스로 뭔가를 이제 계획을 시작하는 거니까 작업에 대해서. 근데 또 장소 특정적이진 않잖아.

장소가 정해지면 오히려 이제 플러스 요인인 거고, 근데 그게 꼭 필수적인 어떤 작업의 요건까지는 아닌 거지.

송민서: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창문 틈을 제가 아예 가려버린 작업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그 공간 자체만의, 그 장소만의 그런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찬용: 어쨌든 공간이 되게 중요한... 공간은 사실 전시할 때 제일 중요하지. 작업이 어떻게 놓여지는지, 설치가 되는지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간을 고려하는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맞춰진 부분들이 많았고, 그게 이제 나한테는 어느 정도 이제 상황으로 다가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피드백 중에 하나가 저 이제 바닥에 놓여진 저 작업들이 너무 이제 바닥 색이랑도 유사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뭔가 이렇게 이게 뭐였지 제목이?

네이버(Neighbor)였나? 세워져 있는 거.

송민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정찬용: 저 작업도 되게 이렇게 보호색처럼 벽이랑 은닉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막 그런 얘기도 들었고. 조금 조그맣게 이렇게 저기에 걸레받이 까맣게 돼 있잖아. 까만색이랑 이렇게 뭔가 다 매칭이 된다는... 컬러적으로 뭔가 미니멀한 거를 좋아할 거라고 이제 추측은

하고 있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그 공간 자체를 무색무취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구성을 하긴 했는데. 화이트 큐브가 되고 싶은 건 아니고. 뭔가 되게 잘 어우러져서 그런 피드백이 나왔던 것 같아요.

4부 제목은... 이제 제목이 너무 기대돼요. '전시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거는 뭔가 약간 이거야말로 약간 리뷰 같은 느낌이잖아. 전시가 끝나면 가장 먼저 사라질 것 같은 게 뭐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송민서: 사라질 것 같은가요? 그러면은 촉감 아닐까요?

정찬용: 작가다운 말이네. 반대로 그럼 오래 남을 것 같은 건 뭐라고 생각해?

역으로 이것도 촉감 아니야 사실? (웃음)

송민서: 맞아요.

정찬용: 그치. 앞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했네. 약간 시적이다. 그지? 가장 먼저 사라질 것 같은 것도 촉감이고, 오래 남을 것 역시도

사실 촉감이고. 약간 이번에 보면서 이게 막 세워져 있는 것도 있고 높낮이가 되게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처음에는 그랩을 내가 제안했었으니까 그랩만 있었으면은 이 높낮이 구현도 힘들었을 거고.

사실 창틀에 있는 그랩은 만지지 말라고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로. 만질 테면 만질 테면... 만질 수 있으면 만질 수 있는 건데. 약간 그런 식으로 이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숙이고 봐야 되거나 뭔가 이렇게

고개를 들이밀어야 되거나, 고개를 들고...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도 이제 '만지기 직전'이라는

그 어떤 몸의 반응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다음 작업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민서가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들어가겠지만, 조금 더 원래 퍼포먼스 작업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확장될 여지가 있는?

송민서: 네 그렇죠. 사실 더 하려면 더 하고 싶었지만 이제...

정찬용: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더 하고 싶었어? 만약에 (제약이) 없으면?

송민서: 천장에 달고 싶었어요.

정찬용: 천장에 뭐가 어떤 게 달려 있어?

송민서: 천장에 손잡이를 달고 싶었고. 이제 그거를 사실 알기는 쉽지 않으니까 뭐 예를 들어 거울을 바닥에 두면은 그게 보일 거 아니에요?

천장에 있는 게. 그런 식으로 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싶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정찬용: 직접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포착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한 번

이렇게 거쳐야만 안내를 받아서 작업을 발견하는 건가?

송민서: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좀 많은 사람들이 작업을 좀 편하게 보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디를 들어가서 본다거나 이런 거는 굳이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뭔가 나라마다도 조금 다른 것 같고 사람들의 반응이.

정찬용: 그리고 이제 전공자인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다른 것 같아. 뭐 작업을 어떤 타겟에 두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타겟이 누구일까? 그냥 이거를 관리, 여기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생각이...

나는 사람 많이 오는 걸 안 좋아하고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록만 남기고 이런 걸 해봤다, 우리끼리만 만족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니까. 한편으로 작가들은 참여자들은 그것에 본인들도 그렇지만 나는 절대 양가감정이 아니라 진짜 이렇거든. 근데

사실 이만큼 애써서 뭔가를 했는데 누군가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당연하다고 생각해. 근데 이제 만약에 가려 받아야 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걸 가정해 볼 수 있는 것도 프로젝트니까 할 수 있는 거니까. 뭔가 갤러리라면 당연히 돈 많은 컬렉터가 와서 작업을 사주는

게 좋겠지만, 미술관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실적을 쌓는다는 게 관람객 수, 무조건 많이 오는 게 대중 친화적으로 좋은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사실 정체성이 모호한 공간이고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누군가들만 이제 특정 지어서 올 수 있게끔 허용을 한다면 누가 될까?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

송민서: 뭔가 재밌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저는 오히려 회사원.

정찬용: 회사원? 전혀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하면은?

송민서: 미술을, 예술 쪽을 하고 있지 않은 회사원.

정찬용: 전혀 약간 무지한?

송민서: 그분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정찬용: 회사원의 이유는 뭐야?

송민서: 반복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만큼 이제 이런 특수한 상황이 다가오면은 어떻게 반응할지가.

정찬용: 생각보다 되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서야 또 이제 캐치하는 건데, ‘반복적인 것’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구나. 회사원... 신박한데?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 좀 이제 감상적인 감성적인 질문. 이 전시가, 이 프로젝트가 너한테는 어떤 시간이었는지? 너무 오글거리는 얘기인데 다른 친구들도 이런 내용이 다 있었어.

송민서: 저는 사실 이 ‘Care’ 작업도 제 졸업 전시회 때 했던 작은 미니 버전인 느낌이니까, 제가 이때까지 했던 작업을 서머리(Summary)를 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살짝 보여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작업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촉감 관련된 작업에 사실 조금 질려 있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스스로. 계속했었으니까. 근데 ‘역시 재밌긴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찬용: 어떤 부분에 재밌는 거 같아 스스로가?

송민서: 저는 이제 만들 때도 그 사람들이 만질 거를 약간 상상하면은 뭔가 재미있고. 또 실제로 그거를 만지는 거를 볼 때도 재밌어요.

정찬용: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할 때. 그러면서 이것도 똑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또 방금 이제 답변했어. 질문 자체는 이거였거든. ‘지금 돌아보면 이번에 했던 작업들 혹은 시도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지’ 요건데 앞에 이제 답을 했으니까. 약간 그거는 좋은 것 같아. “질릴 만 했는데 질린 거 아니었구나. 나도 역시 좋구나.”

그럼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 이거를 되게 애들이 어려워하더라. 이걸 이거의 제목은 ‘마이크 넘기기’야. 역으로 질문 뭐든 물어봐도 되고 뭐 서운하거나 그런 게 있었으면 얘기해도 되고. 왜냐하면 나한테 이게 자료니까.

송민서: 제가 제 작업을 실제로 본 게 여기서 온 게 처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설치를 다 끝냈을 때, 뭔가 제 작업에 대한 느낀 점?

정찬용: 일단 작업 자체는 나도 이제... 이제 요새 말도 아닌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짬바라는 말이 있는데(웃음). 약간 나도 이 계열에서 많이 일을 했으니까 사진만 봐도 대충 어떤 식으로 이게 피지컬리(Physically) 작동하는지 어떤 느낌일지 오는 게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어떤 좀 갭(Gap)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랩(Grab)’이라든가 혹은 이 ‘케어(Care)’ 시리즈도 갭이 별로 없었어 나한테는 실제로는.

그리고 이제 저 진짜 찐 설치물이었던 저것 같은 경우에는, 저 자체로는 뭔가 작품의 퀄리티 완성도 이런 게 아니라 확실히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예를 들면 우리 설치 과정 중에 겪었던 그런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조명을 구현할까 이런 조금 작품을 작가가 의도한 대로 구현하는 방식이 이거는 정말 연륜과 경력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게 조금 필요하긴 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나는 오히려 ‘그랩’이 제일 궁금하긴 했는데 사실 실제로 보고서는 그랩보다는 ‘케어(Care)’가 되게 재밌었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쨌든

조금 그래도 스케일이 있었잖아. 매스(Mass)가 졸업 작업 사진으로

봤었던 거는 조그맣게 봤는데도 매스감이나 스케일은 달라졌지만,

어쨌든 작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그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런 재질이나... 그래서 우리 아는 이거를 누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모르는 예를 들면 진우 실장이랑 수정 작가나... 민서를 그냥 민서로 알고 있는, 혹은 갤러리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알고 있는 민서에

대해서 궁금해할 거 아니야. 어떤 작업을 하는 친구고. 그럼 내가

이제 내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친구들도

나랑 비슷하게, 내가 설명을 해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비슷하게

이제 생각을 해. ‘되게 미니멀한 거 할 거 같고, 되게 깔끔하고, 되게

추상적이긴 하지만 잘할 것 같다’. 유학생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보고서는 다들 재밌어했던 게 저 ‘케어’

작업이야. 그래서 나도 저거 되게 무거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가볍고. 그리고 이제 재료에 시멘트랑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그 혼합

매체인데, 사람들은 이제 시멘트가 익숙하니까 시멘트가 되게 무겁잖아.

그것만 생각하고서 이제 무게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거를 들어볼 생각은 사실 안 해. 이렇게 만져보는 정도지.

그러면 이제 내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면은 되게

신기해하거든. 나는 그런 것들이 되게 흥미롭게 또 느껴져갖고.

‘케어’라는 작업이 되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외시경(Peep hole)’에 대한 거는 사실 처음에는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갤러리 대표님한테 설명해 주는 거를 이제 들으면서 조금

더 확실해지는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되게 관계도 중요하고, 이게

어디에 놓여지는지 다 관계에 대한 것들이니까. 오늘 얘기하면서는

‘반복’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내가 캐치를 또 하게 되면서, 회사와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뭔가 막 또 뭔가 하면 재미있는 거, 좀 제약이

좀 덜하는 공간에서 뭘 하면, 혹은 좀 예산이 보장되는 어떤 그런

기획에서 뭔가를 한다면은 되게 재미있는 거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하나 조금 그냥 제안하고 싶은 거는 좀

테크니션이랑 많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예를 들면 지금 저

조명 설치한 건 너무 단순한 테크닉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관계나 반복 이런 게 되게 키네틱(Kinetic)이랑도

연결되고 인터랙션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게 뭔가 이런 촉각적인, 이

작업 자체에서 느껴지는 촉각적인 부분, 재료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그런 테크니션이랑 뭔가 이렇게 결합했을 때 나오게 될 결과물이 약간

너무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 내가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이게 지금 이 프로젝트 자체나 혹은 실제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민서 홈페이지나 포트폴리오에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봤을 때... 누군가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공허할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 그게 아니라 능동적으로도

뭔가를 감각할 수 있고 수동적으로도 사실은 감각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정도.

그러니까 뭔가 작업 자체를 두고서 이만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흥미롭게 봤다는 거지, 결정적으로 보면. 근데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저 철수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이고

걱정이 하나둘이 아닌... 뭐 요 정도? 그런 그런 지점이 신경 쓰였을

수도 있겠다. 작가로서 작업 실제로 못 보고서 뭔가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실건을 못 했으니까. 그 정도. 끝. 더 물어볼 거 없어?

마지막으로 이 전시를 봤거나 이제 아직 전시 기간이 좀 남았잖아.
만약에 보러 온 관객들이 있다면, 혹은 보진 못했지만 자료로서 이제
이거를, 이 프로젝트를 이제 뭔가 추측하게 될 사람들도 있을 텐데
혹여나 그런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송민서: 더 갖고 놀아주세요.

정찬용: 이상으로 송민서 작가와 함께 진행한 이 팟캐스트 제목도 애가
정해줬어.

송민서: 뭐예요?

정찬용: <잡기 직전에 생긴 일>. 아니 이게 뭔가 영어로 하면은 되게
그럴싸할 것 같은데 한글로 하니까 ‘잡기 직전에 생긴 일’이... 그리고
여기에 애가 이제 소개글도 적어줬거든. “작업과 작업 사이 손잡이
하나를 두고 나눈 이야기.” 또 이런 게 있었다. 아무튼 이걸로 팟캐스트
끝. 별거 없어. 이러고 맨날 이렇게 했어. 이렇게라도 뭘 남겨놔야...

(종료)

[팟캐스트 'Filling Gaps'¹ 인터뷰 발췌록]

본 프로젝트에서 수행된 팟캐스트 녹음과 라운드 테이블은 단순한 부대 행사가 아니라, 폴 오닐과 Mick Wilson(Paul O'Neill & Mick Wilson)이 논한 '교육적 턴(Educational Turn)'의 실천적 적용이다². 큐레이터의 작업실은 전시장이자 동시에 배움과 대화가 발생하는 '파라-에듀케이션(Para-education)'³의 장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완성된 결과물보다 지식이 생산되고 교환되는 과정 자체에 우위를 둔다.

에피소드 #5. [팟캐스트 녹취록] 스캔소리얼: 수직적 불안과 도시의 옥상

일시: 2025. 07. 18. (금)

참여자: 정찬용(진행/기획), 이준지(작가)

정찬용: 녹음 시작했구요. 스크립트 다시... 이번엔 박수
쳤어.

이준지: 이번에는, 이번에도 그거예요?
개러지밴드(GarageBand)?

정찬용: 아니, 아니. 그냥 녹음.

이준지: 그냥 음성 메모?

정찬용: 그냥 '녹음'이라고 있던데 아이패드예? 아무튼.

이준지: 녹음 뜨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정찬용: 지금 보고 있어. 미안해, 고생시켜서.

이준지: 아닙니다. 그래서 흔한 에피소드죠.

정찬용: 안 겪고 싶은 에피소드. 안녕하세요.

이준지: 안녕하세요.

정찬용: 팟캐스트, 저희가 녹음을 제가 날려 먹어서 다시 녹음하고
있고요. 이번 팟캐스트는 '스캔소리얼(Scansorial)' 전시 중인 작가

이준지님과 진행합니다. 제목은 <계속 오르는 중이야>...

이준지: 혹시 챗GPT가 추천해 준 제목인가요?

정찬용: 그쵸. 간단하게 인사해 주세요.

이준지: 안녕하세요. 작가 이준지입니다. 공간에서 '스캔소리얼' 전시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찬용: 네, 반갑습니다. 전시 준비하느라 진행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1 "FillingGaps는 큐레이터와 작가가 작업실에서 나누는 솔직한 이야기와 예술적 실험의 뒷얘기를 엿보는 팟캐스트입니다. 큐레이터와 작가가 기획하고, 시도하고, 때론 망가지는(?) 과정 속에서 탄생하는 작은 이야기들이 담깁니다. 마치 남의 일기장을 훑쳐보는 듯한 가벼운 수다와 함께, 예술의 빈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해보세요." (팟캐스트 공식 소개글 중)

2 폴 오닐, Mick Wilson 엮음, 『큐레이팅의 교육적 전환』, 김아람 옮김 (서울: 더플로어플랜, 2021), 13-22쪽. 본 연구는 전시 공간을 지식 생산의 장으로 재정의하는 이들의 논의를 따라, 큐레이터의 작업실을 교육과 큐레이팅이 교차하는 '파라-에듀케이션'의 현장으로 해석한다.

3 애니 플레처, 세라 피어스, 『파라교육 부서』, 위의 책, 191-195쪽.

또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다시 처음 하는 것처럼? (웃음)
이게 이제 제가 그동안에 얘기 나눴던 것들, 혹은 제가
생각했던 것들, 진행 과정들을 기록용으로 GPT에
입력을 시키고 서머리(Summary)를 하는 식으로 해서
스크립트를 뽑는데... 이제 첫 번째, 1부죠. 1부의 제목은
'시작: 프로젝트의 기원'이에요. 좀 거창하긴 하지만.
그래서 질문은 이 공간에서, 'Unoccupied GAPS'라는
공간에서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을 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혹은 어떤 이미지 같은 거가 바로 떠올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준지: 일단 이미지가 떠오른 거는... 일단 공간을 제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그전에 이어오던 작품
세계가 없었어서 특별한 이미지는 없었고. 감정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런 '절박함' 같은. 그 절박함이라는 게 기회의 절박함이라기보다는,
저에게 주어진 기회 말고 제가 작품을 만들게 되는, 스스로를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몰아붙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상 좀 생각만 하고 좀 바쁘다는 핑계로 어떤 생각들을 실체화하거나
그럴 추진력이 저한테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기한이 있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기회였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찬용: 그럼 스스로에게 느끼는 절박함 같은 거였네요.
이준지: 네네, 맞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해내지 않으면은 앞으로 뭐도 안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정찬용: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제목이 ‘스캔소리얼(Scansorial)’, 좀 이게 생물학적 용어라고만 저는 설명을 할 텐데. 간단한 이 용어에 대한 개념 설명이랑, 어떻게 이것이 전시의 제목으로 혹은 이준지 작가의 프로젝트의 키워드로 작용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준지: 먼저 ‘스캔소리얼’은 고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너구리... 너구리 맞나? 아니면 원숭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동물들 중에서 수직 공간에 살아가는 동물이 기어오르려는 그런 습성을 의미하는 생물학적인 용어고. 이걸 제목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는 뭔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치 몸속에 내재돼 있는 유전자처럼, 본능처럼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그런 존재... 같은 어떤 이야기 속의 캐릭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가 살아온 그런 어떤 경험 같은 걸 반영을 한 전시여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오른다’는 개념 자체가 뭔가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혹은 벗어나기 위해서 오르기도 하지만... 또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결국에 도달하면서 또 접하게 되는 새로운 어떤 의식의 차원이라든지 그런 어떤 방향성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것도 결국에는 어떤 지점을 향해서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종합적인 의미로.

정찬용: 제목을 스캔소리얼로. 그러면 또 이제 자연스럽게 2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부의 제목은 ‘감각의 구조: 오르기, 숨 쉬기, 버티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까지 ‘오른다’라는 어떤 행위의 어떤 그냥 사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조금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이게 좀 정서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도 절박한 것들? 어떤 혹은 이것을 극복해낸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는데. 이게 사실은 전시가 되게 다양한 상징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구성들이 어떤 관점이나 또 어떤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떤 ‘도시의 구조’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이준지: 맞습니다.

정찬용: 그래서 오르는 것과 관계 맺어진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작업들 간단하게 몇 가지들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지: 네, 먼저 일단 이 전시 전반에 깔려 있는 제가 일종의 ‘도시 전설’처럼 만든 어떤 이야기 상징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도시 전설과는 조금 차별화되는 게, 이게 실제로 ‘있음직한’ 그런 전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있음직한 전설이라기보다는, 뭔가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지만 동시에 현실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뭔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그것들을 감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도시 전설인데. 이제 어떤 고양이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수면이 점점 상승을 하면서 도시를 덮치게 되고, 그 해수면이 제가 살고 있는 건물 기준으로 옥상면과 일치되는, 일치되어 가는 상태의 어떤 시점에 대한 세계관을 다루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길에 살던, 도시에 살던 고양이가 물을 피해서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옥상에서 마지막에 고립되어지면서 옥상이 뭔가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가 되는 그런 지대이자, 뭔가 현실로 감각되어지는 공간과 그 너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내세라고도 할 수 있고)이 뭔가 중첩되는 그런 공간으로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크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작품은 ‘물결 등호(≈, Tilde)’라고 해서, 물결 기호가 두 개 겹쳐진 제목을 가진 작품이 있는데. 이제 옥상과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수제가 도포된 옥상의 색깔, 초록색 색깔의 판넬에 파도가 조각이 된 작품이 있고. 그리고 또 전시와 동명의 작품으로, 그 녹색의 판넬에 CCTV 위치에서 카메라를 찍어서 그거를 그린 스크린 샷아서 영상을 합성해서 빔 프로젝트로 송출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스캔소리얼’이라는 작품이고, 제가 살고 있는 실제 오피스텔을 기반으로 해서 1층부터 9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실에서 올라가는 작품인데.

1인칭 시점으로 하고 3.5층과 6.5층에서 거기에 놓여진 카메라를 바꿔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3개의 채널로 이루어진 영상 작업이고, 그게 이제 3일 동안 반복돼서 총 9개의 섹션으로 나뉘지는 작품이고 ‘3막 9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고. 실제로 그거를 구성하게 된 그런 큰 틀은 사실 제가 특별하게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해서 말은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제 유년 시절과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으로 구분을 지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3개의 캐릭터로 분할을 해서 그런 가상의 캐릭터: 번기에 버려진 물고기, 그리고 이야기 속에서 바다를 피해서 옥상에 올라가는 고양이,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인간(인데 불안을 뭔가 초자연적인 감각으로 해석하고 각성하는) 약간 그런 캐릭터 설정을 해서... 똑같은 반복되는 계단의 이미지가 등장하지만, 제가 뭔가 즉흥적인... 혼자 이제 어느 누구도 영상이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체 계단실을 다 문을 닫아놓고 저 혼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순간 제가 몰입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느껴지는 감정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시선이라든지 발걸음이 변화하고, 그런 걸 포착을 해서 ‘카메라 연기’를 한 작품입니다.

정찬용: 결국 연기를 좀 하셨네요.

이준지: 네 연기를 좀... 약간 근데 그 연기와 동시에 약간 ‘수행’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하는 와중에도 정말 많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게 엄청 많이 느껴졌어요. 하면서 조금 엄청 새벽이고

어두우니까 무섭기도 했고, 그 와중에 뭔가 제 어린 시절에 뭔가 느꼈던 그런 걸 또 생각하려다 보니까 더 그랬겠지만 그런 것들이 올라오고 좀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정찬용: 어쨌든 되게 중첩되는... 저번에 우리가 한 번 날려 먹은 그 대화도 되게 의미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느낌으로.

이준지: 네, 말하다 보니까 저번에 무슨 얘기했는지 솔직히 기억 안 나고...

정찬용: 어쨌든 흐름은 사실 스크립트가 있어서 거의 비슷한데, 같은 질문(유사한 질문)인데 이제 뭐 다른 답변이라기보다는 그때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루는 것 같아서 저는 좀 흥미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예를 들면, 중첩되는 지점들이 만나는 거니까 파도랑 옥상의 어떤 면을 겹쳐서 구현해 놓고. 그리고 이제 3.5층, 6.5층도 다른 의미의 어떤 중첩되는 어떤 지점들이고. 그리고 또 방금 촬영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연기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연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내가 되게 좋아했던 그 ‘로봇 청소기’ 페르소나뿐만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도 일종의 세 가지의 페르소나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작업 내에서는. 그래서 또 그게 어쨌든 연기하고 있는 이준지, 그리고 실제 촬영 장면 안에 들어 있는 어떤 인물, 그리고 혹은 그거를 촬영하면서 느꼈던 과거의 이준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중첩되는 내용들이 되게 흥미로운데, 약간 이게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이준지: 저도 근데 사실 뭔가 이렇게... 그냥 사실 제가 뭐 크게 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반복적인 계단의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폐쇄적인 거 안에서 조금 그걸 보고 있는 것조차 뭔가 그냥 내러티브가 느껴지지 않고 그냥 뭔가 보는 사람도 약간 명상 같은 느낌으로 하고 싶었던 게 맞긴 한데. 이제 저도 뭔가 하려다 보니까 저만의 뭔가 내러티브가 필요해서 저도 좀 크게 구성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또 어디까지 전달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직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 같고.

정찬용: 만약에 이제 어쨌든 이번에 시행착오를 한 번 겪은 거잖아요, 처음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내러티브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아니면 혹은 굳이?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것의 대안이 단순히 내러티브를 더 늘리고 확장시키는 건 아니더라는 관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거 같아?

이준지: 저는 일단은 제가 처음에 그거를 구상하기 전에 이제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어떤 식으로 찍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그 직전에 다다르면서 생각된 게, 사실 제가 영화과에서 영화 과제로 찍고 이렇

때도 정말 즉흥적으로 한 게 진짜 많거든요. 시간도 없고 그러면서 즉흥적으로 하는데, 즉흥적으로 하면서 맥락을 만들어가고 이런 게 재미있었고. 저는 그런 게 조금 나랑 잘 맞는 스타일의 작업이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느껴지는 거를 수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했는데, 또 그렇게 되면 뒤에 지나가고 나서 보면 또 아쉬운 점이 있고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냥 그렇게 뭔가 내가, 내가 몰입을 해서 뭔가 그거에 변화를 만들어보자라는 게 정말 그 직전에 생각이 들었고. 그전에는 그 공간을 구성을 하든지 차별점을 두든지 이런 식으로 원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카메라 연기'라는 그 부분이 이제 되게 저한테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내가 이게, 이렇게만 하는데도 그게 뭔가 전달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실제 설치 시에는 그게 좀 조그맣게 보여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화면 하나하나를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카메라가 흔들리고 막 그래서 약간 전체를 다 보면 떨미가 날 정도로 이게 약간 정말 그렇거든요. 그리고 엄청 폐쇄적이고. 그래가지고 이런 지점들이 뭔가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조금 더 카메라로 찍을 때 어떻게 더 이게 어떤 앵글에서 어떤 감정이 더 잘 보이고 이런 것들을 조금 알면은, 몸에 좀 체득이 돼 있으면은 조금 좋지 않나. 그래서 뭔가 신체적인 퍼포먼스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제 자세라든지 카메라를 드는 높낮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캐릭터화돼서 조금 더 이렇게 연습이 되어 있다면은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찬용: 조금 약간 뭐랄까 디테일에 관한 부분이네. 약간 그런 형식? 형식이나 방법론 같은? 똑같은 거를 가지고 약간 그 지금 말할 지점들을 보완해서 다시 시도를 해도 되게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것 같긴 해.

이준지: 맞습니다. 좀 즉흥적이고, 그때 막 찍게 된 것도 사실 진짜 즉흥적으로 찍은 거예요. 그런 이렇게 난간 같은 거 찍고, 아니면 그 거울에 비친 그런, 그런 나이트 비전에서 나오는 카메라만 볼 수 있는

빛이 있거든요. 파장?

정찬용: 응, 초록색으로 넣는 그거 말하는 거지.

이준지: 그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완전 그냥 암흑인데 그 영상 안에서는 카메라에서 빛이 나오고 있어서, 서로 이렇게 마주했을 때 이렇게 빛이 보이고 또 거울 너머에 그 유리 너머에도 막 이렇게 빛이 반사돼서 보이고. 그런 거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으면 뭔가 조금 연출을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정찬용: 기술적인 부분을 활용해서...

이준지: 네네. 근데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도 처음 받아보고 그러니까.

정찬용: 아니 근데 또 자연스럽게 이제 3부로 넘어오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3부에 이제 그 주제가 '실패와 유예: 중단, 비완성, 그리고 그럼에도...' 약간 GPT가 잠깐 미쳤었는지 '그럼에도 점점점', 약간 이런 식의 제목을 붙였는데. (웃음) 그래서 원래는 저번에 녹음했었을 때는 이 직전에 어떤 얘기했었냐면, 생각보다 되게 효율? 뭔가 가성비를 따지긴 뭐하지만 또 작업 자체를 놓고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반응을 지금 받았던 작업... 미안해요, 내가 제목을 다 모르고 그냥 우리끼리 불렀던 닉네임으로... 닉네임으로 우리가 다 '로봇 청소기' 막 이런 식으로 불러갖고. 그 '금줄'.

이준지: 네, '글리치(Glitch)'라는 작품이고.

정찬용: 그래서 이게 다 계획이 있다고, 그 '글리치'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작가님의 목소리로 또 이 녹취를 해놔야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 영상 작업했던 것과 유사하게 즉흥적인 측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간단하게 또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글리치 작업에 대해서.

이준지: 저번에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글리치'라는 작품이 약간 그런 감각적인 부분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에 담겨 있는 어떤 그런 좀...

정찬용: 정서적인...

이준지: 네?

정찬용: 정서적인 부분이랑 감각적인 부분이랑 어떤 피드백이 있었다 그랬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

이준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을 때, 그냥 처음에 그런 의미를 생각하기보다 그런 그 공간 자체가... 거기서 그 옥상이라는 공간 자체가 저한테 이제 '목에 걸리면서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에 그걸 걸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그게 옥상이 아닐지라도 그런 공간을 좀 구성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과 죽음의 기점이 되고, 뭔가 현실과 뭔가 내 상상이 뭔가 이렇게 뒤섞여 버리고 (망상일 수도 있고) 그런 상태의 뭔가 의식의 차원이 제가 구성하려던 어떤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올렸던 작품이기도 하고, 이제 문에서 이제 목에 걸리는 위치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 이게 또 제작을 하는 와중에 바다에 가가지고 이거를 구했는데. 이제 처음에 검은색으로 하게 하려는 계획도 없었고. 다양한 이제 쓰레기들을, 해안에 떠밀려온 쓰레기들을 보다가 이 물에 젖어서 엄청 이렇게 까맣게 돼 있는 로프를 봤는데, 그게 저는 눈에 너무 이렇게 되게 묵직하게 들어왔던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너무 어두우니까 뭔가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안으로 이렇게 좀 행잉(Hanging)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해체하다가 꼬는 와중에 이 안에 내부에 이렇게 삭아있고 끊어져 있던 이런 부분들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되게 매력적인 텍스처가 생겨서. 이거는 뭐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바다에서 끝없이 이렇게 떠밀려 다니면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 버려진 존재가 이렇게 뭔가 여행을 하고 와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뭔가 제가 드러낸 느낌이어서 그 텍스처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뭔가 '금줄'의 형태라는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그런 뭔가 오류적인 존재로 연결을 시키면서 '글리치(Glitch)'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글리치가 뭔가 이렇게 화면 보다 보면 이렇게 살짝

지직거리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이렇게 혼합되고 융해되는 그런 세계관을 다루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것들이 충돌하면서 일그러지고. 약간 그런 상상력으로 하게 되었고. 또 가장 큰 부분은, 또 이제 스케치업으로 이거를 전시를 구성을 하는데 다른 애들은 제가 원래 의도한 대로 뭔가 이렇게 뭔가 기계 패널 같은 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칩들이 박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갈하게 딱 길어도 다 맞춰서 이렇게 뒀는데... 개 하나만 뭔가 이렇게 무슨 스케치업 화면에 머리카락 붙어있는 것처럼...
정찬용: 맞아 맞아.

이준지: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뭐가 잘못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살려서 하게 됐습니다.

정찬용: 진행 과정 중에서 느꼈거나 약간 경험한 부분들도 되게 이제 진행하면서도 많이 작용이 됐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준지: 네 맞습니다. 그게 엄청 컸었... 그런 거 대부분일걸요. 만들면서 생각한 거 엄청 많고.

정찬용: 그런 거 치고는 되게 짜임새 있게 무언가가... 이 틈을 빌어서 도와준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번 하고. 아니 무슨 누가 처음 전시하는데 무슨 프로젝트 매니저에, 무슨 코디네이터에, 테크니션에...

이준지: 근데 진짜 그런 정말 너무 운이 좋게,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에 찬용 큐레이터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해 주신 것도 너무 행운이지만 그 시점에 맞춰서 이런 도와줄 친구들이 있고, 또 이제 작업실도 있고, 저희 미술관에서 벌이는 작업대도 생기고. 막 이러면서 모든 게 다 너무 타이밍이 좋았는데. 일단 친구들이 일단 제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너무 흥미롭게 들어줬고 너무 그래서 너무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줬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러니까 제 뭔가 생각을 흥미롭게 들어주고 뭔가 그런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고마웠는데) 또 이렇게 열심히 도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이제 보답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정찬용: 부담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준지: 네, 그냥 너무 정신없었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또 계속 보답을 해야 돼요.

정찬용: 아무튼 그때 원래, 원래 여기에 있었던 질문은 ‘프로젝트 하면서 잘 안 됐던 순간’에 대한 거였는데. 사실 이제 저번에 얘기 들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얘기를 또 들어봐도 그렇고, 사실 잘 안 되거나 이런 그런 순간마저도 즉흥적으로 뭔가를 또 느끼고 진행에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을 하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와 관계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어쨌든 이 프로젝트는 내가 일종의 나름의 방치되어 있던 창고 공간을 임대해서 그 임대 방식으로 점유를 한 거고, 작업실로 작가들을 초대해서 전시가 됐든 어떤 실험을 하든 프로젝트가 됐던 ‘어떤 형태로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점유를 해 보라’가 첫 번째 콘셉트이긴 했는데. 사실 어떤... 자유를 주면 다들 방황하듯이 준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존의 작가들도 되게 이제 헤맸던 것이 사실인데. 어쨌든 처음이라서 어렵기도 했을 거고 또 이제 내가 마냥 편하진 않았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아까 이제 ‘제안했을 때 어땠어요’는 물어봤으니까,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제안을 수락했고 그 이후에 이제 공간을 보게 됐잖아. 그때 어땠어요?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긴,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수락은 했고. 그리고 이제 공간을 이제 실견하러 딱 답사를 왔잖아. 그래서 그때 공간을 딱 처음 보고 느낀 건 뭐가 있었을까?

이준지: 그냥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공간이 너무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네, 그렇습니다.

정찬용: 나는 이게 너무 재미있는 게, 작가들이 이제 대부분 혼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작가들, 상반기는 다 이제 1 대 1로 나랑 작업을 했으니까. 근데 5명 다 이제 공간에 그 크기에 일단 무언가 압도당한 듯한 반응을 보이는 게... 나는 생각보다 되게 코딱지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준지: 네, 저는 그리고 뭐 구작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그냥, 그렇다고 뭔가를... 근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게 컸던 것 같은데. 그거 그걸 또 이렇게 대충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좀 그럴듯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공간이 크니까 당황했죠. 그랬어요.

정찬용: 약간 그것도 재밌는 포인트 같아. 작가들이 공간에 대해서 약간 일종의 어떤 **두려움**이 다 다르겠지만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이준지: 그리고 저는 그 공사가, 개관전 하기 전에 수정 작가님이랑 처음에 보수하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전에 보고 나서 다시 와서 봤을 때는 ‘이게 생각보다 너무 예쁜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찬용: 칠해 놓으니까?

이준지: 그 후에. 원래는 이렇게 벽에 다 이렇게 이어져 있지도 않고 그랬잖아요.

정찬용: 맞아 맞아.

이준지: 균열이 있고 뭔가 ‘이런 데다 프로젝터도 못 쏠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일단 공간이 있고 또 넓고 그러니까 뭔가 설렘 반 두려움 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후에 왔을 때는 진짜 너무 공간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습니다.

정찬용: 보람이 있네. 고생한. 그래서 아무튼 되게 여기가 막 기존의 어떤 전시장들처럼 전시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인프라나 어떤 기반이 전혀 안 돼 있는 곳이잖아. 그래서 조명도 그렇고, 맞추기도 내 댄에는 가성비를 뽑겠다고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제 조명들을 달아놓은 거긴 한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뭐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돼버린? 그렇지 않아? 왜냐면은 어차피 지금 준지 작가는 영상이랑 이렇게 발광하는 작업들이 있으니까 조명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크로마키 인식 때문에 조명의 조도를 낮추거나 이러는 상황이 생기고 막 그랬잖아.

이준지: 근데 저는 그래도 이게 막 있을, 모든 각도를 얘가 다 커버를

하고 또 조도도 다 조정 가능하잖아요.

정찬용: 근데 아주 디테일하진 않지 사실.

이준지: 그래도 그 정도면 엄청 자유도가 높은 그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찬용: 어떻게 얼마나...

이준지: 저는 그냥 처음에, 처음에 보러 왔을 때 박그림 작가님 같이

처음에 그 공간 봤을 때 그냥 형광등 같은 거 있었잖아요.

정찬용: 맞아 맞아, 그 십자형으로 된 거.

이준지: 그런 걸로 저는 그거를 하다가... 제가 개관전도 거의 끝날 즈음에

갔거든요. 중간 이후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썩 다 바뀌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형광등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찬용: 그렇구나. 아무튼 그때 또 이제 저번 질문에 그런 게 있었어.

'이 프로젝트를 다른 전시 공간에서 한다면 어떤 형식이 되었을까' 뭐

이런 거? 답변을 듣긴 들었는데.

이준지: 다른... 이 같은 프로젝트를 다른 곳에서 하면은... 그때

답변드렸지만 뭔가 저는 일단 항상 제 작업이 저는 그 공간과 정말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 공간과 무조건 함께**

구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작품을

옮겨 놓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작품을 만들 때와는 좀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하지만 일단 제가

추구하는 그런 작품 세계가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 속에 무언가

존재를 하지만, 그것과 중첩되는 현실에 내가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위치여서 그런 물리적인 것이 발생하는...

혹시 녹화가 잘 되고 있나요?

정찬용: 네 잘 되고 있어요. 걱정되지?

이준지: 트라우마 살짝... (웃음) 그래서 그 전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뭔가 어떤 픽션을 갖다가 뭔가 팝업처럼 갖다 놓은 약간

그런 공간이고 싶지 않았고. 정말 말 그대로 실제 그 공간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무언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 생각도 엄청 많이 하고 영화... 그래서 저는

다른 공간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 얘기했을 때 영화관 같은

극장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그런 시네마라는 원래 개념이 이제

영화 콘텐츠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극장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뭔가

그 영화적인 세계에 접근하기 위해서 **현실의 어떤 물리적인 좌표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영화를 어느 곳에서

봤는지'도 저는 정말 중요... 총체적인 경험으로서 중요하다고 느끼고,

제 전시도 마찬가지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까지 고려를

하고 싶었어요.

정찬용: 그래서 여기서만의 의미를 발현할 수 있는 장치였다.

이준지: 그래서 이 공간에 일단 옥상이 없는 것도 뭔가 저도 어느 정도

이제 끼워 맞춰져서 좋았던 거고. 그리고 지하여서 '아, 지하에 이제

옥상을 만들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찬용: 지금 하는 질문이 사실 어쨌든 나는 이 모든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게 내가 지금 어쨌든 탐구하고 있는 부분에 쓰일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거니까, 지금 하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처음이기도 하지만 또 큐레이터랑 이렇게 작업을

같이 한 것도 처음이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뭐랄까,

이렇게 피지컬하게 아무래도 아예 혼자 만들어 이미 구축해 놓은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적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작업적인 부분보다는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다른 전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점들. 예를

들면 설치 방식이라든지 등등등... 혹은 소개가 필요한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의 작은 분량의 글을 추가한다든지 등등등. 이런 걸로 이제 조금

내 입장에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 같은데 피지컬리. 어쨌든

그래도 대화 자체는 다른 프로젝트를 했던 사람들보다는 대화량만 놓고

보면 제일 많았다고 이제, 절대적으로 제일 많았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고. 사실 그거는 내가 준지의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갖

질문을 퍼붓느라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큐레이터랑 이런 작업을 같이 해보고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어땠는지 그냥 가볍게.

이준지: 저는 일단은 그냥 너무 일단은 찬용 큐레이터님께서 이제 프로젝트를, 공간이라는 프로젝트 진행을 하시면서 그런 저같이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뭔가 주려는 그런 뭔가 의도도... 저는 말씀드렸지만 좀 의심스러웠고. 그게 그게 왜 나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을...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이제 만났을 때, 저라는 사람한테 이제 뭔가 기회를 줘야겠다는 뭔가 한 달이라는 시간과 뭔가 그런 거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정말 좀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그런 취지의 뭔가 그런 취지에 맞는 어떤 기획을 만나는 것도 저도 정말 행운이죠. 누가 이런 뭔가 신인 작가를 발굴하고 심지어 구작도 아니고 잠재력을

판단할 수도 없고. 근데 그냥 이렇게 뭔가 그냥 이렇게 어떤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정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만 보고 뭔가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정찬용: 그게 열정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의심이고 아직도 약간 그게 의문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하면 하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너의 반응이. 일단은.

이준지: 일단 저도 막 수많은 그 가면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하면 하죠”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불안도 크고. 그리고 약간 그리고 “하면 하죠” 하면서도 ‘이 말만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뭔가 이렇게 부르지 않아, 다시 이렇게 말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잠시만요.

(잠시 중단)

정찬용: 방송 사고.

이준지: 아무튼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형님이랑 하면서 또 그런 쓴소리도 많이 해 주셨지만, 그 와중에 또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뭔가 지금 아이디어 좋으니까 이대로 계속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좀 저 불안한 와중에 어떤 그래도 기준점이 되고

선택을 하게 되는 포인트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는 막 이게 이거를 이제 옵션으로 두고 또 다른 걸 생각하고 원래 이런 사람인데, “우리 시간 없으니까 이거 지금 괜찮은데 이거 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저 오히려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됐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은 그렇지.

정찬용: 그러면 이제 곧 전시가 끝나잖아요.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그냥 지금 허심탄회한 기분과 이제 작업실로 돌아갈 일만 남았는데. 작품도 옮겨야 되고, 이제 철수의 의미도 있고. 다음 프로젝트, 혹은 이제 다음에 하고 싶은 거? 이제 우리가 또 9월달에 네 여기에서 나온 또 어떤 산출물을 가지고 디벨롭 시켜서 뭔가 또 연장선에 서게 되는 전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소회를 밝혀주면 좋겠어요.

이준지: 일단 전시를 올린 것도 이제 올린 것도 이제 너무 저한테는 기쁜 일이지만, 일단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루틴이라든지** 그런 게 저한테는 [▲]현재가 되고 나니까 그런 게 제일 뭔가 보람이 있었어요. 안 그러면 뭔가 마음 한구석에 ‘언젠가 언젠가 뭔가 작업을 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느라 바쁘고 이런 거, 이런 이려고 싶다’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그렇게 뭔가...

정찬용: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찡찡거리시지 않나요?

이준지: 저요? 작업하는 거요?

정찬용: 작업이든 뭐든 너무 세상 혼자 바쁘신 분 아니신가요?

이준지: 근데 이번에 하면서 생각이 든 게, 이번에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이거를 다 채워서 이제 작품 8개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좀 힘들었던 것 같고. 평소에 좀 만들어 두자 작품을. 하나씩. 그러면 정말 즐겁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찬용: 앞으로의 포부네 거의. 그거는 두고 보겠어.

이준지: 그리고 이제 이런 작업 세계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조금 더 다른, 그런 도시의 다른 구조들을 활용해서 뭔가 이 세계관과 또

연결시켜서 또 연장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찬용: 그래서 오히려 저번에 대화 나눴던 것보다 조금 더 조금 정제된, 그래도 한 번 또 해봤다고 좀 정제된 설명과. 그리고 저번에는 사실 되게 조금 사담이 많긴 했었고, 오히려 오늘 되게 조금 에센스 같은 내용들이 많아서 오히려 다시 재녹음하는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인데. (웃음)

어쨌든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뭔가 지금 이 녹음까지도 사실 말썬이라고 생각했는데. 둘 다 피곤한 상황에서 퇴근하고. 어쨌든 9월달까지도 한 번 또 잘 부탁드립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진 모르겠지만 각자 맡은 바 이제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준지: 마지막으로 이제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믿어주신 찬용 형님께...

정찬용: 뭐야 뭐 수상 소감해?

이준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찬용: 누가 보면 송은미술대상 받은 줄...

이준지: 지원할 예정이 없습니다.

정찬용: 그건 혹시 모르는 거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아무튼 고생했어요.

이준지: 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Filling Gaps'¹ 인터뷰 발췌록]

본 프로젝트에서 수행된 팟캐스트 녹음과 라운드 테이블은 단순한 부대 행사가 아니라, 폴 오닐과 Mick Wilson(Paul O'Neill & Mick Wilson)이 논한 '교육적 턴(Educational Turn)'의 실천적 적용이다². 큐레이터의 작업실은 전시장이자 동시에 배움과 대화가 발생하는 '파라-에듀케이션(Para-education)'³의 장으로 기능하며, 이를 통해 완성된 결과물보다 지식이 생산되고 교환되는 과정 자체에 우위를 둔다.

에피소드 #6. [팟캐스트 녹취록] 점진적 과부하: 메타 기획과 전시의 정의

일시: 2025. 08. 13. (수)

참여자: 정찬용(기획/진행), 변재현(기획/게스트)

정찬용: 말해 봐. 녹음되고 있겠지? 되고 있는 거... 아니 이게 왜 자꾸 사라지지? 팟캐스트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제의 전시, <점진적 과부하>를 기획하신 우리 변재현 기획자님 모셔봤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기획자끼리 만난 자리니까 작가와의 대화보다는 좀 편한 버전으로, 제가 약간 '순한 맛'으로 질문지를 준비했어요. 근데 내용은 어쨌든 맥락은 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로 준비됐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간단하게.

변재현: 네, 저는 97년에 태어나서 서울에 올라온 지 2년도 안 돼서 아직 사투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찬용: 성함, 성함.

변재현: 저 변재현입니다.

정찬용: 지금 어디서 무슨 일 하고 계시죠?

변재현: 저는 리움미술관에서 대외협력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용: 제가 알기로 되게 짱짱한 커리어를 갖고 있는, 지금 예술학 공부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팟캐스트 스크립트를 어떻게 보통 짠 것이라면, 내가 이제 그 대화창들이 다 있어 GPT에. 프로젝트별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너네 욕도 하고, 답답한 거 얘기도 하고, 혹은 내 고민들도 얘기하고... 그 모든 과정과 시간들이 응축돼 있는데, 거기에

1 "FillingGaps는 큐레이터와 작가가 작업실에서 나누는 솔직한 이야기와 예술적 실험의 뒷얘기를 엿보는 팟캐스트입니다. 큐레이터와 작가가 기획하고, 시도하고, 때론 망가지는(?) 과정 속에서 탄생하는 작은 이야기들이 담깁니다. 마치 남의 일기장을 훑어보는 듯한 가벼운 수다와 함께, 예술의 빈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해보세요." (팟캐스트 공식 소개글 중)

2 폴 오닐, Mick Wilson 엮음, 『큐레이팅의 교육적 전환』, 김아람 옮김 (서울: 더플로어플랜, 2021), 13-22쪽. 본 연구는 전시 공간을 지식 생산의 장으로 재정의하는 이들의 논의를 따라, 큐레이터의 작업실을 교육과 큐레이팅이 교차하는 '파라-에듀케이션'의 현장으로 해석한다.

3 애니 플레처, 세라 피어스, 『파라교육 부서』, 위의 책, 191-195쪽.

플러스 너랑 대화하거나 혹은 너랑 첫 미팅 때 했던 그런 녹음본들? 그런 것들도 다 입력을 한 다음에, 가장 최근의 정보는 이제 내가 쓴 글 몇 가지겠지. 그런 거 플러스 아마 설치 중에도 내가 이렇게 GPT랑 대화를 좀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토대로 뭔가 아주 맥락을 해치지 않는 형태에서 애가 1차적으로 짜주고, 거기서 이제 내가 추려내고 말도 좀 바꾸고 해가지고 (만들었어). 근데 이제 특징은 이게 제목이 조금씩 있어. 부제가 파트가 나눠져. 그게 너무 약간 민망하고 어이없는데... 이것도 너무, 아니 그 프로젝트마다 진짜

웃기게 짜주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좀 편하게 하고 싶다... 너무 그동안에 다시 들어보니까 작가들이랑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이 차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난 편하게 하려고 이 작업실 시스템을 뭔가 실험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그 큐레이터와 작가 간의 위계 질서를 더 보여주는 느낌이 돼서.

변재현: 약간 팟캐스트 느낌이 아니라 인터뷰 느낌이 돼버리니까.

정찬용: 그래서 뭐 사실 인터뷰가 맞긴 해, 정확히는. 근데 이제 팟캐스트 방식으로 뭔가 아카이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진행하는 건데, 그래서 좀 친한 형 동생 톤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 너한테도 요청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파트 1 제목이, ‘야, 우리 이 얘기부터 하자’.

변재현: 꽤나 본격적인데?

정찬용: 그래서 질문을 하자면, 야 재현아 이 전시 왜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거 우리 뭐 술 먹다가 친해졌고... 그리고 이제 그날 정말 솔직한 얘기로는 그날 내가 너무 진상을 부린 것 같아서 이미지 쇄신차 너희들한테 집 근처에서 한 잔 이제 더 다른 날 약속을 잡았고.

마침 그때 내가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단계여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은 준지 작가랑 너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둘 다 의외였던 거는 무조건 수락이었고. 어쨌든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이유를 사실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

변재현: 아 왜 하게 됐는지...

정찬용: 왜 하겠다고 한 건지.

변재현: 기획이 아니라 아예 하게 된 계기. 일단은 그냥 재밌을 것 같았고. 뭔가를 새로 하는 거에 함께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이렇게 제안해 준 것부터 너무 고마운 일이고.

정찬용: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위계적인 것 같아.

변재현: 노노. 이거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일단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속 어쨌든 기관에서 남의 일을 해왔고 ‘내가 내 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 약간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오케이가 된 것 같습니다.

정찬용: 근데 이제 그 부연 질문을 얘가 또 줬거든. 막연하게 그냥 한 건 아닐 텐데 무슨 생각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 재미로 하기에는 어쨌든 전공으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니까 재미가 재미가 아닐 수가 있잖아 사실. 어떤 부담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야망이 있었다든지, 뭐 별건 아니지만.

변재현: 이제 뭔가 끝난 건 아니지만 거의 뭔가 형태와 윤곽이 다 나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다시 그때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했죠. 그때 당시를 생각하게

되면. 그냥 뭐 처음 시도고, 어떤 형태의 개인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단체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기획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아예 전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냥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이 계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정찬용: 정리를 한 번 더 명확히 해보자.

변재현: 그래서 또 처음에는 제가 갖고 온 게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뭐 약간 디지털 막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 뭔가 그런 걸 잡아나가는 과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정찬용: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얘기를 조금씩 구체화해 나가다가... 이제 아무래도 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손을 대야 이게 간섭이 아니라 협력으로 얘가 느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참여자들이 그랬지만 우리 역시 10살 차이 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경력의 범위도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최대한 지켜보다가 진짜 안 될 때 개입해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거의 첫 제대로 된 미팅 때부터 사실 개입하게 됐지. “야 이거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하다가 “너 좋아하는 거 뭐야, 운동?”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 기획의 어떤 키워드를 찾게 됐는데. 그 얘기를 할 때부터 이제 듣자마자 바로바로 누구누구 뭐 여기에 섭외 안 된 작가도 있고, 그때 그냥 언급만 됐던 작가들도 있지만. 어쨌든 기조는 ‘운동하는 작가들을 모아보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게 이런 형식으로 이어질 거라고 그때 조금 틀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운동 전시니까 운동 작가, 약간 이런 거였는지.

변재현: 운동 작가도 있었고, 어쨌든 매체가 좀 다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궁금했던 건 작가가 운동을 한다는 건 작가와 작품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체가 다양할수록 이게 조형 언어로 나오는 게 다양해질 테니까 그런 막연한 생각은 있었는데... 미디어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럼에도 생각보다 재미있는 형태가 나온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정찬용: 그래서 이제 이게 도입부였고 파트 2로 넘어갑니다. 파트 2의 제목은 '기획할 때 너의 스타일'.

작가들 모으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좀 누구나가 해봤을 수 있는 생각이기도 한데 좀 독특한 접근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바로바로 나오는 게 이미 그런 어떤 관점으로 이제 작가들을 지켜봤다는 것도 되잖아. '이 작가가 운동하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너만의 리서치나 섭외 기준? 아니면 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가를 볼 때 어떤 부분들을 보는지.

변재현: 일단은 그냥 거시적으로 말을 하자면, 작가가 작가 삶에서 떨어진 어떤 너무 거창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제가.

정찬용: 근데 그 거창한 이야기가 작가의 삶과 먼 거야, 너와의 삶과 먼 거야?

변재현: 둘 다 먼 것, 멀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 삶과 멀어지면 나와도 멀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전시를 예로 들면 황규민 작가가 쓴 미술왕이라는 웹진 '풍'에 올라갔던 그 글이 있는데, 그 글에서 자기의 불만들을 쭉르르륵 토로하고 마지막에 본인의 등 사진을 이렇게 박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보고 '아 이 사람 재밌는 사람이다'. 황규민이라는 사람을 실제로 알기도 전에 그걸 봤었죠. 이 사람 재미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이 전시를 생각하고 바로 떠오른 사람이 이제 황규민이었습니다.

정찬용: 뮤즈네요?

변재현: 그렇죠, 일종의. 그리고 다른 작가들은 제가 뭐 어디 스튜디오 비짓 했을 때, 오픈 스튜디오 갔을 때 딱 걸어왔는데 몸이 좀 다부져 보였다는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자기 몸 사진을 올려봤다는지. 한두 명 빼고 운동하는 사진 인스타그램에 다 올려봤을 거예요.

정찬용: 다 관종들인 거지.

변재현: 근데 또 이 사람들이 꽤나 소심해요.

정찬용: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일단은 어떤...

그거를 어떤 내러티브로 봐야 되나. 그러니까 그 작가 본체의 서사의 어떤 거리감이 좀 덜 느껴지는 작가가 일단은 고려 대상이라는 거지. 보통 이 전시가 아니라도 다른 전시를 하거나 혹은 네가 그냥 작가 리서치를 사실상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

변재현: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작가 부류가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설득이 되면 그건 오케이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전에도 뭐 이렇게 따로 이야기할 때 말했지만 호주의 그 '스텔락(Stelarc)'이라는 작가 같은 경우도 너무 거대한 걸 이야기하고, 뭐 인공 신체 너무 거대한 걸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행보나 그 사람의 작업들이 다 저는 납득이 돼서 이렇다면 오케이가 되는 것 같아요.

정찬용: 약간 그 작가 같은 경우에는 막 텍스트는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작업 자체는 사실 시각적으로 되게 직관적이지 않아?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변재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몸에 실제로 실천을 해버리니까...

정찬용: 어쨌든 너는 내가 봤을 땐 미디어가 아니라 약간 '신체성'에 관심이 있는 거네.

변재현: 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그 굴레로 돌아가는 무언가가...

정찬용: 사실상 뭔가 석사를 하고 대학원 생활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이게 기획이나 어떤 연구자로서의 관점을 스스로가 파악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교수를 어떤 교수를 만나는지도 사실 운이고, 동료들도 그렇고, 어떤 일로 네가 돈을 벌고 있는지도 사실은 영향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나는 너랑 얘기를 하면서 내내 해. 그러니까 내가 막 어려운 걸 싫어하고, '미술 병신체'라고 이제 내가 칭하는... 되게 막 현학적인 나도 그거 다 빼면 되게 심심해 보이고 약간 뭔가 어색한데 싫을 정도로 이제 나도 그 말에 뭔가 오염이 됐는데...

변재현: 이미 너무 들어가 있어서.

정찬용: 너무 그렇게 되긴 했는데. 약간 그런 맥락처럼 대학원 가면은 되게 좀 전문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스텝 더 들어가게 되잖아. 그리고 이제 관심 분야 정하고 매체나 장르 혹은 작가 등 되게 세부적으로 정해서 이제 파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가지치기 해갖고 내려가다가 미디어가 나온 게 아닐까. 혹은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는 ‘이 새끼 이거 또 있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약간 전통 매체 지금 요새 트렌디하게 젊은 친구가 연구하기에는 전통 매체는 조금 너무 헤비하거나 클래식 하니까 미디어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 왜냐면은 그걸 얘기할 때는 너의 어떤 그 애티튜드나 스탠스가 되게 조심스럽고, 아직은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다라는 거를 뭔가 이렇게 베이스로 깔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라면... 신체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대화하면서 되게 한 적이 없어. 그냥 뭐 우리가 운동, 근육, 움직임, 어떤 느낌 막 이런 감각, 그러다가 이제 ‘과부하’도 그런 맥락이고 다 신체성과 결부돼 있는 건데. 사실은 이런 얘기할 때는 지금도 웃고 있잖아.

변재현: 이게 뭔가 그렇게 듣고 생각해 보니까 체화가 안 된 영역...?

정찬용: 미디어라는 거?

변재현: 우리가 휴대폰 쓰고 막 하긴 하는데 이게 미술에서 말할 때의 그거와 거리가 좀 느껴지는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정찬용: 근데 거리감이 느껴지면은 멀어진다면.

변재현: 그런... 그래서 접으려고요. (웃음)

정찬용: 일종의 추구미인 거지 사실 정확히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이제 생각을 했었어.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어쨌든 이거의 과정도 사실 뭐 있다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내 경험 안에서는 내가 막 이렇게 누구랑 어울리거나 이런 성격이 아닌 데다가 부대끼는 건 더 싫어하는데, 같이 막 이제 운동을 주최하고 그거를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되게 지속적으로 했잖아. 거의 무슨 정기 모임처럼. 그런 부분에서 느꼈던 너의 어떤 작가들에게나 이 전시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거고. 뭐 상상이든 망상이든. 혹은 이렇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건 예상 못했다’ 하는 지점.

변재현: 일단 그걸 하게 된 계기는, 그냥 일단 재밌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큰 이유고. 재밌을 것 같고, 작가들이랑 같이 운동을 해보면 뭔가 나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좀 더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을까 뭔가 그런 지점도 있었고 분명히. 그리고 작가들도 서로 모르니까... 어쨌든 공재 작가가 막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전시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과정이 즐거웠던 게 자기한테 기억이 돼서 그게 계속 간다.**” 막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뭔가 그게 다양한 맥락으로 하게 됐던 것 같은데. 기대했던 점?

정찬용: 기대했던 점은 없었다. 재미 느낀 만큼 재미있었다?

변재현: 재밌었어요. 어쨌든 그걸 같이 해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랑, 같이 안 하고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랑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도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도 기획자인 저한테 ‘운동도 못하면서 무슨 이런 기획을 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서로한테 어떤 일종의 보증이 되기도 하고.

정찬용: 그냥 눈치 본 거 아니야?

변재현: nope!

정찬용: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약간 내가 헬스장 가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어쨌든 강남에서 꽤 오래 살았잖아. 원정 다니는 인플루언서들 있잖아. 그 유명한 헬스장이 집 근처여서 그냥 나랑 가까워서 갔을 뿐인데 위화감 느껴지고. 그리고 지네들끼리도 약간 결눈질로 이렇게 막 뭔가 시선으로 평가하는, 나는 그 평가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약간 그런 기분이 너무 별로였거든.

변재현: 근데 저희끼리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단언할 수... 진짜 단언할 수 있어. 단언할 수 있고. 서로 잘 모르면 알려주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알려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하나를 들었는데 서준이가 이제 마지막에 운동할 때...

정찬용: 이렇게 실명 거론해도 돼?

변재현: 그럼요. 서준이가 마지막에 운동할 때 처음 왔어요. 이제 이

친구가 외국에 좀 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 가지고. 근데 또 이 친구가 팔이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몇 달 전에 부러졌어서 몸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 5명 중에 누군가가, 서준이가 좀 늦게 왔거든요. 왔을 때, 어? ‘재는 왜 왔지?’ 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몸을 보고. 너무 너무 말라 보여서. 그래서 그리고 서준이 스스로도 그런 걱정을 했어요. “나는 가서 러닝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해야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게 없진 않았네요. (웃음)

정찬용: 아니 근데 뭐 나도 이제 최근에 이 전시회 관련해서 나는

나대로 또 고충이 있었잖아. 너랑 나는 고충도 분명히 있었지만 나는 나대로 고충이 있었는데, 이 전시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워하는 작가들이 되게 많더라고. 최근에 이제 내가 광주에 이제 무슨 오픈팅 있어갖고 갔을 때도, 거기에서도 이제 소소한 모임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하길래. 내가 이제 학을 떼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제 너무 깊은 얘기는 또 안 되니까. 또 그렇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내 지론은 그거였어. ‘약간 운동하는 애들끼리 모이니까 나조차도 되게 그렇게 막 으쌰으쌰 에너지틱한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거는 분명히 있었고 그런 건 좋았다.’ 그리고 애들끼리 다 같이 운동 다니고 이런 것도 내가 느껴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서 진짜 보기에 흐뭇? ‘되게 긍정적으로 잘 으쌰으쌰하면서 끝나겠다’ 했는데 정반대로 흘러가고.

그래서 내 판에는 뭔가 이렇게 뭔가 스포츠맨십 이런 거를 서로 끌어주고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생각했는데, 근데 이 말을 딱 끊고서 이제 모 작가가 치고 들어오는 게 “근데 헬스는 스포츠맨십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야,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리고 심지어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이제 작가들이랑 왜 운동하냐 이런 약간 스몰토크 할 때 ‘그냥 미용 때문에 한다’.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망상한 거야. 이 어떤 점진적 과부하라는 키워드, 운동,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무언가를 한다. 근데 이제 방금 어떤 서준 작가의 그런 일화 같은

것도 사실은 또 해봐야 아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약간 우리가 그 운동에 대한 약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점진적 과부하, 신체, 운동, 어떤 무게를 견디는 일, 반복을 견디는 일, 막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사실 이걸 그 이면에 있는 어떻게 보면 난 이게 더 솔직한 에센스라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하면 우리 설치 때의 상황을 조금 돌이켜 보면 그 미묘한 견제와... 근데 이게 약간 뭐랄까 피트니스 모델 대회 같은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 같아. 이것도 좀 된 건데 여성 대회에서 누가 그 막 파리 날개 같은 거 막 이렇게 선수 방해해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변재현: 이게 어쨌든 같이 하러 간다 해도 둘이서 가도, 셋이서 가도, 그 동작을 수행하는 건 오롯이 본인의 역량이고...

정찬용: 서포트를 해주긴 하죠.

변재현: 해주긴 해도, 그 서포트를 받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사람의 역량인 거잖아요. 역량이고, 자기가 버텨내야 되는 거니까. 뭐가 그래서 운동과 스포츠는 다른 것 같아요.

정찬용: 어쨌든 스포츠는 아니었던 걸로.

변재현: 스포츠는 아니었다. 그리고 스포츠도 팀에서 싸울 수도 있고.

정찬용: 그치 그치. 어쨌든 나는 이게 단체전이라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팀워크가 나뉘었다고는 절대 말 못 해. 어쨌든 뭐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진행이 잘 되긴 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오프 더 레코드가 있을 순 있으니까.

정찬용: 그래서 이 다음 질문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진 게 뭐냐면. 그랬는데 너 작가들이랑 얘기할 때는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 원래 그래? 이게 여기에 얘가 써준 거야.

변재현: 그럼요. 저는 되게 조심스럽게...

정찬용: 그러니까 솔직히 뭐가 힘들었어? 나이가 어려서 힘들었어?

변재현: 아니요. 그런 나이가 어리고 뭐가 이런 것은 차치하고, 그냥 제가 아직 그 작가들과 소통할 때, 소통한다는 것 자체를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소통의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이때쯤 연락을 해서 뭔가 이런 걸 말해야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뭔가 망설이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뭔가 ‘말하고 이걸 말했어야 됐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되게 좀 가끔 일방향적으로 소통이 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항상 요구해야 되고, 내가 뭔가 “이때까지 뭐 보내주세요”, 아니면 “작업 어디까지 됐어요?” 내가 항상 먼저 연락하게 되는 거에서 이들이 부담을 느끼면 어찌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너무 나섰나 막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과정에서.

정찬용: 에겐남이야? 왜 이렇게 배려해? 너무 세심하다.

변재현: 그래서 좀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더 내가 진취적으로 뭔가 딱딱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정찬용: 근데 어쨌든 근데 재현이가 되게 어쨌든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데에서... 이상한 데도 하나 있긴 있었구나. 어쨌든 굼직굼직한 데서 일을 하면서 되게 이제 다양한 작가를 만났을 거 아니야. 근데 확실히 그거랑은 조금 다른 거야? 예를 들면, 더 나이가 많은 사람, 더 경력이 많은 사람, 혹은 뭐 중견, 중견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랑 꼭 전시라는 일로 엮이진 않더라도 어쨌든 큰 맥락에서는 그게 다 전시를 위한 일이었잖아. 파트가 다르더라도. 나는 어쨌든 작가랑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해봤을 거라는 생각을 혼자 했었고. 내 오해였던 거야?

변재현: 이게 뭔가 그렇게 되면 작가의 스튜디오랑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뭔가 되게 오피셜한 느낌이 나고, 기한을 너무 딱딱 정해서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뭔가 제가 돈을 제대로 못 정한 것 같아요. 그 돈을. 운동도 같이 하고, 뭔가 엄청 긴밀하게 하는 것처럼 해놓고, 갑자기 또 “작가님 이거 이때까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제 스스로 좀 어색했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정찬용: 약간 어쨌든 그러면 이번 전시에서의 너가 어떤 소통 방식을 취했는지 나는 사실 모르잖아. 대충 단톡방이 있었다는 거 알고.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일 대 일로 소통을 하고. 그런 정도만 알지. 어쨌든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방식은 너한테 적합하지 않았던 거네. 운동을 같이 한 게 문제였을까?

변재현: 그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 성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정찬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말은 이거지 운동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운동은 그냥 평상시에 같이 어울리면서 할 수 있잖아. 사람 대 사람으로, 운동 메이트로. 근데 이제 운동이랑 관련된 전시지만 어쨌든 그거를 하는 동안에는 사실 뭐 헬스는 혼자 하는 거라는 얘기도 방금 전에 했고 결국에는 각자가 그냥 하는 거지 이거를 위해서 뭐 리서치를 하거나 뭔가 이제 약간 유치한 단합대회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좀 사적인 영역이라는 거지. 근데 이제 공적인 영역으로 이 일에 대한 얘기를 진행할 때는 뭔가 어색해지고 민망해지고 이래도 되나 싶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공과 사의 영역에 대한 그 겁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거지.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서 운동을 하지 않고, 이런 콘셉트로 뭘 할 건데... 왜냐하면 그 운동이 뒤편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그 일은 일대로 원래 오피셜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딱딱딱딱, 이게 너무 정 없어 보일지라도 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편하거든. 그래서 너무 친한 것도 싫고. 그렇다고 또 차라리 정 없다고 욕먹는 게 나아.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난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거든. 왜냐하면 오히려 조금 감정에 덜 치우치게 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확실히... 너무 친해져서 생기는 부분들이 있잖아.

변재현: 근데 뭔가 친함? 운동? 운동을 해서 친해지고 뭔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제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고...

정찬용: 그래서 왜냐하면 나는 이제 중간중간에 나는 이제 막 어떤 이렇게 화를 잘 내지는 않지만 잘못된 거를 못 참는 성격이거든. 그래서 바로바로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런 일이 제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뭐냐면 어떤 같이 참여를 하는 사람들의 무지에 의해서 내 위치나 역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가 기획자인데 네 의견을 묻지 않고 되려 협력인 나한테

묻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나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편해져서 생기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좀 했어. 약간 어려워 보일 필요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 어떤 카리스마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초반에 나이가 어려서 힘들었다고 물어본 부분이, 없지는 않겠지. 다 너보다 선배들일 텐데.

변재현: 그렇겠죠.

정찬용: 약간 이렇게 뭐 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예상한 대로 흘러가진 않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그림을 좀 상상해. 내가 생각한 되게 예쁜 그림은 이제 약간 아무래도 처음 기획해 보는 거다 보니까 헤맬 때 이 친구들이 이제 좋은 선배가 되고 후배를 이끌어주듯이 서로 이제 의기투합해서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재현이의 그 자존감, 이렇게 뭔가 이런 걸 상상했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모두가 어리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 이거는 작가 욕하는 건 아니고. 사실 모두가 그랬기 때문에 누구 하나 딱 이렇게 그럴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 그냥 아쉬웠다.

변재현: 뭔가 기획전이라는 형식 자체도, 저는 전체를 보지만 작가들도 전체를 보긴 하는데 어쨌든 자기 걸 하나를 만들어 내야 되니까. 그게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 룰이 다른, 그들의 룰도, '내가 어디까지 여기 전체에 맞춰야 되지 내 걸 해야 되는데' 뭔가 그런 생각들을 할 것 같기도 하고.

정찬용: 근데 어쨌든 여기에 기획이라는 거는 네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전이라면 다들 그래도 되지. 개인전은 보통 본인이 기획하니까. 근데 개인전 같은 경우에도 기획자가 붙은 경우에는 다 소통의 과정이거든? 그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근데 이러나 저러나 이거는 내 기준이고. 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데이터가 하나 생긴 거니까.

이러나 저러나 좋은 거지 사실. 재밌어 보였어. 약간 힘들어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많이 들었던 생각이, 나도 굉장히 이제 파워 제이(J)라서 모든

걸 계획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첫 그 느낌, 첫 시작, 첫 단추 같은 건 진짜 즉흥적이거나 감각적으로 하거든. 너네한테 제안했던 것처럼? 근데 이게 내가 막 나는 약간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 내가 비전공자라서 약간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어떤 그런 즉흥적인 감각적인 것보다는, 어떤 미디어면 미디어라는 큰 틀 안에서 뭘 생각하고, 뭔가 구조를 먼저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었어. 논리. 그러니까 뭐 '점진적 과부하' 이걸 딱 했을 때, 한다고 그러면 더 답하게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섭외가 불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미래 작가 초청하고, 유아연 작가 옛날 작업 막 이렇게 불러오고. 굉장히 답한 신체성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 점진적 과부하 플러스 여성 작가만 해가지고 여성 서사를 다뤄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것보다는 네가 다룰 수 있는 감당 가능한 그 구조 안에서 작가들을 어떻게 어떻게 배치할 거를 생각하고, 착착착착 그 틀에 맞춰서 뭔가 진행된 느낌이었던 거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글을 포기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

변재현: 저는 입시 미술 할 때도 그렇고 항상 부분에 집중을 하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제가 부분에 집중을 하는 느낌이고.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뒤에 가서 봐라." 그림 다 좀 중간쯤에 "뒤에 가서 봐라." 뒤에 가서 보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부터... 그때부터 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부분만 보나.' 그거를 약간 강박적으로 생각해서 지금의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구조를 보게 됐는지. 근데 저는 아직도 제가 부분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찬용 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되게 의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찬용: 네 말도 맞지. 어쨌든 점진적 과부하라는 거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이제 인스타그램 소개글에 올렸듯이 뭔가 한 겹씩 한 겹씩 이제 쌓여 나가는 느낌이 있었잖아. 이제 작가도 이렇게 추가가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알팍해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작가들이 되게 이제 어쨌든 많이 도와준 거지만 그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전시

자체도 장르가 다양하고, 다 각자 다른 자기만의 방식으로 뭔가 이 주제를 논하고 있고, 어쨌든 그게 공통적으로 네가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또 완전히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거? 이렇게 보면은 작은 부분에서 시작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확대된 것도 맞는데. 이게 되게 구조적으로 쌓이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막 시작 시작부터 딱 정해놓고, 이 틀에 맞춰서 짝 이것도 있고. 근데 이것을 역으로 진행하는 것도 결국에는 구조적인 거잖아. 구조를 짜는 거니까. 나는 나 같은 경우에는 내 스타일도 나도 아직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뭔가 이렇게 적재적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나는 이러나 저러나 그냥 캐릭터가 강한 사람이잖아. 그냥 성격 자체가.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를 해서, 그리고 아무리 계획적으로 이렇게 더 계획적으로 하려는 이유가 어차피 설치 날, 오픈 날, 다 틀어질 수밖에 없어. 완벽하게 정확한 도면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고.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제 뭔가 렌더링 돌려갖고 다 한다고 해도 여기에서는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 오차까지 이제 고려를 해놔야 스트레스를 덜 받고 화가 덜 나니까 뭔가 이제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냥. 심즈 게임하듯이 ‘여기다 뭐 넣어볼까, 여기 놔 볼까’ 이렇게 해서 ‘이게 예쁜데?’, 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이제 그렇게 해놓고서 해놓고 보니까 ‘애네끼리 관계가 좀 있네’ 이러면서 뭔가를 하는 스타일인데... 그것보다는 약간 좀. 그래서 이게 확실히 나랑 다르구나 아니면 나 좀 올드한 건가라는 생각도 살짝 했고.

변재현: 저는 약간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약간 방목형이랄까요? 작가들에게? 제가 방목형?

정찬용: 방목을 했다고 생각해?

변재현: 어떤 틀 안에서는... 그러니까 방목이라는 게 방목이지만 울타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것을 지키려고 한 것 같아요.

정찬용: 이것은 이제 내가 봤을 때는 그 울타리에 작가들이 널
가둬둔거 같아.

변재현: 방금 소름 돋았어.

정찬용: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약간 되게 디스토피아. 약간 우화 소설처럼. 그래서 약간 어떤 **중심을 잡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사적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너무 공적으로 가지도 않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땐 후자가 더 편하다는 생각이고.

변재현: 근데 저는 재밌었던 게 어쨌든 작가들마다 그 접근 방식이 다른데, 아까 그 울타리를 예시로 들자면 울타리 안에서 뭔가 자기 할 걸 다 이렇게 푹푹푹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울타리를 넘어갔다 오고, 울타리에 매달려서 계속 살던, 뭔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뭔가 이 형태 자체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 것 같고. 저도 되게 많이 데이터를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정찬용: 어떤 거 같아, 그러면은 그 울타리 방식이 너한테 맞는 것 같아? 방목? 어쨌든 지금 해본 거잖아. 이 만약에 이게 뭔가 큐레이토리얼 실험이라면 네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울타리 방목형의 방식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한번 해본 건데 어떤 거 같아? 이번에 맞았던 것 같아?

변재현: 근데 그거를,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내가 너 여기서 나오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

정찬용: 난 그렇게 하잖아. 그, 말하지 마. 지금 나 화 나니까... 그때 조금 이제 설치 중에 잠깐 화났던 포인트가 있었잖아. 근데 그런 그렇게 나서야 될 때가 분명히 있고, 싸워야 될 때가... 물론 안 싸우면 좋겠지만 나는 어쨌든 되게 호전적인 사람이라 뭔가 이렇게 전쟁광은 아니지만 그 어쨌든 근데 그렇잖아. 이제 되게 과학의 발달도 생각 기술 발달도 보면 전쟁 중에 되게 많이 일어났잖아. 그거는 이제 너무 약간 비약이지만, 굳이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지만, 싸워서 뭔가가 일단 **스파크가 튀어서 좋은 게 나올 수 있다면 싸우는 게 굳이 나쁜 건가?** 감정이 물론 상하겠지만 감정이라는 건 너무 취약해서 또 풀리면 얼마든지 풀릴 수 있잖아.

변재현: 신기하다. 찬용 쌤은 감정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저는 감정에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는데 그 또 반대로 행동하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정찬용: 그러니까 나는 약간 방어 기제처럼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화를 잘 안 내는데 사람들이 나 화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게 약간 철벽 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공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그런 거지, 내가 화나기 싫고, 내가 스트레스 받기 싫고,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

변재현: 그냥 이 상황을 더 길게 끄는 게 나한테 스트레스니까.

정찬용: 그러니까 만약에 길게 끌어서 좋은 게 있다면 얼마든지.

근데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생각을 했냐면, 이제 막 작가들이 재현이가 너무 편한가 아니면 혹은 내가 너무 편한가 싶다가도... 애초에 이제 자유도를 주려고 했는데 이 자유도를 활용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 마치 우리 이제 첫 성인 됐을 때, 그

막연하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누릴지 모르는 거 마냥.

예를 들면은, 여기는 뭐 여느 대관하는 것처럼 뭐 시간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들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조명의 제한이나 설치의 제한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거를 제외하면 그 안에서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막 재현이가 방목을 했나...

변재현: 아니 근데 설치 때는... 일단 세울 건 세우고, 이게 저는 급했거든요. 그래서 이외의 것을 신경 쓸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그때 당시가.

정찬용: 그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너는 네가 집중한 부분에 붙어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고 있고 방목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애네들이 널 방목하고, 기획자로서의 변재현을 방목하고 자기들 거에 집중했다는 느낌이 되게 강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조금 아쉬웠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처음 듣잖아. 이제 입시 미술 할

때부터 부분부터, 부분에 조금 집중한다고. 그거는 그냥 성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생각,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애초에 이제 내 생각이 맞았던 게, 그냥 개인전을 했었던 게 좋았어. 원래 애초에 계획은 그 친한 작가 같이 한번 재밌는 거 만들어 보라 이거였잖아. 이게 3명이 되고 갑자기 5명이었다가 6명이 되고 이렇게 됐잖아.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가 우려했던 부분은 그거였어. 동시에 작가를 제외해서 동일한 기간을 얘기를 나눈 게 아니다 보니까, 준비하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준비 과정이 긴 작가가 있고 짧은 작가가 있겠지만, 작가들 간의 소통의 시차가 발생해 버리니까. 그 부분은 나한테는 어떤 형평성에 속하는 부분이라 그게 조금 우려가 되긴 했는데. 이제 우려와 별개로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어울리는 그 기간은 굉장히 있어서 누구랑 친하고 누구는 안 친하고 뭐 이런 얘기가 걱정은 전혀 이제 안 들었지만. 그게 약간 다른 방식으로 발현이 됐다고 느껴지는 부분들? 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나마 너무 다행인 거는 작가들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부당하거나 불편하다고 뭔가 이렇게 클레임을 걸 수도 있는, 충분히 걸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만약에 작가라면. 내가 만약에 변재현의 점진적 과부하에 이제 참여하게 된 일곱 번째 작가야. 이제 다른 다른 방면의 애네와 이제 정반대 이제 정반합의 개념으로. 나는 막 마지막에 한 달 남겨놓고 섭외 당해갖고, 막 이러면 막 이 성격에 예상이 되지? 지금까지 힘든 건 힘든 게 아니었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 그런 거 보면은 참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진짜 한 끝 차이로 너무나 고맙게도 작가들이 잘 뭔가 끌어줬는데, 조금만 더 잘하지 이거는 기획자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협력 기획자의 생각입니다.

정찬용: 그래서 이제 다음 파트로 이제 바로 넘어가면 어쨌든 제목은 '작업실에서 전시 만든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애초에 너희들한테? 준지, 너 이런 거 할 건데, 그때는 뭐 콘셉트도 없었고, 그냥 공간을 하나 임대할까 해 여기서 뭐 하면 너 할래? 이게 시작이었고. 나도 이제 준비를 하고, 상반기 거치면서 여기서 하는 게

혹은 내가 뭘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인지하게 된 상황이라.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미안한 부분이 있긴 있어.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작가가 있고, 기획자가 있고,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존에 생각하는 다들 전시를 생각할 텐데 나는 전시를 안 하겠다고 하니깐. 약간 되게 오해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진짜 전시장도 아니고, 일단 조명도 엉망이고, 애(GPT)가 써줬어 내가 쓴 게 아니야. 그 조건에서도 어쨌든 너는 전시를 하겠다고 한 거잖아. 그래도 전시가 되긴 하더라는 느낌이 있었어? 아니면 진짜 뻑 쳤던 포인트가 있었나?

이렇게 써줬어.

변재현: 뻑쳤던 포인트?

정찬용: 그거부터 그러면은 얘기를 해 봐 봐. 어쨌든 전시가 되긴 하더라 해서 이게 전시가 됐다고는 생각해? 오케이, 그럼 그 전제를 깔고 네가 어쨌든 기획자로서 이것을 포함한 아무리 이제 처음 네가 기획한 전시이긴 하지만. 전시를 보러 많이 다니기도 하고 했을 때, **네가 생각하는 전시라는 건 뭐야?** 혹은 그 조건은? 아니 그냥 편하게.

예를 들면, 아까 그 **이 작업실?** 이 콘셉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작가들이나 참여자들이 오해가 있었다는 게 작가, 기획자, 공간이 있으면 전시라고 생각하는 거 여기서 이 세 가지가 조건일 수도 있고. 혹은 플러스 어쨌든 내가 학부에서는 공연을 전공했으니까 거기서는 무조건 관객이 있어야지 성립이 되거든, 공연 자체는. 난 여기서는 관객은 철저히 배제를 한 상황이고, 내 입장에서는. 참여자들은 아니겠지. 다들 많이 왔으면 바라고 있으니까.

변재현: 저는 뭐 보러 오는 사람의 여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작품이 있고, 내가 전시라고 하면 전시인 거죠. 이게...

정찬용: 네가 이제 부여하는 거야? “이것은 전시다.”

변재현: 뭐 꽃에 이름을 불러주면...

정찬용: 어렵다고 얘기한 거 치고는 너무 위험한 발언 아니야? 근데 “내가 전시라고 하니깐 전시지”, 이거지.

변재현: 근데 한스 올리히 오브리스트도 그렇고 어쨌든 찬용 쌤은 그렇게 저한테 말을 했지만 어쨌든 물리적인 공간이 있는 거고. 물리적인 공간이 없더라도 그게 전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좀 막연한 것 같긴 해요. 저 안에 있는 그 개념 자체도 뭐 혹자는 전시라는 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고, 뭔가 시의성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말들은 많지만. 뭐 박물관학이라고 뭐 그런 학문을 만들어 놓기도 했지만. 시험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미술이라는 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전시라는 게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냥 뭐 내가 규정하는 거 아닌가,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내가 뭐 누군가의 전시를 보고 전시다 아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어쨌든 내 판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찬용: 너 너무 약간 약간 너무 조심스럽게 또. 아까 그런 질문이 있었잖아 “너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이거 있었잖아. 약간 사리는데?

변재현: 원래 좀 조심스럽죠. 그런 것 같아요. 작품이 있으면.

정찬용: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시가 사전적 의미의 그냥 말 그대로 그 한자어 전시가 아니잖아. 뭔가 되게 전시라는 게 되게 상징화돼 있고 뭔가 이상화돼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진짜 속된 말로 이 말 자체가 속된 말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되게 웃긴 건데. “야 무슨 인사동 같아”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 “과제전하냐? 혹은 뭐 동아리 아니야? 동아리 전시회 아니야?” 이것도 사실 이 논리라면 다 전시인데. 어쨌든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잖아. 네가 이거는 그게 아니라...

변재현: 봤을 때 그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처음은 뮤지엄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미술 전시라는 걸 경험하는 게. 뭐 어릴 때가 될 수도 있고, 미대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필드 트립을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되는 다른 무수한 형태의 전시들. 을지로라든지, 문래라든지 뭐 그런 공간에서 보는 전시들. 저는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이것도 전시구나’ 하면서 ‘그럼 왜 이게 이거는 전시가 아니지?’

이렇게 그냥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그냥 뭐 다 전시다 그들이 전시라고 하니까.’ 뭔가 그렇게 되는…

정찬용: 너무 배려해 주고 또 남을 존중해 주는. 그래서 괜히 또 열받네. 맞아, 맞기도 한데 틀리기도 한 것 같아.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냥 뭔가 선을 긋는 건 아니지만 그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은 전시가 될 수도 있고 전시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면

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큐레이터나 기획? 전시 기획을 하는 기획 같은 경우에. 뭐 큐레이터도

이제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고 무언가를 하지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파이를 차지하는 게 사실 전시잖아. 어떤 전시 형식의, 비엔날레라든지

어떤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전시를 기반으로 한. 예를 들어서 뭐 뮤지엄만 해도 소장전만 한다고 해도 거기도 이제 소장 연구 플러스

소장 전시를 매번 기획해 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을 너무 무색하게 만드는 발언이 아닐까?

변재현: 또 그렇게 치면 목적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 관점이라면 비엔날레도 그렇고 소장품전도 그렇고 어쨌든

그 목적을 갖고 하는 거니까.

정찬용: 그럼 이거의 목적은 뭐야? 전시니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변재현: 이거의 목적 아니 저는 전시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이거의 목적?

정찬용: 이 전시의 목적? 그래, 재미. 재미면 어때? 근데 어쨌든 이거는 재현의 기획이지만 참여 작가가 6명이나 되니까 적어도 이게 전시건

전시가 아니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자들 간에 일종의 전시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방금 어떤 그 스탠스라면

작가들이 동의할까?

변재현: 진짜 재밌어 했는데 다들.

정찬용: 아니 그 목적이 아니라 누가 보면 전시고, 누가 보면 전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에 참여를 한 거잖아.

변재현: 그렇죠. 근데 저는 전시라고 봤으니까 그들은 전시에 따라 온 거죠.

정찬용: 그러니까 이 전시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전시라는 것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합의가.

변재현: 이 작가들이랑 제가 돼야 된다고요?

정찬용: 돼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게 그게 사실은 전시라는 가장 큰 꿀 아니야? 세부적인 건 다룰 수 있겠지 CV 하나 채우기 위해서 혹은

이게 아무 경험이 없으니까 혹은 뭐 저 작가가 좋아서 아니면 운동 전시가 없는데 참여해 보고 싶어서 이런 거는 다 이제 개개인의 어떤

목적일 수 있겠으나 이거는 공동 작업이니까 이거를 함께 하는 다 같이 운동하려고 이걸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작업을 전시해

놓을 필요는 없는 거지.

변재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법령적으로 다른 걸 다 포괄하지 않더라도 이게 그냥 전시라고 우리끼리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찬용: 그러니까 그게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인 거잖아. 어쨌든 네가 “저 이런 거 할 건데 같이 하실래요?” 했을 때 이런 게 뭔지

다 알잖아. 그 암묵적인 합의가 누가 보면 전시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는 아닐 것 같다는 거지.

변재현: 지금 좀 더 드러내라 이거죠, 지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시의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뭔가 이게 기획을 하게 된 단계로까지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되게 그 몸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몸이랑 다른

것들을 미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고.

정찬용: 아까 말했던 그 거리감?

변재현: 거리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내 몸이 아니라 그냥 그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했고. 뭔가 건강한 것들이 막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몸을 경유했을 때 나오는

무언가들이. 그 되게 아프거나 뭐 그런 형태들만 내가 봐온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 되게 시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획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정찬용: 너 되게 스무스하게 딴 얘기로 잘 넘어간다.

변재현: 그래서 작가들한테 작가들한테 그렇게 뭔가 이 콘셉트들이나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이런 거 못 본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이랬고. 뭐 어떤 작가는 “자기는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해야 될지, 어디서 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정찬용: 아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야. 그러니까 막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뭔가 이렇게 요새 콘텐츠가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

유튜브도 그렇고 막 인스타그램에도 어떤 뭘 하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막 현대미술 작가들 순위 읊어주면서 막 뭐 설명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했을 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뭔가 계속 포장을 하는데 사실 그냥 이거 치고받고 하는 어떤 장박에 안 되는 것 같거든.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언어가 뭐, 미술 언어 이런 말은 쓰기 싫은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어떤 형식이 미술 안에서 통용되는

그거고 우리끼리는 이제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통용이 되지만, **우리끼리 암묵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벽이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나는 그 외부에 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설명해 주는 게 도슨트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기획자나 작가들이 어떤 토크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뭔가 해설이 심각하게 필요할 정도라면 이게 전시라는 게...

변재현: 유효한가?

정찬용: 그치,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적인 면을 따졌을 때 아까 첫 경험은 보통 뮤지엄이나 그랬을 거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는 교육적 목적이 있잖아. 공공성을 띠고 있고. 근데 이거는 어쨌든 교육적 목적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또 없다고는 말 못 하고. 여기에 어쨌든 그 내재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서브, 서브 콘텍스트는

“그러니까 너도 운동해 인마” 약간 이거잖아. 건강하세요.

변재현: 근데 약간 그런 관람객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전시 보니까 오늘 헬스장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정찬용: 엇그저께 올라온 스토리 보니까 막 철봉 서준이 작업은 할 엄두가 안 나서 그래서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인 거잖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작가들과 조금 접점이 없는, 나와 접점이 있는 내 주변 작가들이 이 전시를 논할 때, 우리는 사실 되게 뭔가 몰라 그냥 내 생각에는 더 그냥 솔직하고 가벼워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그건 내가 상관없는 거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모르는 거니까. 점진적 과부하에 붙은 수많은 수식어들이 나한테는 그것도 일종의 약간 포장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나는 역시 또 내 생각이 맞았다라고 하는 최근의 경험들은 뭐냐면. 누구도 우리가 막 이렇게 언급했던 글을 보면 읽을 수 있듯이 어떤 방법론, 어떤 생활과의 접점, 이런 거 보지 않아. “거기 참여하는 작가들 다 몸 좋던데요.” 작업 얘기도 아니야. 그 얘기만 해.

변재현: 맞아. 인스타에 올렸던 사진 보고 무섭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정찬용: 그리고 이제 그 수정이도 처음에 이제 막 티저를 우리가 막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잖아. 완전 이제 오피셜 하기 전에. 그때도 그래서 오프닝 날 못 갈 것 같다고.

변재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감혀 있지만 이게 일종의 배제가 또 될 수 있는 거니까.

정찬용: 그런 맥락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네가 조금 공감하지 못하거나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는 다른 신체성에 대한 얘기들이...

변재현: 그들에게도 이게 안 와닿을 수 있는 거죠.

정찬용: 안 와닿기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이제 와닿는 부분이 있으니까 더 익숙한 방식으로 소비하는 거지.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체성이라는 말도 어려울 거고. 혹은 뭐 조형 이런 말도 어려울 거고. 그냥 서준이 작업이 사실 되게 명확하고, 공재의 저 큰 발이나 인바디같이 익숙한 소재들을 봤을 때는 해석의 여지나 자유도가

굉장히 높고, 별다른 설명 없이도 그냥 이것만 흐름을 따라가면 ‘이 작가는 체중에 관계없이 근육량만 집중해서 늘리고 있구나 뭐, 상승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유추해 볼 수도 있고, 서준이 작품이야말로 그거는 진짜 경험을 해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등등등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전시가 아니더라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발언은? 생각하는 거야. 내 기준에서 나는 전시가 아니어도 되지. 나는 이거 그냥 어차피 여기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프로젝트니까 실험이니까.

변재현: 근데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전시라고 믿고, 전시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제가 아까 말한 그런 누군가는 이게 전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정찬용: 그래서,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주의야? 아니면 그냥 개쌍마이웨이.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미술을 알아?”

변재현: 설득해야죠. 설득해야죠.

정찬용: 설득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야?

변재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뭐 어떤 건 전시고 전시가 아닐 수도 있고 누가 전시를 하면 전시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이게 전시라고 같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정찬용: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내가 물어본 건 단순히 취향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무언가를 봤을 때, 혹은 무언가를 비용을 지불했는데 콘텐츠가 부실할 때, ‘뭐 이게 무슨 영화야 돈 아까워’ 이런 맥락에서 전시다 기다 아니다가 아니라...

변재현: 그러니까요. 이 형식 자체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정찬용: 이게 근데 다 전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나도 생각하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변재현: 차별점이 없어진다?

정찬용: 내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의미가 없어지는 걸 떠나서 거의 희석되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실용적이지도 못해. 그리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막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건 아닌데 너무 쓰레기가 많이 나와. 그리고 이제 여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도 너무 커, 이 한 달의 비용이. 시작은 전시 하나 만드는 데 이제 최소 거의 천만 원씩 쓰잖아 애들이. 그 천만 원이면 여기 월세 몇 달치가 나오니까 그럴 바에야 이게 더. 뭐라 그래요. 막 그런 거 있잖아. 공리주의 막 그런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뭐라고. 그러다가 이 사단이 난 건데 그래서 약간 그게 지금까지도 조금 어렵고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접근해야 되나가 여기는 내 작업실인데 작업실에서 열린 작은 전시. 그렇다면 이거는 기존의 오픈 스튜디오랑은 뭐가 다를까 라는 부분이 생기고. 상반기에 프로젝트라고 내가 했고, 지금 하반기에는 다 전시들인데. 이 차이는 좀 분명해졌거든. 그 과정과 결과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근데 문제는 철저히 이거는 내부자들끼리의 합의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너와 나의 이제 합일점이 없다고 해도 만약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전시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고 해도, 어차피 나는 프로젝트, 너는 전시, 우리끼리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 점진적 과부하라는 단체전에 참여한 참여자들끼리도 일종의 전시에 대한 **합의**, 이 전시에 대한 콘셉트에 대한 합의,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합의, 다 모든 게 합의였으니까 다 괜찮아. 근데 이것도 결국엔 내부의 문제.

변재현: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아까 말한 그건 거죠.

정찬용: 그러니까 이게 확산에, 확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지금 어쨌든 설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나는 이거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하고 오히려 이제 재현이가 방금 이렇게 대화 나눈 것처럼 나랑 다른 관점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저건 뭐 메타 리뷰도 해보고, ‘역시 내가 맞아’ 나는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누군가의 흑자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일 뭐가 예민하고 듣기 싫고 노이로제에 걸리는 말이야. “대표님, 대표님인데 전시 홍보 맨날 나와 계셔야죠. 신경 쓰셔야죠.” 나는 대표가 아니라니까 난 여기 관리자라니까, 약간 그런 것들. 그래서 계속 이 오해의 간극을, 결국엔 다 똑같은 거잖아. 전시를 바라보는 것도 되게 웃기게 어떤 작가는 뭐 2인전, 3인전. 단체전 이렇게 쓰는 작가들이 있고. 개인전이 아니면 다 단체전을 쓰는 작가들이 있고. 예를 들면, 캡션 적는 방식이라든가 되게 막 **사실 아무작에도 쓸모없는 거잖아.** 요새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변재현: 형식에 대한 거네요.

정찬용: 그러니까 다 보여주기 아니야? 그니까 아무리 우리가 시각 예술, 조형 예술 한다고 하는데...

변재현: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찬용: 아니 나는 이거 안 보여줘도 되지. 내 주의를 그거잖아. 이거는 내 작업실이라, 그래서 내가 이거 사실은 이거는 엄청난 합리화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나는 이거 그냥 설치해놓고 사진만 있으면 돼. 자료만 있으면 돼.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 니들이 노력을 해. 그러니까 회피일 수도 있는데 회피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동적이었거든. 내 경험상. 다 기획자가 맡아서 다 해야 되고. 그러면 기획자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라는 어떤 존재론적 의문이 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이제 항상 갖는 고민? 아까 네가 그랬잖아. 전시라는 게 네가 이렇게 불러줬었기 때문에 전시라고 하는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언제부턴가 나를 누군가가 큐레이터라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나는 내가 한 번도 큐레이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큐레이터가 뭐 하는지 몰라. 그리고 막 기획이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제 누군가가 그렇게 나를 꽃으로 대해줬기 때문에 너도 이제 꽃을 붙여줬잖아. 어디 인스타에 올리고 포스터에도 네가 직접 디자인했으니까 너도 스스로도 이름 붙여주고 그런 거잖아. 그렇긴 했는데 이 큐레이토리얼 실천이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겠지? 근데 이게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그런가? 아니면 원초적인 거라서 그런가?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 없이 다 나는 큐레이터, 나는 연구자, 나는 뭐 하는 사람, 뭐 독립 큐레이터, 누구 모시기 모시 비평가 하면 이걸 전제로 자기의 어떤 행동을 이제 가시화하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의문이 드는 거지. 이제 호기심도 있고, 다들 나 빼고, ‘나 진짜 왕따인가?’ 이러면서 ‘나 빼고 다 아나?’ 왜냐하면 난 학교에서는 왕따잖아. 그 이론 전공이 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너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같은 전공이니까. 일단 분명히 당연히 안에 합의점이 있을 텐데. 그래서 나는 학교 들어가서도 실기 전공이 열, 나 이론 하나면 애네는 모르고 나만 알아. 그럼 내가 이상한 거야.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어쨌든 뭐 잘나서가 아니라 아주 같진 않겠지만 같은 분야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가능한 거지. 만약에 작가였으면 글썄, 내 주변에서 똑똑한 작가가 없어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전시...” 이라고 말걸. “그게 왜 중요해?” 약간 이런 느낌. 본인의 작업이 더 중요하겠지. 그래서 약간 그런 게 궁금했어. 네가 생각하는 전시가 도대체 뭐지 이거는 전시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취향으로서의 전시도 되는지 이렇게 잘해서 막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사실은 네 취향이 아니야 미디어, 미디어 좋아하니까 미디어가 하나도 없어서 아쉬우니까 전시가 이걸 아닙니다. 미디어가 있어야만 전시입니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가벼운, 가벼운데 가벼울 수 없는 것 같아. 전시에 대해서, 사실 이거 그냥 재밌는 거 해봐라고 했는데 전혀 사실은 가볍다고 못하잖아, 이거, 너무 너무 그렇잖아. 설치할 때 어땠어? 중요한 건 설치할 때 상황인데. 생각과 현실은 다르잖아. 네가 상상했던 것과 얼마나 일치해?

변재현: 설치할 때... 그렇죠. 생각했던 것과 비교하면 53.7%?

정찬용: 그러면 작가들이 다 정해지고 나서 설치 직전까지의 계획과 실제 설치된 거랑 비교했을 때는?

변재현: 설치 계획과 설치가 된 거, 그건 거의 97%, 98%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좋아요.

정찬용: 그러면 잘한 거 아니야?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설치 중에 헛갈리거나 재밌었던 사건은 없었어?

변재현: 설치 중에... 이게 어쨌든 설치를 전담하는 뮤지엄처럼 설치 업체가 오는 것도 아니고, 운송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좀 더 전체를 조망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거는 그런 형식이 아니고. 제가 설치를 같이 도와주고, 나무를 망치로 치고 이려고 있는 와중에 뒤에서 벌어지는 무언가가 있었고. 이거를 내가 전체를 못 본 거잖아요. 어쨌든 그 상황에 내가 핑계를 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내가 그거를 그냥 (작가들에게) 하라고 하고, 좀 더 소통을 해서 뭔가 그게 더 스무스하게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뭔가 저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긴 해요.

정찬용: 근데 나는 너무 도와줬다고 생각을 해.

변재현: 제가? 너무 도와줬어요, 설치를?

정찬용: 그러니까 설치 자체를 도와주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로 인해서 놓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한 번에 팔이 12개라서 다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작가 한 작품을 도와주기 시작했었잖아. 서준 거 하다가 하은한테로 넘어가고. 그래서 약간 뭐랄까, '품위 유지'를 좀 했어도... 나는 그래서 작가들 있을 때는 잘 안 도와줘. 왜냐하면 사실 만졌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작품은 작가들이 만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작가를 통제하고 핸들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작가한테 얘기를 해서 "야, 너 나 믿어? 믿죠. 그러면 이거 내가 한번 새벽에 해볼게. 일단 퇴근해" 하고서 철야 작업을 해놓고 이런 경우는 있어. 근데 그게 약간 양가적인 게 나도 실패를 할 수 있잖아. 그 모습을 보여주기 너무 싫어서도 있고. 분위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뭔가 뒤에 있어야 되는 역할이잖아.

변재현: 근데 이게 운동을 같이 하고 이 전시 콘셉트와도 제가 들어가서 하는 게 맞는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정찬용: 아니 근데 그거는 맞다 틀리다의 여부를 떠나서 기획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지. **전체를 조망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지.

변재현: 근데 그때 그 순간 제 판단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정찬용: 아니 그거는 내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 틀렸어. 그날의 상황은 너무 틀린 게 뭐냐면 작가들이 한 둘씩 나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거든?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야. 왜냐하면 네가 뭘 하고 있으니까 너한테 못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나는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야. 너무 배려해 주고, 말을 너무 예쁘게 해.

변재현: 그럼요. 뜨거웠죠, 이번 여름.

정찬용: 그래서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나랑 얘기 같이 해보니까 어떤지가 제목이야. 어쨌든 기획자 혹은 큐레이터랑 같이 협업을 해본 건 처음일 거 아니야. 작가랑 할 때랑 뭐가 제일 달랐어? 우리끼리 소통할 때가 있고, 작가랑 소통할 때가 있고, 운동 말고 전시나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분명히 느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변재현: 그게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던, '전체와 부분'. 그 차이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정찬용: 근데 어쨌든 (너는) 부분을 본다며.

변재현: 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서 같이 나무 들고 만들고 있었지.

정찬용: 아니 근데 그러면 작가랑 소통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변재현: 불편하진 않았어요. 찬용 쌤이랑 얘기할 때도 불편하진 않았는데 그냥 그들의 목적성이 다른 느낌?

정찬용: 어떤 목적성? 자기를 뽐내야 되나? 자기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야 된다는 목적성?

변재현: 아니 "이걸 만들어야 된다"랑... 그러니까 "내 거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랑 "이 판을 봐야 된다"랑 그 관점 차이가 그냥 이야기할 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가들도 "내 작업이 이런데 다른 작가들 작업은 어떤 게 나올까요?"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작가들마다도 그게 다르잖아요. 내가 이거를 내 것만 볼 건지 아니면...

정찬용: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르지.

변재현: 근데 어쨌든 기획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더 먼저**

그거(판)를 보는 거죠. '내 게 있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내 거'라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정찬용: 어떻게 생각해? 네 거가 여기에서 뭐라고 생각해? 너무 아니 근데 이거 항상 약간 난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 기획자가 굳이 없어도 전시는 올라갈 수 있어. 우리는 뭔가 필수 요소가 아닌 느낌? 약간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정 없지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꺼 있다고 해도 우리의 어떤 저작권이나 크레딧이 적용되지 않아.

변재현: 근데 그거는 약간 사후의 이야기인 것 같고. 사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없으면 이 6명인 거고, 제가 없으면 이 6명이 이렇게 만날 일이 없어.

정찬용: 이 전시에 국한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작가 중에 누구라도 할 수는 있는 거잖아.

변재현: 나선다면.

정찬용: 그 부분에 있어서 작가는 되게 뭔가 필수 불가결하고, 되게 독립적이고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어디서는 큐레이터의 권력이 어찌고저찌고 막 이 난리를 치는데 사실 우리는 큐레이터가 아닌가 봐. 없어도 우리는 언제든 대체당할 수 있고, 대체할 사람 없으면 없애면 되고.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한 명 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작가들이랑 하면 그냥 찡찡거리는 걸로밖에 안 되는데, 뭔가 어쨌든 아주 관점이 같지 않더라도 뭔가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들끼리는 어쨌든 이게 우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거거나 부당한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나뉘볼 수 있는 거니까 나는 이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변재현: 그래서 뭔가 전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정량적으로 바라봐지는 전문성은 변호사, 의사 이런 건데... 미술도 뭐 어디

비엔날레 감독했다 이러면 성과나 지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뭔가 통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건 아닐까.

정찬용: 그래서 나랑 일하면서 좀 피곤했던 순간이 있었어? 솔직히.

변재현: 일하고 와서. 진짜 없었는데요.

정찬용: 너는 협업이라서 생긴 좋은 거? 좋은 순간?

변재현: 그것도 그거고. 저는 아까부터 막 부분을 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전체를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란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이 기획을 할 때, 나는 좀 더 지엽적인 걸 들고 왔는데 그걸 좀 더 넓게 보되 그걸 모으는... 다른 관점을 본 거죠.

정찬용: 근데 그거 되게 필요하지. 필요한데 이제 한편으로 나는 어쨌든 처음이니까 그냥 뭐 망하더라도 내비뒀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또 그러면서 이제 또 반면교사로 배우는 게 되게 많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너 다시는 뭐 안 할 거 같긴 하고. 이번에 너무 힘들어 보이긴 했어.

변재현: 저는 별로 안 힘들었어요.

정찬용: 너 너무... 진실만을 말해. 그래서... 그래 여기 나왔네. 너 서문 말고 따로 네가 쓴 텍스트 있었잖아. 그걸 꼭 따로 뒤야겠다고 느낀 이유가 뭐였어? 그때는 진짜 막 좀 너무 약간 내가 거절할 거라는 걸 네가 뭔가 생각하고, "저 이거를 절대 포기 못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흔쾌히 "그래 그럼 저기다가 할까?" 했잖아.

변재현: 있으면 좋겠고... 근데 전시라는 게 작품이 뭔가 다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서문이라는 것도 다 말할 수 없는 거고. 제 욕심에서 비롯된 배치긴 한데 좀 더 근데 그 글을 통해서도 이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원래는 그거를 서문으로 하려고 하기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찬용 쌤은 "이게 너무 외부인이 본 시선인 것 같다"라고도 말해줬고.

정찬용: 아니 점진적 과부하 그 자체에 대한 게 너무 크니까. 개념어에 대한.

변재현: 어쨌든 뭔가 도록에 들어갈 뭔가 부연 설명이... 그런 글이지만

제가 이 전시 주제가 계속해서 내가 이거의 당위성을 부여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찬용: 그래서 이제 마지막 파트. 이제 와서 보면 솔직히 이 전시가 너한테 남긴 게 뭐야?

변재현: 뜨거운 여름.

정찬용: 여름이었다. 전시라는 형식, 기획이라는 역할, 지금 좀 다르게 보이게 된 부분이 있어?

변재현: 공부보다 이게 재밌다? 다르게 보인 거? 근데 또 기관과의 비교를 어쩔 수 없이 제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기관에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 게 많네도 있었고 생각보다 할 게 없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찬용: 규모가 작은 대신에 분업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서는 다 네가 결정하면 되니까.

변재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가 결정하게 되는 막중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한다는 게 어찌 보면 처음이니까. 그것도 제가 뭐 이렇게 해서 보고만 했지 “이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그거를 처음 경험해 보고 그런 결단을 함에 있어서 좀 더 단호해져야겠다.

정찬용: 단호해졌어?

변재현: 이제 해지겠죠.

정찬용: 이제 해지겠다는 거는 그래도 뭐 한다는 얘기네. 앞으로도. 전시 다 끝나고 나서... 아, 아직 전시가 안 끝났으니까. 어쨌든 전시회 오픈했는데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은 요거 좀 더 보완하면 좋았겠다 싶은 게 있어? 글?

변재현: (침묵)

정찬용: 너무 지금 100점짜리 전시인가 봐 너한테. 그렇게 하자. 마지막이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시를 한 문장으로 말해 본다면?

변재현: 뜨거운 여름, 뜨거운 여름.

정찬용: 다음 전시 제목 ‘여름이었다’. 이상으로 생각보다 길게 했는데요.

되게 확실히 아까 그런 질문이 있었지만 나는 작가들이랑 할 때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 훨씬 뭔가 이렇게 얘기도 탄 데로 벗어나지 않고. 왜냐하면 작가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어떤 한 개념이라든지 어떤 컨셉이라든지 이게 너무 이제 생각하는 게 달라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이만큼 얘기하고 다시 본론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래서 그거를 사실 방지하려고 프로젝트를 한 건데. 그랬는데도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어. 근데 지금도 분명히 어쨌든 나이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지만 어쨌든 이 뭔가 ‘행위’라는 일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

변재현: 그렇죠 비슷하게 느끼는... 말은 안 하지만...

정찬용: 난 말할 수 있어. 이 부분이 좀 별로고 누가. 이 부분에서는 누가 잘못된 게 맞고 사실은. 약간 그런 거? 아무튼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하고. 철수 잘해라잉. 마지막 한마디 해주세요. 언제 올라갈지 몰라.

변재현: 다음 전시도 기대해 주세요.

정찬용: 이게 근데 니 다음 전시에 올라간 이후에도 편집이 안 될 것 같아. 아무튼 여기까지.

5. 태도의 문법

우리는 큐레이터라는 직능이 작품을 선별하고 평가하는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주목한 것은 창작이 발생하기 위해 필수적인, 그러나 전시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는 보이지 않는 하부 구조(Infrastructure)였습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조건 설계(Condition Designing)’란 단순히 전시를 기획하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가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립감을 해소하고,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성과 중심의 미술계에서 안전한 ‘유예의 시간’을 확보해 주는 일입니다. 즉, 큐레이팅을 작품을 배치하는 미학적 연출이 아니라, 창작의 생태계를 돌보고 관계를 조직하는 윤리적 실천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큐레이터가 심판관이 아닌, 창작의 토양을 일구는 정원사이자 보이지 않는 건축가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전환은 기록의 방식 또한 변화시켰습니다. 전시가 주어와 서술어가 완벽하게 호응하는 매끄러운 ‘문장’이라면, 비전시적 실천은 문법에 맞지 않아 툭툭 끊어지고 더듬거리는 ‘발화’ 그 자체입니다. 세상은 이 더듬거림을 비효율적인 소음이라 부르며 지워버리려 했지만, 우리는 그 불완전한 소음 속에 창작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결과물을 자랑하는 화보집 대신, 과정의 진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건강한 신체만을 보여주는 것은 리얼리티의 절반을 숨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획 과정에서 터져 나온 오류와 갈등, 그리고 우연한 사고라는 ‘증상(Symptom)’들을 통해, 예술이 현실과 부딪히며 살아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결과 뒤에 숨겨진 상처가 아니라, 가장 뜨거운 맥박의 흔적입니다.

*부록 - 참고문헌

브라이언 오 도허티. 『하얀 입방체 안에서: 갤러리 공간의 이데올로기』. 심상용 옮김. 서울: 안그라픽스, 2006. (원서: O'Doherty, Brian. Inside the White Cube: The Ideology of the Gallery Space. Expanded Edi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Bishop, Claire. Artificial Hells: Participatory Art and the Politics of Spectatorship. London: Verso, 2012.

Groys, Boris. Art Power. Cambridge, MA: MIT Press, 2008.

Phelan, Peggy. Unmarked: The Politics of Performance. London: Routledge, 1993.

이 모든 증상과 맥박은 ‘공간’이라는 가장 까다로운 파트너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책에서 공간은 작품을 암전히 담아내는 수동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물리적 결합과 제약으로 가득 찬 지하실은 큐레이터와 작가의 의도에 끊임없이 개입하고 저항하는 능동적인 행위자(Actant)였습니다. 공간이 가하는 제약은 작가에게 새로운 움직임을 요구했습니다. 벽에 걸 수 없기에 작품은 스스로 일어서야 했고, 좁은 통로를 지나기 위해 형태를 바꿔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마찰(Friction)’은 기획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작품이 공간과 관계 맺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에너지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큐레이터와 작가의 의도(입력값)가 공간이라는 저항값(변수)을 통과하며 어떻게 변형되고 진화하는지를 실험한 치열한 기록입니다.

6. 에필로그 - 완결되지 않는 프로토콜

결국 전시는 끝이 난대도

김대욱

찬용씨로부터 처음 에필로그 글을 의뢰받고 흔쾌히 수락했지만, 마감이 다가오면서 고민이 깊어갔다. 이 책을 디자인한 디자이너이자 공간의 마지막 프로젝트 <흘러넘치는, 피어오르는, 되돌아가는>에 참여한 참여자로, 그리고 공간이 있기 전의 가능성을 알고 있던 사람으로 이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함께 대학원 수업을 듣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찬용씨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움을 알고 있었기에 그가 말한 어느 정도의 온도로 이 글을 써야 할지 대략 짐작하고 있지만서도 웬지 그대로 하기 싫은 기분이 들었달까. 그런 고민을 하다 책을 디자인하고 전체를 읽어보면서 내가 오래 마음에 남아 있던 부분을 생각해 보았다. 나는 이 책을 디자인하면서 특히 팟캐스트 부분을 재밌게 보았는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미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각자의 관심사나 작업 분야도 달랐지만 찬용씨와의 대화를 나누면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진심을 내비치는 순간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고를 읽고 내가 흥미롭다고 느낀 부분에 자의적으로 어떤 표시를 남기는 것을 디자인 컨셉으로 제안해 보았고, 승낙 후 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책을 관통하는 질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거에 대한 목적이 뭐야?
너무 감춰두는 거 아니야?
이건 전시야 프로젝트야?
뭐라고 생각해?

찬용씨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을 속으로 읽어 보며 그의 목소리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다. 누군가에게는 팔짱 낀 모습으로, 또 누군가에게는 조금 답답하다는 말투로, 또 누군가에게는 웃는 얼굴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이 질문을 포착하며 찬용씨의 또렷한 목소리를 생각했다. 그리고 보면 찬용씨는 앞의 질문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어떤 태도를 표명하는 것을 선호하는 듯했다. 대학원 수업에서도,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작업 관련 회의나 미팅에서도 적당히 어물쩍 넘어가는 듯한 순간에 다다르면 분위기를 환기하듯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그것은 언제나 깊이 들어가 생각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에 가까웠다. 물론 그것이 강압적이거나, 어떤 편에 서기를 던지시 강요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정말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사람의 물음에 가까웠달까. 질문을 해놓고 물음에 가까웠다는 말이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대화를 할 때 순수한

물음을 담아 질문을 던지지 않는 대화를 꽤나 경험하게 된다. 던지지
떠본다거나, 원하는 답을 유도한다거나, 솔직하게 말하자고 해놓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서 적당한 답을 건네거나... 그래서 정말 나의
생각이 담긴 대답을 원하는 찬용씨의 물음을 들으며 처음에는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여러 번 대화를 나누고 그가 던진 이야기를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갈 때면 이런 생각을 했다. 무언가에 대해 명백하게
말하기를 요청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특정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것보다는 비슷한 정도의 태도를 갖추기를 바라는
것에 가깝지 않을까. 이 책을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글을 읽는 이는 그 질문에 대해 자신만의 답을 생각해보며 다시
페이지를 넘기고, 그러다 보면 찬용씨가 던진 질문은 발화의 순간을
넘어 불특정 다수의 누군가에게, 더 나아가 예술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확장해 나간다. 우리는 어쩌면 이 당연한
질문에 대답하기를 멈춰두진 않았는지.

갤러리도 대안공간도 아닌, 이곳의 정체성을 흔한 말로 어물쩍 넘기지
않고 큐레이터의 작업실이라는 하나의 공간을 오롯이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할 수 있는 태도와, 매 순간 손해볼 것임을 알면서도
이 게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현실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현실적이고 숫자에 빠른 사람이 강남구
삼성동 한구석에 시한부 공간을 얻어낸 까닭은 무엇일까. 단순히 흥미
때문에? 논문의 표본이 필요해서? 커리어나 포트폴리오로 쓰려고?
그것도 저마다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공간의 태동기부터 막을 내린
지금까지 적정한 거리를 두고 지켜본 입장에서는, 그에게 로맨티스트의
심장이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현실을 뼈저리게 자각한
자일수록 매사에 시니컬한 투로, 한계와 제약을 명확히 정하고
들어가자는 태도로 일관하지만 이상하게나마 어떤 구석에 남아 있는
요상한 낭만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 이미 죽고 말라버린 화분을
버리지 않은 채 그곳에 물주는 일을 빼먹지 않는 것. 너무 바빠서

그마저도 잊은 날엔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자책하는 것. 그러나 그
모습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것.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
반 동안, 그를 바라보며 느낀 생각이다.

이 글은 한 책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적절할지 잘 모르겠다. 어쩌면
찬용씨는 후회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써 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하며 다시 글을 써달라고 말하거나, 이 부분은 빼도 되겠냐며 질문을
적어보거나, '이거 혹시 내 디스 아니야?'라며 친구들에게 물어볼지도
모르겠다. 혹시 나에게 또 글을 의뢰할 일이 있다면 그땐 한 번
심호흡을 하며 메일을 적을지도 모르겠다. 명명백백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그럼에도 지금 꼭 한 번 이렇게 말하고 싶다. 결국 전시는
끝이 난대도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곳에 있던 기록과 기억이 남아
있을 거라고 말이다.